

# 제4차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2022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용역



## | 제출문 |

부산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 | 목차 |

## I. 과업개요

- 1. 과업목적과 범위 .....9
- 2. 참여 연구진 ..... 10
- 3. 과업수행 방법 및 추진경과 ..... 11

## II. 부산 미래유산의 개념과 범위

- 1. 부산 미래유산의 개념 ..... 9
- 2. 기 선정 부산 미래유산 검토 ..... 22

## III.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군 선정

- 1.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군 선정기준 및 과정 .....13
- 2. 제4차 부산 미래유산 예비목록 ..... 86

## IV.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 기초현황조사

- 1.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 기초현황조사 .....77

## V. 부산 미래유산 활용방안 제언

- 1. 부산 미래유산 활용 현황 및 제언 배경 ..... 9
- 2. 부산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 26
- 3. 부산 미래유산 활용 기본방향 및 전략 ..... 253
- 4. 부산 미래유산 효율적 추진 체계 ..... 27
- 5. 부산 미래유산 활용 추진 방법 및 과제 ..... 88

## 참고문헌



# 과업개요 I

1. 과업목적과 범위
2. 참여 연구진
3. 과업수행 방법 및 추진경과







# I. 과업개요

## 1. 과업목적과 범위

### 1.1 과업명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용역

### 1.2 과업목적

- 「부산 미래유산제도」의 체계적·안정적 추진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2022년도 제4차 부산 미래유산 선정 및 미래유산의 가치 연구
- 부산 미래유산 제도 및 부산 미래유산 선정 결과 공유

### 1.3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전체(조례개정에 따라 근현대로 한정)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 내용적 범위 :
  - 제3차 부산 미래유산(11건) 자료집 발간
  -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27건) 기초현황조사
  - 부산 미래유산 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 기 선정 부산 미래유산 추가 조사

### 1.4 과업기간

2022년 04월 18일 ~ 2022년 09월 30일 (166일)

## 2. 참여 연구진

### 2.1 연구자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책임연구원	김 정 선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연 구 원	정 진 아	컬처블록 더함	대표
	김 윤 희	석당학술원	특별연구원
	배 병 옥	동아대학교	강사
연구보조원	김 주 연	컬처블록 더함	팀장
보 조 원	이 슬 지	컬처블록 더함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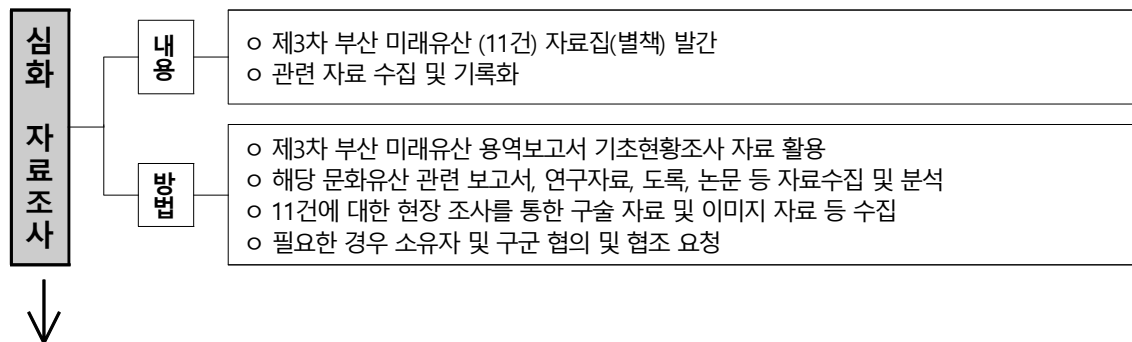
### 2.2 자문위원 (가나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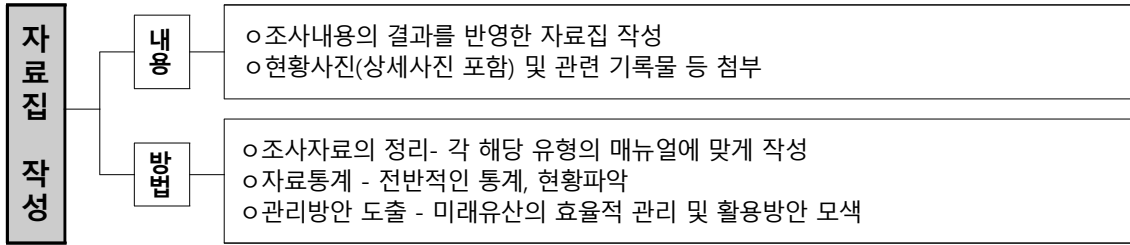
성명	소속	직위	전공
공 윤 경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건축도시공학
김 기 수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근대건축
김 희 재	부산대학교	교수	한국사회사
류 승 훈	부산박물관	팀장	민속학
민 현 석	서울연구원	연구원	도시설계, 역사보전, 시민참여
전 성 현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	근현대, 지역사
정 의 도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고고학
차 철 옥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근현대사
황 경 속	부경대학교	외래교수	민속학

## 3. 과업수행 방법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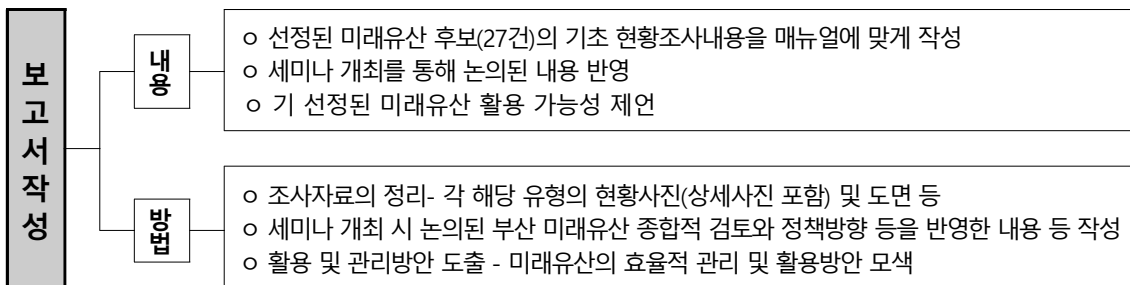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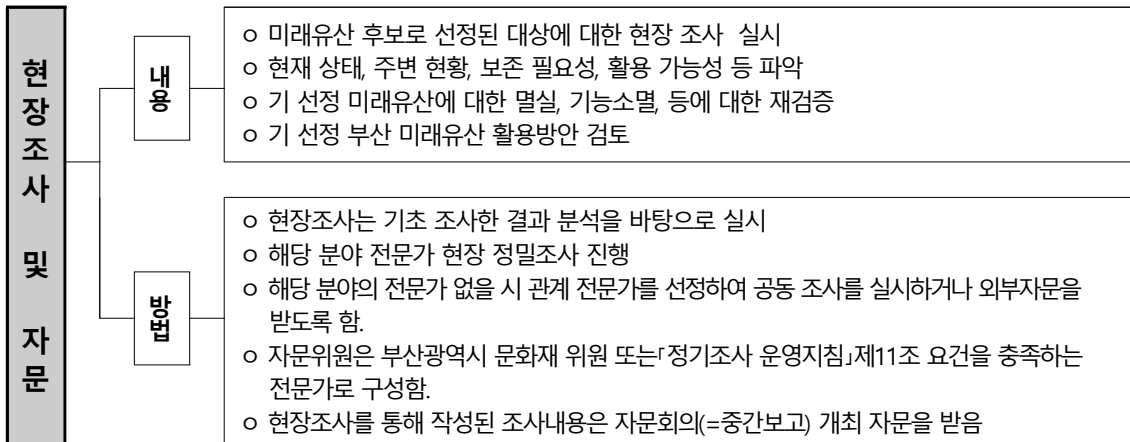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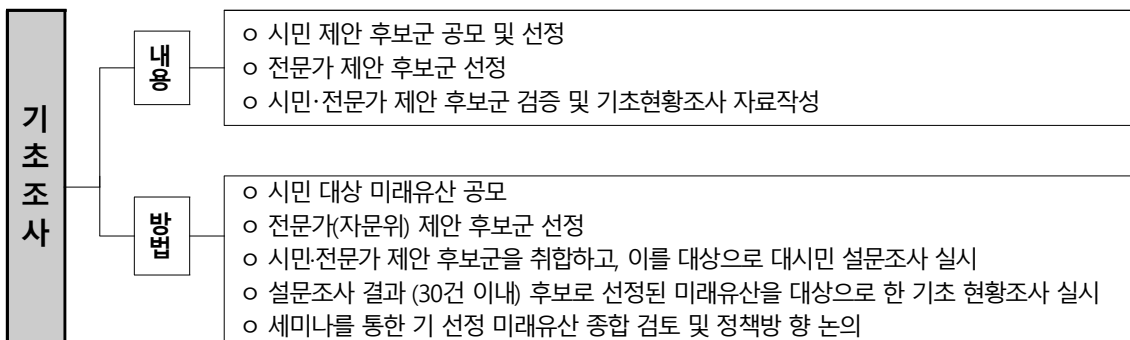
### 3.1 과업수행방법

#### 3.1.1 자료집 발간(심화연구)





3.1.2 제4차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및 기 선정 미래유산 검토 및 정책 방향 등



### 3.2 보고 및 자문결과

#### 3.2.1 착수보고회

- 일 시 : 2022년 5월 10일 (화) ~ 5월 16일 (월)
- 장 소 : 서면자문
- 참석인원 : 류승훈위원, 전성현위원, 차철욱위원 (가나다순)
- 내 용 : 2022년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용역 과업내용 및 방향
- 의견 및 방향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미래유산 개념과 시기 설정 미래유산과 문화재와 차이점, 그리고 양자의 보완관계 등 정리 필요 미래유산의 시간적 범위로 조정(근현대 부산으로 한정하는 조례 입법예고) 기 선정된 근대이전 유산 검토 필요</li> <li>○ 부산 미래유산 선정기준 및 중장기 계획 필요 기 선정 미래유산 문제점 분석 제시 새로운 후보군의 선정 근거 기준 제시 필요 후보군 중 연도별로 미래유산 분야를 검토해서 선정할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li> <li>○ 부산 미래유산 제도 관련 세미나 타 시도 미래유산의 성과와 방향(서울, 전주, 파주) 종합적 토론 및 부산의 문제점과 제도확산을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 필요 세미나 개최에 따른 부산시의 역할 매우 중요(타 시도 연구 사례 발표에 해당 지자체의 지원현황 등 공유되길 기대) 미래유산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함</li> <li>○ 부산 미래유산 활용 콘텐츠 활용 가능성 제언 항목 중 홈페이지 개설, 아카이빙 구축 등 현시점에서 시간적으로 모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확실하게 가능한 콘텐츠 구축 제안이 필요 지도 표기(공공앱 지도 등 특정 부호를 활용한 부산 미래유산이 표기) 미래유산 가치 발굴 및 대시민 홍보 방안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실시 요망</li> <li>○ 기타 선정기준이 모호한 것은 매년 연구 용역기관이 다른 원인도 있음 따라서 이번 용역으로 선정기준이 잘 정비가 되어 앞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미래유산을 지정할 수 있을 것 제3차 부산 미래유산 자료집 발간 E-BOOK 제작은 1~2차 내용이 제외되어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것과 함께 향후의 E-BOOK 제작을 염두에 두어야 함 이후 차년도 미래유산 선정 시점에서 기존 연구팀이나 미래유산위원 등 관련 연구자들과 사전 논의가 진행되길 요망</li> </ul>
----	--

### 3.2.2 중간보고회

- 일 시 : 2022년 8월 9일 (화) 14:00~16:00
- 장 소 : 동아대학교 국제관 회의실 403호
- 참석인원 : 공윤경위원, 김기수위원, 김희재위원, 정의도위원, 황경숙위원(가나다순)
- 내 용 : 2022년 부산 미래유산제도 조사·연구 용역 중간보고
- 의견 및 방향:

<b>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미래유산제도가 현재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연차별 목록 선정에 연구보다는 제도의 개념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유산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li> <li>○ 향후 다음 세대에 유산의 가치 중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li> <li>○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유산의 가치와 설명을 알리는 것이 좋음</li> <li>○ 부산의 지역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 전체의 지역을 전수조사하기보다 부산내에서도 각 지역별 특성이 세분화되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나누어 연차별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 모색</li> <li>○ 시민으로부터 자발적인 참여와 앞으로 미래유산제도를 이끌어 나갈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하기보다, 민간으로 진행을 이관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 모색 필요</li> <li>○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용역 발주는 심화연구와 유산 선정 연구의 동시 진행방식이나, 두 연구를 나누어 각각 발주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연구 성과물의 향상을 위한 방식으로 의견 도출</li> </ul>
-----------	--



중간보고회 광경

### 3.2.3 최종보고회

- 일시 : 2022년 9월 15일 (화) 14:00
- 장소 : 동아대학교박물관
- 참석인원 : 김희재위원, 정의도위원, 차철욱위원, 황경숙위원 (가나다순)
- 내용 : 2022년 부산 미래유산제도 조사·연구 용역 최종보고
- 의견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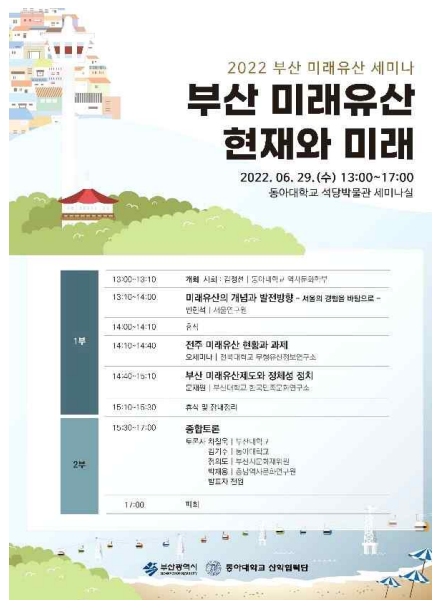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미래유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부산을 권역으로 나누어 미래유산 선정 작업을 심화시키고 이 제도를 부산시민 모두의 사업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번 최종보고서에 지적 사항에 대한 것은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봄</li> <li>○ 미래유산제도가 부산시의 문화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이에 상당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시민의 관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li> <li>○ 기 진행된 연구 용역 뿐 아니라 이번 심화연구에 대한 지향점은 지정된 미래유산에 대한 소개와 내용 나열이 대부분임. 심화연구에서 미래유산의 가치를 담을 수 있게 하여 미래유산을 지정함으로써 새로운 세대 등이 성찰할 수 있도록 의미와 스토리텔링을 부여하여 전달되어야 함. 따라서 왜 미래유산이 선정되었는지, 미래가치가 무엇인지 등 자료 수집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선택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임</li> <li>○ 미래유산의 개념은 문화재와 다른 성격이므로 선정가치 기준이 유연성이 있어야 함. 조례에 나와있는 소멸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보단 감성적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존재하기에 차후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li> <li>○ 지역적 차원, 국가 차원에서의 유산의 의미는 다르며, 해당 유산이 지역의 가치를 말하는 미래유산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의미를 찾아 내야 함</li> <li>○ 심화연구의 내용이 기존연구성과를 재활용한 측면이 강하므로 기존의 자료정리를 넘어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li> <li>○ 이번 용역사업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미래유산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번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산시나 미래문화유산위원회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절차에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li> </ul>
----	--



최종보고회 광경

### 3.3 학술세미나

- 일시 : 2022년 6월 29일 (수) 13:00~17:00
- 장소 :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 발표내용:
  - 미래유산의 개념과 발전방향\_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_민현석(서울연구원)
  - 전주미래유산의 현황과 과제\_오세미나(전북대학교무형유산연구소)
  - 부산미래유산제도와 정체성 정치\_문재원(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성과:
  - 미래유산제도를 선 시행중인 서울시와 전주시 사례를 공유하고 방향성 검토
  - 2020년 연구팀의 미래유산제도의 문제점 공유
  - 시민들의 문화재와 미래유산에 대한 범주, 인식의 차이
  - 선정기준의 통일성 필요, 타 시도 사례 참조
  - 미래유산에 대한 지속성 필요
  - 연구 용역의 일관된 정책 필요
  - 추후 활용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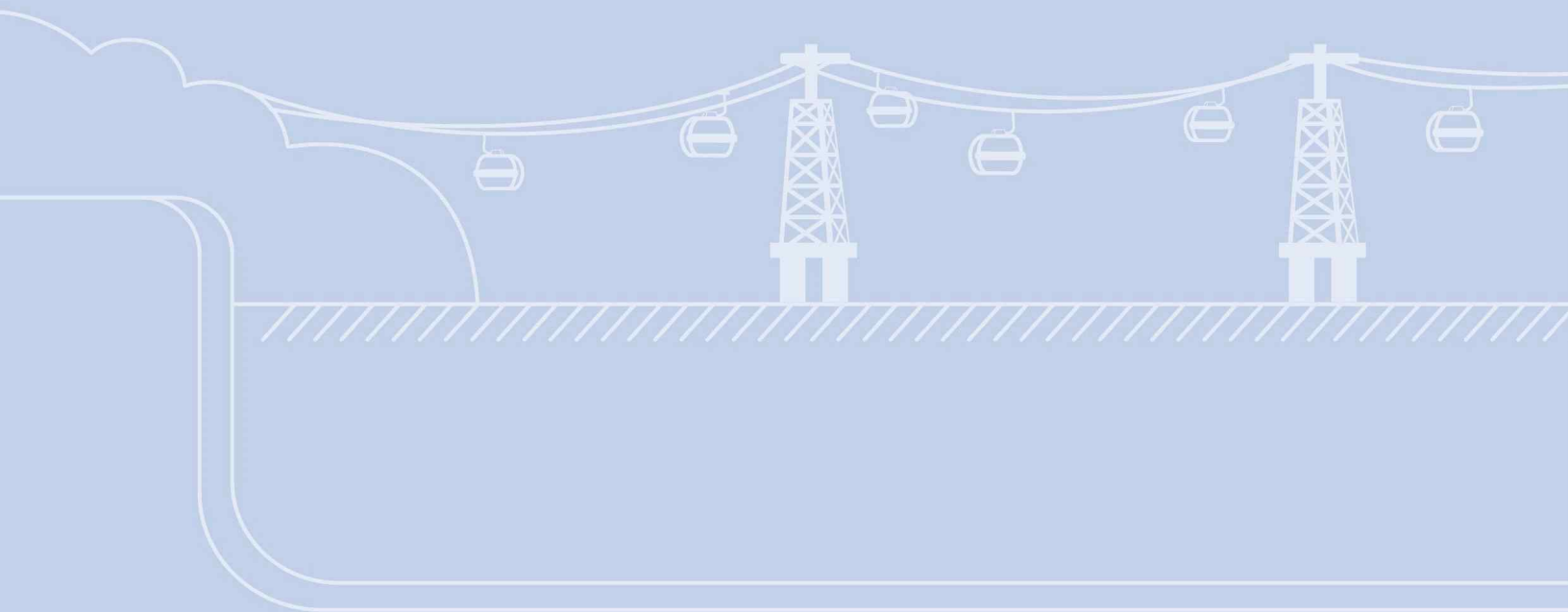
학술세미나 포스터 및 광경





# 부산 미래유산의 개념과 범위 **II**

1. 부산 미래유산의 개념
2. 기 선정 부산 미래유산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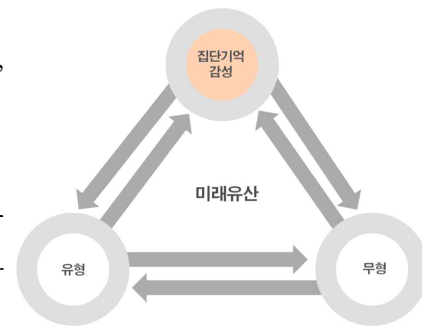


## II. 부산 미래유산의 개념과 범위

### 1. 부산 미래유산의 개념

#### 1.1 미래유산의 개념 및 특징

- ‘미래유산’이라는 용어 및 개념은 2012년 서울시의 ‘근·현대 유산의 미래 유산화 기본구상(안)’에서 출발
-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에 담긴 유·무형의 자산으로, 비문화재이며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5)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용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
- ‘미래’는 시간적 개념뿐 아니라, ‘지속 가능(Sustainable)’이라는 유네스코의 유산 개념을 통합하는 단어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미래 지향성을 의미
- ‘유산’은 후대에 남길 가치가 있는 근·현대 자산 가운데 지정, 등록 문화재가 아닌 공동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유·무형의 것으로, 집단기억의 매개체로서 유산의 가치에 주목
- 집단기억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 제프리 올릭(Jeffrey K. Olick) 등이 언급한 것처럼 기억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공간, 상징물, 시간 등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도 밀접하게 관련



미래유산과 집단기억

- 이처럼 집단의 기억과 감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유산은 ‘원형보존의 계승’을 중시하는 기존 문화재와 달리 공유성, 비전문성, 미래지향성을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음
- 공유성은 함께 만들어 온 공동의 기억과 감성을, 비전문성은 전문성에서 벗어나 사람들 간의 정서적,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임을, 미래지향성은 박제되고 고정된 것이 아닌,

구성원들의 수용과 인식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치의 유동성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을 의미

- 따라서 미래유산은 선정, 보전, 활용의 전 과정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님



미래유산의 개념과 가치

## 1.2 부산 미래유산의 개념 및 범주

- 부산 미래유산은 2019년 관련 조례(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및 2022년 일부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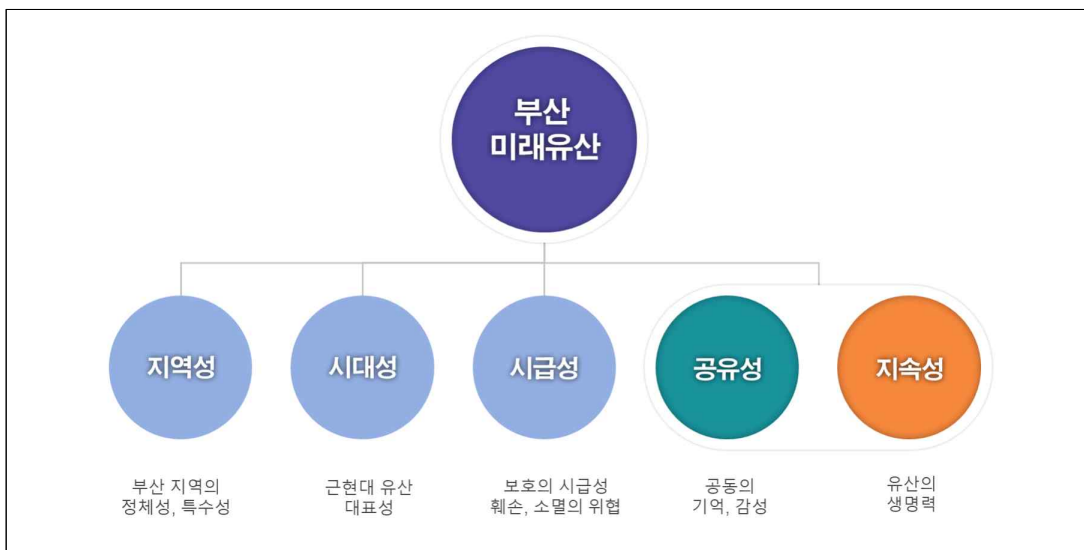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 「부산광역시 근대건축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근현대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 나.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
2. “부산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 2019-11-06, 일부개정 2022-07-06)]

- 근·현대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험, 기억하고 있는 유·무형의 것 혹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거나 알릴 수 있는 것 가운데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

- 즉, 부산 미래유산은 집단의 기억과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유산의 개념 및 기초를 공유하면서도 부산의 역사, 문화 규명과 소개를 추가(제2조 1. 나)하여 타 지역과 구분되는 부산만의 차별성, 정체성을 주요 항목으로 상정
- 다만, 집단기억의 매개로서 유산의 가치를 중시하는 미래유산의 취지를 고려할 경우, 가. 항목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제2조 1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수정 논의가 필요
- 이상의 부산시 미래유산 조례와 미래유산의 출현 배경 및 개념을 근거로 사업단에서는 미래유산 선정에 있어 지역성, 시대성, 공유성, 지속성, 시급성을 주요 가치 범주로 설정, 특히 공유성과 지속성은 문화재와는 구분되는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밀접
- 지역성 : 부산을 배경 또는 소재로 하여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
- 시대성 : 부산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사건, 인물, 사물, 장소 등과 관련 있을 것
- 공유성 : 부산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유산일 것
- 지속성 :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현재에도 잔존, 전승, 재현, 시행되고 있을 것
- 시급성 : 해체, 소멸의 위험이 있는 것



미래유산의 범주

## 2. 기 선정 부산 미래유산 검토

### 2.1 선정 기준 분석 및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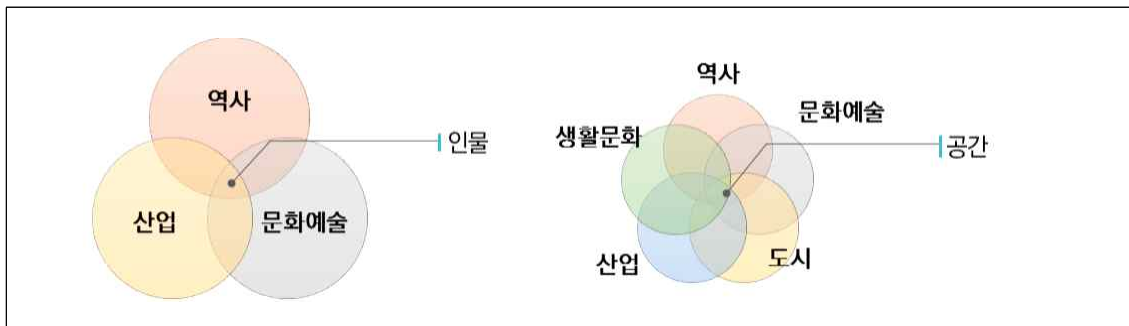
#### 2.1.1 선정 기준의 구체성

부산 미래유산은 현재 유산의 성격에 따라 역사, 산업, 도시, 생활문화, 문화예술의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건조 및 형성 30년 이상, 인물은 사후 20년 및 1930년대 이후 출생으로 규정

#### ■ 부산 미래유산 분야별 기준(1~3차 기준안)

분야	기준	비고
역사	-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생성된 문화유산 -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와 시대상이 반영된 시설물, 공간, 인물, 이야기 등	친일 등 논란 소지가 있는 유산 제외
산업	- 지역산업의 성장 배경이 되는 산업유산, 산업 활동 공간, 물품, 인물 등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품	소유자 등의 이익과 직결되는 유산 제외
도시	- 부산 역사와 도시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경관, 건조물, 항만, 도로, 마을, 랜드마크 등	
생활문화	- 부산 시민들의 생활방식이 축적된 의·식·주 -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이 반영된 시설물·공간·물품 등 - 교육, 종교, 의료 관련 생활사적 가치가 축적된 특화거리	공공기관 주관 축제, 행사 등 제외
문화예술	- 부산 지역의 가치와 시민의 정서가 담긴 예술작품 및 관련 시설 - 부산의 상징적 예술가와 활동 - 문화예술과 관련된 축제	

- 현 기준은 유산의 외형적 특징 혹은 형상(유형-동산, 부동산, 자연물, 무형-생활유산, 예술 활동, 기타자료)을 근거로 한 분류와 달리, 연구진의 유산 해석에 따라 성격 및 분야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음
- 5개 분야에서 인물, 공간은 대체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며, 우선 선정 기준을 비롯해 세부 규정에 대해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및 소분과별 논의가 필요



부산 미래유산 분야 및 대상

- 예를 들어 장기려기념관(2020년 선정)은 역사 인물보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현재 생활문화 유산으로 선정되었으나, 기존 항목에 인물에 대한 정의 부재
- 따라서 유산의 성격이 중복될 경우 인물의 특화 분야나 업적, 공간의 성격, 예술품의 가치 등을 우선시하는 구체적인 기준 명기 필요
- 인물의 경우 미래유산의 개념에 따라 인물 자체보다는 인물을 기억할 수 있는 매개를 대상
- 시간적 범위는 장소, 인물뿐 아니라 저작물(작품 제작, 출간 등)에 대한 시기 설정 요구

■ 구체적 기준예시

[문화예술]

부산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주요한 인물의 가옥, 작업 공간, 작품 가운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

- ① 부산에서 삶의 주요시기를 보낸 인물로 사후 20년, 1930년대 이전 출생
- ② 작품 제작과 관련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소
- ③ 작품이 제작, 출간된 지 40년 이상
- ④ 작품에서 부산의 생활상, 장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

2.1.2 제외 항목에 대한 재고

- 현재 부산 미래유산은 친일 등의 논란 소지가 있는 유산, 소유자 등의 이익과 직결되는 유산, 공공기관 주관의 축제, 행사를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2022년 조례 변경으로 시간 범위가 근·현대시기로 축소되었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친일 등 부정의 유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
- 부산의 주요 기업, 노포 등 소유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유산을 비롯해 공공기관 주관의 행사, 축제가 선정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후보 선정의 폭을 확대하고 미래유산의 다양성 확보 및 콘텐츠 활용 등을 고려하여 제한 조치에 대한 유동적인 적용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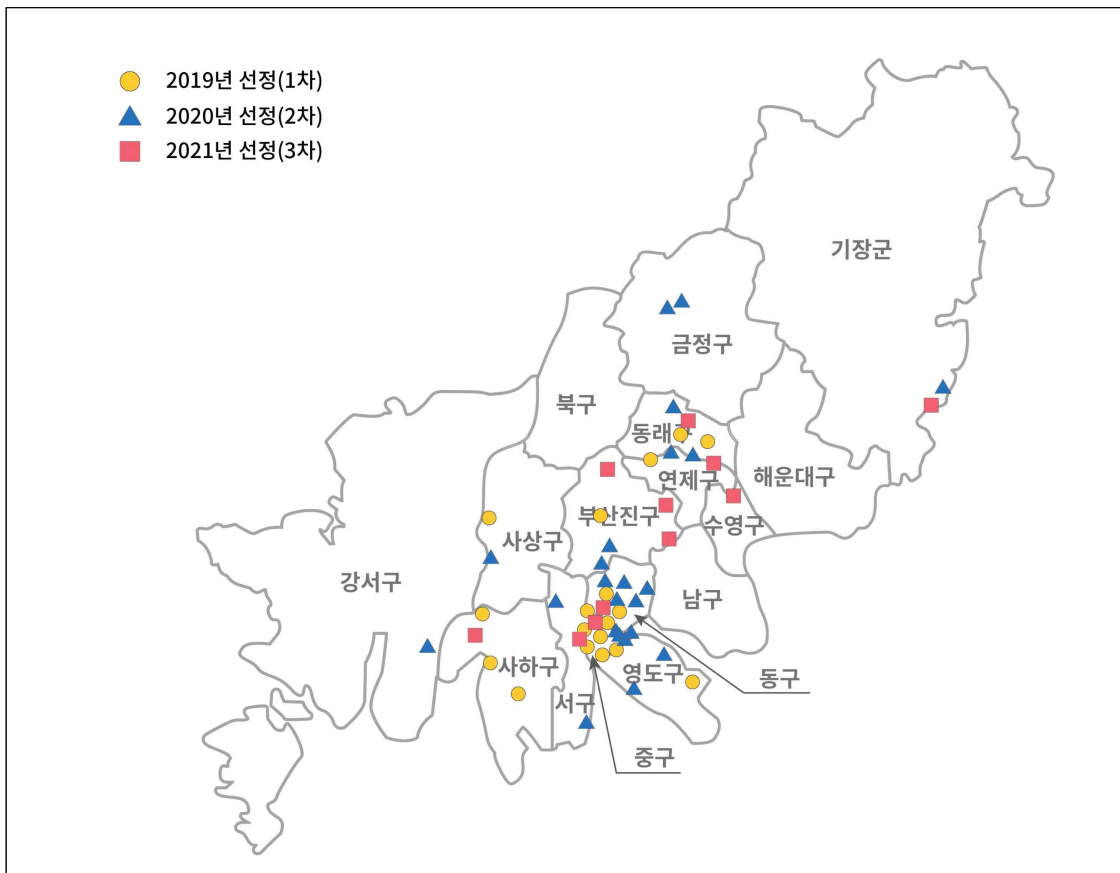
2.1.3 개별 유산 선정의 필요성

- 현재 부산 미래유산은 소유자의 이익, 유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개별 단위(식당, 문학 작품 등) 보다는 관련 유산 전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
- 이는 사업 활동 간의 메커니즘이나 지역의 특수성, 유산의 특징 등을 이해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억과 감성의 매체로서의 유산의 가치 및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세부 별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소유자 이익에 대한 제한 항목, 선정 기준의 구체성과 연동하여 논의 요구

■ 부산 미래유산 단위별 선정목록(1~3차)

년차	미래유산	년차	미래유산	년차	미래유산
제1차 (2019)	돼지국밥	제2차 (2020)	어묵	제3차 (202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밀면		기장대멸치		부산의 봉수대 (황령산 봉수대)
	-		요산문학관		기장미역
	-		동래파전		안용복 관련 유적
	-		낙동강 재첩국		박재혁의사 유적

2.2 기 선정 부산 미래유산 현황



기 선정 부산 미래유산 현황도(2019~2021)

- 1, 2, 3차 부산 미래유산 60건을 대상으로 2019년 선정 이후의 멸실, 기능 소멸을 중심으로 한 현황조사 실시
- 2019년 선정된 제1차 부산 미래유산 총 20건 가운데 멸실, 기능 소멸 가능성이 큰 유산



은 아래와 같음

■ 부산 미래유산 2019년 선정목록 및 현황

연번	제1차 부산 미래유산	현상유지	현황	비고
1	부마민주항쟁	현상유지	국가기념일 지정	
2	산복도로	현상유지		
3	부산사투리	현상유지		
4	초량왜관	현상유지	표지석 잔존	조례변경으로 검토필요
5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현상유지		조례변경으로 검토필요
6	자갈치시장	현상유지		
7	국제시장	현상유지		
8	다대진성	현상유지		조례변경으로 검토필요
9	명지염전	소멸		개발사업 추진 중
10	상해거리(구 초량청관거리)	현상유지		
11	조선키네마주식회사	현상유지		표지석 보완 필요
12	박차정 생가터	현상유지		
13	부평강통시장	현상유지		
14	용두산공원	현상유지		
15	영도선착장	현상유지		
16	보수동책방골목	일부 소멸		개발사업 추진 중
17	돼지국밥	현상유지		
18	밀면	현상유지		
19	어린이대공원	현상유지		
20	6월 항쟁도	현상유지		일부 물감 박락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 조성되었던 명지염전의 경우, 1960년대 생산이 중단되고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염터마저 사라진 상황
- 2019년 발굴 조사를 통해 염전부지, 배수로, 소금 창고 터가 발굴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대에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고 있으며, 표지석, 안내판 등의 설치가 시급
- 보수동 책방골목은 1970~80년대 70여개의 점포가 현재 33개 정도로 줄었으며, 최근 3년간 11곳이 매각, 1곳 이전
- 최근 건설사와 철거 대신 리모델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KNN 2022. 5. 15) 중에 있으나, 보존, 유지를 위한 계획 시급



부산일보 2021. 10. 28



보수동 책방골목(2022. 8)

· 2020년 선정된 제2차 부산 미래유산 총 29건 가운데 멸실, 기능 소멸 가능성이 큰 유산은 아래와 같음

■ 부산 미래유산 2020년 선정목록 및 현황

연번	제2차 부산 미래유산	현상유지	현황	비고
1	부산시민공원	현상유지		
2	40계단	현상유지		
3	백산기념관	현상유지		
4	부산세관	현상유지	일부 잔존 (부산세관 내)	
5	동래기영회	현상유지		조례변경으로 검토필요
6	조선방직 총파업	-	지명 잔존(조방앞)	
7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현상유지		
8	부산부두 총파업	-	대상 부재	
9	어묵	현상유지		
10	기장 대멸치	현상유지		
11	구포은행	현상유지	우리은행 구포지점	
12	근대조선업발상지	현상유지		
13	남선창고	현상유지	일부 잔존 (초량마트 내)	
14	금강공원	현상유지		
15	동해남부선	현상유지		
16	제뢰등대	현상유지		
17	녹산제1수문	현상유지		
18	부산터널	현상유지		
19	송도해수욕장	현상유지		주변 개발로 경관 훼손
20	장기려기념관	현상유지		

21	금정산누룩방	현상유지	
22	동래파전	현상유지	
23	낙동강 재첩국	현상유지	
24	구덕운동장	현상유지	재개발 사업 예정
25	청학성당	현상유지	
26	동광동 인쇄골목	현상유지	
27	부전동 공구골목	현상유지	
28	BIFF광장	현상유지	
29	요산문학관	현상유지	

- 최근 몇 년 간 송도해수욕장 주변 재개발로 고층 건물들이 준공되면서 경관 훼손 우려
- 구덕운동장은 체육문화복합시설공간을 목표로 현재(2022년) 타당성 조사 및 사업방안 수립 중에 있음
- 조선방직총과업(지명 잔존), 부산부두총과업은 대상(매개물)이 부재한 유산으로, 포지식, 안내판 등의 설치가 시급



국제신문 2022. 3. 26



부산일보 2021. 7. 27

- 2021년 선정된 제3차 부산 미래유산 총 11건 가운데 멸실, 기능 소멸 가능성이 큰 유산은 아래와 같음

■ 부산 미래유산 2021년 선정목록 및 현황

연번	제3차 부산 미래유산	현황	비고
1	부산지역 3.1운동 발생지	현상유지	
2	민주공원	현상유지	

3	부산의 봉수대(황령산 봉수대)	현상유지	1976년 복원	조례변경으로 검토필요
4	감천문화마을	현상유지		
5	온천천	현상유지		
6	충혼탑	현상유지		
7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일부폐지		부산시 친환경 정책
8	기장미역	현상유지		
9	안용복 관련 유적	현상유지		
10	박재혁의사 유적	현상유지		
11	우장춘 유적	현상유지		

- 2017년 부산의 상징 동백꽃과 연고 기업을 상징하는 진주홍색 봉다리(봉투)를 사용한 사직 야구장 응원 문화가 공식화되었으나, 2021년 부산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에 따라 폐지
- 이 외에 1~3차 미래유산 가운데 2022년 부산광역시 조례 변경(근·현대 유산)으로 초량 왜관,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다대진성, 동래기영회, 부산의 봉수대(황령산 봉수대)의 미래유산으로서의 유지 또는 해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
- 다만, 동래읍성, 동래기영회는 동래읍성 역사축제, 사단법인 동래기영회 등을 통해 지역 축제와 다양한 사회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전승, 유지되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멸실, 기능 소멸 가능성이 큰 유산에 대한 방지 및 보전 시스템 구축 절실



**멸실, 훼손방지 및 보전시스템구축**

- 정기 점검 및 목록 관리
- 유형별 보존 관리 가이드라인 설정
- 체계적인 DB 구축
- 관리를 위한 조례, 법령 개정(위기의 미래유산 선정)

미래유산 관리 역량, KBS 뉴스 등록일 2021.0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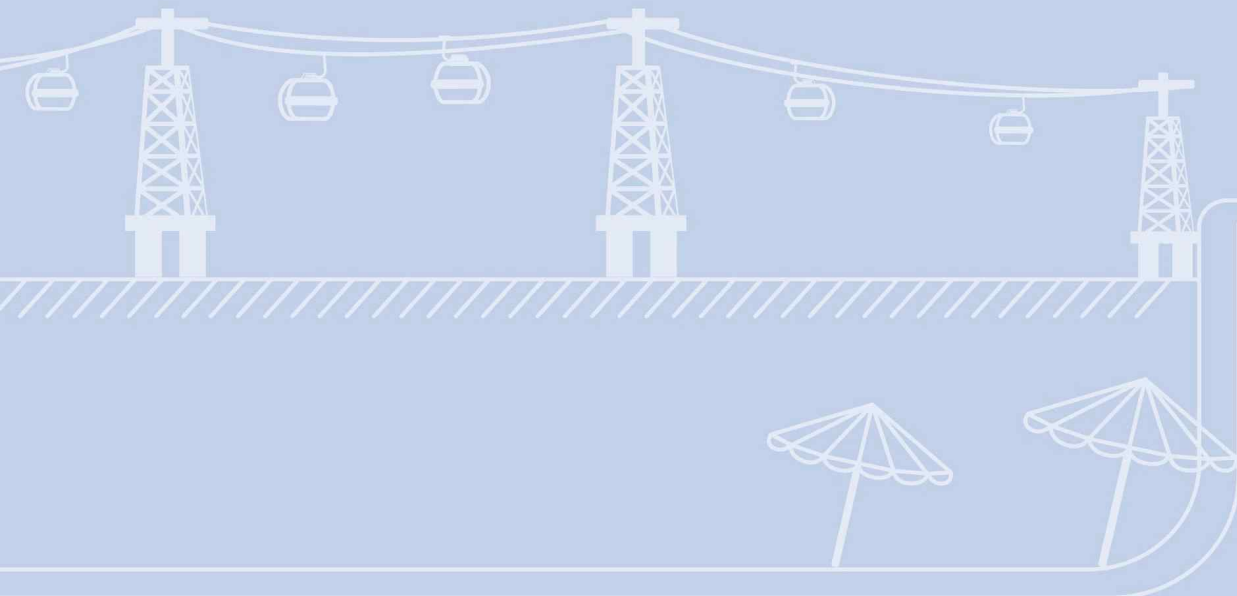
멸실, 기능 소멸 방지 및 보전 시스템 구축



#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군 선정

## III

1.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군 선정기준 및 과정
2. 제4차 부산 미래유산 예비목록





## Ⅲ.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군 선정

### 1.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군 선정기준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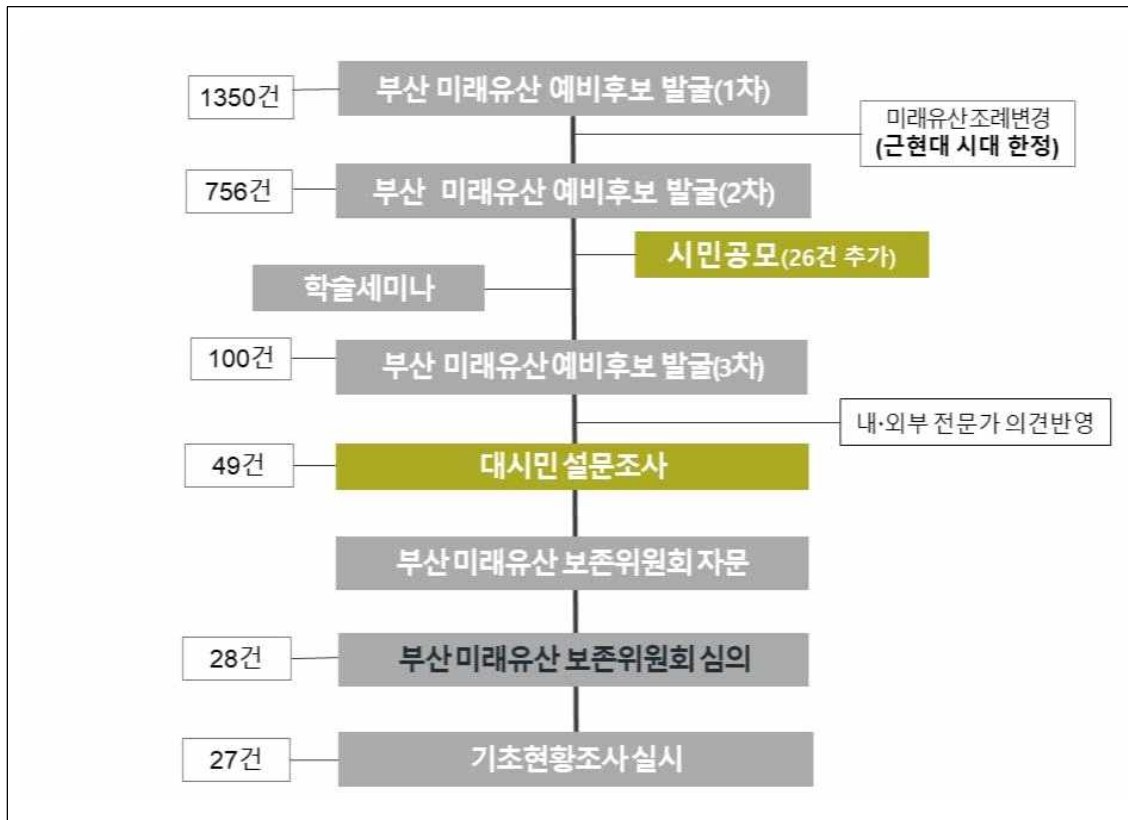
#### 1.1 부산 미래유산 분야별 선정기준

■ 부산 미래유산 분야별 선정기준

분야	분야별 기준	예외
역사	-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와 시대상이 반영된 시설물·공간·인물·이야기 등 -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생성된 문화유산	친일 등 논란 소지가 있는 유산 제외
산업	-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산업의 성장배경이 되는 산업유산, 산업 활동, 공간, 물품, 인물 등 - 부산의 산업시설·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상품	소유자 등의 이익과 직결되는 유산 제외 (단,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할 수 있음)
도시	- 부산의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도시 경관과 구조물 등 - 부산 역사와 도시 발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조물, 항만, 도로, 마을, 랜드마크 등	
생활문화	- 부산 시민들의 생활방식이 축적된 의·식·주 및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이 반영된 시설물·공간·물품 등 - 교육, 종교, 의료 관련 생활사적 가치가 축적된 시설물 등을 포함	공공기관 주관 축제·행사 등 제외
문화예술	- 부산지역의 가치와 시민의 정서가 담긴 예술작품, 시설물, 예술가 등 - 부산의 상징적 예술가와 활동 - 문화예술과 관련된 축제	

- 2019~2021년의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반영
- 우선 선정기준을 부여: 인물의 업적 및 공간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고려
- 기억과 감성의 매체로서의 유산의 가치 및 향후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세부 별건으로 선정  
예) 요산문학관 ⇒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 이미 소멸된 유산은 제외

## 1.2.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조사 선정 과정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조사 선정 과정 흐름도

### 1.2.1 부산 미래유산 예비후보 발굴

· 참고문헌 자료<sup>1)</sup> 등을 통한 1350건 데이터 수집·정리

1) 부산광역시, 2005,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  
 부산광역시, 2018,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데이터베이스-건축역사문화자산』  
 부산광역시, 2018,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데이터베이스-문화예술자산』  
 부산광역시, 2018,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데이터베이스-자연자산』  
 부산광역시, 2018,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데이터베이스-해양호국역사문화자산』  
 부산광역시, 2018,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2019, 『부산광역시 근대건축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집』  
 부산광역시·복천박물관, 2005, 『문화유적 분포지도-기장군』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2006, 『문화유적 분포지도-부산광역시』1.2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2020 부산미래유산 조사 연구보고서』  
 부산광역시·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2021 부산미래유산 조사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소, 2016, 『부산의 생활문화유산』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디지털 아카이브 <https://www.iha.go.kr/service/index.nihc>  
 부산관광공사 <https://bto.or.kr>  
 부산광역시 해양정보 <https://www.busan.go.kr/ocean/obusan>  
 부산디지털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시대변경 개정 (2022.07.06)에 따라 시기를 근·현대로 한정하여 756건 정리
- 756건 자료 + 세미나 결과 + 시민공모 결과 + 1. 2. 3차 연구 용역 후보군 교차 확인 후 부산 미래유산 세부 선정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역성, 시대성, 공유성, 시급성, 지속성으로 100건 선별 목록 확보

1.2.2 시민공모

- 공모목적 : 예비후보 목록 발굴과 별개로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미래유산 공모 추진
- 모집기간 : 2022년 5월 6일(금) ~ 6월 7일(화)
- 공모대상 : 부산 사람들이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
- 심사기준 : 제안하는 유산이 부산을 대표하고 미래유산에 적합한지를 심사함
- 시상내역 : 문화상품권, 커피 모바일 쿠폰 증정
- 접수방법 : e-mail 접수(부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 접수)
- 공모결과 : 35건 공모 제안, 이 중 지정문화재와 기 선정된 미래유산 제외한 27건 목록 확보



## ■ 부산 미래유산 시민공모 결과

번호	공모 제안 유산	비고
시민공모 1	“청사포 해녀의 삶”	
시민공모 2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시민공모 3	동삼동 패총전시관	지정문화재 관련 제외
시민공모 4	최치원선생추념헌공다례제 (매년10월중순동백섬정상개최)	
시민공모 5	부산지하철 종이 승차권	
시민공모 6	구월산	
시민공모 7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시민공모 8	자갈치 배	
시민공모 9	부산대학교	
시민공모 10	부산 동구 산복도로	기 선정 미래유산 제외
시민공모 11	안창 마을 야외 호계천 갤러리	
시민공모 12	부산공동어시장	
시민공모 13	선서바위	
시민공모 14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시민공모 15	부산 용당 해녀	
시민공모 16	광안리 드론쇼	
시민공모 17	부산 평화공원	
시민공모 18	바위를 뚫고 자란 소나무	
시민공모 19	곰장어	
시민공모 20	동삼동패총	지정문화재 제외
시민공모 21	부산근대역사관	지정문화재 제외
시민공모 22	범어사	지정문화재 제외
시민공모 23	영도대교(영도다리)	지정문화재 제외
시민공모 24	성공회성당	지정문화재 제외
시민공모 25	임시수도기념관	지정문화재 제외
시민공모 26	증산공원	
시민공모 27	자성대	지정문화재 관련 제외
시민공모 28	진시장	
시민공모 29	조방낙지볶음	
시민공모 30	하단포구	
시민공모 31	세병교 건널목 초소 쉼터	
시민공모 32	아홉산 숲	
시민공모 33	신발원(만두가게)	
시민공모 34	모래톱 이야기	
시민공모 35	밀다원시대(소설)	

1.2.3 부산 미래유산 예비목록(49건)

- 발굴된 100건에 대한 목록 중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49건 예비목록 확보
- 49건 목록 및 내용은 3장 2절 참조 (p.68)

1.2.4 학술세미나

- 일시 : 2022년 6월 29일 (수) 13:00~17:00
- 장소 :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 발표내용:
  - 미래유산의 개념과 발전방향 \_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_ 민현석(서울연구원)
  - 전주미래유산의 현황과 과제 \_ 오세미나(전북대학교무형유산연구소)
  - 부산미래유산제도와 정체성 정치 \_ 문재원(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성과 :
  - 미래유산제도를 선 시행 중인 서울시와 전주시 사례를 공유하고 방향성 검토
  - 2020년 연구팀의 미래유산제도의 문제점 공유
  - 시민들의 문화재와 미래유산에 대한 범주, 인식의 차이
  - 선정기준의 통일성 필요, 타 시도 사례 참조
  - 미래유산에 대한 지속성 필요
  - 연구 용역의 일괄된 정책 필요
  - 추후 활용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진행

1.2.5 대시민 설문조사

- 설문대상 : 지역성, 시대성, 공유성, 시급성, 지속성 기준 예비목록 총 49건
- 설문기간 : 2022년 7월 20일 ~ 2022년 8월 2일
- 설문방법 :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수렴
- 설문결과 : 780명 참여, 중복투표 가능, 결과표 참조

■ 부산 미래유산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득표순 정렬)

연번	분류	명 칭	득표수	득표율
1	도시	오륙도등대	421	5.67%
2	산업	회동수원지	368	4.96%
3	도시	부산역	327	4.41%
4	역사	부산진일신여학교 만세 운동 기념비 일신여학교(현 동래여고)	293	3.95%
5	생활문화	구포 국수	280	3.77%
6	생활문화	부산 공동어시장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 경매	255	3.44%
7	역사	가덕도 대항 인공 동굴	249	3.36%

연번	분류	명 칭	득표수	득표율
8	도시	부산진시장	246	3.32%
9	문화예술	가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234	3.15%
10	문화예술	부산시민회관	220	2.96%
11	문화예술	영광도서	200	2.70%
12	생활문화	부산평화시장	195	2.63%
13	산업	고려제강 고려제강수영공장(F1963)	191	2.57%
14	도시	안창벽화마을	183	2.47%
15	도시	구 부산진역사	180	2.43%
16	산업	대선주조	175	2.36%
17	생활문화	자유시장	170	2.29%
18	산업	대신동 전차 종점 기념비	165	2.22%
19	문화예술	부산문화회관	162	2.18%
20	문화예술	가요 '굳세어라 금순아'	154	2.08%
21	역사	외양포 포대	152	2.05%
22	도시	부산여객터미널(1905부관페리)	152	2.05%
23	생활문화	초량 1941	151	2.04%
24	생활문화	곰장어	147	1.98%
25	도시	꽃마을	136	1.83%
26	도시	장림포구	135	1.82%
27	산업	다나카조선철공소/다나카수리조선소	121	1.63%
28	생활문화	일신기독병원	119	1.60%
29	문화예술	유치환(시인)	118	1.59%
30	생활문화	동향성당	115	1.55%
31	산업	황동 탄광	112	1.51%
32	역사	장자등포대(구 육군문서보관소)	111	1.50%
33	문화예술	부산 찬가	110	1.48%
34	도시	물만골 마을	109	1.47%
35	문화예술	모래톱 이야기(김정한 소설)	100	1.35%
36	역사	동굴집(주점)	97	1.31%
37	문화예술	최민식 (부산관련 사진)	94	1.27%
38	문화예술	가곡 '보리밭'	91	1.23%
39	생활문화	백구당	85	1.15%
40	문화예술	가톨릭센터	77	1.04%
41	산업	사상공업단지	72	0.97%
42	문화예술	밀다원 시대(김동리 소설)	64	0.86%
43	산업	대저수리조합건물 (현 강서도시재생열린지원센터)	53	0.71%
44	문화예술	금수현(작곡가)	53	0.71%
45	문화예술	영화 갯마을	52	0.70%
46	생활문화	경남상업고등학교(현 부경고등학교)	46	0.62%
47	문화예술	김종식 (생가 / 남장기념관)	39	0.53%
48	문화예술	김민부(시인)	24	0.32%
49	문화예술	박병제 (부산관련 그림)	17	0.23%

### 내가 뽑은 2022년 부산 미래유산?

---

설문기간 | 2022-07-20 09:00 ~ 2022-08-02 18:00

---

마일리지  
부여점수 | 200

---

부산 미래유산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으로, 2019년에 최초로 선정된 이후 올해 또한 '2022년 부산 미래유산'을 선정합니다.

— 부산 미래유산 선정기준 —

1. 근현대 부산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2.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것
3. 그 밖에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부산 미래유산은 부산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100년 후의 보물'입니다.

어려분께서는 어떤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래의 미래유산 후보 중에서 10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미래유산 후보목록 보기](#)

부산 미래유산 대시민설문조사 게재 (부산시 홈페이지)

#### 1.2.6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자문

- 자문대상 : 시민 설문조사 다득표 순 49건
- 자문방법 : 부산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서면 자문, 8명 참여
- 자문내용 :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후보 목록군 중 미래유산으로서의 타당성 및 역사, 도시, 산업, 생활문화, 문화예술 분야별 내용 자문
- 자문결과 : 8명의 서면 자문결과 문제 소지가 될만한 유산 제외함, 제시된 유산 중 동일 건에 대해 보존위원 간의 의견 상이한 부분 발생, 미래유산을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부여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음을 확인, 다득표 순서대로 목록 확보

#### 1.2.6. 부산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 기초현황조사 대상 후보 총 28건
- 대상목록 : 대시민 다득표순 + 보존위원회 자문결과 + 중간보고회 결과 설문조사 49건에서 득표율 1.5% 이상 차지한 32건 중 부산 미래유산 분야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총 28건 심사대상으로 선정
- 심의방법 : 보존위원회 위원 개별서면심의(11명)
- 심사결과 : 위원 전체(12명) 과반수 이상 득표(7명)건을 선정, 28건의 대상 중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1건을 제외한 27건 기초현황조사 대상 선정

## ■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사 결과서

번호	분야	부산 미래유산 후보 목록	적정	부적정
1	역사	가덕도대항 인공 동굴	7	4
2	역사	부산진일신여학교 만세 운동	9	2
3	역사	외양포 포대	8	3
4	역사	장자등 포대	6	5
5	산업	회동수원지	10	1
6	산업	구 고려제강 수영공장 (F1963)	10	1
7	산업	대선주조	9	2
8	산업	대신 전차 종점 기념비	11	0
9	산업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 경매	10	1
10	도시	오륙도 등대	11	0
11	도시	부산역	8	3
12	도시	안창마을	10	1
13	도시	장림포구	8	3
14	도시	꽃마을	9	2
15	생활문화	구 부산진역사	11	0
16	생활문화	부산평화시장	7	4
17	생활문화	구포국수	11	0
18	생활문화	부산진시장	7	4
19	생활문화	곰장어구이	8	3
20	생활문화	자유시장	7	4
21	생활문화	동향성당	10	1
22	생활문화	일신기독병원	10	1
23	문화예술	부산시민회관	10	1
24	문화예술	부산문화회관	7	4
25	문화예술	유치환(시인)	9	2
26	문화예술	영광도서	11	0
27	문화예술	가요 '굳세어라 금순아'	9	2
28	문화예술	가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8	3

■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사 결과서 세부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			
유산명	가덕도대항동굴	구분	역사
주소	강서구 천가동 83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지역성
내용	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군이 미군 상륙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덕도 대항 마을에 만든 인공 동굴이다. 10여기 정도 남아 있으며, 아픈 역사가 담긴 현장이지만 후세를 위한 현장 학습의 장이자 향토사 연구의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인접 외양포 포대와 함께 기술요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7 부적정 4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			
유산명	부산진일신여학교 만세 운동	구분	역사
주소	동구 정공단로 17번길 17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지역성
내용	<p>부산지역 3·1 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3.11과 4.8일 독립 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기념한 기념비가 1984년 부산시에 의해 조성되어 현재 동래여자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다. 부산진일신여학교만세 운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3·1 운동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공동체 위기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헌신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p>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2021년 유산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와 다소 겹침	△
위원3	건물 자체의 의미 보충 필요	○
위원4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하고자 하는 비가 있음 만세운동의 성격이 항목에 추가되었어야 함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시 지정기념물과 운동을 따로 하는 이유 불필요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9 부적정 2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3			
유산명	외양포 포대	구분	역사
주소	강서구 가덕해안로 1319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지역성
내용	외양포가 있는 가덕도는 외호 방어기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일본은 1904년 포병 제2중대의 포대 진지 설치를 시작으로, 해방 직전까지 수차례 보수 공사를 거듭하여 일본군 군사 시설로 활용되었다. 현재 외양포 마을 내부에는 포대 사령부실과 관사, 사무실, 창고 등 관련 군사 시설이 다수 남아 있어 일제 침략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교육적 의의가 크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일제강점기 일본이 설치한 포대 목록이 많은 지역 안배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8 부적정 3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4			
유산명	장자등 포대	구분	역사
주소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로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지역성
내용	대륙까지 침략하기 위해 일본이 부산을 전초 기지로 삼고, 1930년대 장자등 포대 지구, 탄약고 등을 조성했다. 일제강점기 전초 기지로서의 부산의 모습과 군사 시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공유성이 부족함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일제 군사시설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일제 잔재라는 의견과 함께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 득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현황조사 대상에서 제외	적정 6 부적정 5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5			
유산명	회동수원지	구분	산업
주소	금정구 수원지로 58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내용	1930년대 양수시설 확충을 위해 설치한 인공 저수지이다. 이후 1950년대 ~70년대 부산의 인구 증가에 따라 수차례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2010년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근현대기 상수도 관련 토목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양수시설 및 인공저수지는 성지곡수원지(어린이대공원과 분리)가 공유성, 시대성이 더 높음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일제 잔재 저수지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0 부적정 1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6			
유산명	구 고려제강 수영공장 (F1963)	구분	산업
주소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공유성 지속성
내용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으로, 지역 철강 산업의 명맥을 잇고 있는 기업이다. 수영공장은 고려제강의 첫 공장으로, 1963년 개장했으며, 2016년 옛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문화복합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무응답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0 부적정 1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7			
유산명	대선주소	구분	산업
주소	동래구 여고로 77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공유성 지속성
내용	<p>부산에 본사를 둔 소주 제조업체로 1930년대 동구 범일동에서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사케를 만들던 대일본양조에 대응해 대조선(大朝鮮)의 줄임말 대선(大鮮)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BN그룹이 인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근현대 주조산업의 역사를 함께 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p>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무응답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9 부적정 2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8			
유산명	대신동 전차 종점기념비	구분	산업
주소	서구 구덕로 350 영도구 절영로 57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내용	53년 동안 부산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랑을 받아 온 전차의 종점 터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현재 대신동, 영도에 남아 있다.(온천장은 개인 사유지로 표지석 부재) 대신정선은 1928년에 개통했으며, 근대 교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역사 현장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명칭을 '전차종점기념비'로 하고 대신동, 영도를 포함하면 좋겠음	○
위원3		○
위원4		○
위원5	타 전차종점기념비 포함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1 부적정 0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9			
유산명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경매	구분	산업
주소	서구 충무대로 202 (부산공동어시장 내)	예비 선정사유	지역성 시급성
내용	손가락 경매방식. 중매인이 손가락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전통방식으로, 수산도매시장의 원형기 술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전승되며 희소한 전통거래방식으로, 최근 일부 전자거래로 변경되 는 가운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항목명을 조정해야함. 수지상향식 경매라는 한자식표현, 주체가 분명하도록 수정되어야함 (예, 수지상향식 경매문화 등)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0 부적정 1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0			
유산명	오륙도 등대	구분	도시
주소	남구 오륙도로130(용호동)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지역성
내용	1876년에 부산항이 개항되고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 앞으로 배들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등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37년 11월에 무신호소와 함께 오륙도 등대가 개설되었다. 오륙도 등대가 세워진 섬은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부산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은 오륙도 등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등대가 축조되자마자 부산항의 상징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1 부적정 0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1			
유산명	부산역	구분	도시
주소	동구 중앙대로 206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공유성
내용	<p>부산역(釜山驛)[철도]은 경부선이 개통됨에 따라 철도 관련 영업·관리·건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08년 4월 1일 임시 정거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부산 정거장 본관과 부대설비 공사에 착수하여 1910년 10월 역사를 준공하였다. 현재 당시의 부산역은 남아있지 않으나, 부산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도시 발전을 대변해주는 장소이다.</p>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옛 부산역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현 역사는 다른 위치에 1968년 지어져 2003년 증개축된 건물임, 설명을 보면 옛 부산역에 대한 내용만 이어 유산으로 선정되기 어려움, 현재 부산역과 연계하여 설명한다면 가능	△
위원3	현재성 중심, 장소성 문제 고민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8 부적정 3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2			
유산명	안창마을	구분	도시
주소	동구 안창로 89번길 일대	예비 선정사유	공유성 지역성 시대성
내용	안창마을은 한국전쟁 때 모여든 피란민들의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된 부산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일컬어지는 도심 속 오지이다. 산간 분지에 입지하여 도시 기반 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1970년대 전기가 들어왔고, 1980년대까지도 무허가 건물이 많았다. 부산의 50년대~80년대 역사와 시대를 공유, 기억할 수 있는 장소이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이후 '안창호랭이마을'로 불리고 있음	○
위원3		○
위원4	내용을 보면 후보목록으로 상정한 이유를 지역민이 수용할지 의문임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0 부적정 1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3			
유산명	장림포구	구분	도시
주소	사하구 장림로93번길 72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지속성
내용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는 하단포는 조선시대부터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여 내륙 지방에 운반되던 물류의 중심지이자,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구포를 거쳐 안동까지 이어지는 뱃길의 출발지로 현재는 대부분이 매립되어 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그중 낙동강하구에 아직 장림항이 남아 현재에도 어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림포구는 포구를 따라 늘어선 알록달록한 건물과 떠 있는 작은 배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현재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포구의 역할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무응답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8 부적정 3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4			
유산명	꽃마을	구분	도시
주소	서구 꽃마을로156번길 일원	예비 선정사유	공유성 지역성 시대성
내용	<p>구덕산 기슭에 형성된 자연마을로 주변에 자라는 야생화를 꺾어 팔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876년(고종 13) 부산항의 개항으로 일본인 전관 거류지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군 수송로를 조성하려고 초량 왜관에서부터 구덕 고개를 넘어 구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계기로 외지에서 옮겨 온 빈민들이 이 지역에 움막과 초가 등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한다. 당시 정착민들이 구덕산에서 채집할 수 있는 들꽃과 약초를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해 꽃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는 화훼 단지보다 구덕산을 오르는 시민들의 공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산의 발전과 시대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소이다.</p>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9 부적정 2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5			
유산명	구 부산진역사	구분	도시
주소	동구 중앙대로 380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공유성
내용	현재 여객 수송은 중단되었으며, 화물 수송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완행열차의 시·종착역 및 일부 방면 열차의 정차역으로 부산역에 버금가는 도심역사로 부산 발전 과정에 중요한 장소이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구 부산진역'으로 공간 확대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1 부적정 0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6			
유산명	부산평화시장	구분	생활문화
주소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7	예비 선정사유	공유성 시대성
내용	1940년 일제 강점기 때, 조선방직 부근에서 정기 시장인 오일장이 선 것이 그 유래로 품질과 가격 면에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무응답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7 부적정 4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7			
유산명	구포 국수	구분	생활문화
주소	북구 가람로 58번길 8 일원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지속성 지역성
내용	<p>구포국수는 우리나라에서 지명 자체로 유명 브랜드가 된 최초의 사례이다. 구포는 조선 시대부터 곡물이 모인 곳이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제분·제면 공장이 성업하기 시작하였다. 구포에서 국수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으로 피란민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60~70년대 국수 제조업체가 성행하여 발전하였고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포 국수는 개인 상표권으로 소송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구포 국수는 구포의 명물이므로 한 공장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부산에서 나오는 국수는 거의 구포 국수로 통용되고 있다.)</p>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1 부적정 0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8			
유산명	부산진시장	구분	생활문화
주소	동구 진시장로 24	예비 선정사유	공유성 시대성
내용	조선시대에 개설되었던 부산장의 명맥을 이은 유서 깊은 시장이다. 개항 이후 부산의 중심 시장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한복과 포목, 폐백 등 혼수 전문 시장으로 특화되어 전국 3대 혼수 전문 시장으로 꼽히는 곳으로, 부산시민의 생활문화 변화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무응답
위원10		무응답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7 부적정 4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19			
유산명	곰장어구이	구분	생활문화
주소	중구 자갈치해안로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공유성 지역성
내용	한국전쟁 피란 시절, 부산 지역에서 피란민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곰장어를 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전역에서 맛볼 수 있지만 자갈치 시장과 온천장, 기장 일대에 곰장어 음식점이 밀집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으며 1950년대 궁핍하던 시절, 서민 음식으로 시작되어 긴 세월 동안 서민과 애환을 같이 해왔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기장곰장어와 연계성이나 설명보완	○
위원4	곰장어 구이거리(부전역 인근)와 같이 구체적인 장소성이 드러나면 좋겠음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무응답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8 부적정 3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0			
유산명	자유시장	구분	생활문화
주소	동구 조방로 48 자유시장	예비 선정사유	공유성 시대성
내용	범일동에 있는 전통 도매 시장으로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피란을 온 보따리 상인들이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모여들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부산시민 생활문화의 변천을 보여주는 장소이며, 인근 부산진시장과 더불어 부산 동구의 지역적 특징을 살필 수 있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무응답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7 부적정 4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1			
유산명	동항성당	구분	생활문화
주소	남구 장고개로 16번길 13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내용	한국전쟁 이후 피란 신자의 증가로 인해 본당이 설립되어 낙후된 지역의 빈민 사업과 사회 복지 사업 역할 수행하던 곳이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0 부적정 1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2			
유산명	일신기독병원	구분	생활문화
주소	동구 정공단로 27	예비 선정사유	공유성 시대성
내용	호주 장로교 한국선교회에 의하여 부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952년 9월 좌천동에 일신부인병원을 개원한 곳으로 신생아 출생의 상징적인 병원이다.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부산 시민의 의료생활과 관련된 기억과 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무응답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0 부적정 1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3			
유산명	부산시민회관	구분	문화예술
주소	동구 자성로 133번길 16	예비 선정사유	지역성 공유성 지속성
내용	1973년 이광로의 설계로 개관하였다. 곡선의 조형미가 뛰어난 건축물로, 부산문화회관이 개관하기 전까지 부산 시민을 위한 유일한 문화예술 시설이었다.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공연장으로도 활용되어 부산 지역민의 문화 향유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기여했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0 부적정1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4			
유산명	부산문화회관	구분	문화예술
주소	남구 유엔평화로106번길 34	예비 선정사유	공유성 지속성
내용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선사하기 위한 문화 휴식 공간으로, 1993년 개관했다. 문화공연 및 전시공간을 구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이며 부산시민의 공공 기억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현재성 강함, 다음 기회 순연 필요	×
위원4	건립연대와 건립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시급성이 없어보이고 지속성도 확보되었음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무응답
위원10		○
위원11		○
추가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7 부적정 4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5			
유산명	유치환(시인)	구분	문화예술
주소	부산광역시	예비 선정사유	공유성 지속성
내용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시인이자 교육자. 1931년 <정적>으로 등단했으며, 광복 후에는 민족 문학운동을 전개. 1950년대부터 교직에 몸담았다. 서정주와 더불어 생명파 시인으로 출발하여, 동양적인 무위의 세계를 추구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용두산공원, 부산진역앞 수정가로 공원 등에 시비가 있음.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부산 출신으로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가 많음, 시비도 곳곳에 있음 유산으로 전승하고자 하는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보다 인지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9 부적정 2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6			
유산명	영광도서	구분	문화예술
주소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예비 선정사유	공유성 지속성
내용	1968년 5월 1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영광서림'으로 시작. 부산지역 문화기업으로서 서점 이외에도 문화 공간으로서 독서토론회, 무료강좌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부산의 문화 예술 전파에도 일조함.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11 부적정 0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7			
유산명	가요 '굳세어라 금순아'	구분	문화예술
주소	영도구	예비 선정사유	지역성 시대성 지속성
내용	한국전쟁 때 흥남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피란민의 애환을 그린 대중가요. 195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현인의 노래로, 영도다리가 상징적 장소로 등장한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피란민의 슬픔을 담은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이 노래의 소재가 된 부산역을 따로 항목으로 제시함, 항목당 미래유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고려,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9 부적정 2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8			
유산명	가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구분	문화예술
주소	중구 중앙동	예비 선정사유	시대성 지역성 지속성
내용	1953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란민의 애환과 부산을 떠나는 상념이 진솔하게 묻어나는 곡으로 가수 남인수가 부름. 부산역을 소재로 한 곡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곡 가운데 하나.		

부산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평가 심사표		
명단	평가내용 · 수정사항	적정여부 (○, △,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위원8		○
위원9		×
위원10		○
위원11		○
추가 의견 및 결과	위원 전체 과반수 적정득표로 기초현황조사 실시	적정 8 부적정 3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 조사 후보목록 28 건 이 외 미래유산보존위원회 평가 위원 추가 추천목록			
번호	유산명	구분	
1	백구당	산업	가장 오래된 제과점이며, 현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중앙동의 다양한 생활문화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2	대저수리조합건물	산업	
3	다나카수리조선소	산업	
4	사상공단	산업	
5	경남상업고등학교	생활문화	
6	가톨릭센터	문화예술	
7	최민식	문화예술	부산 출신으로는 드물게, 관련 분야에서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인물. 한국 현대사라는 구체적 현실을 통해 현대인의 삶과 영혼을 담아낸 사진으로, 세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 또한 사진과 같은 영상 분야는 미래에 활용 가치가 더욱 확대될 분야로서,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위원회의 지향과도 부합하는 주제

위의 표에서 보듯이 후보 목록 28건 이외에도 개별 추천목록이 있었음  
보존위원회의 서면 자문결과 심사결과에서 제시된 후보 목록 중 동일 건에 대해 보존위원 간의 의견 상이한 부분 발생, 미래유산을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부여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음을 확인

## 2. 제4차 부산 미래유산 예비목록

연번	구분	유산 명칭	소재지	선정사유	개요
1	역사	가덕도 대항 인공동굴	강서구 천가동 83	시대성 지역성	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군이 미군 상륙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덕도 대항 마을에 만든 인공 동굴이다. 10여기 정도 남아 있으며, 아픈 역사가 담긴 현장이지만 후세를 위한 현장 학습의 장이자 향토사 연구의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역사	외양포 포대	강서구 가덕해안로 1319	시대성 지역성	외양포가 있는 가덕도는 외호 방어기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일본은 1904년 포병 제2중대의 포대 진지 설치를 시작으로, 해방 직전까지 수차례 보수 공사를 거듭하여 일본군 군사 시설로 활용되었다. 현재 외양포 마을 내부에는 포대 사령부실과 관사, 사무실, 창고 등 관련 군사 시설이 다수 남아 있어 일제 침략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교육적 의의가 크다.
3	역사	동굴집 (주점)	동구 고관로 185번길 13	시대성 지역성 공유성	일제강점기때 조성된 방공호로, 이후 피란민 거주지, 동굴 주점 등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현재는 좌천 동굴이라는 이름의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장소로서 의의가 있다.
4	역사	부산진일신여학 교 만세 운동	동구 정공단로 17번길 17	시대성 지역성	부산지역 3·1 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3.11과 4.8일 독립 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기념한 기념비가 1984년 부산시에 의해 조성되어 현재 동래여자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다. 부산진일신여학교만세 운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3·1 운동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공동체 위기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헌신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
5	역사	장자등 포대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로	시대성 지역성	대륙까지 침략하기 위해 일본이 부산을 전초 기지로 삼고, 1930년대 장자등 포대 지구, 탄약고 등을 조성했다. 일제강점기 전초 기지로서의 부산의 모습과 군사 시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6	역사	황동 탄광	남구 용호 3동 산25	시대성 시급성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무 동원에 의해 개발된 구리 탄광이다. 현재는 갱도가 막혀 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전략 물자 확보를 위한 일제의 수탈의 현장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다. 현재 개인 사유지로, 표시, 안내비 등이 일체 부재.
7	산업	고려제강 수영공장 (F1963)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시대성 공유성 지속성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으로, 지역 철강 산업의 명맥을 잇고 있는 기업이다. 수영공장은 고려제강의 첫 공장으로, 1963년 개장했으며, 2016년 옛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문화복합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8	산업	다나카수리 조선소	영도구 대평로 56	시대성 지역성 공유성 지속성	1887년 10월 다나카 기요시(田中清)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목선 제선소로, 이후 인근 60여개의 조선소가 들어서며 조선업의 중심지가 된다. 현재까지 영도 대평동은 조선 공업의 요람으로서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부산의 지역성과 조선 산업의 발전 과정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연번	구분	유산 명칭	소재지	선정사유	개요
9	산업	대선주조	동래구 여고로 77	시대성 공유성 지속성	부산에 본사를 둔 소주 제조업체로 1930년대 동구 범일동에서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사케를 만들던 대일본양조에 대응해 대조선(大朝鮮)의 줄임말 대선(大鮮)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BN그룹이 인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근현대 주조산업의 역사를 함께 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10	산업	대신동 전차 중점 기념비	서구 구덕로 350 영도구 절영로 57	시대성	53년 동안 부산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랑을 받아 온 전차의 중점 터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현재 대신동, 영도에 남아 있다.(운천장은 개인 사유지로 표지석 부재) 대신정선은 1928년에 개통했으며, 근대 교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역사 현장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11	산업	대저수리 조합건물 (현 강서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	강서구 대저로 269	시대성 시급성	1916년 낙동강 하중도 일대 농지의 제반 수리시설을 위해 설립된 대저수리조합의 건물이다. 사무동과 비료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강서도시재생열린지원센터와 문화창고로 이용하다가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자재 일부만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12	산업	사상공업단지	사상구 감전동 일대	시대성 지속성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곳에 모아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공업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산 외곽 지역인 낙동강 동쪽의 저습지를 개발해 조성되었다. 1968년 착공하여 1975년에 완공되어 부산 최대 공업단지로 성장했다. 1990년대 이후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최근 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부산 신발산업을 견인했던 장소로서, 지역 산업 발전의 중추를 담당했다.
13	산업	회동수원지	금정구 수원지로 58	시대성	1930년대 양수시설 확충을 위해 설치한 인공 저수지이다. 이후 1950년대 ~70년대 부산의 인구 증가에 따라 수차례 확장 공사를 진행했다. 2010년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근현대기 상수도 관련 토목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4	산업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경매	서구 충무대로 202 (부산공동어시장 내)	지역성 시급성	손가락 경매방식. 중매인이 손가락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전통방식으로, 수산도매시장의 원형기술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전송되며 희소한 전통거래방식으로, 최근 일부 전자거래로 변경되는 가운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5	도시	물만골마을	연제구 황령산로 530	공유성 지역성	한국전쟁 당시 군사 기지용 도로 개설과 1953년 방목장이 설치되면서 본래 민가가 거의 없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와 가건물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부산의 오지 마을이 형성되었다. 주민자립생태마을로 자연환경에 맞는 정비사업을 계획하여 보존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산의 1970년대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이다.
16	도시	안창마을	동구 안창로 89번길 일대	공유성 지역성 시대성	안창마을은 한국전쟁 때 모여든 피란민들의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된 부산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일컬어지는 도심 속 오지이다. 산간 분지에 입지하여 도시 기반 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1970년대 전기가 들어왔고, 1980년대까지도 무허가 건물이 많았다. 부산의 50년대~80년대 역사와 시대를 공유, 기억할 수 있는 장소이다.

연번	구분	유산 명칭	소재지	선정사유	개요
17	도시	장림포구	사하구 장림로93번길 72	시대성 지속성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는 하단포는 조선시대부터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여 내륙 지방에 운반되던 물류의 중심지이자,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구포를 거쳐 안동까지 이어지는 뱃길의 출발지로 현재는 대부분이 매립되어 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그중 낙동강하구에 아직 장림항이 남아 현재에도 어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림포구는 포구를 따라 늘어선 알록달록한 건물과 떠 있는 작은 배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현재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포구의 역할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18	도시	부산역	동구 중앙대로 206	시대성 공유성	부산역(釜山驛)[철도]은 경부선이 개통됨에 따라 철도 관련 영업·관리·건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08년 4월 1일 임시 정거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였고, 부산 정거장 본관과 부대설비 공사에 착수하여 1910년 10월 역사를 준공하였다. 현재 당시의 부산역은 남아있지 않으나, 부산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도시 발전을 대변해주는 장소이다.
19	도시	구 부산진역사	동구 중앙대로 380	시대성 공유성	현재 여객 수송은 중단되었으며, 화물 수송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완행열차의 시·종착역 및 일부 방면 열차의 정차역으로 부산역에 버금가는 도심역사로 부산 발전 과정에 중요한 장소이다.
21	도시	오륙도 등대	남구 오륙도로130 (용호동)	시대성지 역성	1876년에 부산항이 개항되고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 앞으로 배들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등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37년 11월에 무신호소와 함께 오륙도 등대가 개설되었다. 오륙도 등대가 세워진 섬은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부산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은 오륙도 등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등대가 축소되자마자 부산항의 상징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21	도시	부산여객터미널 (1905부관페리)	중구 충장대로 24	시대성 공유성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수탈시스템의 하나로 탄생. 1905년(고종 42) 9월 11일 일본 산양철도와 일본철도가 이키마루호를 투입하여 격일제로 운항한 관부 연락선이 시초가 된 곳으로 부산 지역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2021년 소유자 미동의로 제외된 점이 있음.
22	도시	꽃마을	서구 꽃마을로156 번길 일원	공유성 지역성 시대성	구덕산 기슭에 형성된 자연마을로 주변에 자라는 야생화를 꺾어 팔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876년(고종 13) 부산항의 개항으로 일본인 전관 거류지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군 수송로를 조성하려고 초량 왜관에서부터 구덕 고개를 넘어 구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계기로 외지에서 옮겨 온 빈민들이 이 지역에 움막과 초가 등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한다. 당시 정착민들이 구덕산에서 채집할 수 있는 들꽃과 약초를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해 꽃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는 화훼 단지보다 구덕산을 오르는 시민들의 공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산의 발전과 시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다.

연번	구분	유산 명칭	소재지	선정사유	개요
23	도시	경남상업 고등학교 본관 (현 부경고등학교)	서구 서대신동 3가 521	시대성	일제강점기 근대 모던 양식의 학교 건물. 교육 기관이 갖는 권위적·위계적 의장 특징을 육중한 입면과 여러 요소들로 장식된 세부적 모습을 보여주는 일제강점기의 근대 건축으로,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24	생활 문화	구포 국수	북구 가람로 58번길 8 일원	시대성 지속성 지역성	구포국수는 우리나라에서 지명 자체로 유명 브랜드가 된 최초의 사례이다. 구포는 조선 시대부터 곡물이 모인 곳이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제분·제면 공장이 성업하기 시작하였다. 구포에서 국수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으로 피란민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60~70년대 국수 제조업체가 성행하여 발전하였고 부산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포국수는 개인 상표권으로 소송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구포 국수는 구포의 명물이므로 한 공장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부산에서 나오는 국수는 거의 구포 국수로 통용되고 있다.)
25	생활 문화	동향성당	남구 장고개로 16번길 13	시대성	한국전쟁 이후 피란 신자의 증가로 인해 본당이 설립되어 낙후된 지역의 빈민 사업과 사회 복지 사업 역할 수행하던 곳이다.
26	생활 문화	부산진시장	동구 진시장로 24	공유성 시대성	조선시대에 개설되었던 부산장의 명맥을 이은 유서 깊은 시장이다. 개항 이후 부산의 중심 시장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한복과 포복, 폐백 등 혼수 전문 시장으로 특화되어 전국 3대 혼수 전문 시장으로 꼽히는 곳으로, 부산시민의 생활문화 변화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다.
27	생활 문화	부산평화시장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7	공유성 시대성	1940년 일제 강점기 때, 조선방직 부근에서 정기 시장인 오일장이 선 것이 그 유래로 품질과 가격 면에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다
28	생활 문화	일신기독병원	동구 정공단로 27	공유성 시대성	호주 장로교 한국선교회에 의하여 부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952년 9월 좌천동에 일신부인병원을 개원한 곳으로 신생아 출생의 상징적인 병원이다.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부산시민의 의생활과 관련된 기억과 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다.
29	생활 문화	자유시장	동구 조방로 48 자유시장	공유성 시대성	범일동에 있는 전통 도매 시장으로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피란을 온 보따리 상인들이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모여들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부산시민 생활문화의 변천을 보여주는 장소이며, 인근 부산진시장과 더불어 부산 동구의 지역적 특징을 살필 수 있다.
30	생활 문화	초량 1941	동구 망양로 533-5	지역성 시대성	1941년 지어진 일본식 건축물인 적산가옥으로 현재 카페로 사용 중이다. 유산을 현대식으로 재단장한 롤모델이 될만한 사례로 부산의 역사와 시대성을 기억하는데 기여한다.
31	생활 문화	곰장어구이	중구 자갈치해안로	시대성 공유성 지역성	한국전쟁 피란 시절, 부산 지역에서 피란민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곰장어를 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전역에서 맛

연번	구분	유산 명칭	소재지	선정사유	개요
					볼 수 있지만 자갈치 시장과 온천장, 기장 일대에 공장어 음식점이 밀집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으며 1950년대 궁핍하던 시절, 서민 음식으로 시작되어 긴 세월 동안 서민과 애환을 같이 해왔다.
32	생활 문화	백구당	중구 중앙대로81번길 3	공유성	백구당(白鳩堂)은 1959년 개업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양식 제과점으로, 상호명인 '백구(白鳩)'는 '흰 갈매기'를 뜻하는 것으로 지점이 없지만 부산 지역에는 백구당 출신의 제과 기술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부산 시민들의 생활 문화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개인 사유자산으로 소유자의 동의 필요함.
33	문화 예술	가곡 '보리밭'	중구		가곡 보리밭은 작곡가 윤용하가 1951년 작곡가로 활동할 당시 부산에서 박화목 시인과 함께 구상하여 탄생한 곡이다. 현재까지 애창되고 있는 친근한 국민 가곡으로, 전쟁의 비극을 서정적 가사와 멜로디로 승화하고자 했다. 중구 남포동에는 노래비가 있다. 곡의 서정성과 더불어 전국의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피란 수도로서 부산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
34	문화 예술	가톨릭센터	중구 중구로 71	시대성 공유성 지속성	1982년 개관한 천주교 부산교구가 운영하는 문화 센터로, 부산의 복합문화공원의 중심 역할을 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독재 권력으로부터 시민과 학생, 항쟁의 지도부를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했다. 현재도 다양한 시민강좌와 전시, 교육, 공연 등을 운영하고 있다.
35	문화 예술	금수현(작곡가)	강서구 대저1동 2651	지역성 지속성	작곡가이자 음악 교육자. 동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경가극 형태의 오페라로 대중성을 확보, 지역에 음악을 보급하는 운동가로서 특히 부산의 음악 문화발전에 공헌했다. 공로를 인정해 1992년에 강서구에 금수현 노래비가 설립되었다. 대표작품으로 <심봉사의 슬픔>(1940), <그네>(1946). <추색>(1961) 등이 있다.
36	문화 예술	김민부(시인)	동구 수정동	지역성 공유성 지속성	부산 출신의 시인, 방송작가, 1956년 시조 <석류>로 등단했으며, 1960년대 부산 문화방송에 입사하여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자갈치 야지매>(1964)와 <가요 반세기>등을 기획했다. 서구 암남공원 입구에는 '기다리는 마음' 시비가 있으며, 2011년부터 김민부 문학제를 개최하고 있다. 시집으로 『향아리』(1956), 『나부와 새』(1968)가 있다.
37	문화 예술	김종식 부산관련 그림	부산진구 성지로 53 금정구 범어사로 333	지역성 지속성	부산 출신 서양화가로, 일본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아대학교 등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다. 부산지역 1세대 서양화가로서 지역의 정체성 모색을 위해 노력했으며, 90년대 이후에는 부산항 연작을 비롯해 부산의 풍경을 다수 제작했다. 현재 관련 유적으로는 부산진구에 김종식미술관과 금정구에 김종식 기념비가 있다.



연번	구분	유산 명칭	소재지	선정사유	개요
38	문화 예술	가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중구 중앙동	시대성 지역성 지속성	1953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란민의 애환과 부산을 떠나는 상념이 진솔하게 묻어나는 곡으로 가수 남인수가 부름. 부산역을 소재로 한 곡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곡 가운데 하나.
39	문화 예술	부산시민회관	동구 자성로 133번길 16	지역성 공유성 지속성	1973년 이광로의 설계로 개관하였다. 곡선의 조형미가 뛰어난 건축물로, 부산문화회관이 개관하기 전까지 부산시민을 위한 유일한 문화예술 시설이었다.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공연장으로도 활용되어 부산 지역민의 문화 향유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기여했다.
40	문화 예술	영광도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공유성 지속성	1968년 5월 1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영광서림'으로 시작. 부산지역 문화기업으로서 서점 이외에도 문화 공간으로서 독서토론회, 무료강좌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부산의 문화 예술 전파에도 일조함.
41	문화 예술	영화 갯마을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지역성	오영수의 원작을 김수용이 감독한 영화이다. 경상남도 동해군(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의 해변마을을 배경으로 주인공 해순의 정한과 어민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부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상미, 촬영기법 면에서도 뛰어난 작품이다.
42	문화 예술	유치환(시인)	부산광역시	공유성 지속성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시인이자 교육자. 1931년 <정적>으로 등단했으며, 광복 후에는 민족문학운동을 전개. 1950년대부터 교직에 몸담았다. 서정주와 더불어 생명파 시인으로 출발하여, 동양적인 무위의 세계를 추구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용두산공원, 부산진역앞 수정가로 공원 등에 시비가 있음
43	문화 예술	가요 '굳세어라 금순아'	영도구	지역성 시대성 지속성	한국전쟁 때 흥남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피란민의 애환을 그린 대중가요. 195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현인의 노래로, 영도다리가 상징적 장소로 등장한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과 피란민의 슬픔을 담은 대표적인 노래 중 하나.
44	문화 예술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소설)	사하구 을숙도(배경)	지역성 시대성 지속성	부산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정한이 1966년에 발표한 소설. 낙동강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조그만 조마이섬(현재 을숙도)을 무대로 일제강점기 총독부 권력에 의해 수탈당한 비극적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낙동강을 무대로 한 민중의 삶과 농촌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점에서 지역성과 더불어 민족문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45	문화 예술	밀다원 시대 (김동리 소설)	중구(배경)	시대성 지역성	1955년 《현대문학》에 발표된 김동리의 문학작품으로 제3회 자유문학상 수상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광복동에 있던 밀다원이라는 다방을 배경으로 예술가들의 고뇌와 상처를 묘사하고 있다. 인간의 근원적 고독에 대한 통찰을 보여 주는 수작으로, 당대 예술가들의 삶의 궤적과 더불어 문학적 가치가 높다.

연번	구분	유산 명칭	소재지	선정사유	개요
46	문화 예술	<b>부산문화회관</b>	남구 유엔평화로106 번길 34	공유성 지속성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선사하기 위한 문화 휴식 공간으로, 1993년 개관했다. 문화공연 및 전시공간을 구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 예술 향유의 공간이며 부산시민의 공공 기억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47	문화 예술	<b>부산찬가</b>	부산광역시	지역성 공유성 지속성	부산시는 시민정신의 함양과 향토애 고취를 통한 시민화합 기반을 다지고자 1983년 가사를 공모하여 부산찬가를 제정(작사 : 윤평원 작곡 : 이범희), 1984년 9월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보급했으며,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서도 방송되었다. 현재 스포츠 경기의 응원가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일조한 사례.
48	문화 예술	<b>최민식 부산관련 사진</b>	부산광역시	지역성 지속성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 부산시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예술사진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작품을 주로 제작했으며, 1960~2000대까지 그가 남긴 부산의 모습은 아카이브적 가치 또한 크다.
49	문화 예술	<b>박병제 부산관련 그림</b>	동래구 사직2동 시영아파트 11동 304	지역성 지속성	부산 출신의 미술가. 산동네, 산복도로, 자갈치 시장 등으로 배경으로 서민들의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했다. 부산다움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화가로 최근 평가와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작품으로 <자화상>과 <인물상>, 목조각인 <기다림> 등이 있다.

#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 기초현황조사

# IV

## 1.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 기초현황조사





## IV.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 기초현황조사

### 1.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 기초현황조사

#### ■ 2022년 부산 미래유산 기초현황조사 목록

번호	분야	유산명	주소
1	역사	가덕도 대항 인공동굴	강서구 천가동 83
2	역사	부산진일신여학교 만세 운동(의거)	
3	역사	외양포 포대	강서구 대항동 산13-23
4	산업	회동 수원지	금정구 선동 121
5	산업	구 고려제강 수영공장 (F1963)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6	산업	대선주조	동래구 여고로 77
7	산업	대신 전차 종점 기념비 (전차 종점 기념비)	서구 구덕로 350
8	산업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 경매(문화)	서구 충무대로 202(남부민동)
9	도시	오륙도 등대	남구 오륙도로 130
10	도시	부산역	동구 중앙대로 206
11	도시	안창마을	동구 안창로, 부산진구 안창로
12	도시	장림포구	사하구 장림로 93번길 72
13	도시	꽃마을	서구 서대신4동
14	도시	구 부산진역사	동구 중앙대로 380
15	생활문화	부산평화시장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7
16	생활문화	구포국수	
17	생활문화	부산진시장	동구 진시장로 24
18	생활문화	곰장어 구이 (기장 곰장어, 곰장어 구이 거리)	
19	생활문화	자유시장	동구 조방로 48
20	생활문화	동향성당	남구 장고개로16번길 13
21	생활문화	일신기독병원	동구 정공단로 27
22	문화예술	부산시민회관	동구 자성로 133번길 16
23	문화예술	부산문화회관	남구 유엔평화로106번길 34
24	문화예술	유치환(시인)	
25	문화예술	영광도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26	문화예술	굳세어라 금순아(가요)	
27	문화예술	이별의 부산정거장(가요)	

# 가덕도 대항 인공동굴

##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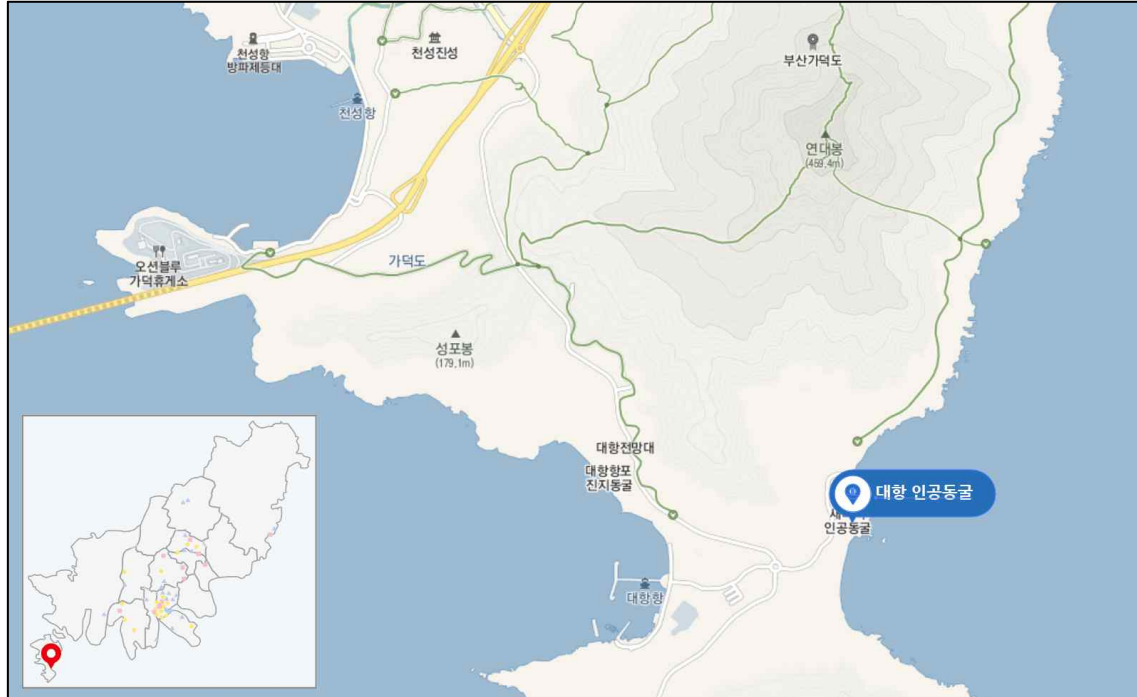
<b>유형 구분</b>	역사	<b>소재지</b>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83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방식</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945년경 (제2차세계대전)	<b>소유·관리자</b>	부산 강서구 등
<b>초기 형태</b>	군사시설	<b>현재 용도</b>	자연관광지-동굴(폐쇄)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부산 요새가 중요해지자, 마산권역과 부산 권역의, 진해만 요새사령부의 중요 시설들을 부산으로 이전</li> <li>- 1944년 중반 이후 일본군의 전력이 약화하자 조선의 일본군들은 본토 결전을 준비하면서 한반도 남해안 경비를 강화</li> <li>- 1945년 미군은 조선을 일본 본토 공격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을 논의 중이었고, 당시 대한 해협 상공에 미군기가 출몰하고, 대한 해협에 미군이 설치한 폭뢰가 조선 내 일본군의 일본 본토 이동을 막음</li> <li>- 이후 제2차 세계 대전말 주변 해안에 미군 상륙 작전을 대비하기 위한 방어시설로 해당 인공동굴을 조성</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과 인근의 군사시설은 대한해협 보존에 중요한 근거지였음</li> <li>- 해당 시설물은 일본의 시모노세키, 이키, 쓰시마와 함께 대한 해협을 방비할 임무를 부여받음</li> <li>-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대항 마을의 북서쪽 해안가에 3~4개 확인됨</li> <li>- 대항 마을 뒤쪽의 새바지 마을에도 5개 정도 확인</li> <li>- 동굴의 모양은 1자 동굴, T자 동굴, 복식 동굴 등이 있음</li> <li>- 마을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덕도 북쪽의 탄광 노동자들을 데려와 인공동굴을 조성하였다고 함</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징용, 일제의 수탈로 대변되는 우리 민족의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는 유적</li> <li>- 역사교육의 장소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안보 교육의 장소로서도 활용도가 높음</li> <li>- 군사시설의 특성상 원형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나 관람의 안전 문제로 활용이 용이하지 않음</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카카오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대항선착장	대항 어촌체험 휴양마을	대항전망대	외양포 포진지
	성격	항구	체험마을	관광지	역사유적
접근성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type="checkbox"/> 버스	<input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인근까지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 방법은 없음 - 지정 주차구역 없이 인근 부둣가에 임의 사용 중 - 진입로를 통한 접근 후 방향 안내 등이 없어 대상지를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탐방객을 위한 탐방로 및 안내판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음 - 계속되는 '낙석'에 대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험스로 접근 금지한 상태로 방치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기존용으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매일	-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되는 '낙석'에 대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됨</li> <li>- 낙석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지망'의 효과가 미약하여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li> <li>- 진입 계단 주변 정비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li> <li>- 향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예정지로 향후 보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 우리나라가 겪은 수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는 점</li> <li>-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징용, 수탈 등을 조명하는 교육의 장소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장소임</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 구조개선,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관람의 정상화</li> <li>- 내외부 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적 안전성 마련</li> <li>-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장소의 경관적 가치 보존</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한 흔적은 보이나 현재는 활용 상황 없음</li> <li>- 결빙에 의한 입구 쪽 '낙석'과 같은 안전 문제로 관람을 통제 중</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에 앞서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으로 내외부 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적 안전성 마련을 통한 관람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함</li> <li>- 대상지로의 접근을 위한 안내판, 안내시설 대상지를 설명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산의 '외양포 포대'와 연계하여 '안보교육'의 장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li> <li>-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해당 문화재가 가진 정확한 의의와 역사적 사실을 제공</li> <li>- 가덕도 지역 외 부산의 네거티브 문화재를 엮은 다크투어리즘 프로그램 구성</li> </ul>



#### 4. 관련 이미지



대항새바지항 전경



대항새바지항에서 인공동굴 방향으로의 전경



진입 계단 전경



진입 계단 주변 현황



출입이 통제된 현황



낙석 현황 2



낙석 현황 1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김정하 2012, “개항도시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찰 -부산과 나가사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도시문화교섭학.
- \* 이지영 2021,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부산-진해만요새의 구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2016.10.19., 부산일보, 『[속속들이 부산투어] 가덕도 근대문화유적 탐방』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1019000227>
- \* 2018.05.03., 세계일보, 『옛 모습 간직한 가덕도 역사탐방에 안성맞춤』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502005083?OutUrl=naver>
- \* 2018.10.04., 경남도민신문, 『부산 가덕도 이색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319#0BNb>
- \* 2018.10.14.,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에 동굴 관광체험장·역사체험 투어길 만든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2104500051?input=1195m>
- \* 2021.01.22., KBS, 『가덕도 신공항 개발로 ‘일제 침략 흔적’ 사라지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2835&ref=A>
- \* 2021.03.09., 국제신문, 『가덕도 SOC 공사 올스톱... 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309.33008002365>
- \* 2022.05.11., 국제신문, 『돌 떨어지는 가덕도 동굴... 낙석방지망 설치로 끝?』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511.99099003236>

#### **KBS, 『가덕도 신공항 개발로 ‘일제 침략 흔적’ 사라지나?』, 2022.08.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2835&ref=A>,

##### ■ 가덕도의 눈물 '다크 헤리티지'

'총 사업비 13조 7천억 원' 부산 지역 최대 국책 토건사업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해상공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십 수년간 정치권에서 '동남권 신공항 공약'으로 거론돼오다 작년 3월 특별법 공포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지난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고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부산 강서구 소재의 가덕도 건설 예정지를 방문,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 지역 학계를 중심으로 "신공항 건설로 인해 가덕도 내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 시설 등 유적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구한말 러일전쟁과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은 각각 라미 군대와와의 교전을 위해 가덕도를 전초기지(前哨基地)로 삼아 포대 진지, 인공 동굴, 장병 막사 등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 일본은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내쫓고 강제로 조선인을 부리며 전투 태세를 갖추는 등 섬 전체의 '군사 기지화'를 도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덕도의 일본군 군사 시설이 조선 등 세계를 침략하고자 한 일제의 야욕(野慾)을 보여주고, 국제 전쟁사 차원에서도 상징성을 지닌 사적(史跡)이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일제강점기 슬픈 역사의 흔적인 이른바 '다크 헤리티지(Dark Heritage·부정적 문화유산)'로서 당시의 비극을 기억하고

교훈을 새길 수 있는 유적이라는 것인데요. 가덕도에 남아 있는 일제 군 시설의 현황과 가치, 신공항 개발을 추진 중인 국토부·부산시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 일제(日帝)의 '군사 요새'...포(砲) 진지, 인공 동굴 만들어

면적 22km<sup>2</sup>, 해안선 길이 36km, 13개 섬과 5개 법정동 그리고 17개 자연마을이 있는 '부산에서 가장 큰 섬' 가덕도. 평지가 거의 없고 천가산 연대봉(해발 459.4m), 대항동 국수봉(264m) 등 많은 산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부산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이 발행한 자료집 '물고기의 길목, 가덕도의 해양문화'는 "가덕도는 조선시대부터 지정학적 요충지로 여겨져 왜구와 왜군의 침범이 잦았다"고 설명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는 섬이었고, 임진왜란 때에는 조선의 수군과 왜군의 전략 요충지였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외양포가 일본군 주둔지였으며 지금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예하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부산항과 진해 해군사령부 길목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덕도가 군사 요충지였음을 증명하는 문화재가 현재까지 곳곳에 남아 있다." - '물고기의 길목, 가덕도의 해양문화' 중

구한말까지 왜성(倭城)과 척화비가 있던 가덕도는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후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요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주력 함대인 '발트함대'에 맞서기 위해 원거리 포격이 용이한 해안 기지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 일제는 원주민 67가구를 몰아내고 징집된 조선인을 노동력으로 삼았습니다.

4개월여 만에 280mm 유탄포 진지 6문과 막사 등을 완공한 일제는 그해 12월 '진해만 요새 포병대대 제2중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듬해 4월에는 일본군 4사단에 '진해만 요새 사령부'가 편성돼 대대급 이상의 규모로 확대됐고, 패망 직전까지 가덕도의 군사시설을 활용했습니다. 실제 가덕도 남단 국수봉 서쪽 외양포에 위치한 포진지 입구에는 1936년 세워진 '사령부발상지(司令部發祥之地)'라는 제하의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연합군 공습에 대비, 가덕도 해안 절벽 등에 인공 동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I·T·L자형 동굴과 연결복식 동굴 등을 만들었는데, 넓이와 높이는 1.5~2m, 길이는 10~15m 정도입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국수봉 북쪽 대항 새바지마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T자 형태의 인공 동굴은 길이가 5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한반도 상륙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관측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포 진지와 인공 동굴 외에도 우물, 탄약고, 무기고, 지하 감옥, 장교 사저, 헌병대 막사, 일본군 내무반 등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현재 가덕도 내 일제 군 시설은 건축물 23동, 포 진지 1개소, 표지석 1개소, 훈련장 1개소, 화약고 1개소, 말길 1개소, 관측소 3개소, 산악 보루 1개소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중 장교 막사는 해방 이후 적산가옥으로 분류돼 현재 마을 주민 3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매립용 토사 마련 위해 국수봉 등 가덕도 남단 산지(山地) 절취

바로 이 유적들이 203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개발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신공항 조감도를 보면 국수봉, 남산과 항구들이 들어선 가덕도 남단에 3,500m 길이의 해상 활주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건물 등 각종 부대시설은 남단 육지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다를 매립하는데 필요한 토사(土沙)를 마련하기 위해 산지인 국수봉은 대부분 절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6일 보도자료 '국내 최초 해상공항 가덕도 신공항 밑그림 마련'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순수 해상 배치안은 절취된 산지를 배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육상] 동서로 폭이 좁은 지형(1.7km)이며, 시추 결과 암질(암석 90%)의 산지 지형으로 산지 절취(발파) 및 해양 매립 필요
- [해상] 시추 및 조사 결과, 가덕 인근 수심(최대 30m), 연약지반 두께(최대 45m), 최대 파고(50년 빈도 10m) 등 해양 매립 시 고려 사항 다

그렇다면 국토부와 부산시는 신공항 개발에 앞서 해당 유적들의 보존 문제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해놓은 걸까요. 두 곳의 신공항 추진 부서 관계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신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인 만큼 현재 기준으로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방침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가덕도 내 문화재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 관계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쯤 용역사와 계약해 조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그때 문헌 조사를 통해 문화재 관련 등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 부산시 신공항 추진 본부 관계자

"(일제 군 시설 관련) 현재 보존 계획이 수립된 건 없습니다. 기본 공사 계획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기초 조사가 들어갈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가 되겠죠."

■ 전문가 "'국제 공항' 가덕도...세계인이 기억하도록 '전쟁 유적' 남겨야"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 당국이 신공항 건설에 돌입하기 전에 철저한 현지 학술 조사를 통해, 가덕도 내 일제 군 시설의 보존 가치를 진단하고 처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또 공사 계획상 철거가 불가피한 시설은 후대가 기억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장차 가덕도 신공항이 '국제 공항'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세계인이 찾아와 비극의 동아시아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유적을 가능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합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전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가덕도 일제 군 시설은 일본군이 러일전쟁 초기에 만들어 패망 직전 태평양전쟁 때까지 사용했다. 당시 동양과 서양의 대립 구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라며 "또한 일제가 조선을 악랄하게 초토화한 흔적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지만, 마땅히 기록하고 보존해서 전 세계인이 찾아와 볼 수 있는 전쟁 유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일본어과 명예교수)은 "여러 군 시설 외에, 가덕도 국수봉 너머 바닷가 쪽 산골에는 일제강점기 때 끌려온 조선인 징용·징병자들이 사망 후 화장(火葬)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장장 건물도 남아 있다"며 "일제가 생체실험을 한 소록도 화장장과 건물 양식이 유사하다는 증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학자 등 문화재 전문가들이 조사에 투입돼 군 시설의 보존 가치를 따져보고, 공항 설계상 반드시 없애야 하는 곳은 촬영 기록 또는 문헌 자료로 남기거나 표지판을 세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국제 공항'을 표방하는 만큼, 세계인이 유적을 보고 당시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가덕도 내 일제 군 시설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과 만행을 보여주는 잔재들로서, 우리의 역사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마땅히 철폐돼야 할 것들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가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을 깔고 앉은 일제의 조선총독부 건물을 일거에 폭파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쓸어내 버려도 시원치 않을 '침략의 흔적'을 왜 굳이 유적으로 보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비극적 문화유산인 '다크 헤리티지'를 보존하자고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는 이유는, 후대가 슬픔의 역사를 잊지 않고 매순간 기억함으로써, '나라의 뿌리와 선대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시 자체로도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지만, 조상들의 한이 서린 그 유적들을 바라보면서,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마음에 각인하는 광복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제신문, 『돌 떨어지는 가덕도 동굴... 낙석방지망 설치로 끝?』, 2022.05.1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511.99099003236>

일본군이 만든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공동굴에서 지속해서 낙석이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현재 관광 자원으로 이용돼 근원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와 가덕신공항 사업 등이 맞물리면서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아 우려를 낳는다.

부산 강서구는 오는 18일까지 가덕도동 '대항항 포진지 인공동굴'에 낙석방지망(640㎡) 설치 공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곳 북측에 자리한 관광체험장에선 주변 암반에서 나온 크고 작은 돌맹이가 동굴 주위로 떨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혹시 모를 사고를 막고자 이번 공사를 추진했다.

이곳 일대의 인공동굴은 대부분 낙석 위험을 안고 있다. 지난해 2월 13일에는 또 다른 동굴인 '대항새바지 인공동굴'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입구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동굴은 그해 3월 5일부터 폐쇄돼 1년 이상 출입이 막혔다(국제신문 지난해 3월 9일 자 8면 보도). 대항항 포진지 인공동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생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인공동굴은 강서구의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장소다. 일제는 러일전쟁(1904년) 당시 이곳 외양포에 포대사령부를 구축한 후 태평양전쟁(1941년~1945년)으로 패망할 때까지 41년간 군사 요새로 사용했다. 외양포에 살던 조선인들은 강제로 토지를 빼앗겼고, 수많은 조선인이 진지 구축에 강제 동원됐다. 한 서린 역사가 서린 공간이다. 강서구는 2017년 5월 '가덕도 외양포 포진지 정비 및 역사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광 자원으로 이곳을 활용해왔다.

폐쇄된 대항새바지 인공동굴과 달리 대항항 포진지 인공동굴은 여전히 관광객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지금의 모습을 갖춘 이곳에는 사업비 52억5000만 원이 들어갔다. 입구까지 덩 해안산책로가 깔리고 동굴 내부에도 관광 요소가 들어가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문제는 낙석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공동굴 주변의 암반은 틈새로 자라난 식물 탓에 계속해서 돌이 떨어진다. 돌을 치우고 보수 공사를 하려면 인공동굴 입구까지 설치된 덩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해야 해 비용 문제가 크다. 낙석이 생겨난 암반 일부는 사유지라 유지·보수에 한계가 따른다.

가장 큰 난점은 두 곳 모두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라는 사실이다. 공항을 지으려면 해수면을 메워야 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인공동굴 근처 해안산책로는 철거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없애야 할 공간인 셈이라 구 역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 대항새바지 인공동굴이 1년 이상 폐쇄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남아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구 관계자는 "여전히 대항항 포진지 인공동굴을 찾는 관광객이 있다. 낙석의 위험이 없다고 하기 어려워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이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곧 철거될 시설물에 많은 예산을 들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부산진일신여학교 만세 운동(의거)

## 1. 개요

유형 구분	역사	소재지	-
특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형 <input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9년 3·1 운동이 발생한 직후 서울 학생 대표가 부산으로 와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며 시위를 독려</li> <li>- 부산진일신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태극기를 준비하고 만세 시위를 계획</li> <li>- 3월 11일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며 만세 시위를 시작하고 이에 대중들이 호응하여 시위가 시작</li> <li>- 시위 이후 주도자 전원(14명)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짐</li> <li>- 이후 학생들과 교사들은 각각 징역 5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형무소에 수감</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에서 최초로 일어난 만세운동이며 여성, 학생, 교사가 주도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여성항일운동이 두드러졌던 3·1운동기의 대표적 활동</li> <li>- 이후 경상남도 전역으로 3·1 운동을 확대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됨</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2. 현황조사

안내(홍보)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에서 최초로 일어난 만세운동임</li> <li>- 부산을 넘어 경상남도 지역으로 퍼져나간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사건</li> <li>- 당시 재직 중이던 교사 '주경애'는 1919년 3월 10일 태극기 50개를 제작 이후 동년 3월 11일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학생들과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등 여성과 학생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항일 운동</li> </ul>			

### 3. 보존·활용 방향

#### ▷ 보존

<b>문제점</b>	-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부산진일신여학교, 부산일신여학교 만세운동 기념비 등)을 활용하여 만세운동에 대한 의의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동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인식 부족
<b>필요성</b>	- 3·1 운동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지는 위치와 의의 - 부산에서 최초로 일어난 만세운동이라는 상징성 - 이후 경남지역으로 퍼져 나간 만세운동에 미친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님 - 여성, 학생, 교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독립운동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
<b>개선사항</b>	-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에 해당 '만세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관한 내용이나 정보의 추가가 필요 - 해당 '만세운동'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장소인 부산 진 일신여고 기념관의 경우 이용 시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미흡

#### ▷ 활용

<b>활용여부</b>	- 현재 '동래여고'의 교정에 '부산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기념비'가 존재 - '부산진일신여학교'의 건물을 기념전시관으로 활용 - 최근 부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부산 여성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관심 증대
<b>개선사항</b>	- 관련된 시설물을 정비 및 활용하여 해당 '만세운동'이 가진 가치를 알림 - 안내판에 역사적 의의나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 - 기념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 부산시가 주축이 되어 기념일 제정, 대규모의 재현행사 개최를 통하여 해당 '만세운동'이 가진 의의를 계승
<b>활용방안</b>	- 부산시가 주축이 되어 해당 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기념일을 제정하는 방안 - 기존 비정기 소규모로 개최된 재현행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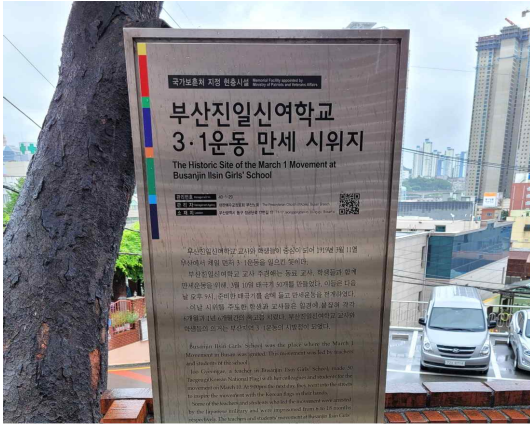
## 4. 관련 이미지



부산진일신여학교 기념관 전경 1



부산진일신여학교 기념관 전경 2



부산진일신여학교 만세 운동 안내판



부산 동구의 독립운동 거리 조성 관련 사진 1



부산 동구의 독립운동 거리 조성 관련 사진 2



부산 동구의 독립운동 거리 조성 관련 사진 3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탁지일 2011, “부산지역 개신교 유적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 \* 강대민 2019, “부산지역 3.1운동 연구 성과와 전망”, 향도부산.
- \* 김혜진 2019, “부산지역 여성독립운동사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오미일 2019,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1 독립만세 시위와 여성운동”, 향도부산.
- \* 홍순권 2019, “부산지역 3.1운동 전개 양상과 특징”, 향도부산.
  
- \* 2019.01.28., 부산일보, 『[3·1운동 100년, 미래로 100년] 4. 용감했던 소녀들의 외침』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2819245925444>
- \* 2019.01.31., 국제뉴스, 『부산보훈청, 2월 우리고장 현충시설 ‘부산진일신여학교3·1운동 시위지’ 선정』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032>
- \* 2019.03.11., KNN,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열려』  
<http://www.knn.co.kr/182900>
- \* 2019.05.16., 국민일보, 『부산진일신여학교가 앞장선 태극기 물결, 경남 곳곳으로 번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8349&code=23111668&cp=nv>
- \* 2021.03.10., 코나스넷, 『부산 일신여학교 3·1만세운동 랜선 행사 11일 개최』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6614>
- \* 2022.02.27., 국제신문, 『일제에 맞서 만세시위 호주인 3인, 독립유공자 됐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227.99099006528>
- \* 2022.03.11., 노컷뉴스, 『부산 동구, 3월 만세운동 기념 행사 ‘뮤지컬 3월’ 개최』  
<https://www.nocutnews.co.kr/news/5721886>

#### 국제신문, 『부산·경남 3.1운동의 효시... 일신여학교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열린다』, 2018.02.27.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1666>

부산보훈청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부산 동구 일신여학교에서 부산, 경남 3·1운동의 효시이며, 이후 각 지역 만세운동의 시초가 됐던 일신여학교의 만세운동을 기리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부산노회회관 마당(부산지교회 맞은편)에서 식전공연으로 취타대, 태권무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본 행사의 막을 올린다.

이어서 동구주민 14명으로 구성된 ‘양철 지붕 위에 청개구리’ 연극팀의 당시 일신여학교 어린학생들이 안중근 의거를 생각하며,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재현극 뿐만 아니라 독립군, 일본헌병으로 분장한 배우 30여명과 말 2필을 등장시켜, 일신여학교에서 동구청 오거리까지 생동감 있는 거리 퍼레이드 및 퍼포먼스를 펼친다.

당시의 만세운동을 사실적으로 재현함은 물론, 지역 특성을 살린 공연, 체험행사를 병행 실시해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동구청 광장에서는 '윤도현의 애국가' 등에 맞춰 태극기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행사장 주변에는 독립운동가 '그 날의 어록' 패널전시, 3·1만세운동 포토존 조성, 3·1절 분위기 조성 '이바구 자전거'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동래여교의 전신인 일신여학교는 호주 선교단에 의해 동구 좌천동에 설립해 여성교육 신기원을 이룩하는데 발판이 된 학교이며, 일신여학교 만세운동은 부산경남 3·1운동의 불씨를 당겼으며, 이후 각 지역 만세운동을 이끄는 중심점이 됐다.

부산진일신여학교 항일 학생운동은 1919년 3월 2~3일께 독립선언서가 부산에 전해지자 3월 10일 일신여학교 교사 및 학생들이 밤을 새워 태극기를 만들어 다음 날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좌천동 거리를 누비며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당시 일신여학교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김난줄, 김반수, 김복선, 김봉애, 김응수, 박두천, 박연이, 박정수, 송명진, 심순의 등 10명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훈장을 추서했다.

부산보훈청 관계자는 "이번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그날의 역동성을 지역주민이 직접 연출하고 배우로 참여해 3·1독립정신을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등 독립을 향한 그 날을 재현하면서 시민과 학생들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한국여성독립운동가(7)] 일신여학교의 만세울림』, 2014.07.22**  
<https://www.newscj.com/249505>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여성항일운동이 두드러졌던 3·1운동기는 전국적인 규모만큼 한국여성의 역할도 변모시켰다. 당시 집안 내조자에 머물렀던 한국여성이 역사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변화를 어디부터 주목해야 할까.

문호개방과 종교유입, 근대교육의 확대로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여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민족운동의 대열에 서는 폭도 넓어졌다. 물론 이런 변화는 거슬러 올라가서 동학의 인내천(人乃天)과 사인여천(事人如天), 박영효의 남녀동권론(男女同權論)에서 강조했던 인간존중과 평등에 개화이지가 고스란히 묻어 있지만 근대교육의 확대는 남녀구분 없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나 기존의 여성교육은 가정교육에 의존했지만, 근대교육기관의 등장은 지방여성도 학교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의 경우, 1895년에 호주 기독교장로회의 여자전도사였던 맨시스와 페리가 부산지역의 고아를 돌보기 시작한 이래 1895년에 정규교육과정을 갖춘 일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여성교육은 본격화된다. 일신여학교는 1909년에 고등과를 추가로 개설해 1913년 1회 졸업생 4명, 이어 1925년까지 12회 5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기독교정신과 남녀평등사상의 전파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시대변동과 맞물려 근대교육은 여성의 사회인식과 민족의식강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그것은 부산지역 3·1만세운동의 시발점이 일신여학교인 것에서 알 수 있다.

서울 파고다 공원의 만세시위 이후 부산경남에 독립선언서가 비밀리에 전달되면서 일신학교 기숙사는 학생들이 밤을 새워 태극기를 제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일신여학교의 교사 주경애(朱敬愛)의 주도로 교사 박시연(朴時淵)과 일신여학생 김응수, 송명진, 김반수, 박차정, 심순의 등 11명, 지역학생들이 모여 3월 11일 오후 9시 좌천동 거리는 만세울음을 쏟아내며 태극기를 흔드는 가녀린 손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들의 가녀린 손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드는 여장부의 손으로, 소녀의 울부짖음은 부산의 만세시위를 앞장서는 메아리로 이어졌다. 그렇게 일신여학생의 만세시위는 부산경남의 3·1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일신여학교의 만세울림! 그것은 가녀린 민족혼의 떨림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신호였다.

## civic news. 『부산 최초 3.1운동 만세? 일신여학교 교사 학생들의 외침』, 2019.03.21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3>

1919년 3월 11일.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지 열흘째 되던 날, 부산 지역에서도 좌천동 거리에 처음으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의 근원은 부산에서 최초로 3·1운동을 일으킨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독립선언서와 함께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동래학원 100년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온 경성학생단 대표가 부산공립상업학교(현 부산상업고등학교)와 동래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의 학생 대표들에게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다. 경성학생단 대표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학생 대표들은 부산공립상업학교, 동래고등보통학교, 부산진 일신여학교 학생들에게 연락해 3월 11일에 만세 운동을 하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다른 학교는 만세운동을 하지 않았고, 부산진 일신여학교 교사 2명과 학생 11명만이 단독으로 만세를 외쳤다.

3·1운동 당시 16세였던 김반수 동문(7회)이 1993년 교장 선생님에게 쓴 편지에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나와 있다.

“3월 1일에 독립만세를 전국에서 부르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여 때는 이때다 싶어 동지 일신여학교 몇 명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어 나눠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출가시킬 때 쓰려고 장만해 둔 혼숫감 옥양목을 어머님 몰래 고집어내어 기숙사로 가지고 가서 초저녁에는 기숙사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밤 10시가 넘어 창문에 불빛이 밖으로 새어 안 나가기 위해 창문에 이불을 가리고 옥양목에 다 대접을 얹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붉은 물 검은 물로 칠하여 겨우 마련한 태극기를 들고 3월 11일 밤 8시경 거리로 가지고 나가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목이 터지라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답니다. 부르다 부르다 지쳐 쓰러지면 또 용기를 내어 불렀답니다.”

<동래학원 100년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 만세 시위에 합류했고, 금세 거대한 만세 군중이 생겼다. 그러나 얼마 후 일경이 나타나 총검을 휘두르며 쫓았고, 부산진 일신여학교 모든 학생은 체포됐다. 초량에 피신해있던 일신여학교 주경애 선생은 학생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자진 출두했다. 심문하는 동안 주동 인물을 밝히기 위한 일본 군경의 극심한 횡포가 계속됐다. 동래여자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부산진 일신여학교만세운동기념비>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 학생인 김응수는 “세 살 먹은 아이도 제 밥을 빼앗으면 달라고 우는데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무엇이 나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모든 심문이 끝난 뒤 학생들과 교사들은 부산형무소에 수감됐고, 학생들은 징역 5개월, 교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 최초의 3·1운동이 일어난 부산진 일신여학교를 설립한 이들은 호주 선교사들이었다. 구한말 호주는 한국을 기독교 선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내한해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이 시기 한국에는 여성 교육이 소외돼있었다. 부산에서 활동한 초기 호주선교사 중에는 미혼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접촉이 쉬운 여성을 위한 교육에 큰 관심을 가졌다. 호주 선교사들은 여성 교육이 미래의 민족지도자를 배출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호주 초기 선교사 멘지스(1856-1935)는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인들과 어머니들이 반드시 교육돼야 한다”며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래학원 100년사>에 따르면, 1892년 호주의 두 선교사 멘지스와 페리(?-1935)는 3명의 여자 고아를 그들의 초가집으로 데려가 한국인의 선교사로 키우기 위해 교육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아이들이 점점 모여들었고, 1893년 부산 최초로 호주원주민 말로 심터라는 뜻의 ‘미오라(Myoora) 고아원(정확한 위치 발견되지 않음)’을 설립한다. 그 후 근대여성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2년 후 고아원이었던 곳에 3년 과정의 소학교를 차린다. 학교가 낱알이 번창함에 학교 이름을 일신(日新, Daily-New)이라 지었고, 1905년 현재의 건물을 신축해 이전한다. 이어 1909년에는 구한국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3개년 과정의 고등과를 병치했다.

1925년,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고등과는 동래구 복천동 500번지에 새로 지은 학교로 이전해 동래일신여학교(동래여자고등학교 전신)로 새 출발을 했고,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소학교만 운영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

의 역사가 <동래학원 100년사>에 실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후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1939년 소학교가 폐교되고, 호주선교사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기 시작했다. 결국 1942년, 모든 선교사가 추방됐다.

학교에서는 주로 성경과 영어 교육을 했고, 조선어, 역사, 지리, 수학, 심리학, 식물학 등도 함께 가르쳤다. 다양한 민족교육들로 상해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양한나(1회 졸업생)와 민주당 최고위원(1956), 민중당 대표최고위원(1966)을 역임한 박순천(5회)과 같은 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부산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라는 교육적 가치와 부산 3·1운동의 근원지라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건축사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지은 지 100년이 넘었지만, 원형이 잘 보존되었고, 비례와 균형미가 돋보인다. 특히 건물 정면 계단과 계단 2층 난간은 20세기 초 서양식 건물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벽돌쌓기와 돌쌓기의 세부기법을 보면 노력과 정성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건축사적·교육적·역사적으로 모두 높은 가치를 가진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2003년 부산시 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후 동구에서 지원을 받아 2004년부터 2년간 지붕, 교실, 벽체 등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했고, 2009년에는 내부에 기념전시관을 설치했다. 기념전시관을 보러 온 대학생 안나영(22, 부산시 남구) 씨는 “전시관에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숨겨진 이야기가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고 말했다.

붉은 벽돌의 2층 건물이 눈에 띄는 부산진 일신여학교 기념전시관은 현재 1층, 2층 모두 기념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만 관람이 가능하다. 문이 닫혀 있을 시, 1층 문에 달린 일신여학교 개방 안내문에 적힌 부산노회 사무실 번호로 전화하면 와서 열어준다.

전시관 1층에는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설립과 건축물의 변천을 보여주는 제1전시관과, 옛 교실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부산진 일신여학교 체험실인 제2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2층에는 근대 여성교육과 자랑스러운 동문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제3전시관과, 부산의 3·1운동과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제4전시관이 자리해있다.

부산시 동구 좌천1동 768-1번지에 위치한 부산진 일신여학교 기념전시관을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좌천역에 내린 후, 3번 출구로 나와 옆 골목을 따라 경사 높은 언덕을 5분간 올라야 한다. 부산진교회의 건너편에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부산진 일신여학교가 있다.

3월 11일 부산진 일신여학교부터 동구청 광장까지 부산진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재현행사와 주먹밥, 태극기 만들기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행사가 있었다. 부산시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는 “부산·경남지역 3·1운동의 효시가 됐던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만세운동을 기리고, 3·1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여 평화와 공영을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했다”며 “250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사개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본다”고 전했다.

# 외양포 포대

##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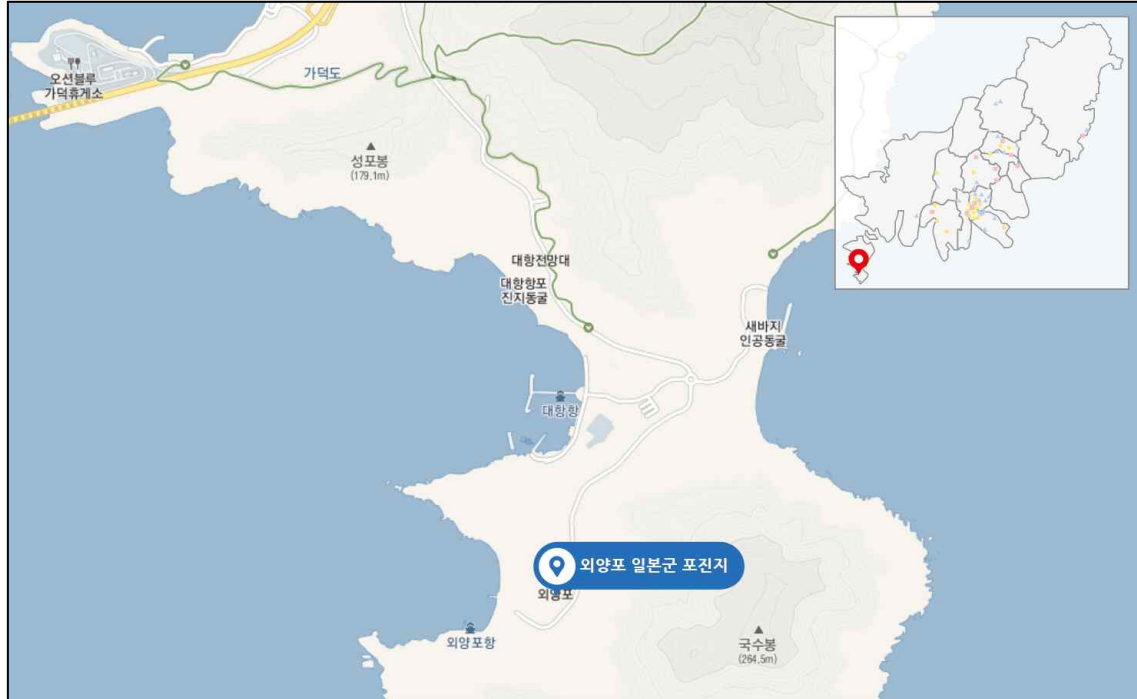
<b>유형 구분</b>	역사	<b>소재지</b>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산13-23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방식</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904년	<b>소유·관리자</b>	국방부 등
<b>초기 형태</b>	군사시설	<b>현재 용도</b>	원형 보존 및 전시시설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4년 러일전쟁 직전,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할 목적으로 외양포를 요새화함에 있어 주민들은 저항하였으나 강제 수용되어 8월~12월까지 포대공사 강행</li> <li>- 1905년 진해만에 있던 대대본부를 옮겨온 후, 진해만 요새사령부를 세움</li> <li>- 1909년 진해만 요새사령부가 마산으로 이전하며, 포병 1개 중대만 배치되고 그 후 해방 때까지 일본군 군사시설로 활용됨</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양포 마을 뒤쪽 산어귀에 위치</li> <li>- 1936년 6월 건립했다 '사령부 발상지(司令部發祥之地)'비석 안쪽으로 병사시설과 탄약고, 포대 터 등의 흔적이 있음</li> <li>- 네모반듯한 부지 사방에 벽을 만들면서, 동쪽과 북쪽에는 시멘트 벽체로 남쪽과 서쪽은 흙 언덕으로 사방을 둘러서 유탄포 두 문씩 설치한 포대가 세 곳이 있고 그 사이 두 곳에 이중벽 탄약고를 설치함</li> <li>- 외양포 포대의 전략적 목표가 부산과 진해만을 방어하는데 집중되어 해안으로 접근하는 적함에 대한 방어용으로 사용됨</li> <li>- 포대는 지형을 활용하고 흙과 대나무를 덮어 공중에서 보지 않으면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설계함</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강점기의 수탈, 강제노역 등의 역사를 대변하는 장소</li> <li>- 근대 이전 고려시대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는 섬이었고, 임진왜란 때에는 조선의 수군과 왜군의 전략 요충지였으며, 현재는 진해 해군사령부 길목을 지키는 곳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중요 군사 요충지</li> <li>- 주변에 많은 근현대 건축물이 분포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근대 문화유산 지구적 성격을 지님</li> <li>- 외양포 주변이 군사시설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지역의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건물과 주변 경관이 잘 보존</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역사문화대전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카카오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외양포 말길	외양포	-	-
	성격	산책로	항구	-	-
접근성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type="checkbox"/> 버스 <input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각각 도보로 10분, 5분 거리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존재하나 규모가 작고 대부분 바닷가 인근 임시주차시설 이용 - 버스 정류장이 존재하지 않아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짐.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해방 이후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방부 소유로 귀속되어 있었고 이와 더불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특성상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됨 - 유적 활용을 위해 탐방로, 안내판 등 주변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 유적의 가치에 연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 진행 중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상시 개방	-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적으로 유적의 보존이 양호하나 포진지 외벽은 일부 관람객들의 낙서로 훼손이 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인식개선이 요구됨</li> <li>- 주변의 근대건축물들과 다른 군사시설들을 묶어 외양포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으나 근대건축물의 경우 개인소유로 제대로 된 보존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li>- 향후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유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공항 건설보다 주거환경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음</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강점기의 수탈, 강제노역 등의 역사와 더불어 그 시대 삶의 경관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한 장소</li> <li>- 주변의 여러 근대건축물과 더불어 '근대 문화유산 지구적' 성격을 지녀 활용도가 높은 장소</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 보존과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비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li> </ul>

▷ 활용 방향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유사 유적과 함께 포대 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외양포 역사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해설사 배치 등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 중 (약 2시간 소요)</li> <li>- 주변의 경우 근대 일본식 가옥, 우물, 공동목욕탕, 사령부 건물지등 근현대 건축물들이 다수 포진된 '외양포 마을'의 경우 해당 장소와 연계하여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li> <li>- 외양포 포대의 경우 진지 각 구역을 전시장으로 활용 중이며 'LED'를 활용한 전시물, 오얏꽃을 활용한 전시물 등이 설치됨</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된 안내판의 위치 변경을 통한 인지도 강화</li> <li>- 시설물에 설치된 전시물의 경우 장소와 연관된 주제를 자세한 설명 없이 지나치게 함축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이 필요</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의 근현대 건축물들과의 연계를 통한 '근대 문화유산 지구'의 운영</li> <li>- 해당 장소를 기점으로 연계성이 있는 장소를 탐방해보는 '근대 문화유산' 투어와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 운영</li> </ul>

#### 4. 관련 이미지



외양포 포진지 전경



내벽 현황



내부 전시물 1



내부 전시물 2



유적 안내판



유적 안내 프로그램 진행 중



외양포 포진지 역사 안내소



인근 일본식 가옥 및 안내판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이지영·서치상 2010,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군막사 및 포대진지의 구축과정과 건축특성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 \* 김윤미 2012,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계와 부산의 요새”, 군사지.
- \* 이지영 2022, “한말 일제의 대륙 진출과 부산 및 진해만의 요새화”, 향도부산.
  
- \* 2008.09.23., 연합뉴스, 『부산 기덕도 외양포 주민 “여긴 아직 일제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278704?sid=102>
- \* 2012.05.25., 노컷뉴스, 『“아픔을 기억한다” 일제시대 고스란히 간직한 ‘가덕도 외양포’』  
<https://www.nocutnews.co.kr/news/4260034?c1=262&c2=265>
- \* 2016.06.30., 부산일보, 『외양포(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제 기지, 역사체험공간으로 거듭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0701000117>
- \* 2016.08.01., KNN, 『가덕도 외양포 일제 기지, 관광지 방안 검토』  
<http://www.knn.co.kr/101568>
- \* 2020.03.18., 부산제일경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외양포에 야생화단지 조성』  
<http://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383>
- \* 2021.10.27., 부산일보, 『일제강점기 부산의 군사요새화를 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708473088656>
- \* 2022.07.28., 공감신문, 『[김동현의 부산이야기8] 가덕도는 적과 마주한 최전방』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26032>

### 부산일보, 『외양포(강서구)-장자등(남구) 포대진지 '역사체험마을'로』, 2012.05.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20511000087>

부산 지역 근대건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 일제강점기 조성된 강서구 등 포대진지를 '전쟁 역사 체험형 마을'로 관광자원화하거나, 서구 지역에 특화거리를 조성해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존 시티투어 외에 근대건조물을 둘러보는 시티투어 코스를 새롭게 개발하는 안도 내놓았다.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던 근대건조물을 각각 한 단체나 기업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0일 부산시청 24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 기본 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부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6월부터 점차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 차원에서 5년마다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기본 계획도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조례가 규정한 근대건조물이란, 19세기 개항기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세워진 건물 가운데 역사성과 예술성,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 및 구조물이 대상이다.

부발연 조사결과, 부산에는 부산대 인문관을 비롯한 건축물 121개, 산업구조물 55개, 생활문화유산 15개, 역사유적 7개, 인물유적 3개 등 모두 201개의 근대건조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본 계획은 근대건조물 관리주체, 훼손된 근대건조물 발생 시 보조금 지급 절차, 시설별·권역별 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들테면 근대건조물의 행정 관리주체는 시청 도시재생과 내에 전담부서를 뒀 맡기로 했다. 근대건조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1단체, 1근대건조물 협약'과 같은 자매결연 방식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추진 전략이 담겨 있다.

근대건조물 활용계획으로는 강서구 외양포 포대진지나 남구 장자등 포대진지를 '전쟁 역사 체험형 마을'로 관광자원화하거나, 한국전력 중부산지점 등이 있는 서구 부민동과 토성동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특화거리 조성 계획에는 한전 중부산지점 창고 활용 계획(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작가공방 등)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중부산지점 창고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현재 한전 중부산지점 구내식당,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밖에 기존 시티투어에 근대건조물을 연계한 '향토건축문화유산 투어'도 제안됐다.

기본 계획 연구책임자인 부발연 광역기반연구실 이동현 연구실장은 "부산시가 후속적으로 근대건조물 소유자들과 접촉해 적극 추진해 나가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구 부민동, 토성동 일대에는 근대건조물이 각기 떨어져 있는데, 기존 문화재와 엮어 특화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라며 "전문가 자문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일제강점기 부산의 군사요새화를 보다』, 2022.09.15. (발취)**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708473088656>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이 부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일제에 의해 군사 기지화된 부산의 역사적 근원을 규명하기 위해 부산요새사령부의 설치 배경과 역할, 부산지역에 구축된 주요 일본군 군사시설 현황 등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부산항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수송항이었다. 이에 러일전쟁부터 중일전쟁을 거쳐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산은 일본 육군의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도 가덕도 외양포 포대, 장자등 포대, 기장 포대, 부산요새사령부 등 일본군이 구축한 군사시설의 흔적을 부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술대회는 △신주백 독립기념관 연구원의 '일본의 대외팽창과 부산의 군사적 기능' 기초발표 △이지영 동명대 교수의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륙 진출과 부산의 요새화' △김윤미 부경대 교수의 '태평양전쟁과 부산의 군사요기지화' △남윤순 아키텍케이건축사무소 연구원의 '부산지역에 구축된 일본군 군사시설의 건축적 고찰'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회동 수원지

##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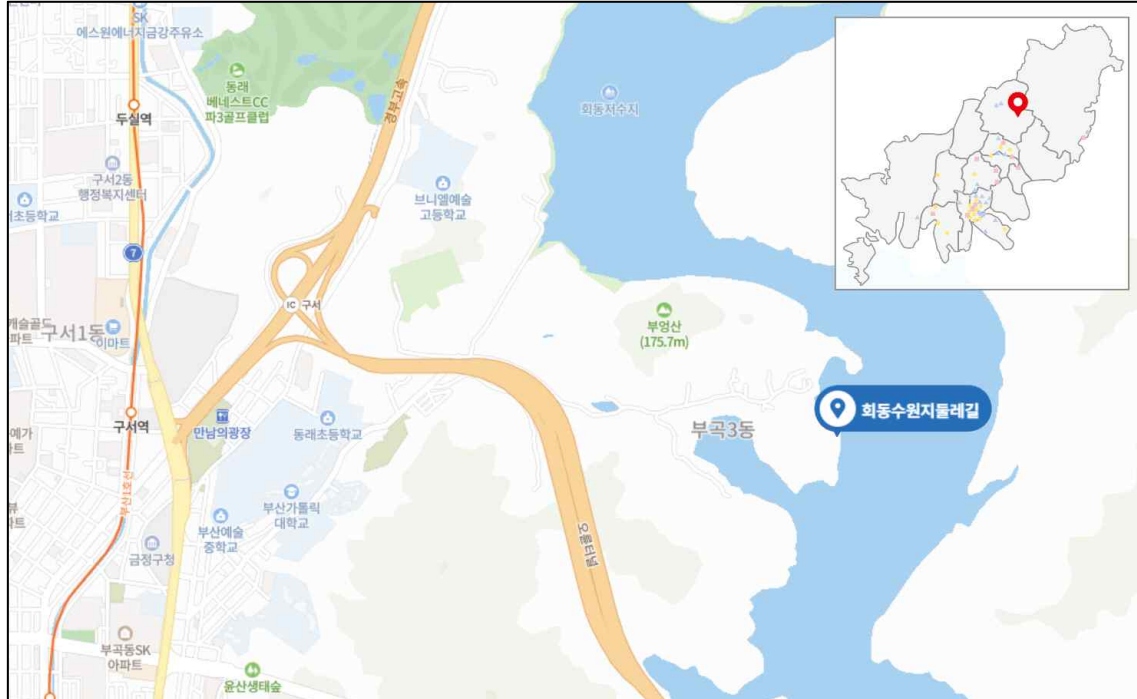
<b>유형 구분</b>	산업	<b>소재지</b>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121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방식</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946년	<b>소유·관리자</b>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b>초기 형태</b>	저수지	<b>현재 용도</b>	저수지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8년 가뭄으로 물 부족이 발생하자 수영강 보조 수원지에 양수기관을 설치</li> <li>- 1940년 극심한 가뭄에 대한 대책과 상수도 확장사업 일환으로 공사를 시행</li> <li>- 1946년 축조 계획을 확대 변경하여 명장 정수장과 함께 준공</li> <li>- 1959년 인구 증가로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자 개통확장 공사를 착공하여 완공</li> <li>- 1967년 / 1983년 저수지 확장 공사 진행</li> <li>- 1984년 매리, 덕산 정수장이 개소되어 보조 취수장 역할을 담당</li> <li>- 2012년 물 낙차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시설 완공</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 저수지로, 수영강 상류의 하폭이 좁은 지점에 축조된 중력식 콘크리트 댐</li> <li>- 오륜대 저수지 혹은 회동 저수지라고도 불림</li> <li>- 회동 수원지 부근은 1964년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에 개방되어 관광 유원지로 각광 받음</li> <li>- 회동수원지 산책길이 2009년 조성, 개방되어 숲과 호수를 즐기며 편안히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의 근대 도시기반시설로 건설되어, 현재 주요 인공 저수지이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시민들의 직접적 접근은 어렵지만, 도심에서 숲과 호수를 편히 즐길 수 있는 관광 유원지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li> <li>- '갈맷길'의 일부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정비 상태가 뛰어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휴식 공간을 제공</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오륜대 고분	부산가톨릭대학	한국 순교자 기념관	기타 상업지역
	성격	역사유적	대학교	기념관	음식점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주변에 많은 주차장이 존재하나 수원지와는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주말이나 공휴일과 같이 방문 수요가 높은 날의 경우 다소 주차공간이 부족함 - 마을버스 정류장이 입구 주변에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다수 위치해 있어 버스를 통한 접근성은 양호 - 주변에 부산 1호선 '두실역'이 위치해 있어 금정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다는 강점이 있음			

▷ 보존현황

<b>보존(보수) 상황</b>	- 수원지라는 특성상 주변 경관의 보존은 매우 양호 - 탐방로의 정비나 편의 시설의 상태 또한 훌륭한 편임
<b>보존상태</b>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b>보존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	-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 주변 시설물의 특성과 더불어 주변 환경정비가 양호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존과 관련된 문제는 없음
<b>필요성</b>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음 - 근대 도시기반시설이 현재 도심 속 자연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
<b>개선사항</b>	- 대다수 방문객들의 경우 해당 장소를 '수원지'가 아닌 단순한 '산책로'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산책로뿐 아니라 생태학적인 가치나 '수원지'로서의 가치 전달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활용

<b>활용여부</b>	-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관광 유원지로 활용 중 - 갈맷길의 일부로 조성되어 '산책로'로서 사용
<b>활용방안</b>	-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 속 휴식공간을 제공 - 아동 및 청소년에게 역사 및 생태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
<b>개선사항</b>	- 해설·안내자 설명 내용이 수원지의 규모나 생태적인 가치에만 치중 - 주변 지역의 역사와 설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입구에 배치하였으나 해당 내용의 경우 회동수원지만이 가진 역사적인 의의나 가치와 관련된 정보가 다소 미흡 - 전반적으로 '회동수원지'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 4. 관련 이미지



진입로 전경1



진입로 전경2



출입로 전경



출입로 안내판



산책로 전경



산책로 안내판



편의 시설1



편의 시설2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최옥 2009, “사계절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곳 물의 도시 ‘부산’”, Electric Power.
- \* 이강순 2012, “2012년 부산의 10대 히트상품”, BDI포커스.
- \* 박경옥 2018, “회동수원지 길”, 부산발전포럼.
  
- \* 2021.11.26., 국제뉴스, 『회동수원지로 떠나는 특별한 소풍여행... ‘출발! 회동수원지 탐험대’ 성료』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060>
- \* 2021.01.27., 부산일보, 『‘4년 연속’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 ‘생태테마관광 육성공무사업’ 선정』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2717092351571>
- \* 2021.04.19., 부산일보, 『회동수원지 둘레길 ‘한 바퀴’...시험 스트레스 ‘씩’』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1917332258203>
- \* 2021.10.28., 부산MBC, 『가을, 어디로 갈까? - 회동수원지 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278704?sid=102>

### **부산일보, 『회동수원지에 ‘국제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서식』, 2022.05.30.**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53016432764326>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에 천연기념물인 남생이와 멸종위기종인 등포풀, 대구돌나물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010년 시민에게 개방된 회동수원지 일대에서 희귀생물의 자생이 확인되면서 생태계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 부산생물다양성탐사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8~29일 이틀간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 일원에서 '2022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탐사에서 위원회는 식물 641건, 곤충 269건, 양서류 50건, 조류 29건 등 총 1197건을 관찰했다. 이는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 등 100여 명이 관찰한 생물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중복을 제외한 정확한 종 현황을 알기 위해선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탐사 대상지인 회동수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2010년 시민에게 개방된 이후 처음으로 생명다양성 탐사가 진행됐다.

이번 탐사에서는 천연기념물과 국제 멸종위기종도 발견됐다. 천연기념물 남생이는 민물가에 사는 거북과 파충류로, 이번에 회동수원지에서 처음 발견됐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도 관찰됐다. 고리도롱뇽은 기장군 고리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종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양서류다. 김합수 경남양서류 네트워크 활동가는 “남생이는 회동수원지에 최소 4~5마리는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리도롱뇽과 남생이는 모두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멸종위기 식물인 등포풀과 대구돌나물도 관찰됐다. 두 종 모두 진흙이나 습지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크기가 2~5cm 정도로 관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번 탐사로 회동수원지 일대에 서양금은초, 미국쑥부쟁이 등 생태교란식물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도 확인됐다. 특히 꽃가루를 날려 비염을 일으키는 생태교란종 단풍잎돼지풀이 회동수원지 주변에 광범위하게 번져 있었다.

2022 부산생물다양성탐사조직위원회 최대현 실행위원장은 “회동수원지는 2010년 개방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습지가 훼손된 모습을 발견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희귀식물과 저산습지가 다수 확인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1회째 진행된 생물다양성 탐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2 부산생물다양성탐사조직위원회, 부산환경회회가 주관했다. 매년 남구 이기대, 사상구 삼락공원 등 부산의 일정 지역을 정해 서식하는 생물종 리스트를 만든다. 위원회는 매년 탐사 결과를 자연관찰·기록 모바일 앱인 '네이처링'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부산제일경제, 『회동수원지 지도여행' 가족단위 신청자 모집』, 2020.10.17. (발췌)**

<http://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48>,

부산 금정구는 회동수원지 근처에서 오는 24일 '회동수원지 소풍여행'의 첫 번째 특별 프로그램인 'LETS GO! 회동수원지 지도여행'을 가족 단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여행 프로그램은 ▲지도탐험 ▲신비한 마술공연 ▲생태 만들기 등 아동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놀이 체험과 즐길거리로 구성된다.

특히 '회동수원지 지도여행(오리엔티어링)' 프로그램은 참가자 가족이 함께 지도와 나침반 사용법을 배워 회동수원지 곳곳에 준비된 미션포인트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고 도장을 획득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출발장소로 돌아오는 게임이다.





## 구 고려제강 수영공장 (F1963)

### 1. 개관

<b>유형 구분</b>	산업	<b>소재지</b>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방식</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963년	<b>소유·관리자</b>	고려제강 (개인)
<b>초기 형태</b>	와이어 공장	<b>현재 용도</b>	복합문화공간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9월 부산 남포동에 세워진 무역회사 고려상사(고려제강 전신)</li> <li>- 1963년 고려제강의 모태인 수영공장 탄생 후, 25년간 와이어를 생산</li> <li>- 1952년 12월에 법인전환</li> <li>- 1969년 8월 회사 이름을 고려제강(주)로 변경</li> <li>- 1976년 증권 거래소 상장</li> <li>- 2016년 부산비엔날레를 계기로 (구) 수영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li> <li>- 현재 본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위치</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5년 설립된 고려제강은 자동차, 교량, 에너지, 건축, 전기, 전자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 특수소재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현재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지역 향토기업</li> <li>- "F"는 Factory(공장), 1963은 수영공장이 완공된 연도를 의미</li> <li>-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에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재탄생</li> <li>- 미술 전시와 다양한 공연,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제공</li> <li>-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li> <li>- 대나무숲, 단풍가든, 정원 등 도심 속 친환경 열린 공간으로 활용</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기업이 환경에 변화에 맞춰 지역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li> <li>-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자리하면서 인근 지역의 정주 환경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li> </ul>		

\* 출처 : F1963 홈페이지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코스트코 부산점	고려제강 기념관	망리단길	-
	성격	대형마트	기념관	상업지역	-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반경 100미터 지점에 다수의 공유주차장이 위치 - 도보로 10분 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존재하고 도보로 20분 거리에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측면에서 양호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설비라인이 있던 공장이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장소로 재탄생 - 대형 크레인이 매달려 있던 자리는 북타워가 세워짐 - 성공한 재생건축 사례로 잘 정비되어 새로운 성격의 공간으로 재탄생 - 공장의 천장을 허물고 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 - 건물 중앙의 개방된 공간, 야외의 산책로와 같은 장소로 방문객들에게 잘 정비된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출처 : F1963 홈페이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매일	9:00~21:00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의 외형을 잘 활용한 재생건축</li> <li>- 본래 건축물이 가진 역사적 가치나 의의가 인테리어 요소로 단편적으로 소비됨</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내의 성공적인 '재생 건축' 사례이자 향토기업의 사회공헌 사례</li> <li>-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에 대한 정보와 가치를 안내판이나 영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제공할 필요성</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내, 외부를 정비하여 상업시설, 전시관 등이 입점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 중</li> <li>- 건물 중앙의 개방 공간, 야외의 산책로는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됨</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만이 가진 역사성이나 가치를 드러낼 만한 프로그램이 부재</li> <li>- 성공한 재생 건축사례, 복합 문화공간임을 강조하여 관람 위주의 전시회나 음악회에 치중</li> <li>-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의 환원하는 내용을 더욱 알림으로써 향토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만이 가진 역사성이나 가치를 주제로 한 상설 전시 개최</li> <li>- 건축물이나 향토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의 거점 시설 역할 부여</li> <li>-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인만큼 보다 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li> </ul>

#### 4. 관련 이미지



1963년 수영공장 전경\*



과거 공장 내부\*



F1963 현재 전경\*



F1963 내부 (카페 '테라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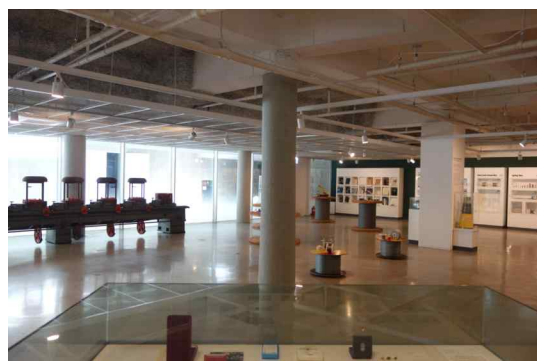
F1963 기업의 특성(와이어)와 연계한 공간구성(대나무숲) 과 안내판



F1963 종합안내판\*



고려제강 기념관 전경 1



고려제강 기념관 내부 전시물

\* 출처 : F1963 홈페이지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송수경 2017,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활용사례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이찬민 2019, “복합문화공간의 브랜드 자산이 만족도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F1963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 \* 쉬지아람·윤지영 2020, “산업유산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부산 F1963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 \* 2018.09.13., 경남도민신문, 『부산 ‘F1963 복합문화공간’ 공간문화대상 최우수』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79#0BNb>
- \* 2019.01.14., 시사뉴스, 『[이화순의 아트&컬처]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를 잇는 'F1963'』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6658>
- \* 2021.10.07., 중앙일보, 『광안대교 와이어 공장, 지금 부산 핫플됐다…F1963의 매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963>
- \* 2022.06.14., CHIEF EXECUTIVE, 『[이승윤의 ‘공간은 경험이다’] 부산 여행의 新구심점, F1963』  
<https://www.chiefexe.com/news/ArticleView.asp?listId=MzIwOHx8bGItaXRfZmFsc2Ug>
- \* 2022.06.14., 헤럴드경제, 『[부산 여행③] 야경 핫템, 요트와 크루즈, F196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14000080>
- \* 2022.07.22., 부산일보, 『내달 1일부터 일주일 간 ‘F1963 서머 뮤직 페스티벌’ 개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216044486231>
- \* 2022.09.20., 부산일보, 『해운대 집중에서 ‘슬세권’으로... 일상까지 스며든 미술 [신문화지리지 2022 부산 재발견] 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1919312449910>

#### 매일일보, 『고려제강 수영공장,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2016.08.22.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47402>

부산광역시와 고려제강은 오는 23일(화), 고려제강 (구)수영공장 현장(수영구 망미동 소재)에서 복합문화공간 'F1963' 조성·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복합문화공간 'F1963' 조성사업은 폐산업시설인 고려제강 (구)수영공장을 민관 협업을 통한 리노베이션(renovation)으로 사회문화적 가치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전시, 공연, 교육, 상업, 휴식공간의 기능이 융합된 세계적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한 문화재생사업으로는 국내 첫 사례이며, 기업이 주도하여 시민들을 위해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관 협업 및 \*기업 메세나 활동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영구 망미동 지역은 도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지역개발이 더딘 지

역 중 하나인데,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행사는 서병수 부산시장,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 유재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양해각서에는 △복합문화공간 조성목적과 사업위치 및 사업비 △부산시-고려제강 간의 업무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고려제강 수영공장은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 첫 공장으로 1963년부터 2008년까지 반세기동안 와이어로프를 생산하던 공장이었다. 지난 2014년 부산비엔날레 특별 전시장으로 사용된 것을 계기로 고려제강 (구)수영공장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다.

김병기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은 “고려제강 수영공장의 새로운 변신에 시민들과 예술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문화공간 'F1963'이 대만 가오슝의 보얼예술특구, 영국 테이트모던미술관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AZAAR, 『부산 곳곳 자리잡은 #복합문화공간, 이번 주말 데이트 어때?』, 2022.08.19.(발취)**

<https://harpersbazaar.co.kr/article/68951>



F1963은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을 개조해 만든 공간으로, 앞서 소개한 두곳에 비해 '문화'에 방점을 찍었다. 미술 전시부터 클래식·연극 공연을 볼 수 있고, 서점까지 입점해 있어 말 그대로 문화 종합선물세트! 공간 한편엔 도서관이 마련돼 있는데, 건축, 사진, 디자인, 음악 등의 예술 전문 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고. 전통주 브랜드 복순도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막걸리 한 잔 후, 테라로사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 F1963내 대나무숲을 거닐면 그야말로 완벽한 데이트 아닐까.

## 대선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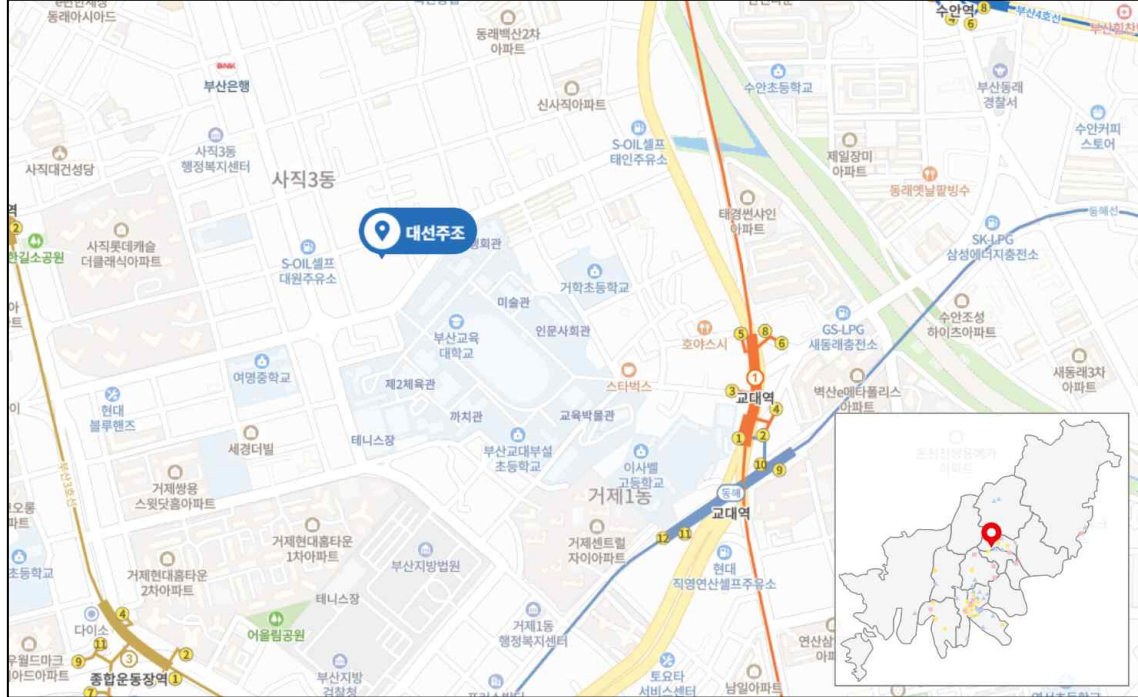
### 1. 개관

유형 구분	산업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77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형성 시기	1930년	소유·관리자	대선주조(개인)
초기 형태	향토기업	현재 용도	향토기업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0년 대선양조 주식회사 설립 (부산 범일동)</li> <li>- 1968년 대선주조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li> <li>- 1974년 본사 및 제 1공장 이전 (부산 사직동)</li> <li>- 1997년 부도</li> <li>- 1998년 화의 신청에 들어가고 2002년 상장폐지</li> <li>- 2009년 제 1회 부산시 사회공헌상 수상</li> <li>- 2016년 '대선'으로 브랜드 리뉴얼</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선주조는 1930년 부산 범일동에서 '대 조선'의 술 제조를 목표로 출발</li> <li>- '대선양조주식회사'로 일제강점기 대일본양조에 대항해 만들어짐</li> <li>- 해방 후 사명을 '대선주조'로 바꾸고 '다이아소주'를 출시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음</li> <li>- 한국전쟁으로 부산이 피란수도가 되면서 전쟁특수를 누렸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시도 별 1개 업체만 소주를 생산하는 법령인 '자도주 법'으로 전성기를 구가함</li> <li>- 198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 동년 스페셜 선 등 '선' 시리즈 소주 외에 오가피 술인 '장생주' 삼폐인 등 다양한 라인을 선보임</li> <li>- 1996년 자도주법 폐지를 시작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1997년의 IMF 위기에 대선주조는 부도를 맞게 됨 1998년 화의 신청에 들어가고 2002년에는 급기야 상장폐지에 이르게 됨</li> <li>- 이후 M&amp;A(기업인수합병) 관련 이슈로 인하여 부산시민들 사이에서 '대선 불매운동'이 일어날만큼 지역에서 그 위상이 추락했으나, 2011년 조선기반 기자재업체 BN그룹에 인수되어 경영안전기반 마련</li> <li>- 2016년, 사장을 비롯 임원들이 부산 거리로 뛰어나가는 '삼보일배', 맛과 브랜드 자체를 변화를 준 대대적인 마케팅 '대선'이라는 명칭의 브랜드 리뉴얼 등으로 부산 지역내 점유율 1위의 자리를 재탈환</li> <li>- 대선주조에서 생산한 '다이아 소주'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로 '부산 기네스'에 선정</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현대 주조산업의 역사를 함께 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서 부산 미래유산으로서 지속성, 공유성, 시대성을 아우르는 사례</li> <li>- 지역민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의 '문화소외' 해결에 기여하는 등 향토기업으로서 부산의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음</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대선주조 홈페이지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부산교육대학교	부산사직 종합운동장	-	-
	성격	교육시설	체육시설	-	-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본사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접근이 쉬움 - 기장 홍보관은 30명 이상 단체 견학 시 셔틀버스 지원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부산 내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대선주조가 생산하는 소주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로 선정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으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공휴일 휴관	14:00~15:40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 현재 운영 중인 향토기업으로 대선주조의 이미지는 잘 유지 보존되고 있음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90년 역사의 향토기업이자 지역 기반의 유일한 소주 제조회사라는 상징성</li> <li>-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부산시민의 곁에서 애환을 함께한 기업이라는 점</li> <li>- 향토기업으로서 부산의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 활동의 모범을 보인 점</li> </ul>
<b>개선사항</b>	- 보존현황에 문제점이 없어 관련된 개선사항은 없음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장공장에 제품 제조 공정 견학과 신제품시음이 가능한 '박물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음(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선주조 견학 프로그램 잠정 연기 중, 향후 일정은 공지에정)</li> <li>- 소외계층 지원, 문화예술 공연 개최, 지역행사 홍보 등의 사회 환원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li> <li>- (병 뒷면의 보조라벨에 지역을 위한 공익 홍보용 광고를 12년간 무상 기재, '코로나19' 당시 소독용 에탄올을 지역사회에 무상 지급 등)</li> </ul>
<b>개선사항</b>	- 부산시와 연계하여 부산 내 점유율을 확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대선이 가진 가치를 전달할만한 프로그램의 발굴 및 운영 필요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향토기업의 가치를 알리는 방안 마련</li> <li>- 대선주조를 시작으로 부산 내 다른 향토기업의 가치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li> <li>- 향후 부산 향토기업 관련 자료 취합으로 부산 산업전시관 등 마련</li> </ul>

#### 4. 관련 이미지



대선주조 본사 전경



Bn그룹 전경



대선주조 기장공장 전경\*



공장의 생산라인 전경\*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소주 '다이아 소주'  
(출처: 연합뉴스)



2017년부터 생산된 대선\*

\* 출처: '대선주조' 공식 홈페이지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한국식품과학회 1981, “業界 및 研究所 탐방”, 식품과학과 산업.
- \* 대한주류공업협회 1997, “대선주조(주)”, 주류산업.
- \* 김태현 2004, “부산 기업사, 2004”,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 이강순 2011, “2011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BDI포커스.
- \* 한국주류산업협회 2013, “회원사 탐방기 -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선주조(주)”, 주류산업.
- \* 이창현·강혜진 2018, “2018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BDI포커스.
  
- \* 2022.03.10., 서울경제, 『"함께 미래로"...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선주조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D4973B1>
- \* 2022.03.23., 헤럴드경제, 『대선주조, 부산영상위 지역상생형 콘텐츠 제작 사업 참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23000884>
- \* 2022.07.24., 울산매일UTV, 『대선주조, 적극적 메세나로 지역 문화계 활력 제공』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1815242823569>
- \* 2022.08.18., 부산일보, 『대선주조, 지역 대학생들과 손잡고 선한 영향력 행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1815242823569>
- \* 2022.08.11., 일요신문, 『대선주조 “해운대백사장·용두산공원 ‘EXPO 보물찾기’ 성지 부상”』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4353](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4353)

### 아주경제, 『대선주조, 부산지역 문화계 후원』, 2022.07.25.

<https://www.ajunews.com/view/20220725140147956>

대선주조 조우현 대표는 "지역 축제, 음악회, 영화제 후원을 10년 넘게 이어오며, 부산·경남이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부산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가 진행하는 '썸머 뮤직 페스티벌'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부산 수영구의 복합문화공간인 F1963에서 8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며 매일 오전 11시, 오후 4시, 오후 7시 30분 총 3차례 진행된다.

대선주조가 특별 후원하는 무대는 6일 오후 7시 30분 F1963 내 GMC(금난새 뮤직센터) 야외 중정 무대(Center Court)에서 열린다. 특별 무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한 뉴월드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로 구성된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을 전한다. 금난새 지휘자는 쉽고 재밌는 해설로 관객들에게 클래식 of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선주조는 KNN방송교향악단 후원회 '무직페라인(Musikverein)'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해 클래식 음악 대중화와 인재육성을 돕고 있다.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서희태 상임지휘자 취임음악회', 부산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와 함께하는 비발디&피아졸라의 사계' 후원이 대표적이다.

지난 6월에는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베이스 바리톤 황동남 독주회 후원으로 양산 지역 클래식 음악

확산에 힘을 보탤다.

대선주조는 고사 위기에 있는 지역 문학관 후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 2020년부터 부산 출신 문학가인 향파 이주홍 선생의 문학관에 매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주홍(1906~1987) 선생은 종합문예지 '문학시대'로 부산 문화 발전을 이끈 장본인이다. 고인의 이름을 딴 문학관은 20세기 초반 동인지 등 희귀본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문학 세미나, 강연회, 창작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부터 2017년까지 모기업 BN그룹과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를 주최해 지역 문화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부산에선 유일하게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됐다.

**부산일보, 『연제구, 대선주조 기증 에탄올로 마을 곳곳 방역』, 2020.03.04. (발췌)**

<http://www.busan.com/view/newsunicollivill/view.php?code=2020030415225208664>



연제구는 부산 향토기업인 대선주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 3일 대선주조로부터 주류제조용 주정을 희석한 주조원료 2.5톤을 기부받아 일선 방역 활동에 사용한다.

에탄올 소독은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술의 원료인 만큼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아 방역 활동시 특별한 방호복 없이 장갑 착용만으로 가능해 전문 인력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게 되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이번에 제공되는 알코올은 상당히 고가로 도로에 뿌리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신 전차 종점 기념비 (전차 종점 기념비)

## 1. 개관

<b>유형 구분</b>	산업	<b>소재지</b>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50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방식</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995년	<b>소유·관리자</b>	부산 서구
<b>초기 형태</b>	기념비	<b>현재 용도</b>	기념비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5년 11월 부산우편국에서 온천장 입구까지 전차 선로가 개량되어 전차가 본격적으로 운행</li> <li>- 1927년 10월 말 온천장까지 전차가 연장 운행되어 역사 준공(온천장 전차종점)</li> <li>- 1928년 9월 공설운동장 건립 후 구간 연장(부용동~공설운동장)되어 대신정선(大新町線) 운행</li> <li>- 1935년 2월 영도대교 준공 후, 영도선[당시 목도선(木島線)]이 복선으로 개통(영도전차종점)</li> <li>- 1968년 5월 20일까지 전차 차고지와 종점으로 활용</li> <li>- 1995년 대신동 전차 종점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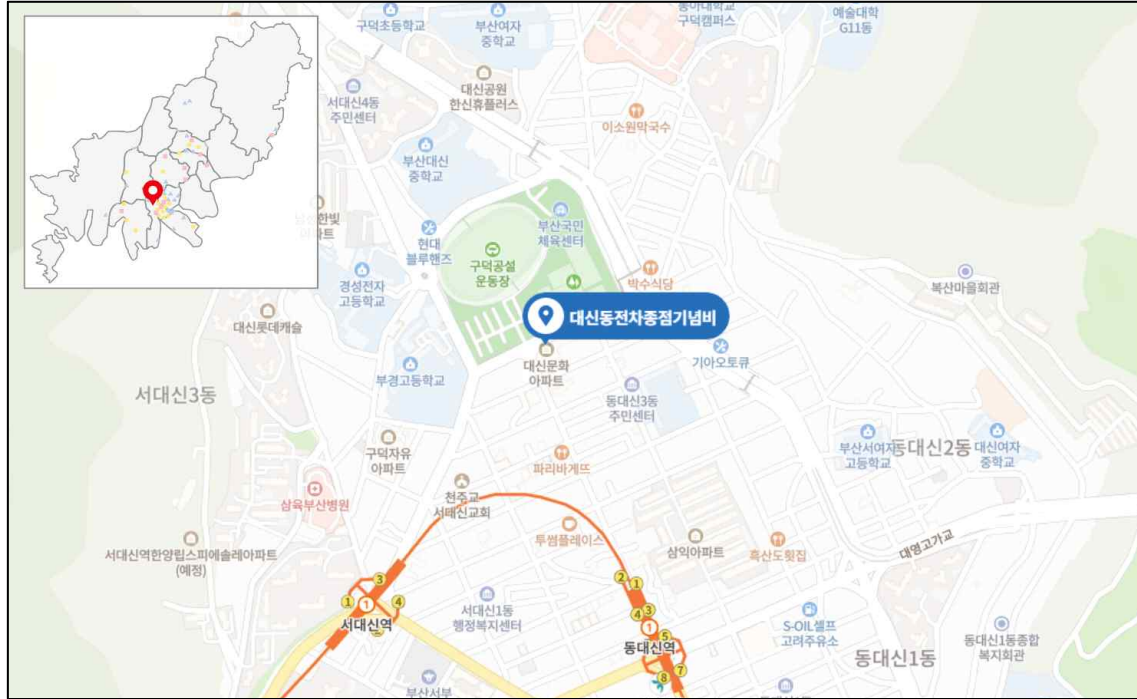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면에는 전차 종점의 유래를 새기고, 뒷면에는 '대신동 전차 종점 터'라고 새김</li> <li>- 기념비가 있는 지점에 전차의 종점과 차고지를 두었고 전차 운행이 폐지될 때까지 전차의 시발점이자 종점이며 수리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었음</li> <li>- 1910년에 부산진~동래 온천장 구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하였고 1928년엔 부산 공설운동장이 조성됨에 따라 대신동까지 전차 선로가 연장되어 이곳에 종점이 설치</li> <li>- 대중교통 수단이 점차 버스로 전환되면서 1968년 5월 20일을 기점으로 운행 중지</li> <li>- 기념비의 내용 : 「앞면에는 전차 종점의 유래를 새기고, 뒷면에는 ‘대신동 전차 종점 터’라고 새겼다. 옆면에는 전차모형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리는 부산의 근대화가 50여 년 동안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 추억과 애환이 깃들어 있는 전차 종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부산에서는 1910년에 부산진~동래 온천장 구간에 처음 운행을 시작하였고 1928년엔 부산 공설운동장이 조성됨에 따라 대신동까지 전차 선로가 연장되어 이곳에 전차 종점이 들어섰습니다. 당시 운행 구간은 운동장~시청 앞~부산진역 앞~서면을 지나 동래 온천장으로 가는 선로와 운동장~충무동~시청 앞에서 영도 남항동 종점으로 가는 2개의 선로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차를 ‘번갯불을 잡아서 타고 다닌다’고 해서 구경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수단이 점차 버스로 전환되면서 1968년 5월 20일 전차 운행이 중지되었고 그때 운행되던 전차 1량이 동아대학교 부민동 캠퍼스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1995년 1월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li> </ul>
------------	---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의 대중교통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매개체</li> <li>- 당시 운영된 전차는 53년간 부산시민의 발이 된 중요한 시대적 기억유산의 표시</li> <li>- 근대 교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역사 현장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음</li> </ul>
-----------	--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구덕 공설 운동장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	-
	성격		대학교	-	-
접근성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편 - 주변에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음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구덕 종합 운동장 앞 삼거리에서 횡단보도 옆 인도에 위치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	-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오토바이 등 관람에 불편을 주는 외부적 요소로 인지하기에 힘들</li> <li>- 기념비 명칭이 도로 방향으로 위치하여 도보로 이동 시 파악이 어려움</li> <li>- 인근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위치하여 훼손의 가능성이 높음</li> <li>- 해당 시설물과 연계된 '버스정류장'의 경우 외벽이 손상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차는 과거 부산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많은 기억을 공유한 매개체</li> <li>- 부산지역의 근대적 대중교통의 시작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진 표지</li> <li>- 전차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발생한 부산의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비 주변의 환경정비를 통한 개선된 접근성과 관람환경</li> <li>- 관련 시설물인 버스정류장의 외벽 도장 상태 개선</li> <li>- 인근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주민과의 협조를 통한 해당 기념비에 대한 주민 인식의 개선</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대학교 부민동 캠퍼스에 보존된 전차 1량, 당시 '노면전차'의 모습을 고증한 형태의 버스정류장, 주변 지역에 '전차'를 주제로 한 '테마카페'와 같이 해당 시설물과 높은 연계성을 가진 시설물이 주변에 다수 존재</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념비의 내용에서 노면전차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li> <li>- 노면전차에 관한 설명이 담긴 패널 등을 기념비와 함께 구성하여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 있음</li> <li>- 연관된 유사 시설물(동래, 영도 전차종점)의 정비를 통해 연계성의 강화를 도모</li> <li>- '버스정류장'의 경우 과거 전차의 모습을 충실히 고증하였으나 해당 기념비와 다소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고 관련 정보의 제공이 미흡</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관된 시설물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부산 전차의 역사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이 필요</li> <li>- 인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 위치해 있는 부산 전차(국가등록문화재)와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운영</li> <li>- 온천장, 대신동, 영도 전차종점을 잇는 과거의 부산 전차 경로를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하는 방안</li> </ul>

#### 4. 관련 이미지



대신동 전차 종점 기념비 모습 1



대신동 전차 종점 기념비 모습 2



대신동 전차 종점 기념비 모습 3



전차모형으로 조성한 '문화아파트' 버스정류장 1



전차모형으로 조성한 '문화아파트' 버스정류장 2



'테마카페' 내부모습\*

\*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8133143&memberNo=36218606&vType=VERTICAL>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김동철 2011, “근대 부산의 교통 발달과 기록 - 기차와 전차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 \* 전성현 2012, “일제시기 지역철도 연구 = 근대 식민도시 부산의 전철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역학관계”, 부산경남사학회.
- \* 안재철 2017, “근대 기계문명으로서 전차의 인식 변화와 도시 산책도구로서의 문화성- 문헌 및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 2010.08.17., NEWSIS, 『부산에 전차모형 버스승강장 등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391068?sid=102>
- \* 2011.07.22., 부산일보, 『[김열규 교수의 '내 부산, 내 옛 동지'] ⑩ 탈선한 전차, 상가에 돌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10707000213>
- \* 2012.02.21., 국제신문, 『부산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7> 길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222.22006202110>

#### NEWSIS, 『부산에 전차모형 버스승강장 등장』, 2010.08.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391068?sid=102>

1960년대 말까지 부산에서 운행되다 사라진 '전차'의 모형을 그대로 옮긴 버스승강장이 생겼다.

부산 서구는 전차종점 기념비가 있는 구덕운동장 인근 문화아파트 앞에 전차모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지난 3월 착공한 전차모형 버스승강장은 5개월 만에 설치됐고, 구는 소형 태양열 설비를 이용한 내부의 경관조명 설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과 대중교통 활성을 위해 대신동 전차종점 기념비 부근에 전차모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게 됐다"며 "이곳은 옛 지역문화를 담은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전차는 1915년부터 1968년까지 중앙동, 광복동, 영도 등 모두 30여개 역에 걸쳐 운행됐다.

#### 뉴스시스, 『동아대 박물관 공개 '전차' 시민들에 인기 만점』, 2011.08.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016718?sid=102>

【부산=뉴스시스】강재순 기자 =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공개한 '전차'를 타본 북구 화명동의 김모(41·여)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전차'를 타보니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동아대 부민캠퍼스의 전차를 타기위해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박물관에서 탑승권을 받아 전차에 오른 김씨는 "아이들에게 '전차'가 어떤 건지 보여주기 위해 왔는데 사실 내가 더 신기하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에서 1968년 5월19일 전차운행이 중단, 1970년생인 김씨가 전차를 타볼 기회가 없었

으며 '전차'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1, 2년 전부터 동아대가 전차를 보관하고 있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접하고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지난달 25일부터 시민들에게 전차를 탑승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아이들을 핑계로 이날 찾아온 것이다.

단체일 경우 박물관 개관시간이면 언제든지 와서 전차를 탈 수 있지만 개인인 경우 오후 3~4시에만 탈 수 있어 30분 전에 박물관에 도착, 탑승권을 받아 기다렸다가 전차에 오른 것이다.

박물관 입장료가 없듯이 탑승권 역시 무료로 내리고 싶을 때는 지금의 시내버스에 설치된 하차벨처럼 전차 안 앞 뒤쪽에 있는 줄을 당기면 종이 올려 승객이 하차할 의향이 있음을 알린다.

이 전차는 1952년과 1956년 미국 정부 기관인 국제조항연맹의 무상원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93대 중 39대가 부산에 배정돼 운행됐었고 이 전차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이 전차는 1927년 미국 신시내티 GP&L 860-899 시리즈 중 893호로 애틀랜타에서 운행되다 1952년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동아대 설립자인 고 석당 정재환 박사가 당시 한국전력(주)에 학습용으로 기증을 요청, 그동안 보관해왔다.

당시 이 전차는 대신동 공설운동장(문화아파트 앞에 전차종점 터가 있음)에서 지금의 전차가 서 있는 곳(당시 재판소) 앞에 정차한 후 남포동을 거쳐 영도 종점까지 또 남포동에서 동래 온천장까지 운행됐다.

동아대는 지난해 12월 구덕캠퍼스에 보관돼 있던 이 전차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부민캠퍼스 현 위치로 옮겼고, 그동안 보존처리 및 복원작업을 거쳐 시민들에게 탑승해보도록 하고 있다.

장소 및 철로 등의 문제로 전차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전차가 공개된 후 매일 개인과 단체의 시민 및 학생 100여 명 가량이 찾고 있으며, 동아대는 2학기에 이 전차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은우 박물관장은 "동아대 박물관이 시민의 박물관이듯 전차도 시민 누구나 타볼 수 있는 시민의 것이다"며 "전차가 박물관과 함께 원도심을 부활시키는 역할과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상향식경매(문화)

### 1. 개요

유형 구분	산업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남부민동)
특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형 <input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3년 부산 지역 수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적정 가격 유지, 물류 원활화를 통한 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종합어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부산항 부두에 설치</li> <li>- 1971년 부산공동어시장으로 명칭 변경</li> <li>- 1973년 지금 위치로 이전(남항)</li> <li>- '상향식 경매'는 '영국식 경매'라 불리기도 하며, 참여하는 사람이 매수 희망가를 자유롭게 제시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구매자로 결정하는 것</li> <li>- 이때 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수지식'경매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 매인에게 경매사가 낙찰을 결정하는 방식을 '수지상향식'경매라고 말함</li> <li>- 정확한 출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부산공동어시장과 함께 시작된 경매방식으로 추정</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수산물 위판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산지 시장으로서 국가 경제 및 수산업 발전에 기여</li> <li>- 150톤급 근해어선 23척이 접안 가능한 13,248평의 위판장, 2005평 규모의 냉동공장 130톤 규모의 활어 수조 등 거대한 규모의 시설을 갖춘</li> <li>- 부산공동어시장에서의 수지상향식경매의 모습은 활기찬 해양도시와 같은 대외적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형성</li> <li>- 여러 매체에 소개되어 부산이라 하면 떠오르는 풍경으로 자리매김</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해양수산개발원(KMI) 및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참조

## 2. 현황조사

<b>안내(홍보) 현황</b>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공동어시장의 위판량은 2021년 기준 15만 2000톤으로 위판액만 3001억원 규모이며, 단일 어종으로는 '고등어'가 8만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li> <li>- 우리나라 수산물 경매의 대부분은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이 매수희망가를 자유롭게 제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최종 구매자로 결정하는 방식의 '상향식 경매'를 시행함</li> <li>- 상향식 경매의 특징은 입찰자들의 가격제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손가락 뿐 아니라 귀를 당기고 눈으로 윈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신호 입찰방식이 특징</li> <li>-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의 경우 경매사가 제시한 가격을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아닌 경매 참가자들이 거의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동시호가식'이라는 방법을 사용</li> <li>- 가격 제시는 과거 손가락을 이용하거나(수지식), 작은 판을 이용하여 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가격을 입력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전자경매도 점진적으로 도입 중</li> <li>-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 '상향식'을 기본으로 가격 제시 방법에서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수지식' 가격 제시법을 유지</li> <li>- 기본적으로 '표준경매 수지식'을 사용하나 표현방식은 시장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시장 관계자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되어 정보의 공개가 제한적임</li> </ul>

\* 출처 : 강연실, 「고흥지역 수산물 경매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2, 1998, p.115. 참조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oreamof/221885356486> 참조

### 3. 보존·활용 방향

#### ▷ 보존

<b>문제점</b>	- 현재에도 '수지상향식' 경매를 채택하여 시행 중이지만 최근 타 도시 유사 시설들은 전자 경매 형식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향후 부산공동어시장의 경매방식 역시 전자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b>필요성</b>	- 여러 매체에 소개되어 지역과 연관된 대외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 - 경매의 추세가 수지식 경매에서 전자식 경매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부산의 활기찬 이미지를 대변하는 해당 풍경은 경관의 보존 측면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 어시장 및 경매방식의 현대화로 전통적 경매방식이 사라져 가기 전에 관련 내용을 기록화 할 필요성이 있음
<b>개선사항</b>	- 관련 내용의 기록화 뿐 아니라 관련 자료의 활용 방법 모색

#### ▷ 활용

<b>활용여부</b>	- 관련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5년 이후 경매현장을 일반 방문객에게 공개하여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
<b>개선사항</b>	- 상인들의 경제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라는 특성상 수동적인 관람이라는 방식 이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전무 - '수지상향식'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어떤 활동도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b>활용방안</b>	-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의 활동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일본의 '츠키치 어시장'의 사례를 벤치마킹 필요 - 신청자에 한하여 직접 '참치 해체'가 가능한 '츠키치 어시장'의 경우처럼 해당 장소 또한 관람객들이 소규모로 진행되는 '수지상향식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생선을 구매해보는 '경매 체험'을 시행 - 관람객들에게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수지상향식'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한 '가이드 투어' 시행 -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물의 형태로 가공하여 부산의 대외적인 이미지 구축에 적극적으로 활용

### 4. 관련 이미지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식 경매 모습 (출처: 한국경제)



부산공동어시장 수지식 경매 모습 (출처: 한국경제)



부산공동어시장 현재 모습\*

#### 어종별 위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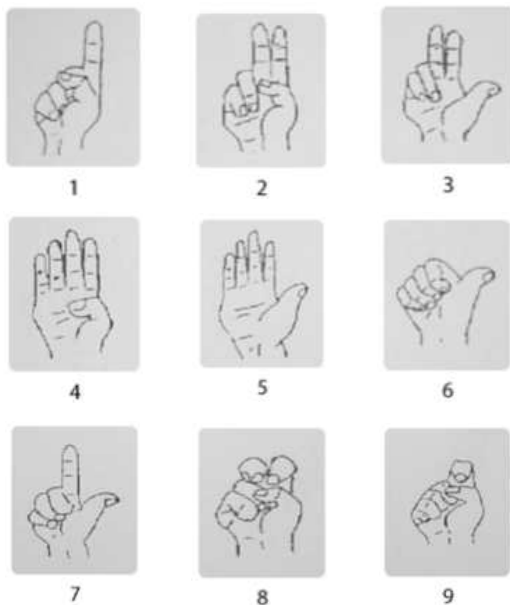
(2021/12/31 현재)

중량 : 톤, 금액 : 백만원, 단가 : 원/Kg

어종별	2021년 실적			2020년 실적			전년동기대비(%)		
	중량	금액	단가	중량	금액	단가	중량	금액	단가
누 계	152,800	300,128	1,964	119,699	281,175	2,349	128	107	84
고등어류	80,659	133,212	1,652	53,854	116,895	2,171	150	114	76
망치고등어	16,249	12,626	823	3,880	7,260	1,871	393	174	44
삼치류	6,840	22,477	3,286	10,185	32,898	3,230	67	68	102
오징어	5,636	38,060	6,752	2,687	24,323	9,050	210	156	75
전갱이류	18,999	16,723	880	16,368	18,222	1,113	116	92	79
눈볼대	972	8,157	8,390	1,058	10,247	9,679	92	80	87
갈치	7,119	30,519	4,287	5,801	18,901	3,258	123	161	132
다랑어류	466	2,255	4,837	864	2,418	2,799	54	93	173
방어	5,187	7,090	1,367	4,653	8,704	1,870	111	81	73
병어	660	4,421	6,692	667	4,218	6,321	99	105	106
참가자미류	0	0	0	0	0	0			
가자미류	1,126	5,026	4,461	1,226	5,026	4,014	92	83	91
기타	9,881	19,557	1,979	18,451	31,059	1,683	54	63	118

어종별 위판 실적 2021년\*

\* 출처 : 부산공동어시장 공식 홈페이지'이용안내 수산물 매장'



표준경매 수지도(숫자표현방식)\*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강연실, 「고흥지역 수산물 경매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2.
- \* 김대영·강종호 2015, “우리나라-노르웨이 고등어산업의 유통 경쟁력 비교 연구”, 수산 해양교육연구.
- \* 2010.03.30., 부산일보, 『[해랑] 장상묵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00315000126>
- \* 2018.04.25., 국제신문, 『공동어시장 현대화 후에도 ‘손가락(수지상향식) 경매’ 유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425.22018002944>

### 국제신문, 『공동어시장 현대화 후에도 ‘손가락(수지상향식) 경매’ 유지』, 2018.04.2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80425.22018002944>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현대화 사업 이후에도 전자경매가 아닌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수지상향식 경매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바닥 경매와 나무상자를 없애 위생 문제는 대폭 개선된다.



부산 공동어시장 중도매인들이 지난 1월 2일 열린 초매식에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내보이며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 서정빈 기자

24일 부산 공동어시장에 따르면 최근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중도매인협동조합, 항운노조 어류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린 위판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사용되는 나무상자는 사라지고 고등어, 전갱이 등의 주요 어종은 1t 단위 플라스틱 빙수통에 갈치, 오징어 등의 어종은 20kg 단위 클린상자(가칭)에 담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랑어, 상어, 개복치, 등의 일부 대형 어종은 상자에 담기지 않아 팔레트 또는 천막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경매된다.

공동어시장에서 처리 물량이 가장 많은 고등어는 피쉬펄프로 어선 어창에 있는 물고기를 빨아들인 뒤 자동

선별기를 지나 1 t 단위 빙수통 상자에 해수 얼음과 함께 담겨 경매된다. 1 t 단위 빙수통에는 크기에 따라 기계에 자동 선별된 고등어 등의 어획물이 70%, 해수 얼음이 30%가량 담기고 샘플을 통해 경매가 진행된다. 빙수통 사용으로 고기를 땅바닥에 놓고, 사람이 크기에 따라 선별해 다시 나무 상자에 담은 후 새벽 6시까지 기다렸다 경매하는 현재 방식은 사라질 전망이다. 빙수통은 세척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위생·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정량화·규격화로 선사, 중도매인, 항운노조 간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 단위는 현행처럼 물고기 1번, 2번, 3번 등의 묶음을 각각 따로 경매하는 것이 아닌, 경매 물량 중 높은 가격을 부른 중도매인이 원하는 물량만큼 가져가고 다음 순위 중도매인이 잔여 물량을 가져가는 순차적 배분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입찰 방법은 대형선망 업종의 경우 수지상향식 경매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어시장 관계자는 “위생 문제 개선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다. 현재 현대화사업 예산으로는 전자경매 전광판, 프로그램개발, 기기 도입 등도 어렵고 수산업계 종사자 연령도 높아 무조건 도입하기 쉽지 않다”며 “감천 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전자경매 도입하려다 수지식 경매로 바뀌었고, 일본도 수지식경매가 대부분이다. 추후 전자경매를 일부 도입하고 장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기본설계안을 마련했고 자동선별기 종류 선정,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검토가 끝나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확대를 위한 협의와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본격 공사가 시작된다.



## 오륙도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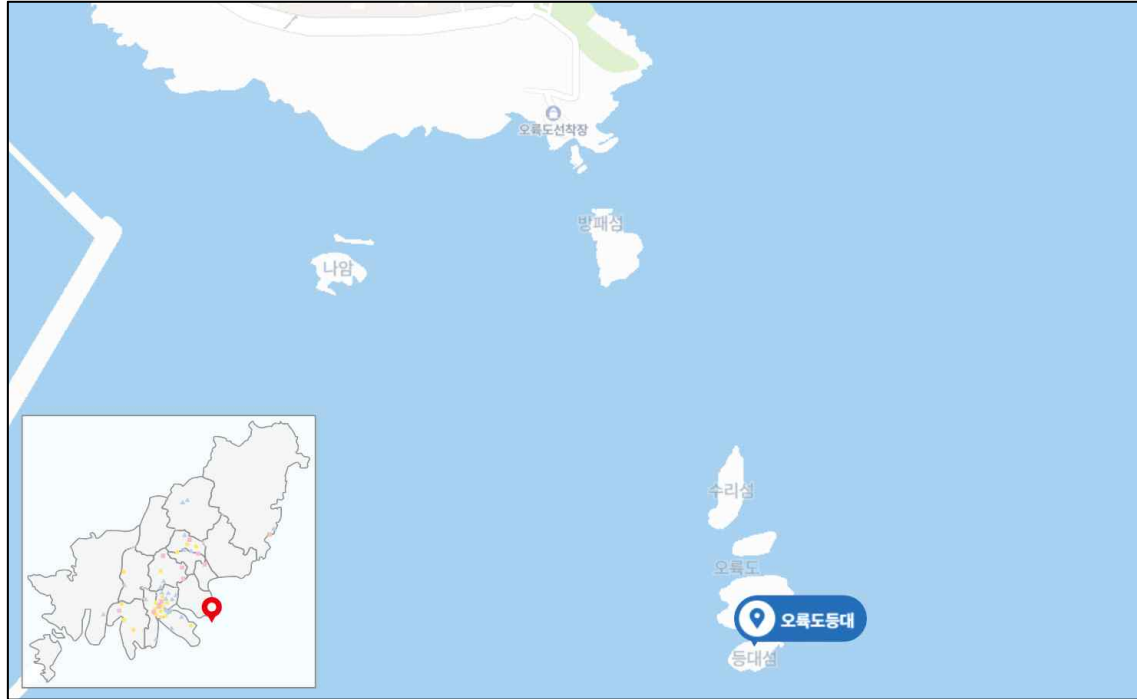
### 1. 개관

<b>유형 구분</b>	도시	<b>소재지</b>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130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방식</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937년	<b>소유·관리자</b>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초기 형태</b>	등대	<b>현재 용도</b>	등대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고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 앞으로 배들이 드나들자 등대의 필요성이 대두</li> <li>- 1937년 11월 무신호소와 함께 높이 6.2m의 등대로 건립</li> <li>- 1971년 무신호를 전기폰으로 개량</li> <li>- 1998년 등대 보수 목적의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조성</li> <li>- 1998년 12월 24일에 해양 친수 문화 공간으로 등대 전시관을 설치·운영</li> <li>- 2004년 4월 15일에는 팔각정 심터를 조성</li> <li>- 2010년 12월 23일에 갈매기 조형물을 설치</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대가 위치한 장소는 윗부분이 평평하여 밭처럼 생겼다 하여 '밭섬'이라 했다가 등대가 세워진 뒤부터는 '등대섬'이라 불림</li> <li>- 1970년대에는 벽돌 건물이 있었고, 옥상은 강판 지붕이었음</li> <li>- 등대 시설물의 경우 높이 27.55m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등탑, 동력실, 직원 숙소,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명기, 신호기, 태양광 발전기 등이 있음</li> <li>- 항구 도시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에 설치되어 기능을 해온 부산의 대표적인 등대</li> <li>- 해양 친수 문화 공간인 등대 전시관은 등대 역사 사진 자료, 최초 오륙도 등대 설치 시 건축 자재, 과거의 등대 전경 등의 사진 20여 점과 물품 10여 점이 전시</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인 항구인 부산항을 지나는 선박을 최초로 맞이하는 상징적인 장소</li> <li>- 오륙도 등대섬은 부산의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에 위치</li> <li>- 국내 최초로 시민 현상 설계 공모로 만들어진 등대</li> <li>- 오륙도가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li> </ul>		

\* 출처 : 한국항토문화전자대전, 대한민국 구석구석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신선대	오륙도 스카이워크	오륙도 해맞이 공원	오륙도 홍보관
	성격	유원지	관광지(전망대)	공원	전시시설
접근성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type="checkbox"/> 버스	<input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이기대에 위치한 오륙도 유람선 선착장에서 오륙도 등대를 관람할 수 있는 유람선이 출발 - 운항 시간은 오전 6시30분 부터 오후 4시30분 까지 30분~1시간 간격으로 운항			

▷ 보존현황

<b>보존(보수) 상황</b>	-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로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등대 진입로나 계단과 같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정비 상태도 양호
<b>보존상태</b>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b>보존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상시 개방	-	무료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 기존 용도로 잘 사용되고 있으나, 등대 진입로의 계단 옆에 설치된 펜스의 경우 녹이 슬고 철이 벗겨진 모습이 보임, 방문객 안전과 직결된 안전시설이므로 보수가 필요
<b>필요성</b>	- 해양도시 부산에서 볼 수 있는 상징적 도시기반시설 - 기존 등대로서의 기능수행이 잘 되고 있는 부산항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 국내 최초로 시민 현상 설계 공모로 만들어진 등대라는 점
<b>개선사항</b>	-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등대 진입로 안전시설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 - 등대 선착장 입구 주변에 안전시설 설치 - 진입로 펜스의 전반적인 보수

▷ 활용

<b>활용여부</b>	- 현재도 해양 안전 시설물인 '등대'로 운영 중 - '등대' '섬' '해안가'라는 위치에 기인한 '해양 안전'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년 시행 중 - 빼어난 경관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돋이, 사진 촬영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b>개선사항</b>	- 등대 내 안내판, 안내자가 부족해 관람에 어려움이 있음 - 시설 내 패널, 영상 콘텐츠 등이 제공하는 정보가 다양하지 않음
<b>활용방안</b>	- 신선대, 오륙도 해맞이 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방안 마련 - 오륙도, 등대라는 장소적 특성에 기인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항만 산업의 역사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존에 빼어난 풍경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장소이니만큼 대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홍보하는 방안

#### 4. 관련 이미지



오륙도 등대 전경 1 (출처: 대한민국 구석구석)



오륙도 등대 전경 2 (참조: 공공누리)



등대섬 전경\*



등대섬 후면\*



선착장 모습\*



진입로 모습\*



오륙도 홍보관 (출처: 부산 남구청)



오륙도 홍보관 기념품 샵\*

\* 출처 : <https://blog.naver.com/unninephoto/222436915292>

\*\* 출처 : <https://blog.naver.com/twiggy19/222687995014>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김소연 2008, “부산학 담론으로 본 부산성(釜山性)의 건축”, 대한건축학회.
- \* 오동하 2009, “오륙도, 부산대표 생태관광지로”, BDI포커스.
- \* 2015.11.25., 부산일보, 『오륙도 상륙기 "여기는 등대섬, 그대 부산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1126000042>
- \* 2021.11.30., New1뉴스, 『해수부, 12월 이달의 등대·무인도서에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오륙도' 선정』  
<https://www.news1.kr/articles/?4508176>
- \* 2022.09.17., 공감신문, 『[김동현의 부산이야기22]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오륙도』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32413>

#### 뉴스1, 『해수부, 12월 이달의 등대·무인도서에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오륙도' 선정』, 2021.11.30.

<https://www.news1.kr/articles/?4508176>

해양수산부는 12월 이달의 등대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를, 1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부산 '오륙도(五六島)'를 각각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략)

12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선정된 오륙도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6개의 섬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으로,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다섯 개 또는 여섯 개로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세찬 바람과 파도를 막아준다는 '방패섬', 섬의 꼭대기에 소나무가 살고 있는 '솔섬', 갈매기를 노리는 독수리가 모여들었다는 '수리섬', 생김새가 뾰족한 '송곳섬', 섬 가운데 동굴이 있는 '굴섬', 그리고 육지에서 가장 멀리 있어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등대섬'으로 구성돼 있다.

오륙도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중심인 부산항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노랫말에서도 언급되었고, 부산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4호로 지정됐다. 2013년 10월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오륙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요신문, 『부산해수청, 영도·오륙도등대에서 해양안전 생존법 배운다.』, 2017.07.15.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8711](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8711)

오륙도 등대를 체험하고 바다에서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능력을 길러주는 어린이 해양 생존캠프가 등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전국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바다절경으로 둘러싸인 영도등대와 오륙도등대에서 '등대 해양안전 생존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8월17일 부터 1박 2일간 진행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남녀 각각 8명씩 16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영도등대 견학과 생존캠핑 동호인으로 활동중인 최규원씨의 생존교육을 시작으로 호흡법,

생존수영, 구명조끼 착용법 등의 해양안전교육과 오륙도등대에서 침낭, 은박담요, 응급처치 등을 소재로 한 생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해양박물관 및 요트승선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이며 참가신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오는 2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참가자 선정 결과는 2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침낭, 생존팔찌, 응급키트, 비상식량 등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강해지는 태풍에 안전 위협받는 부산의 상징 오륙도등대』, 2017.06.28.**  
<https://www.yna.co.kr/view/AKR20170627041600051>

등대건물 아래 암석 균열 확대, 곳곳서 바위 떨어져 나가..."항구적 안전대책 필요"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기상이변으로 태풍의 위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부산항의 상징이자 각종 선박의 뱃길을 밝히는 오륙도등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등대가 있는 오륙도의 발섬(등대섬)을 이루는 암석의 일부 균열이 커지고 곳곳에서 바위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오륙도등대를 덮치는 거대한 파도  
 (부산=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태풍 차바가 몰고온 거대한 파도가 오륙도등대를 덮치고 있다.  
 2017.6.28 [부산해양수산청 제공=연합뉴스]

이런 현상은 지난해 10월 한반도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차바 때 받은 충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부산해수청은 보고 있다.

차바는 당시 부산의 항만시설에 큰 상처를 냈다.

감천항과 다대포항의 방파제가 크게 파손됐고 신선대 준설토 투기장 호안 절반가량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를 안겼다.

발섬의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28m)을 포함해 전체 높이가 55.5m인 오륙도등대도 예외가 아니다.

높이가 50m를 넘는 파도가 덮쳐 선착장 콘크리트계단 30m가 부서지고 선착장에서 등대로 올라가는 계단의 안전난간 230m가 파손되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등대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이 망가지고 직원 숙소와 사무실은 침수 피해를 봤다.

1937년에 11월에 처음 건설됐다가 높이가 2.6m에 불과해 1998년 12월에 새로 지은 오륙도등대는 육지에서 1.5km가량 떨어진 바다에 있는 데다 태풍이 한반도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해 크고 작은 태풍을 고스란히 맞는다.

2003년 가을에 불어닥친 태풍 매미 때도 안전난간 650m가 사라지거나 끊어지고 출입문과 창문 20여개가 산산이 부서졌다.

2010년 태풍 말로가 내습했을 때는 선착장 연결다리가 파손되고 건물의 창문 일부가 부서졌다.

이종학(59) 오륙도등대관리소장은 "지난해 태풍 차바 때는 파도가 등대 가장 높은 곳까지 덮쳤다"며 "예전보다 태풍의 위력이 훨씬 세져 최근에는 시설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차바가 지나간 뒤부터 파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섬 남쪽의 깊게 파인 부분의 바위 틈새가 전보다 조금 더 벌어진 것 같고, 섬 여기저기서 바위들이 부서져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중한 자연유산인 오륙도와 부산항의 역사가 담긴 등대를 길이 보전하려면 더는 태풍에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용호동 앞바다에 있는 오륙도는 등대가 있는 발섬을 비롯해 굴섬, 송곳섬, 바석섬, 솔섬, 방패섬

으로 이뤄졌으며 밀물 때 솔섬과 방패섬을 연결한 부분이 물속에 잠기면 6개가 됐다가 물이 빠지면 5개로 보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1972년 부산시 기념물 22호로 지정됐고 2007년에는 국가명승으로 격상됐다.

부산해수청은 오륙도 중에서 가장 외해 쪽에 있는 발섬의 등대 아래쪽 암석들이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에 의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강력한 태풍 차바가 몰고온 파도의 충격으로 변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일단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정밀안전진단을 벌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태 부산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바위로 이뤄진 섬이라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상이변으로 지금보다 더욱 강한 태풍들이 닥친다면 심각한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륙도 앞 물속에 수중방파제(잠제)를 설치하는 등 근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오륙도등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맡겨 레스토랑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이곳을 찾을 많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여기가 파도에 바위 일부가 떨어져 나간 부분"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오륙도등대관리소장 이종학씨가 태풍 차바 때 파도에 바위 일부가 떨어져 나간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2017.6.28



태풍에 부서지고 사라져 새로 설치한 등대계단 난간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오륙도등대 선착장에서 등대건물로 오르는 계단의 난간. 태풍 차바 때 230m가 부서지고 사라져 새로 설치했다. 2017.6.28



오륙도 가장 바깥에 있는 등대[촬영 이영희]

# 부산역

## 1. 개관

유형 구분	도시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형성 시기	1910년	소유·관리자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초기 형태	기차역	현재 용도	기차역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8년 4월 1일에 보통역으로 업무가 시작</li> <li>- 1910년 부산역 본관과 부대설비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에 준공</li> <li>- 1943년 12월 10일 부산부두역으로 개칭</li> <li>- 1945년 6월 10일 부산역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화물구와 구내구(構內區)로 분리하였으나 같은 해 9월 1일 화물구와 구내구의 2개구를 통합</li> <li>- 1953년 11월 27일 부산역 대화재로 역사가 전소하여 중앙동에 임시 가건물을 역사로 사용</li> <li>- 1965년 11월 1일 부산진역과 통합하여 부산진역에서 영업</li> <li>- 1968년 지금의 위치에 역사를 신축</li> <li>- 1969년 6월 10일 역사를 준공하여 역무를 이전</li> <li>- 2003년 9월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현재의 부산역사를 증·개축</li> <li>- 2019년, 부산역 광장에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설치</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소속으로, 역과 관련된 시설의 건설·보수·관리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열차 운행과 영업 업무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가 맡고 있음</li> <li>- 1910년대 당시의 역사는 비잔틴풍이 가미된 르네상스 양식의 웅장한 건물로 약한 지반 때문에 땅속 깊이 말뚝을 박는 방식으로 건축되었고, 역사의 1층에 대합실과 매표실, 전신실, 역원실 등을 두었고 2층 이상은 호텔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임</li> <li>- 1953년 대화재로 역사가 전소되어 중앙동에 임시가설 역사를 지어 사용하다가 1969년 초량동에 새 역사를 세웠으며, 현재의 역사는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2003년 9월 다시 증·개축 된 것</li> <li>- 지금은 일반열차와 KTX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5개 승강장이 운영되고 있음</li> <li>- 최근 부산역 광장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철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으로 새롭게 탄생</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최초의 장소이며, 부산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님</li> <li>- 서울역, 동대구역 다음으로 승객 수가 많았던 전국을 대표하는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으며, 도시 발전을 대변해주는 장소로서 가치가 있음</li> <li>- 부산역 광장은 교통의 요충지, 만남의 장소를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집회 장소로도 기능</li> </ul>

\* 출처 : 한국철도공단 홈페이지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차이나타운	국제여객터미널	-	-
	성격	관광지	운송시설	-	-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주차시설의 접근성이 좋음 - 지하철 1호선 부산역과 연결되어 있고, 버스 환승센터가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편리함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1969년 지금 위치에 역사를 준공·이전하여, 2004년 경부 고속 철도가 개통되면서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2019년 부산역 광장에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건설로 보존상태 양호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으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	-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 현재 용도로 잘 사용되고 있으나 역사 내에 과거의 역사 모습이나 자료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 줄 수 없어 그 가치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민 대부분이 공유한 공통의 기억이 있는 장소</li> <li>- 오랜 기간 부산의 교통중심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li> <li>- 외부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관문이라는 상징성</li> <li>- 특히 부산역 광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뿐 아니라 민주화 집회와 시위의 장소로 꾸준히 활용된 부산의 광장문화의 중심지</li> </ul>
<b>개선사항</b>	- 과거 부산역의 변천 모습 등을 확인함으로써 부산역의 역사와 기억을 공유하기 위한 기록화 필요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장에 '유라시아 플랫폼'을 설치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전시' 공간으로 활용</li> <li>- 해당 플랫폼에 '부산 창업 카페'를 설치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컨설팅과 대관의 장소를 제공</li> </ul>
<b>개선사항</b>	- 대합실이나 유라시아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과거 부산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산역에 대한 기억을 공유할 필요성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역의 과거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마련 필요</li> <li>- 대합실에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li> <li>- 광장에 과거 부산역의 모습을 알려주는 안내판 설치</li> </ul>

#### 4. 관련 이미지



1910년경 촬영된 역사\*



1985년경 촬영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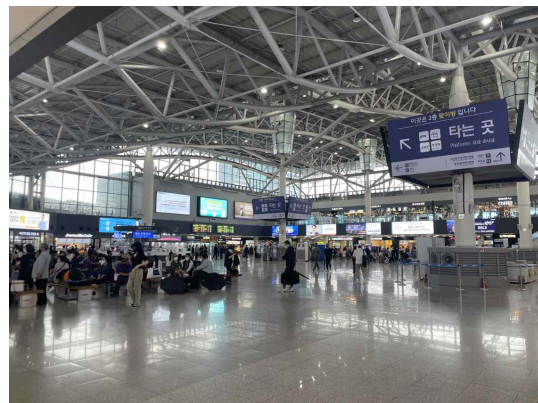
2001년대 부산역의 전경\*



2019년 부산역의 전경\*\*



부산역 광장에 설치된 '유라시아플랫폼'



부산역 대합실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출처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강대민 1997, “부산역사의 산책”, 한국학연구소.
- \* 김희영 2011, “부산지역 철도역 소장 기록의 잔존양태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배기환 2011, “부산역과 상해거리”, 지역사회.
- \* 반극동 2017, “부산은 따뜻하다 : 경부선 중착역”, 행복에너지.
- \* 이석환 2020, “역세권 도시재생의 첫출발, 부산역 일원”, 국토.
  
- \* 2013.07.14., 연합뉴스, 『부산역 '영성한 공간활용'...이용객 불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370430?sid=102>
- \* 2015.04.24., 아주경제, 『국내 최대 부산역 광장·원도심의 화려한 재탄생』  
<https://www.ajunews.com/view/20150424113833286>
- \* 2022.07.15., NEWSIS, 『부산역 대형 미디어월에서 디지털 콘텐츠 작품 전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4102&cID=10811&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4102&cID=10811&pID=10800)
- \* 2022.07.21., 에너지경제, 『부산시, 부산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명소로 활용』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721010003562>
- \* 2022.09.12., 부산일보, 『“아시아 넘어 유럽으로”... 엑스포 염원 안고 유라시아 달린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1218442497302>

### 머니S, 『“부산역에 놀러온나”...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 미디어아트월 조성』, 2021.09.01.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011044802343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시작점인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 미디어아트월을 조성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미디어아트월은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의 좌·우 엘리베이터 입면에 2개의 타워를 설치하고 타워 사이 벽면에 LED 브릿지를 연결한 세계 최초 좌우 비대칭 연계형으로 구축됐다. 유라시아플랫폼 외관의 특징을 살리면서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연출이 가능해져 부산시는 플랫폼 일대가 부산만의 차별화한 도심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디어아트 콘텐츠는 총 17개로 △관광과 웰컴 기능인 킬러 콘텐츠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인터랙션 콘텐츠 △계절별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즌 콘텐츠 △화려한 아트 중심의 에피소드 콘텐츠 4개 분야로 구성됐다.

킬러 콘텐츠에는 '틱톡', '고등어 날다', '웰컴 투 부산'으로 구성돼 부산만의 차별화한 이미지를 제공하며, 인터랙션 콘텐츠에는 '링크웨이브', '부산인사이드', '빛의 하모니'로 구성돼 광장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그림, 문자를 LED 화면으로 전송하는 형태의 시민참여형으로 연출된다. 시즌 콘텐츠에는 사계절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추석, 설 명절에 부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환영 인사가 송출되며, 에피소드 콘텐츠에는 '트립위드드림', '안녕 니하오 봉쥬', '부산과 함께 춤을', '명화 속으로' 등 스토리텔링형 연출로 구성됐다.

그 외에도, 시즌 콘텐츠 중 '세상의 모든 설렘'은 3D 연출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선물이 표출돼 이용객들이 연말연시를 기대하게 하고, '썸머 비치'는 부산의 시원한 여름 바다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아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미디어아트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상대로 공모전을 개최해 유라시아의 시작인 부산의 색다르고 창의적인 모습을 추가로 담을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유라시아의 시작이자 끝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소통하고 교류하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미디어아트월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선보여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이 일상 속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고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이동순의 부산 가요 이야기 <31> 민족 아픔 서린 부산역 노래』, 2021.08.1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10816.22014003989>

부산역의 역사는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다. 1905년 1월1일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세상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에 버금가는 충격과 격변으로 이어진다. 무려 4년에 걸친 부설기간 동안 철도가 지나는 구간의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로부터 겪은 피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민족사의 아픔과 역동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부산역은 한국 가요사에서 중요한 장소다. 사진은 1950년대의 부산역사. 국제신문DB

일제가 경부선 철도건설을 급속히 서두른 배경에는 러일전쟁과 관련이 있다. 전쟁터로 일본군을 실어 나르기 위한 운송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이다. 원래는 일본에서 제물포(인천)로 말과 포병을 실어 날랐으나 워낙 급박한 전쟁 속에서 완공된 경부철도는 그들에게 너무도 요긴한 수송로였다. 이 때문에 경부철도의 건설은 일본군의 지휘 속에서 총력 건설체제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이미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한반도의 슬픔이었다. 당시 문단의 대표적 지식인이었던 육당 최남선은 개통식에 헌정했던 창가가사작품 '경부철도노래'를 통해 민족사의 비통한 현실을 아주 무시해버린 채 일본으로 상징되는 문명예찬에 흥분된 어조로 열광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금역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해륙 운수 연(連)하는 구포역이라/낙동강의 어귀에 바로 있어서/상업번성하기로 유명한 데라//수백 년 전 예부터 일인(日人) 살던 곳/풍신수길 군사가 들어올 때에/부산으로 파견한 소서행장의/혈전하던 옛 전장이 여기있더라//일본사람 거류민 2만이니/얼른 보면 일본과 다름이 없고/조그마한 종선(從船)도 일인이 부려/ 우리나라 사람은 얼씬 못하네/(최남선의 '경부철도노래' 부분)

**■부산역 아픈 기억 담은 노래**

이미 부산 일대의 분위기가 일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황이 이 작품에서 리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초의 부산역은 1908년 4월, 초량역과 부산역 사이의 한 지점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해 10월, 벽돌 2층의 르네상스 절충식 건물로 역사가 준공되었다. 1943년 일제말에는 역 이름이 '부산부두역'이었다. 그러다가 해

방 직전인 1945년 6월에 드디어 부산역이란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6.25전쟁을 거치고 환도 직후인 1953년 11월에는 부산역 대화재가 발생했고, 두 해 뒤인 1955년에도 열차화재사고가 일어나 다수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부산역이 현재의 자리로 확정된 것은 1969년의 일이다.

그 후 증개축을 거듭해서 경부고속철이 개통과 더불어 현재의 부산역 건물이 완공되었다. 상하행선 하루 운행횟수는 평균 40회, 상하행선 연중 승객은 각각 940만 명 안팎에 이른다. 민족사의 격변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부선 철도의 종점인 부산역을 통해 부산에 왔고, 또 부산을 떠났을 것인가? 그들 가슴 속의 아픔과 상처, 이별과 눈물은 얼마나 눈더미처럼 쌓였을 것인가? 지금 부산역 자리는 예전 그대로지만 외형은 옛날과 아주 달라졌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연을 낱낱이 꺼내고 있는 부산역은 오늘도 말이 없이 묵묵하기만 하다. 오는 이, 가는 이를 잠자코 맞이하며 떠나보낼 뿐이다. 하지만 송영(送迎)의 공간인 부산역의 솔한 애환을 다룬 노래들은 여전히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재생시켜 들려준다. 그것이 바로 노래의 생생함이며 위대성이다.



1910년대 부산역 전경.

부산역을 비중 있게 다룬 노래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가? 최초의 부산역테마 노래는 1937년 10월에 발표된 '눈물의 경부선'(박영호 작사, 이용준 작곡, 울금향 노래, 태평레코드 8325)이다. 1919년 충남 논산 출생의 울금향은 본명이 박복순으로 그녀의 또 다른 예명은 남일연이다. 옛 SP음반으로 이 노래를 들어보면 부산역에서 출발을 알리는 열차의 기적소리가 전주(前奏)에서 들린다. 그리곤 사라사테의 애절한 바이올린 선율인 '집시의 노래'로 이어진다. 부산역 주변의 전형적 분위기가 기묘한 여운과 애조를 머금은 채 노래로 접어든다.

구름다리 넘을 때 몸부림을 칩니다/금단추를 매만지며 몸부림을 칩니다/차라리 가실 바엔 맹서도 쓸 데 없다/아, 부산 차는 떠나갑니다

플랫트홈 그늘 속에 소리소리 읊니다/붉은 댕기 매만지며 소리소리 읊니다/차라리 가실 바엔 눈물도 보기 싫소/아, 부산 차는 떠나갑니다

-울금향의 노래 '눈물의 경부선' 전문

■근대사의 온갖 사연과 곡절 담겨

펼쳐지는 노래는 사설이 아니고 통곡과 몸부림이다. 처연한 이별 앞에서 그 어떤 위로와 변명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무엇이 이처럼 이별의 아픔을 불러왔던 것일까? 부산역 이별의 이유와 배경이 자꾸만 궁금해진다. 우리는 눈물의 습기로 흥건히 젖어있는 노래가사만 자꾸 음미하며 짐작해보려 한다. 이 노래를 필두로 해서 '인생선'(김다인 작사, 이봉룡 작곡, 남인수 노래, 오케 1942) 등이 출현했고 해방 후로는 '이별의 부산정거장', '무정열차', '울리는 경부선', '경부선 엘레지', '달리는 완행열차', '비 오는 정거장', '이별의 종열차' 등 남인수의 피를 토하는 듯한 여러 절창이 그 뒤를 이어갔다. 가요황제 남인수는 부산역과 경부선테마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고, 놀라운 가창력으로 그 고유의 정서를 담아낸 불세출의 대중음악인이었다.

이후로 출현한 부산역, 혹은 경부선테마 노래로는 '달리는 경부선'(최갑석), '설움 실은 경부선'(안다성), '경부선 엘레지'(시민철), '울고 싶은 인생선'(시민철), '원한의 북행열차'(정향), '부산역 이별'(방운아), '정든 부

산 잘 있거라'(방운아), '애수의 밤 열차'(고대원), '울리는 야간열차'(반야월), '밤비의 정거장'(백야성), '경부선 밤 열차'(명국환), '청춘 실은 경부선'(박경원), '부산역 이별'(장고), '남행열차'(남상규), '떠나가는 경부선'(이상열), '경부선 천리 길'(김우정), '비 오는 부산역'(김수동), '밤 깊은 부산역'(안세건), '부산유정'(옥금옥), '비 오는 부산역'(김창욱), '부산이여 안녕'(이예나), '부산 발'(마에다 유키), '이별 없는 부산정거장'(현숙)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례들이 확인된다. 우선 제목만으로 찾아봐도 이 정도인데, 가사 본문에 부산역이나 경부선이 등장하는 노래까지 찾는다면 그 분량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다. 노래 제목에 나타난 느낌만으로 보더라도 철도는 인생의 우여곡절과 동일한 상징적 비유로 다루어진다.

근대사의 온갖 사연과 곡절을 꺼안고 있는 부산역, 경부선테마 노래는 한국대중음악사에서 영원히 우리 곁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부산의 최초관문인 부산역광장에 노래비조차 하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글. 시인·한국대중음악힐링센터 대표

## 안창마을

### 1. 개관

유형 구분	도시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부산진구 안창로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형성 시기	한국 전쟁	소유·관리자	부산 동구, 부산진구
초기 형태	마을	현재 용도	마을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때 모여든 피란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시작(부산시 초량출장소)</li> <li>- 1957년 부산시 동구 범일동</li> <li>- 1963년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에 속하였음</li> <li>- 2008년 8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li> <li>- 2011년 '행복마을 만들기', '오색빛깔 천연공방'사업이 진행</li> <li>- 2015년 '재개발지역'해제가 추진되고 2015년 '예술상상 마을'사업이 진행</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때 모여든 피란민들의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li> <li>- 산간 분지에 입지하여 도시 기반 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1970년대 전기가 들어왔고, 1980년까지 무허가 건물이 많았음</li> <li>-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도심에서 가까워 부산으로 유입한 외지인들의 일시적 거주지로 이용</li> <li>-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마을의 입지조건이 사업성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li> <li>- 2011년 '행복마을 만들기', '오색빛깔 천연공방', 2015년 '예술상상'마을과 같은 문화 예술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거주민의 노령화, 정주민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함</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복도로와 더불어 부산만의 경관을 잘 보존한 장소</li> <li>- 피란수도인 부산의 특성이 반영된 마을의 특성이 남아 있는 곳이며, 부산의 50년대~80년대 역사와 시대를 공유,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치를 지님</li> <li>- 현재는 주민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시설물인 마을회관 내부의 '미니 소방서', '건강생활 지원센터' 등이 활발히 운영 중</li> </ul>

\* 출처 : 한국향토전자문화대전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동의 대학교 가야 캠퍼스	온마을 돌봄센터	범일 동산 산림공원	만리산
	성격	대학교	노인복지	자연경관	자연경관
접근성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마을로의 접근은 마을버스 동구1, 동구1-1이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은 용이한 편 - 마을 내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식당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도시재생사업 당시 설치된 건축물들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 설치된 벽화와 안내판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 정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음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	-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많음</li> <li>- '재개발지역'해제 이후 많은 문화예술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그 효과가 미비해 보임</li> <li>- 마을 초입에 마을 상징인 호랑이 관련 안내판과 설명문이 있으나 보존상태가 좋지 않음</li> <li>- 마을의 특색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 마구잡이로 배치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음</li> <li>- 벽화의 경우 거주민들에 의해 훼손된 사례가 다수 발견</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란수도로 대변되는 한국전쟁 시기 부산의 역사를 대변한다는 상징성</li> <li>- 부산만의 경관을 보여주는 장소</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민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더 이상 바라고 있지 않고, 대다수는 거주지 생활환경의 개선을 바라고 있음</li> <li>- '마을 재생사업' 당시 설치된 벽화의 복원보다는 해당 장소가 가진 '경관'의 보존과 실제 거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주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치된 체험시설들이 방치되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음</li> <li>- 마을 내부에는 소수의 호랑이 명패를 제외하면 마을의 특징을 나타내는 조형물은 보이지 않음</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을 유지하고 내부환경을 개선한 '흰여울'문화마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주민의 생활환경은 개선하고 안창마을이 가진 경관적인 장점을 강조</li> <li>- 운영 측면에서는 '감천문화마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협동조합'의 설치와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분배</li> <li>- 마을의 빈 건축물을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로 활용</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선 사례들을 근거로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li> <li>-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직, 간접적 수익을 정주민에게 제공</li> <li>- 주변의 대학(동의대)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성을 높인다면 정주민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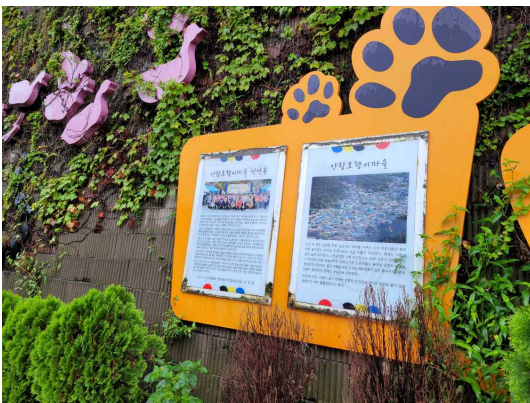
#### 4. 관련 이미지



안창마을 전경



안창마을 입구 조형물 1



안창마을 입구 조형물 2



안창마을(호랭이 마을) 내부 상징 조형물 1



안창마을(호랭이 마을) 내부 상징 조형물 2



안창마을 내부 콘텐츠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배윤지·김명수 2007, “부산지역 안창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 \* 구지선. 2014, “이색마을 여행 : 마을에서 찾아낸 우리들의 추억”, 낭만판다.
- \* 임남기·이태문 2017, “민간참여에 의한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 부산광역시 안창마을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 2015.03.17., 부산일보, 『한 마을 두 구청' 안창마을 도시 재생 공모로 뭉쳤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0316000039>
- \* 2017.06.22., 부산일보, 『안창마을 푸른 눈 어머니 "기념관 감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621000357>
- \* 2017.08.15., 국제뉴스, 『부산 동구, 안창마을입구 ‘옹벽 벽화’ 조성』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140>
- \* 2019.03.31., 부산일보, 『안창마을 생활여건 개선에 국비 투입』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33119360251671>
- \* 2019.10.16., CIVICnews, 『부산 도심에 숨은 시골, 안창 호랭이 마을』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24>
- \* 2021.04.05., CNbNews, 『부산대, ‘안창마을 역사·영상 아카이브 구축 사업’ 협약』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86052>
- \* 2021.12.29., 연합뉴스, 『안창마을 역사·영상 아카이브 구축 사업, ‘안창마을 축제’ 개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2916411325693>

### 부산일보, 『[부산 컬처로드 연다] 3부 삶과 함께하는 길 2. 안창마을』, 2015.01.27.(발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0126000013>

50년대엔 전쟁이, 80년대엔 자본이 이들을 위로, 또 위로 올라가게 했다. 여기까지 용케 왔다. 신발의 안창 처럼 패인 분지 안쪽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안창마을이다. 60년대 신발 공장에서 안창을 뜯고, 재봉하며 우리 동네이름도 '안창'이었다고 생각한 이들의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 산다.

동네 위의 동네, 안창마을은 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 5번 출구 앞에서 29번 버스를 타고 15분 가량 올라가면 닿는다. 범곡교차로에서 만리산 체육공원을 넘어 굽이굽이 올라가야 한다. 이 굽이길에 있는 주택가는 대부분 오래되었고, 일부는 50~60년대 지은 가건물 그대로다. 부산 시내 대부분 땅이 그렇듯 이 일대도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번복되기를 반복했다. 부지매각에, 업체 선정까지 된 적도 서너 번. 하지만 굽이굽이 올라가야만 하는 땅을 두고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새로 짓지 못했다.



안창마을(왼쪽 사진) 전경.  
신발의 안창처럼 패인 분지 안쪽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안창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대현 기자

### ■ '짓자'에서 '살자'로

50년대에는 일단, 살아야했다. 바다를 매립해 집을 지었고, 산으로 올라가 판자를 깔았다. 80년대는 일단, 지어야했다.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서야 좋은 동네라고 인정받았다. 허물고 짓고, 허물고 또 지었다. 그렇게 낡고 오래된 것을 무너뜨리는 데 익숙해졌다.

지난해 10월 주민들은 재개발에 관한 투표를 시행했다. 69.3%의 비율로 재개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언젠간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는 한풀 꺾였고, 그에 따라 하나로 묶여있던 필지를 가르는 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가장 먼저 도시가스를 들여오기로 했다.

마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도시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도 읽을 수 있다. 1975년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안창마을 주민들은 산에서 바위를 깨서 가져와 도로를 만들었다. 길이 필요하면 주민이 직접 만들어야 했다. 관에서는 품값으로 보리와 밀가루를 배급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길을 보리 밀가루 도로라고 부른다.

그렇게 도로가 닳아고 돈을 좀 번 주민들은 높은 안창마을을 떠나 시내로 이주했다. 마을에 학교가 없어 고등학교를 다니려면 시내로 나가야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갔다. 재개발의 바람이 몇 번 불었다.

2009년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었다. 처음엔 산동네 이미지를 벗자는 목적이었다.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로 벽화를 그리고 화단을 가꾸었다. 그러다 감천문화마을이 벽화마을, 부산의 산토리니로 자리 잡았고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 모델은 성공사례가 되어 산복도로 마을 전반의 롤모델이 된다.

### ■ 행정의 선긋기, 한 곳 차이였다

안창마을은 범내골, 범일 등 지명에서 나타나듯 이 일대가 과거 호랑이가 출몰했던 곳이라는 것에서 착안해 호랑이와 전통 오방색을 마을의 테마로 잡았다. 마을 입구에 '오색빛깔 공방'을 열어 산복도로 투어버스를 탄 관광객이 들러 천연염색과 문패 도자기 만들기를 배운다. 관광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전통 혼례 방법을 배워 이를 재현해 보여줄 예정이다. 1년이 넘어가면 빛이 바래 꾸준히 관리를 해야하는 벽화도 마을 협의회 이춘웅 회장의 노력으로 부산항만공사와 KT 등 시나 구가 아닌 다른 지원의 창구를 찾아 꾸준한 관리와 협력을 약속 받았다.

마을이 변화해 가는 데, 행정구역의 벽에서 턱하니 걸리고 만다. 안창마을은 크게 보면 하나의 마을이지만 호개천을 중심으로 부산진구와 동구로 나뉘어진다. 예전에는 주소 상의 나누어짐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창마을에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서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동구청의 주력사업이 되면서 집의 외양이, 세세한 복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골목길 재생사업, 벽화, 공터 복원은 동구 범일4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던 목욕탕이 안전 문제로 문을 닫자 복지관에서는 주민들에게 다른 대중 목욕탕을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했다. 복지관 목욕탕은 부산진구와 동구 가리지 않고 안창마을 주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설 목욕탕 쿠폰은 동구 주민에게만 지급된다.

부산진구는 호개천 축대를 보수하는 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곳에 오래 살았던 역사와 마을의 모양을 생각하지 않고 하천을 따라 행정구역을 나누었다. 한 줄로 나누었을 뿐인 데, 하나의 마을이 두 개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 ■ 관광, 그 너머를 생각해야

감천문화마을이 성공하자 동구청,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슷한 여러 공모 사업을 진행했다. 여러 곳의 지원으로 마을에 활력이 돌아, 주민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렇지만 모든 산복도로 마을에 다른 테마를 부여해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6년차, 벽화마을,

관광객 유치를 넘어선 마을 만들기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안창마을은 지리적으로 동의대학교 기숙사와 맞닿아있다. 학생과 교직원이 종종 오리고기를 먹으러 마을을 방문한다. 동의대 후문을 안창마을 방향으로 만들어 차와, 사람이 오가게 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행정구역상 동구와 부산진구로 갈라져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학과 대학생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동의대 윤지영 교수는 지난해 안창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7월부터 10월까지, 학생들과 함께 마을 이야기를 채록하고, 시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윤 교수는 "안창마을에 있는 빈집을 개보수해 세어하우스의 형태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싸게 임대해주고, 학생들은 마을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학과, 미술학과 학생들이 빈집을 작업실로 활용하고 그 뒤편으로 마을에서 연주회나 전시회를 여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러한 방법들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마을주민은 고령화되고, 관광객으로만 마을 전체를 순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마을이 감천문화마을이 될 수 없다면 각각의 마을들은 각자의 특색으로 관광,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시빅뉴스. 부산 도심에 숨은 시골, 안창 호랭이 마을**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24> .2019.10.16 11:43

부산에도 호랑이가 살았다면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나 아주 오랜 옛날 부산에도 호랑이가 출몰했고, 그래서 마을 이름에 호랑이가 붙은 마을이 있다. 부산 동구의 범일동(凡一洞)과 범천동(凡川洞)이 바로 그곳이며, 두 지명에 들어간 '범'은 호랑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특히 범일동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범천1리와 범천2리를 통합하면서 범일동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범일동에는 범내 또는 호계천이라 불리는 냇가의 발원지가 있으며, 부산의 마지막 달동네인 '안창마을'이 있다.

안창마을은 산골짜기 안의 작은 분지 마을이라는 뜻의 '안골마을'이라 불리기도 했다. 또 안창마을은 '도심 속의 시골'이라 불리기도 한다. 서면과 부산역 사이에 있어서 두 곳에서 차로 10여 분이면 갈 수 있다. 안창마을의 판자촌 모습은 주위의 아파트와 변화가의 빌딩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마을 주민 송숙희(86) 씨는 "처음 마을이 생긴 것은 6·25 전쟁 때 몰려든 피난민들 때문"이라며 "그 후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면서 이곳 마을 주민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송 씨는 "옛날 조선방직 앞(지금의 조방앞)에 공장들이 많아 사람들이 안창마을과 범일동에 살았는데, 나중에 공장들이 문을 닫자 사람들도 대부분 빠져 나갔다. 마을에 전기와 수도가 들어온 것도 80년대 후반이다. 지금은 정화조 공사가 한창"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안창마을을 오리고기가 유명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마을 특성상 산골짜기 산비탈에 마을이 있어서 농사 짓기에는 지리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오리고기 장사를 시작한 게 그들의 주된 생계수단이 됐다. 마을 주민 김덕조(82) 씨는 "어디서 오리고기를 받아와서는 자신들 건물에서 구워 팔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다고 한다. 김 씨는 "오리고기 집이 한두 개 생겨서 입소문이 났고, 마을에 오리고기집이 가장 많을 때는 36개까지 있었다. 요즘 가게가 줄기도 했고 손님들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관광객들도 많이 줄었고 아직 남아있는 가게들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등산객이나 단체 손님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안창마을이 계속 낙후된 상태로 방치된 것은 아니다. 안창마을 주민들은 외부인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로 마을이름을 '호랭이마을'로 바꾸고 벽화를 그려 조금이나마 마을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의 벽화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2007년 6월부터 안창

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그려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벽화들이 낡고 페인트가 벗겨져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된 느낌을 준다. 인근 동의대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많은 벽화가 가끔은 보수, 관리되고 있지만, 군데군데 아직도 관리가 필요한 벽화들이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그리고 비탈진 길을 걸어 마을 위로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은 부산 도심지 중심에 아직도 이런 시골스런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2011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됐고, '오색빛깔 천연공방'을 만들어 다양한 예술 사업이 진행됐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어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한다. 안창마을 예술상상마을 사업도 진행됐는데, 감천문화마을 같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마을 주민들이 보여주기 식의 개발보다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바꿔달라며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 이규식(80) 씨는 "재개발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안한다고 반대했다. 마을을 외지 다른 사람들 와서 살라고 바꾸는 것보다 지금 주민들이 사는 집부터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 이후로 다시 재개발한다는 말없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재개발은 안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 조광일(77) 씨는 "재개발돼서 외부인이 들어오면 정신없고 시끄러울 것이 뻔하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진데 재개발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겠냐"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의 바람대로 안창마을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새뜰사업'에 선정됐다. 안창마을은 2016년 한차례 새뜰사업 대상에 선정된 적이 있어 몇몇 집은 이미 수리가 된 상태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새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부 도시재생사업이며, 주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 그 대상이다. 부산 동구청은 2016년에 안창마을이 새뜰사업에 선정됐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수리비 100%를,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수리비 50%를 지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이 50% 비용마저 부담스러워하면서 사업을 포기했고, 이번에 당시 제외된 주민들을 위해 새뜰사업을 재신청했다고 동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은 지붕들이 아무렇게나 늘어선 안창마을은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전설을 지니고 퇴색돼 가고 있다. 판자촌 곳곳의 벽화들만이 덕지덕지 붙은 안창마을은 그렇게 세월을 견디고 있다.

## 장림포구

### 1. 개관

유형 구분	도시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93번길 72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미래유산	시민 추천

형성 시기	조선시대	소유·관리자	부산 사하구
초기 형태	포구	현재 용도	포구 및 테마거리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 군사상의 요지였던 포구로 시작</li> <li>- 개항 후 인근 흥티마을의 보덕포와 함께 이곳은 김 생산지로서 그 명성을 날림</li> <li>- 1970년 산업화가 진행되어 주변이 공업 단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쇠퇴</li> <li>- 2012년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을 통해 테마 거리로 조성됨</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와 낙동강이 합쳐지는 곳으로 다른 지역의 포구 형태와 달리 장림천 양쪽으로 제방이 길게 늘어져 있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포구가 형성되어 있음</li> <li>- 조선시대 장림포 앞바다에서 왜선 6척을 발견하고, 5척은 불살랐고, 1척을 불태운 뒤 낙오병의 목을 이몽구가 베었다는 충무공의 기록과 숙종 때에 명지만에 표착(標着)하여 장림포에 내박한 왜선 1척을 서평만호장 이연정이 사문(査問)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li> <li>- 또한 장림포에 염분이 있었고 바닷물을 줄여 소금을 만드는 가마가 있어 염세로 두지(斗地)마다 1양씩으로 정해져 해마다 4월까지 중앙의 균역청에 바쳤다고 함</li> <li>- 해방 전 일본 사람들이 건너와서 김 양식을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곳 주민들의 생활수단이 되었음</li> <li>-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을 통해서 어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관광객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됨</li> <li>- 그 결과 수면에 떠 있는 배와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베네치아 부라노섬과 닮았다하여 부산의 베네치아 '부네치아'로 불리며 최근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림포구는 그 역사가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매우 깊으며 현재 까지도 포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대성, 지속성을 지닌 유산</li> <li>- 낙동강과 바다의 공생이라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li> <li>- 독특한 경관을 가져 '부네치아'로 불리며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li> <li>- 주변의 여러 시설물과 연계한 복합문화 장소를 운영 중</li> </ul>

\* 출처 : 사하구청 홈페이지 참조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neplusone21&logNo=100053244663>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을숙도	아미산전망대	다대포해수욕장	물운대
	성격	자연경관	전망대	자연경관	유원지
접근성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대중교통 정류장과 거리가 있어 대중의 접근이 쉽지 않음 - 공영주차장이 위치하여 개인차량을 통한 접근성은 좋음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건물 외벽의 정비가 미흡하여 칠이 벗겨진 건물이 많음 - 장림포구 내 공원의 환경정비가 미흡하여 산책로 이용에 불편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기존용으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연중무휴	-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외관 및 산책로의 정비가 이루어져 새로운 모습의 포구로 자리잡았으나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주변 하수처리장 영향)</li> <li>-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공간이 많음</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과 모습은 변화하였으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서부산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li> <li>- '강과 바다가 만나는', '도심 속 포구'라는 장소에서 오는 특별함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외벽도장이 훼손되어 본래 의도를 살리지 못함</li> <li>- 장림포구 내 공원의 환경정비가 미흡하여 산책로 이용에 불편</li> <li>- '맛술촌'에 입점한 상점 대부분이 운영을 하지 않음</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구 내 건물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하여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li> <li>- 풍차, 포토존 조형물 등을 조성해 관광지로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자 노력</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이나 포토존 위주의 정비로 관련 콘텐츠 부족, 관람객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문제점 개선 필요</li> <li>- 공간이 가진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도시개발, 강변 매립 등으로 인해 소실된 낙동강 하구 포구의 모습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장소가 가진 특성과 경관적 장점을 조명 가능한 프로그램의 다각화</li> <li>- 낙동강 하구, 도시 속의 포구라는 장소적 특색을 살려 기존 정비사업 때 설치한 인프라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향의 활용이 필요</li> <li>- 특색있는 지역의 먹거리 발굴 및 개발을 통한 '맛술촌'의 재활용화</li> <li>- '청도 프로방스 빛축제'처럼 장소만의 테마를 살린 대형 행사의 개최</li> </ul>

### 4. 관련 이미지



정비 전 전경(출처 : CIVICNEWS(시빅뉴스))



현재 장림포구 전경\*



장림포구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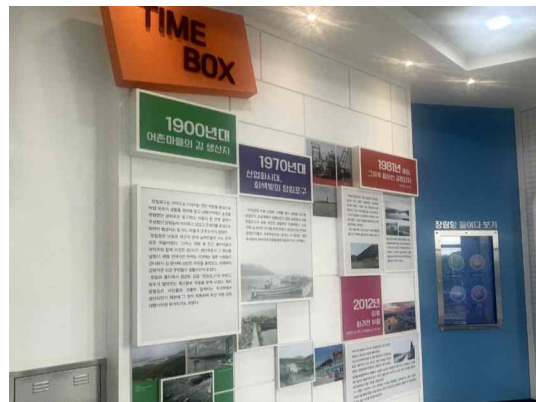
장림포구 시설안내판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



부네치아 기념품샵



장림포구 안내패널

\* 출처 : 사하구청 홈페이지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구모룡 2009, “마리타임 부산: 부산의 향, 포구의 사람과 문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 동길산·조강제 2015, “포구를 건다: 나를 지우고, 나를 세우는 힐링 여행 산문집”, 예린원.
- \* 김소민·이다은·지소영 2022, “새롭게 빛나는 장림포구의 물결”, 한국관광학회.
- \* 김태근 2022, “도시재생사업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원도심 2개 지역(사하구 장림포구, 부산진)”, 신라대학교 산업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2020.07.15., 국제신문, 『‘부네치아’ 장림포구 테마거리 만든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716.33006005352>
- \* 2020.07.15., KBS, 『‘부네치아’ 장림포구에 야간 경관 조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97719&ref=A>
- \* 2020.09.01., 매일경제, 『[LUXMEN Travel] 부산 장림포구, 영남 알프스 등 국내서 즐기는 이국적 여행지』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9/900670/>
- \* 2020.12.28., 한국일보, 『형형색색... '부네치아' 장림포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418080005515?did=NA>
- \* 2021.01.14., 헤럴드경제, 『和 잔세스칸스 닮은 ‘부네치아’ 부산 장림포구의 정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4000341>
- \* 2021.11.21., 부산일보, 『관광객 늘어나는 ‘부네치아’ 장림포구, 코로나 속 희망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2118594693675>
- \* 2022.03.25., 영남일보, 『[주말&여행] 부산 사하구 장림포구... 곳곳이 포토존...알록달록 이국적 정취 '부산의 베네치아』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324010003454>

### 부산일보, 『200억 쏟아붓는데... 특색 없는 관광지 ‘장림포구’ 외면』, 2022.03.20.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2017170591550>

‘부산의 베네치아’ 사하구 장림포구가 10년간 200억 원 가까운 예산 투입에도 열악한 접근성과 특색 없는 관광자원으로 시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사하구청은 장림포구에 추가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 본격화 전부터 시민들은 ‘차별성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20일 사하구청은 사하구 장림포구가 지난해 12월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돼 장림포구 내 관광 인프라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 시설을 현대적으로 탈바꿈하는 정부 사업으로, 장림포구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물양장 신설, 관광 인프라 개선이 진행된다. 총 70억여 원이 투입되며, 이 중 22억여 원이 장림포구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림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장림포구 개장 이후 2019년 19억여 원을 들여 전체 면적 389㎡ 규모의 2층짜리 ‘선선 전망대’를 개소한 데 이어, 올 2월에는 8억여 원을 투입해 야간경관 사업과 포토존 조성을 완료했다.

사하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장림항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국비 65억 6000만 원, 시비 41억 1000만 원, 구비 17억 5800만 원 등 총 125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에 추진되는 어촌뉴딜 300 사업까지 더하면 장림포구에는 10년 동안 195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은 장림포구 활성화 방향에 공감하지 못한다. 서울에서 온 여행객 신 모(29) 씨는 “볼거리가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림포구까지 굳이 찾아갈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열악한 교통 인프라부터 해결해야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SNS에도 ‘실제로 가보니 할 일이 없어 사진만 찍고 나왔다’, ‘사진으로 본 부네치아와 많이 달라 아쉬웠다’ 등의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산 사하구 장림포구 전경/ 나용기 기자

인근 상인들은 ‘테마 부족’을 장림포구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장림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 모(60) 씨는 “포토존 위주 사업이 반복되다 보니 관광객들 발길이 점점 끊기고, 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며 “청도 프로방스 빛축제처럼 테마있는 사업들이 추진되면 머물 이유가 있는 관광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어촌뉴딜 300 사업도 기존 사업 내용의 연장선에 가깝다.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장림포구에는 기존에 있던 어구창고와 포토존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유일한 특화사업은 ‘수산물 딜리버리 마켓’으로, 어민이 잡은 수산물을 관광객에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판매를 위한 사업비는 어민이 부담해야 해 얼마나 많은 어민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도 특색 있는 관광 활성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의대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윤탠헌 교수는 “지금처럼 장림포구가 경관이나 볼거리 위주 사업만 진행하면 오래 가는 관광지가 되기 어렵다”며 “단순 포토존에서 나아가 접근이 쉽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가 돼야 관광객들의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하구청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장림포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직원들과 고안하는 중이고,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해양수산부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며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 ‘부네치아’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특색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단독] ‘장림포구 부산문학관 건립’ 없던 일 됐다』, 2021.11.16.**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1417413593426>

부산시의 치밀하지 못한 행정 탓에 부산문학관 건립 사업이 표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장림포구(일명 부네치아) 인근 부지 3000㎡에 연면적 8000㎡로 총 338억 원(국비 250억 원, 시비 88억 원)을 들여 2022년 착공해 2024년까지 짓겠다고 발표한 부산문학관 건립 계획(부산일보 3월 26일 자 1면 보도)이 사실상 무산됐다. 부산시는 올 3월 부산문학사를 집대성할 부산문학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SK에너지가 이곳에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세운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문학관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상태”라고 했다. SK에너지의 부지 활용 계획은 내년 중 최종 확정된다고 한다.

사실상 당초의 부산시 계획은 문학계의 여론 수렴 없이 발표돼 ‘입지 타당성 문제’와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달리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연계해 사업비 중 국비를 70%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예산상의 이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설익은 계획 탓에 이런 논란 등은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셈이다. 문학계 한 인사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시의 이런 주먹구구식 문화행정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부산문학관 추진은 완전히 원점 회귀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전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지 선정뿐 아니라 예산 확보라는 만만찮은 과정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처음부터 새로 물색해야 하고, 특히 지방이양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를 부산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산시는 현재 2022년 예산안에 ‘부산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용역비는 처음에 5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그마저도 부산시 자체 예산안 심의를 거치면서 1000만 원이 삭감됐다. ‘부산문학관 용역’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착수될 예정이다.

부산은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립문학관이 없는 도시다. 조갑상 요산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부산문학관 건립은 시장 공약 사업인 만큼 박형준 시장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문학관 사업이 내년에 속도를 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꽃마을

### 1. 개관

<b>유형 구분</b>	도시	<b>소재지</b>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4동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방식</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876년	<b>소유·관리자</b>	서구
<b>초기 형태</b>	마을	<b>현재 용도</b>	마을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76년 부산항 개항으로 거류지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군 수송로 조성을 위해 도로를 개수하면서 주변으로 거주민들이 이 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li> <li>- 한국전쟁으로 피란민이 몰려들어 마을의 규모가 증가하여 정착민들이 인근 '구덕산'에서 채집할 수 있는 들꽃과 약초를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해 꽃마을로 불리기 시작</li> <li>- 1970년 국화단지를 시작으로 화훼단지 조성됨</li> <li>- 2000년대 마을이 있는 지역이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이 이뤄져 주택지로 변화</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대신4동 10통과 11통 지역으로서 서대신4동과 사상구를 연결하는 '구덕산' 해발 220m의 고개에 자리한 마을</li> <li>- '꽃마을'이라는 명칭과 마을과 관련된 정체성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형성</li> <li>- 현재는 꽃을 재배하는 주민은 거의 없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 다수 분포</li> <li>- 최근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곳곳에 벽화나 설치미술품을 조성하여 등산객들에게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꽃마을로 169번길 일대는 '꽃마을 예술촌'으로 조성</li> <li>- 꽃마을의 이름을 살려 마을을 화려한 색채로 단장하여 방문객을 유도</li> <li>- 마을 입구의 입간판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식당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음</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도심의 역사가 담긴 지역의 오래된 마을로서 부산의 발전과 시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li> <li>- 과거와 달라진 모습으로 지역이 가진 경관적 가치를 많이 상실함</li> <li>-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안내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연계 측면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례</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구덕문화공원	구덕수원지	구덕 공설운동장	-
	성격	공원	수리시설	체육시설	-
접근성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구덕꽃마을 노외공영주차장이 마련 - 근거리에 서구 1번 마을버스 종점이 있고 81번 버스 종점을 운영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마을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식당들만이 다수 분포하여 마을이 가진 특색이 많이 희석됨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	-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전쟁 전후 화훼 단지였던 마을의 모습과 성격이 많이 달라짐</li> <li>- 주변 정비에 치중하여 과거 마을의 정체성을 알리는 요소가 부족</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란수도'로 대변되는 부산의 시대성을 반영하는 장소</li> <li>- 현재는 꽃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은 마을의 성격은 거의 사라졌지만 마을의 명칭이 여전히 당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음</li> <li>- 현재도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정체성과 연관된 정비 방안 마련</li> <li>- 마을이 가진 역사적인 경관을 알려주는 시설물의 설치</li> <li>- 안내시설의 위치 변경을 통해 안전한 관람환경의 조성</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과거 마을의 특색 있는 모습이 남아 있지 않으며 구덕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을 위한 상점과 식당이 주로 운영 중</li> <li>- 꽃마을이라는 명칭에 맞게 화려한 색상으로 마을을 정비하여 방문객을 유도 중</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입구를 알려주는 표지판의 미비</li> <li>- 내부 조형물의 대다수는 마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설치물이 대부분</li> <li>- 마을이 가진 과거의 경관을 보여주는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음</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인 '화훼'와 연관 있는 시설물이나 상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운용하여 해당 장소가 가진 가치와 특색을 보존</li> <li>-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화훼를 주제로 한 '플리마켓' 운영</li> <li>- 마을의 성격과 연관성이 높은 대형행사인 '야생화 축제' 등의 개최</li> </ul>

#### 4. 관련 이미지



꽃마을 입구\*



꽃마을 입간판\*



꽃마을 전경 1



꽃마을 내부 조형물 1



꽃마을 내부 조형물 2



꽃마을 바닥 사인물

\* 출처 : 부산시보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이동현·김경수·박동현·이갑정 2013, “(2013) 부산 꽃마을 개발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 조성백 2019, “공공예술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방안 연구 : 부산지역 꽃마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2012.06.07., NEWSIS, 『부산시, 산북도로 ‘꽃마을 문화예술 전시관’ 개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542492?sid=102>
- \* 2014.11.16., 국제신문, 『서구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산시 손잡고 '다시 활짝'』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117.22010204306>
- \* 2015.02.24., 국제신문, 『부산 서구 꽃마을 도시공원으로 재탄생』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225.22008191936>
- \* 2015.07.24., 국제신문, 『부산 서구 꽃마을 구덕전통문화체험관…내달 착공해 내년 4월 개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725.33001225621>
- \* 2021.03.08., 부산일보, 『고난을 삶으로 승화시킨, 부산 마을 17곳 이야기』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0816363377432>
- \* 2021.12.09., 부산일보, 『[걷는 여자] 예쁜 이름과 달리 무시무시한 경사가…부산 꽃마을 오르기』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0816563637618>
- \* 2022.01.07., 부산일보, 『서구 꽃마을 프로방스 핑크빛으로 놀러오세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0716352507081>
- \* 2022.03.28., 부산일보, 『부산 서구, 꽃마을 양묘장 준공식 개최 및 나무심기 활동… 제77회 식목일 기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2817381624491>

#### **부산일보, 『서대신4동, ‘커피향기 가득 꽃마을로 담다’ 업무협약 체결』, 2021.09.2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0117345683007>

부산 서구 서대신4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성낙만)는 사회적 기업인 (주)온더무브 전차플라워(대표 김정훈)와 지난 10월 1일,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 촉진 및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한 ‘커피향기 가득 꽃마을로 담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낙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산일보, 『서구 꽃마을 프로방스 핑크빛으로 놀러오세요!』, 2022.01.07.**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0716352507081>

부산 서구 서대신4동 꽃마을이 화사한 핑크빛으로 확 달라졌다.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7일 오후 3시 공한수 구청장, 시·구의원,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사업비 11억4천여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꽃마을 프로방스 조성 사업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꽃마을을 관광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남동부의 옛 이름인 프로방스풍으로 특화시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마을 분위기를 일신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꽃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구 부산진역사

###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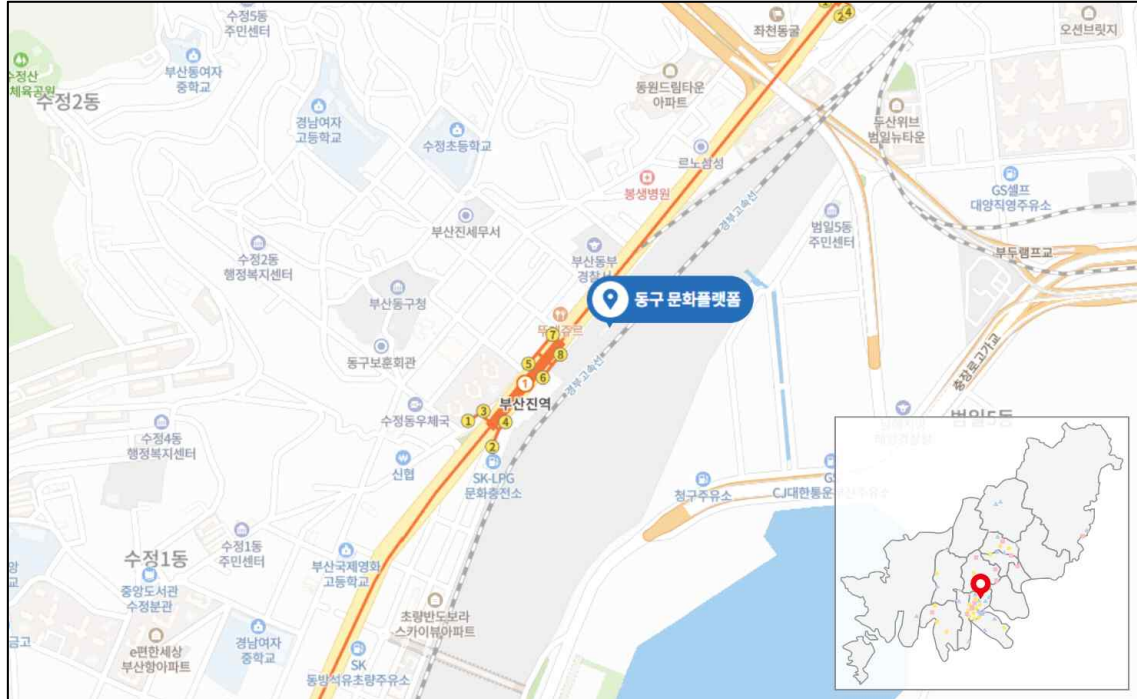
유형 구분	도시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0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형성 시기	1905년	소유·관리자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초기 형태	기차역	현재 용도	복합문화공간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5년 1월 1일 경부선 무배치 간이역으로 개역</li> <li>- 1936년 7월 5일 동해남부선 개통으로 영업 확대</li> <li>- 1979년 9월 18일 컨테이너 야적장 조성, 컨테이너 수송 개시</li> <li>- 1979년 10월 7일 새 역사 준공</li> <li>- 1992년 7월 15일 일반화물 취급중지</li> <li>- 2005년 4월 여객 취급 중단</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선에 있는 기차역으로 부산역과 사상역 사이에 위치</li> <li>- 1905년 1월 1일, 한국철도의 중심 노선인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무배치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li> <li>- 현재는 여객 수송이 중단되었으며 해당 건물은 2022년 4월 22일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으로 준공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li> <li>- 2층 건물인 '부산진역사' 건물의 경우 전시관으로 사용</li> <li>- 광장에는 '커피박물관'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임시로 '동구 코로나 19 백신 접종 센터'로 사용 중</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완행열차의 시 종착역 및 일부 방면 열차의 정차역으로 기능했던 부산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도심역사로서 부산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사례</li> <li>- 과거에는 부산역에 버금가는 여객 수요가 있었으나, KTX의 개통으로 정차편수가 급감하자 여객 수요가 줄어들어 기능을 상실</li> <li>- 방치되어 도시 미관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하던 건물을 '복합 문화플랫폼'으로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철도역 정보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부산진역 1호선	부산동구청	-
	성격	지하철역	관공서	-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어 개인차량은 물론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또한 매우 뛰어남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외형의 경우 과거 역사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유지 - 내부는 '문화플랫폼'의 용도에 맞게 개편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기존용으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월 - 정기후유	10:00-19:00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관의 형태는 유지하고, 내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li> <li>- 건물 내부는 '전시장'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 과거 역사 건물로 사용되었을 당시 모습은 확인할 수 없음</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사례</li> <li>- 과거 역사로 사용되며 지역민들과 많은 기억을 공유한 장소</li> <li>- 현재 용도를 다한 건물을 활용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재생 건축사례</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건축물이 가진 역사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마련 필요</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시장, 커피박물관을 운영 중</li> <li>- 광장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대다수가 '현대미술전시'에 치중되어 있어 건축물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나 가치가 드러나지 않음</li> <li>- 아직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관련 홍보의 필요성이 있음</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각각의 테마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li> <li>- 건물 내부의 전시장의 경우 '과거'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부산'을 테마로 한 상설전시 개최</li> <li>- '커피박물관'의 경우 '현재' 전 세계의 물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하고 있는 부산을 '커피'라는 매개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li> <li>-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의 경우 미래세대에 전 세계를 대표할 문화 도시로 변화할 부산을 테마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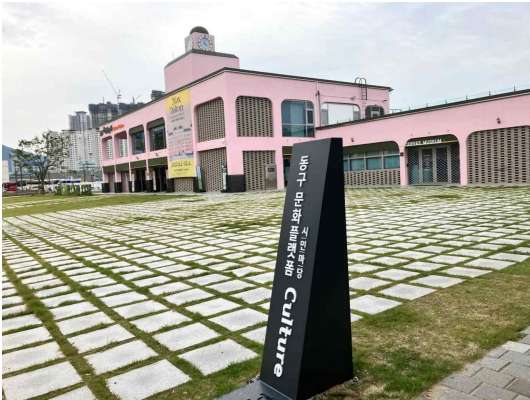
#### 4. 관련 이미지



부산진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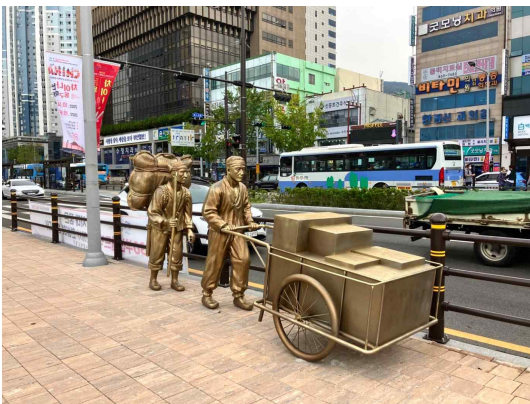
입구 모습



동구 문화 플랫폼 입간판



커피 박물관



주변 조형물



주변 공공시설물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박상필 2013,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부산진역사(驛舍)”, BDI 포커스.
- \* 최지영 2013, “유휴 산업유산의 문화공간 재활용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철도 유산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2019.01.19., 부산일보, 『[밀물썰물] 폐역사의 변신』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919063470158>
- \* 2021.02.22., 국제신문, 『16년간 방치된 부산진역사, 책이 있고 만남이 있는 시민의 마당으로 外』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222.99002190848>
- \* 2022.04.22., 부산일보, 『부산 동구, '구.부산진역사' 문화가 있는 시민의 마당으로 탈바꿈』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2217543807439>
- \* 2022.05.10., 국제신문, 『부산 동네마다 아동 복합문화공간 추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511.22012002849>
- \* 2022.08.26., 부산제일경제, 『9월 문화 즐기기… “부산 동구 문화플랫폼서 어때요”』  
<http://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912>

### 울산저널, 동해남부선의 시·종착역, 부산진역 2019.05.08. (발췌)

<http://www.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78971956813>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한 국가의 국력은 사람과 재화 수송률에 비례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제국주의 시대는 철도의 길이가 곧 그 제국의 힘이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강점하자마자 철도부터 부설한 이유다.



부산지역 전경. 오후 3시경인데도 사람들이 무료급식소를 향해 줄서 있다.

1928년 3월, 일제 작가 하세가와 가이타로는 조선반도를 통해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간 이야기를 유럽견문록 <춤추는 지평선>에 상세히 기록했다. 그는 관부연락선으로 부산항에 들어와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경성을 지나 하얼빈까지 가서 다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갈아탔다.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한 조선 여정에서

그는 식민지 조선의 기차역과 철도관사에 내걸린 일장기에 희열했다. 식민지 반도를 중단하는 철도는 그의 눈에 제국의 국력 그 자체로 비쳤을 것이다. [\* 정해영의 <근대문학을 읽다> 철도와 제국주의 참고]

옛 부산진역은 동해남부선의 시·종착역이었다. 1905년 12월 1일 영업을 시작했으며, 한때 통일호와 비둘기호의 출발지로도 유명했던 역으로 부산역에 버금갈 정도로 승객이 많을 때도 있었다. KTX 개통 이후 2005년 4월 1일에 여객 취급을 중단했다.

역사驛舍는 임진왜란 당시 첫 격전지였던 옛 부산진성이 자리한 중산 아래 중앙대로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1935년 12월에 경주까지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서 부산진역은 범일동에서 지금의 수정동으로 옮겨 오게 된다. 일제에 의한 동해남부선 일대의 농수산물, 광물 등의 물자 수탈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말 오후에 찾은 부산진역 앞의 폐역임에도 인산인해다. 한눈에 봐도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 무질서해 보이지만 역사 왼쪽 모퉁이를 향해 나란히 줄 선 모양새다. 살펴보니 폐역사 끝에 무료급식소가 있었다. 현재 시각 오후 세시 반, 아직 배식시간이 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지만, 사람들은 무작정 줄을 서서 기다린다

**부산일보, 『16년간 방치됐던 부산진역 ‘지역 문화 예술 거점’ 된다』, 2021.12.0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0119294519764>



내년 1월 옛 부산진역사에 들어설 가칭 ‘시민마당’ 투시도. 부산 동구청 제공

16년간 폐역으로 방치됐던 부산진역이 버스킹 공연 등 지역 문화 예술 거점으로 거듭난다.

부산 동구청은 “옛 부산진역을 리모델링한 가칭 ‘시민마당’이 내년 1월 준공되면, 내부 준비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동구청의 ‘시민마당(가칭) 운영 및 활성화 계획안’에 따르면 시민마당에서는 연 30회 이상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전망이다.

시민마당 야외 잔디 광장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정기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어린이날, 광복절,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기념일에는 시민 참여형 토크콘서트 등 특별 공연도 계획됐다.

동구청은 건물 내부에서 해외 또는 국내 경력·신진 작가의 작품 전시를 기획하거나, 시민마당 도서관과 연계한 북 콘텐츠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시비 31억 원과 구비 7억 원을 투입해 올 9월부터 연면적 1314㎡ 규모 역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역사 내부에는 도서관, 전시관, 커피박물관이 조성되고, 역사 앞은 잔디 광장으로 꾸민다. 옛 부산진역은 2005년 폐역된 뒤 방치됐다. 그러다 올 2월 동구청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가 업무 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시민마당 공간에서 영화 상영을 하거나, 이벤트를 여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며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되, 주민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부산평화시장

### 1. 개관

유형 구분	생활문화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7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형성 시기	1940년	소유·관리자	부산평화시장 번영회
초기 형태	시장	현재 용도	시장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0년 일제강점기 때, 조선방직 부근에 오일장이 선 것이 유래</li> <li>- 1969년 오일장과 난전 등으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시장 건물을 완공</li> <li>- 1970년 1월 10일 시장 등록을 완료하고 같은 해 4월 8일 개장하고 의류 전문 시장으로 변화하여 100여 명의 의류 상인을 유치하고, 3층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의류 자체 생산을 시작</li> <li>- 1996년 8월 28일에 냉난방 시설 가동</li> <li>- 2005년 11월 24일에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석하여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상 수상</li> <li>- 2009년 6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냉·온방 증설 공사 및 정문 자동문 설치</li> <li>- 2011년 6월 20일에 주차장 개장</li> <li>-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에 선정</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의류 및 신발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특화 전문 도매시장</li> <li>- 1970년대 부산시가지가 확대되고 서면 인근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로 확대되면서 범일동 인근으로 근대적 재래시장들이 들어섬</li> <li>- 890여 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상사건물형 중대형시장</li> <li>- 주인이 직접 영업을 하는 점포가 438개소, 임대 운영 점포가 422개소 존재</li> <li>- 지하 1층에서는 가방, 의류, 액세서리, 잡화를 판매하고 있고, 1층은 주로 신발을 취급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에는 의류매장들이 있으며, 4층에는 부산평화시장번영회가 위치</li> <li>- 매일 시장이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멀리 경상남도 일원의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 오고 있음</li> <li>- 도매시장이라는 특성상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신발 및 의류를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음</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산시민의 삶과 연관이 깊은 장소로서, 부산 의류산업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곳</li> <li>- 품질과 가격 면에서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장소</li> <li>-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유통의 다각화를 꾀함</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국내 시장백과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이바구길	168모노레일	-	-
	성격	관광지	관광지	-	-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상업시설이라는 특성상 주차 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또한 뛰어남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2009년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음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으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월~토	7:00~18:00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시설이라는 특성상 건물 내 외관의 과거 모습 보존 여부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li> <li>- 경관 보존의 의미에서 평화시장만의 경관이나 테마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li> <li>- 최근 구매방식의 변화와 도매시장 이용 행태가 줄어들고 있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 약화</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부산의 의류산업의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li> <li>- 삶의 3가지 요소 중 빠질 수 없는 '의'생활과 관련하여 부산시민들과 많은 기억을 공유한 장소</li> <li>- 부산을 넘어 전국에서 원단이나 의류 등을 구매하러 오던 장소라는 상징성</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관 정비 필요</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가 건물형 중대형시장으로 운영 중</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시설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활동 대다수가 '할인행사'에 치중하여 시장의 테마(의류)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없음</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대문 시장, 동묘시장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연령의 이용객들을 모집하여 활성화하는 방안</li> <li>- 부산지역의 의류산업과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해당 시장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 행사나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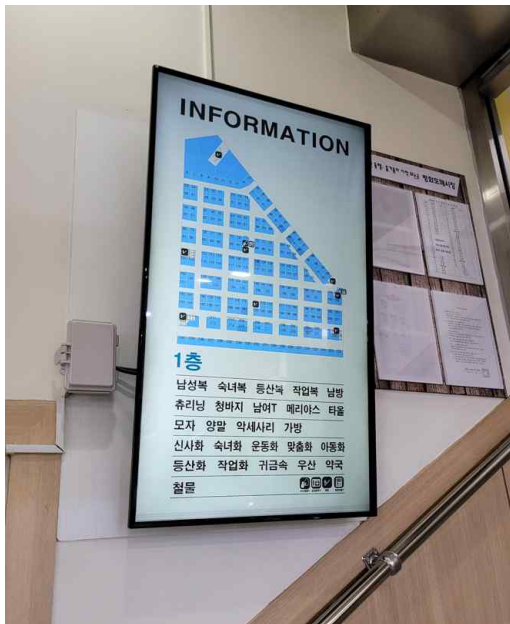
#### 4. 관련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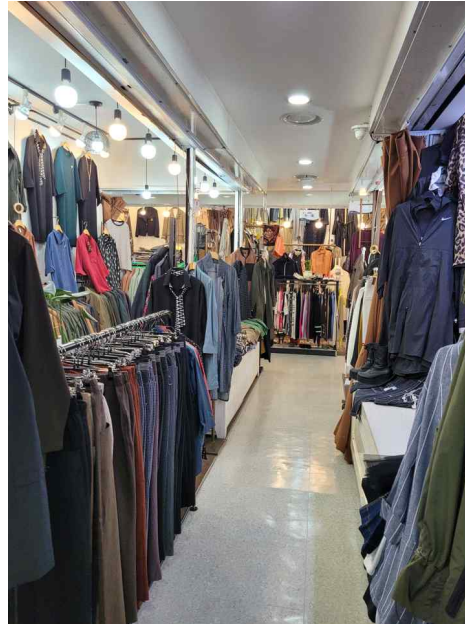
부산평화시장 전경



출입구 모습



매장 내부 전자 안내판



내부 매장 전경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부산평화시장 홈페이지, <http://www.bsph.kr/>
- \* 부산발전연구원 2007, “2007 부산학총서, 부산의 재래시장”, 부산학연구센터.
- \* 박재환·김희재·김정오·황경숙·김용규·김명숙 2007, “부산의 장터 찾아가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 홍동식 2009, “재래시장, 추억 사이소: 전통시장 이야기”, 부산관광컨벤션뷰로.
- \* 2021.11.17., 뉴스핌, 『부산중기청·부산시, 부산평화시장 관광바우처 시장 선정』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7001068>

#### **부산일보. 『부산진구 부산평화시장, 봄맞이 고객 사은 행사 진행』, 2021.03.16.**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617024158115>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진구의 부산평화시장에서는 3월 22일(월)부터 봄맞이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 참여 방법은 시장 물품 구매 시 배부되는 쿠폰을 지참하여 평화시장 1호문 앞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행운의 룰렛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룰렛이벤트는 온누리상품권, 각티슈, 스탠볼, KF94 방역마스크, 에코백(장바구니) 등 준비된 사은품이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된다.

복승진 시장변영회장은 “전통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때에 저희 부산평화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사은품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부산 평화시장은 매일 1회에 걸쳐 방문고객을 위한 자체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장 상인들을 위한 착한임대인 운동 전개로 관리비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등 202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구포국수

### 1. 개요

유형 구분	생활문화	소재지	-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멸치 육수에 삶은 국수와 부추, 김가루와 같은 고명을 얹어 말아먹는 음식</li> <li>- 구포는 조선시대부터 곡물이 모인 곳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제분, 제면 공장이 성업함</li> <li>- 한국전쟁 시기까지만 해도 한강 이남 지역의 면 음식은 밀가루 반죽을 밀어 써는 칼국수가 대부분이었으나, 피란민들에 의해 구포에서 생산되는 밀가루를 이용한 새로운 음식이 생겨남</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포국수는 우리나라에서 지명 자체로 유명 브랜드가 된 최초의 사례</li> <li>-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의 향토 음식이자 '잔치국수'의 원형</li> <li>- 한국전쟁 시기부터 지금까지 피란민부터 구포시장 상인 등 부산시민들의 한 끼를 책임진 음식</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2. 현황조사

안내(홍보) 현황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잔치국수'의 원형으로 평가</li> <li>- '칼국수'로 대변되는 이전의 한반도 남부 지역의 면 문화에 '잔치국수'로 대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li> <li>-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내부 자체 쇼핑몰운영 인터넷 판매 활성화 등 시대에 맞추어 유통 측면에서 다각화를 꾀하고 있음</li> <li>- '구포국수 체험관'을 부산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li> <li>- '구포국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식당을 체인점의 형태로 운영 중</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포국수 공식 홈페이지 참조

### 3. 보존·활용 방향

####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분별한 상표도용으로 인하여 브랜드 가치가 위협받고 있음</li> <li>- '구포국수'라는 명칭으로 국수를 생산하는 공장은 현재 부산에 남아 있지 않고,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김해, 합천)에 있음</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포국수는 한국전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의 생활과 함께한 상징적인 음식임</li> <li>- 지명 자체로 유명 브랜드가 된 최초의 사례라는 상징성</li> <li>-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진 '향토 음식'이자 '잔치국수'의 원형이라는 상징성</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가 주축이 된 '구포국수'의 브랜드 가치 보존에 대한 노력이 필요</li> <li>- 흩어져있는 공장들을 협동조합의 형태로 통합시켜 브랜드 가치를 보존할 필요성</li> </ul>

####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홈페이지의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li> <li>- 부산지역 내 전문식당, 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구포국수'의 하나의 홍보 채널로 활용 중</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관 활동의 경우, 구포 국수가 가진 역사적 의의나 가치보다는 저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요리, 놀이 활동, 오감 체험 등이 대부분임</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치국수'의 원형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홍보와 행사를 대외적으로 진행</li> <li>- 구포 일대에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구포국수'의 특성과 가치를 알림</li> <li>- 과거 공장이 있던 구포만세길에 '구포국수' 체험관을 건립하여 해당 음식이 가진 의의를 조명</li> <li>- 지역 대표 상품으로 개발</li> </ul>

#### 4. 관련 이미지



옛 구포국수 말리는 모습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내부 재면체험 모습  
(출처: 구포국수체험관 공식갤러리)



구포국수 체험관 전경\*



현재 구포국수 모습\*\*

\* 출처 : <https://blog.naver.com/dw9597/221160411114>

\*\* 출처 : <https://blog.naver.com/gj30603/222843391649>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이야기 따라가는 부산나들이”,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 \* 박종호 2011, “부산을 맛보다”, 산지니.
- \* 강중희 2014, “어이없게도 국수: 인생의 중심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준 이”, 비아북.
- \* 박정배 2016, “푸드 인 더 시티”, 깊은 나무.
  
- \* 2008.08.01., 노컷뉴스, 『부산 전통식품 "구포국수", 옛 명성 되찾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79745?c1=225&c2=229>
- \* 2019.04.23., 국제신문, 『“구포국수 살리자” 북구·의회가 나섰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424.22009010573>
- \* 2022.03.15., 국제신문, 『[박상현의 끼니] 구포국수와 자투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0316.22021003928>
- \* 2022.08.31., 국제뉴스, 『부산 북구, 구포국수 체험으로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도와』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0449>
- \* 2022.08.31., 국제뉴스, 『부산 북구, ‘구포국수 체험관’ 23일 개관』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337>

### 국제신문, 『‘밀’과 함께 놀아보아요! ‘구포국수체험관’ 개관 외』, 2021.02.2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225.99002174624>

#### ‘밀’과 함께 놀아보아요! ‘구포국수체험관’ 개관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구포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구포국수체험관’을 새롭게 단장해 오는 2월말 개관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구는 구포역세권 마을기업인 '구포유'(대표 전명호) 및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하여 80년의 역사를 가진 구포국수의 전통적인 맛을 복원하는 동시에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도 개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포국수체험관' 제면소에서는 자가제면한 쫄깃한 생면과 밴댕이로 우려낸 육수에 인공조미료가 없는 자연 양념을 더해 건강하고 담백한 맛의 구포국수를 선보인다.

특히 밀을 이용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통밀·반죽 놀이터'와 제면 및 제빵체험 프로그램실, 옥상밀밭 정원을 갖춘 '구포국수체험관'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구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받고 있다.

'구포국수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도시재생마을기업 '구포유' 전명호 대표는 "'구포국수체험관'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많은 관광객이 구포만세거리를 찾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부산진시장

### 1. 개관

유형 구분	생활문화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진시장로 24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시민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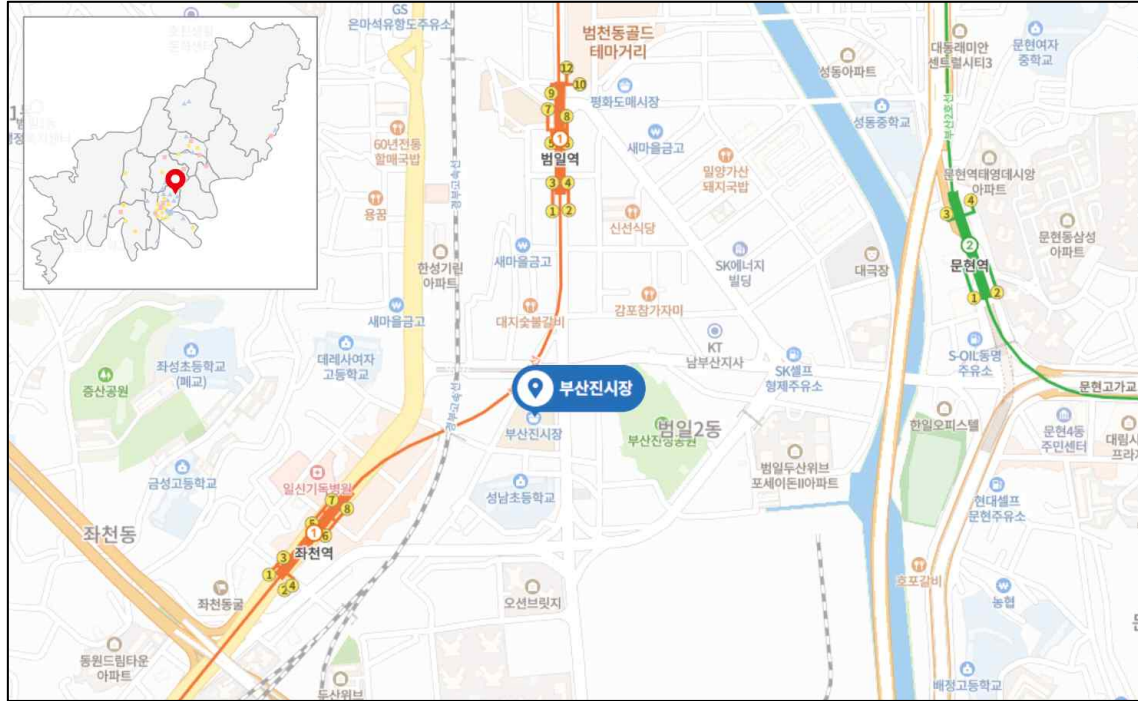
형성 시기	조선시대	소유·관리자	부산진시장 번영회
초기 형태	시장	현재 용도	시장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 부산 진성 서문 밖에서 매달 4일과 9일에 열렸던 부산장에서 유래</li> <li>- 1913년 상가를 지어 상설시장이 됨</li> <li>- 1930년 부산진시장번영회 발족으로 200평 규모의 시장이 건립되면서 근대적 재래시장으로 변모</li> <li>- 1958년 목조건물 단층에서 2층으로 증축</li> <li>- 1968년 현재 건물 착공</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래의 명칭은 '산진시장'이며 5일 정기시장인 부산장에서 비롯(1770년 편찬 『동국면헌비고』)</li> <li>- 1970년대 경제성장기에 서면 쪽으로 도심의 시가지 확대와 인구 이동으로 상권 활성화</li> <li>- 부산진시장은 지하 2층·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음</li> <li>- 주 취급 품목은 한복, 포목, 각종 원단, 양복, 의류, 신발, 직물류 등의 혼수 용품임</li> <li>- 1970년대에는 부산의 의류 도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함</li> <li>- 최근 섬유산업 침체와 유통 업체 확산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었지만 다양한 모객행사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진시장은 서울의 동대문시장, 대구의 서문시장과 함께 전국 3대 혼수 전문 시장으로 꼽힐 정도로 규모와 위상이 높음</li> <li>- 조선시대부터 개설되었던 부산장의 명맥을 이은 유서가 깊은 시장이며, 부산 시장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함</li> <li>-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혼수, 원단 특화 시장으로, 부산시민의 생활문화 변화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례</li> <li>- 현재는 수요 연령대의 다각화를 위해 한복대여, 패션소품 제작 공방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li> </ul>

\* 출처 : 한국부산진시장 홈페이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국내 시장백과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부산진성공원	좌천역	조선통신사 역사관	부산포개항 문화관
	성격	공원	교통시설	역사관	문화관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주변에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이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편리함 - 별도의 주차빌딩 운영			

\*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1969년 건물 준공 이후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시설의 유지, 보수가 이루어짐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월~토	7:00~19:00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시설이라는 특성상 건물 내 외관의 과거 모습 보존 여부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li> <li>- 경관 보존의 의미에서 진 시장만의 경관이나 테마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3대 혼수 전문 시장이라는 상징성</li> <li>- 조선시대 개설되었던 부산장의 명맥을 이은 유서 깊은 시장이라는 점</li> <li>- '혼례'와 관련하여 부산시민들과 많은 기억을 공유한 장소</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시대부터 유래해온 부산의 대표 시장으로 그 가치와 성격을 방문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가 건물형 중대형시장으로 운영 중</li> <li>- 액세서리 부자재를 판매하는 공간에서 '비즈공예' 등의 체험이 가능</li> <li>- 운영하는 모든 한복 가게에서 한복 대여가 가능</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테마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비즈공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만이 가진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음</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관의 운영으로 '진시장'만이 가진 특색을 관람객에게 전달</li> <li>- 시장의 테마(혼수, 한복 대여, 인테리어 소품)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의 강화</li> <li>- '한복 대여'를 테마로 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장소의 특색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li> </ul>



#### 4. 관련 이미지



1951년 부산진시장\*



1960년대 부산진시장\*



현재 부산진시장 전경  
(출처 : 네이버 업체등록사진)



현재 부산진시장 측면  
(출처 : 네이버 업체등록사진)



부산 진시장 주차빌딩



안내판



내부 매장 전경1



내부 매장 전경2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문헌 및 관련 기사

- \* 부산진시장 홈페이지, <http://www.busanjinmarket.co.kr/>
- \* 부산발전연구원 2007, “2007 부산학총서, 부산의 재래시장”, 부산학연구센터.
- \* 이경덕·박재영 2009, “대한민국 전통시장 100 : 네이버 국내시장백과 선정 대한민국 대표 시장”, 가디언.
- \* 홍동식 2009, “재래시장, 추억 사이소 : 전통시장 이야기”, 부산관광컨벤션뷰로.

**부산일보, 『지역소비가 경제 살린다』 파이팅! 재래시장 ④ 동구 부산진시장, 2009.11.0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91104000201>

달라진 '혼수용품 특화' 예비부부 발길 사로잡았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나 가족들이 반드시 한번은 방문하는 재래 시장이 있다. 바로 부산 동구 부산진시장이다. 부산진시장은 한복 폐백용품 주방용품 액세서리 등 혼수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시장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경쟁을 벌이며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거대 자본의 공습 속에서도 살아남은 부산진시장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혼수용품 특화시장'이라는 점. 여기서 고객들의 쇼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게 주효했다.

2000년 지역 최초 '특화' 인증  
환경 개선·상인 협조 성공 비결

지난 2000년 대형마트가 물밀 듯 들어올 무렵, 부산 재래시장에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에서 최초로 부산진시장이 '혼수 원단 의류 특화시장'으로 인증받았다는 것. 당시 비틀거리던 재래시장 사이에서 '특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형마트와 당당히 경쟁하고 나선 부산진시장의 행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부산진시장번영회 권택준 부회장은 "재래시장들이 아직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진시장은 한발 앞서 정부로부터 특화시장으로 지정받은 뒤 특화 상품들을 강화했다"며 "진시장의 독특한 행보는 당시 다른 재래시장의 희망으로 떠올랐다"고 회상했다.

특화시장으로 지정되면서 진시장은 혼수용품을 보다 강화했다. 제일 먼저 마련한 전략은 '혼수용품 원스톱 쇼핑 서비스'다. 고객들이 진시장에서 필수 혼수용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의 상품을 갖췄다.

여기다 기성복과 액세서리 매장을 더해 취약한 부분을 보강했다. 예전에는 결혼을 위해 맞춤양복이나 고가의 귀금속을 마련하는 게 대세였으나 요즘은 합리적인 소비 풍조로 기성복이나 실속있는 예물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앞으로는 귀금속 매장까지 유치해 그야말로 혼수 전문 시장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상품에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다. 원단 등 각종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30%까지 낮췄다고 한다.

부산진시장변영회 박승훈 상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상품의 질이나 종류, 가격면에서 진시장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혼수 전문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상인들이 합심해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벌이고 재료를 구입하고 상품을 개발한 게 성공의 비결이다"고 말했다.

보다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만만치 않았다. 혼수용품을 구입하러 오는 고객 대다수가 주부나 예비신부 등 여성들이고 물건을 많이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해 한 발 앞서 주차장을 만들고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다.

부산진시장은 대형마트의 공습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993년 이미 대규모 전용 주차빌딩을 마련했다. 현재처럼 정부의 지원없이 상인들이 한푼두푼 성금을 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대목이다.

여기다 재래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던 지난 2001년부터 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아 고객 휴게실과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화장실과 실내 조명을 개선해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났다. 진시장이 현재까지 현대화 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107억원 수준이다.

부산진시장변영회 김원록 회장은 "최상의 쇼핑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서비스를 마련한 게 진시장을 이어온 힘이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든지 수용해 고객 중심의 특화시장으로 뿌리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국경제TV, 『귀걸이 부자재의 모든 것, 부산 진시장 `비즈월드` 인기』, 2018.08.29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8290402&t=NN>

핸드메이드 귀걸이가 인기를 끌며, 개인 디자이너들이 SNS나 쇼핑 채널을 통해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귀걸이는 사람에 따라 취향이 천편일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부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진시장에서 오랜 시간 액세서리 부자재를 판매하는 `비즈월드`는 부산을 포함하여 대구, 울산 등 경상권의 셀러들에게 가장 있기가 있는 귀걸이부자재 매장 중 하나다.

1차 품질QC를 거친 후 포장 전 2차품질QC를 거쳐 믿을 수 있는 귀걸이부자재만 판매하는 `비즈월드`는 KC인증을 받은 액세서리 부자재도 취급하며 소비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얻고 있다. 비즈월드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은, 티타늄, 무니켈 등의 포스트와 30,000가지가 넘는 참(Charm)을 판매한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디자인과 시즌별 아이템을 판매해 전국의 셀러들로 매일 문전성시를 이룬다.

1970년 경기도 성남공장을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진시장 비즈월드는 브랜드납품대량생산, 기술 노하우, 공장직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초보 셀러들이 자문을 구하는 업체로도 유명하다. 쉬운 디자인은 제작 방법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여러 스타들이 착용하는 귀걸이 또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

비즈월드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최신 유행 귀걸이 재료들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계를 들여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며, "부자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상권 액세서리 부자재 시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즈월드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237개 도매상과 점포에 액세서리 부자재를 납품 중이다.

## 곰장어 구이 (기장 곰장어, 곰장어 구이 거리)

### 1. 개요

유형 구분	생활문화	소재지	-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시민 추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먹장어의 살코기 부위를 이용한 구이 음식</li> <li>- 곰장어가 흥물스럽게 생겼다고 해서 한국전쟁 이전에는 먹지 않고 주로 가족 제품 재료로 사용</li> <li>- 한국전쟁 시절, 부산에서 피란민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곰장어를 먹기 시작</li> <li>- 현재는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자리매김함</li> <li>- 곰장어 요리법은 소금구이, 양념구이, 짬뽕 구이가 있음</li> <li>- 소금구이는 곰장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소금으로 밑간하여 구워냄</li> <li>- 양념구이는 곰장어를 3cm 크기로 잘라 양파,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과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장으로 버무린 뒤 철판에 호일을 얹어서 구워내며 이렇게 먹고 난 뒤에는 밥을 볶아 먹기도 함</li> <li>- 짬뽕 곰장어는 벗짬에 불을 피운 뒤 철망을 얹고 그 위에 살아 있는 곰장어를 올려 껍질이 검게 탈 만큼 구운 후 탄 껍질을 벗겨 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소금장에 찍어 먹음</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전역에서 맛볼 수 있지만 특히 온천장과 부전역 앞, 자갈치 곰장어 골목, 기장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맛보기 위해 부산을 방문함</li> <li>- 현재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낙곱새, 돼지국밥, 밀면 과 같이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함</li> <li>- 1950년대 궁핍하던 시절, 서민 음식으로 시작되어 긴 세월 동안 서민과 애환을 같이 해 온 음식 가운데 하나로, 부산시민의 기억의 공유성의 측면에서 중요함</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2. 현황조사

안내(홍보) 현황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간 향토 음식</li> <li>- 온천장과 부전역 앞, 자갈치 곰장어 골목, 기장의 경우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음</li> <li>- 온천장과 부전역 앞, 자갈치 곰장어 골목은 예전부터 연탄불 양념 구이로 유명하고 기장 지역의 경우 짬뽕구이 라는 특색 있는 형태로 맛 볼 수 있어 지역 특화거리처럼 조성되어 있음</li> </ul>

###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 지역 대표 음식으로 알려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가격 상승으로 예전과 같은 서민적 정서와 멀어지고 있음
<b>필요성</b>	- 부산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음식이라는 상징성 - 오랜 기간 지역민들과 애환을 같이하고 많은 기억을 공유한 음식이라는 점
<b>개선사항</b>	- '곰장어 요리'는 부산 내 많은 식당에서 판매 중이며 많은 부산시민이 향유하고 즐기고 있는 음식으로 다수의 식당이 성업 증임에 따라 보존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판단

▷ 활용

<b>활용여부</b>	- 자갈치, 온천장, 부전동의 경우 식당이 밀집하여 '곰장어 골목'이 조성되어 있음 - 기장의 경우 해당 지역을 시작으로 해운대까지 걸친 영역에 여러 곰장어 식당이 분산되어 있고, 최근 해운대시장 역시 시장 정비 후 곰장어 골목 조성
<b>개선사항</b>	- 조리 방법에 따른 특화뿐 아니라 먹는 공간의 성격까지 반영된 특화거리 조성의 필요성 (ex. 자갈치 바닷가 옆 포장마차식 연탄구이) - 지역 대표 음식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
<b>활용방안</b>	- '부산 곰장어 특화 거리'의 조성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안동찜닭거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갈치, 온천장, 부전동, 기장의 곰장어 음식점 간의 연계를 강화 - 곰장어 음식점 간의 협동조합 출범을 통해 식당 간의 상생과 더불어 수익향상을 도모 - 곰장어 구이 지도 제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알릴 수 있도록 유도

4. 관련 이미지



자갈치 곰장어 골목  
(출처 : 네이버로드뷰)



곰장어 가게 전경1\*



곰장어 가게 전경2\*



곰장어 가게 메뉴판\*



곰장어 구이



양념 연탄 곰장어 구이



질불 곰장어 구이  
(출처 : 연합뉴스)



연탄 곰장어 구이\*

\* 출처 : 추천시민제공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정해석 1994, “[우리맛 기행/新 茲山魚譜 47] 훌륭한 맛의 구이 - 떡장어”, 샘터사.
- \* 고연경 2016, “푸드트래블: 부산 미식을 여행하다”, 컬처크라퍼.
- \* 유진아 2019, “부산의 장소성과 향토음식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한국지역문화학회.
- \* 허성희 2019, “(부산의) 해산물 맛집과 해양생물 이야기: 해산물 요리의 성지, 부산 여행의 필독서”, 좋은땅.
  
- \* 2011.07.20., 부산일보, 『[밀물 썰물] 부산 꼼장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10719000212>
- \* 2016.01.21., 매일경제, 『짚불로 구운 졸깃 꼼장어...화끈한 부산 사나이의 맛』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1/60202/>
- \* 2021.04.23., 농민신문, 『부산에 왔다면? 바다 위 1.62km 송도 케이블카... 연탄불로 구운 온천장 꼼장어』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37051/view>
- \* 2021.10.16., 파이낸셜뉴스, 『[조용철의 놀면 뭐먹니?] 자갈치 꼼장어구이 한참이면 피로가 ‘씩’』  
<https://www.fnnews.com/news/202110121010061454>
- \* 2021.10.21., 매일신문, 『[맛 향토음식의 산업화] 부산 꼼장어 양념구이』  
<http://news.imaeil.com/page/view/2012111707102000910>

### 세계일보, 『부산시 ‘살아 있네, 부산꼼장어’ 브랜드로 먹장어 거리 집중 홍보』, 2019.08.12.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812505378>

부산시가 부산디자인센터와 손잡고 부산 대표 음식인 ‘꼼장어 요리’를 올해 소상공인 유망업종으로 선정,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부산시는 2017년 수제 맥주, 2018년 패들보드에 이어 올해 유망업종으로 ‘꼼장어 요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부산지역 꼼장어의 특징을 살려 ‘살아 있네, 부산꼼장어’라는 명칭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사진)를 개발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명대사이자 ‘좋다’, ‘끝내준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살아 있네’를 BI에 담아 먹장어의 생명력과 신선함, 역동성을 친근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시는 “먹장어가 표준말이지만 곰지락거리는 움직임에서 곰장어와 꼼장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며 “최근 TV 프로그램에서도 ‘부산꼼장어’가 먹방 소재로 등장하는 등 꼬들꼬들한 식감이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살아 있네, 부산꼼장어’라는 브랜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개발한 ‘부산꼼장어’ 브랜드를 활용해 자갈치시장을 비롯해 부전역, 기장, 온천장, 동래, 해운대 등 부산 대표 먹장어 거리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부산 주요 축제장에 푸드트럭 형태로 꼼장어 요리를 선보이고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역과 먹장어 거리 인

근 도시철도역 등에도 광고로 인지도를 높인다. 또 소비자가 재미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앞치마, 물티슈, 포장지 등 각종 용품을 제작해 먹장어 전문 음식점에 보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꼼장어 요리는 중장년층의 소주 안주를 넘어 젊은 층도 맛있게 즐기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며 “피서철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양식으로 ‘꼼장어 요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2021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력증진사업」 부산 동래구'수안동 꼼장어 골목 공동체'선정 外』, 2021.07.06. (발취)**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706.99002184807>

**「2021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력증진사업」 부산 동래구'수안동 꼼장어 골목 공동체'선정**

부산시 동래구(구청장 김우룡)은 6일 동래구 수안동 꼼장어 골목 공동체(이하 수안동 꼼지락거리 상인회)가 지난 6월 말 부산시 '2021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력증진사업은 부산시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내용은 특색이 있거나 회생이 필요한 부산의 골목 공동체를 선정, 환경개선 및 공동 마케팅을 진행해 상인주도형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부산시내 3개소 골목상권 소상공인 공동체가 선정됐다. 골목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과 컨설팅, 골목(개별점포) 방역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부산경제진흥원 및 부산시 관계자가 수안동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골목상가의 환경개선과 공동마케팅사업, 개별 점포 방역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안동 꼼지락거리 상인회(대표 최효자)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골목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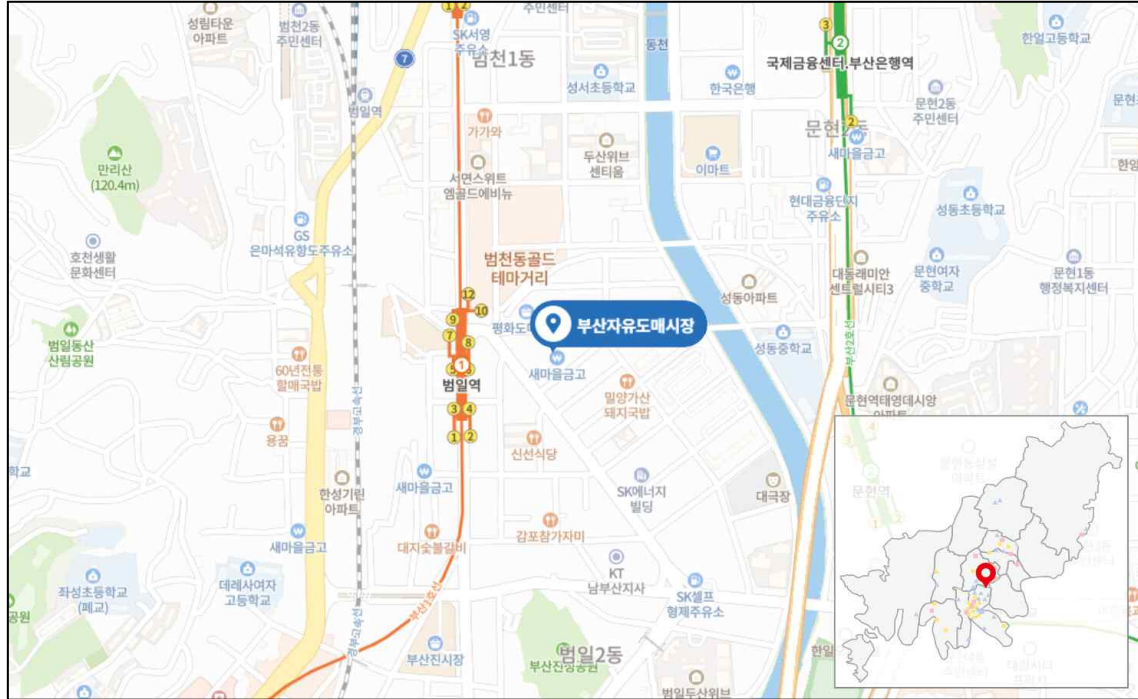
### 1. 개관

<b>유형 구분</b>	생활문화	<b>소재지</b>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8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방식</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969년	<b>소유·관리자</b>	사단법인 자유시장 번영회
<b>초기 형태</b>	시장	<b>현재 용도</b>	시장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9년 부산 자유시장 개장</li> <li>- 1978년 화재 발생으로 인해 전소</li> <li>- 1980년 신축 자유시장 개장</li> <li>- 2001년 특성화전문시장 지정 (신발, 의류, 생화, 조화)</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이 동구 범일동에 모여들면서 시장이 형성됨</li> <li>- 1970년대 부산시가지가 확대되고 서면 인근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로 확대되면서 범일동 인근으로 근대적 재래시장들이 들어섬</li> <li>- 부산 자유 도매 시장은 지하 1층·지상 5층의 상가 건물형 시장</li> <li>- 지하 1층은 식당가 및 고객 주차장, 1층은 신발 및 잡화, 2층은 의류, 이불 및 가정용품, 3층은 생화, 조화 및 엔틱 가구 등을 판매하는 점포가 입점, 4층과 5층에는 사무실 및 창고가 있음</li> <li>- 상인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도매가격으로 물건을 구매 가능</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일동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지역의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애용한 장소</li> <li>- 부산시민 생활문화의 변천을 보여주는 장소이며, 인근 부산진시장과 더불어 부산 동구의 지역적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사례</li> </ul>		

\* 출처 : 자유시장 홈페이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국내 시장백과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범일역	평화시장	-	-
	성격	교통시설	시장	-	-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상업시설이라는 특성상 주차 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또한 뛰어남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1978년 대화재로 이후 건물의 신축된 이후 그대로 유지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일요일 휴무	7:00~18:00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시설이라는 특성상 건물 내 외관의 과거 모습 보존 여부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li> <li>- 경관 보존의 의미에서 자유시장만의 경관이나 테마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으로서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역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치를 가진 장소</li> <li>- 부산 지역 내 많은 중장년층이 꾸준히 방문하는 높은 수요를 가진 장소</li> <li>-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높은 장소</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된 지 오래된 만큼 외벽을 정비한 것에 비해 내부는 통행로가 좁고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li> <li>- 지상 주변 경관 개선 필요</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가 건물형 중대형시장으로 운영 중</li> <li>- 취급품의 특성상 새벽과 오전에 붐비고, 오후에는 문을 닫는 상가들이 많음</li> <li>- 최근 특화된 품목에 맞춰 다양한 판매형태 전략 진행 중</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후와 저녁에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판매전략 다원화로 시장 활성화</li> <li>- 최근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로 '자유시장'만의 특색이 반영된 마케팅 전략추구</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의 테마를 발굴하여 그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시장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맞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 마련</li> </ul>

#### 4. 관련 이미지



자유시장 전경  
(출처 : 네이버 업체등록사진)



부산 자유시장 대화재 모습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외부 상점



자유시장 출입구



내부 상점



내부 상점2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부산자유시장 홈페이지, <http://busanjayu.com/>
- \* 부산발전연구원 2007, “2007 부산학총서, 부산의 재래시장”, 부산학연구센터.
- \* 박재환 2007, “부산의 장터 찾아가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 홍동식 2009, “재래시장, 추억 사이소: 전통시장 이야기”, 부산관광컨벤션뷰로.
- \* 2022.09.20., 서울경제TV, 『[7번 국도 이야기] 더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마지막 피란지 ‘부산’』  
<https://www.sentv.co.kr/news/view/631081>

#### **CNB뉴스, 『부산시, 부산자유시장-전통시장 연계 '범일패션 상권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2017.10.31.**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60090>

부산시는 범일 패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젊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전통시장 코리아세일페스타 축제기간과 연계해 부산자유시장 내 '팝업스토어'를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오픈한다.

이는 지역 신진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부산패션을 홍보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해 범일패션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부산자유시장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소공인 및 신진디자이너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일동 일대의 젊은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공간을 마련 패션 상권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부산시, (재)부산디자인센터, 부산자유도매시장, 부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두 차례 팝업스토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그 추진결과를 토대로 1년에 4차례 행사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자유시장(문화관광형시장사업단)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진행될 팝업스토어 행사 일정으로는 1차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되며, 2차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부산자유시장 입구에 부스(몽골텐트) 8개 동을 설치, 신진패션디자이너와 의류제조 소공인의 트렌디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의류, 악세사리, 생활소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며 "범일지역 디자이너 및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은 물론, 새로운 패션 관광상품으로 발전가능성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 **시빅뉴스, 『'도심 꽃밭' 부산 범일동 자유 꽃시장,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 부상』, 2018.05.30.**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49>

아름다운 꽃들로 사람들의 발길 이어져...플라워 자판기도 비치 / 김한정 기자  
최근 부산의 최고 '핫플(hot place)' 중 하나로 등극한 장소가 있다. 부산 범일동 자유꽃시장이다. SNS 게시

물에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 '부산 가볼만한 곳' 게시글에 꼭 이름이 올라있고, 댓글 수와 공유 수가 1만 건에 달한다. 실제로 다녀온 사람들의 '감성만땅' 후기도 덧붙여지면서 자유 꽃시장의 명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과연 그런가 싶어 확인하기 위해 지난 29일 부산 지하철 1호선에 몸을 실었다. 범일동역에 내려 8번 출구로 올라서니 귀금속을 판매하는 상가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상가를 따라 오른쪽으로 10초쯤 걸으니, 길 건너편에 자유 시장이 보였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길 기다리며 건너편에 서서 봐도, 자유 시장은 규모가 큰 대형 시장이었다. 실제로 약 1500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큰 건물이라 그런지 입구가 여러 곳에 있었다. 층별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8호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길을 잃기 딱 좋을 만큼 지그재그 미로 같은 구조였지만, 다행히 각 계단마다에도 층별 안내 글이 무지개색으로 알록달록하게 쓰여 있었다. 안내문을 보니 꽃시장은 3층에 위치해 있었다.

계단을 통해 신발, 의류 등을 판매하는 1, 2층을 지나 바로 3층으로 향했다. 입구 유리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미용용품 가게였다. 잘못 왔다고 생각하고 돌아 내려가려는 순간, 바닥의 노란 화살표가 보였다. 화살표를 따라 걸어가 보니, 꽃향기가 점점 짙어졌다. 미용용품 가게를 지나 왼쪽으로 몸을 돌리니, 눈앞에는 수없이 많은 형형색색의 꽃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순천만국가정원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듯 아름다운 향기와 색을 겸비한 꽃이 가득했다. 빨강, 노랑, 분홍 등 여러 색깔의 장미부터 튜립, 해바라기, 프리지아, 안개꽃, 목화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형형색색 꽃들이 '미모'를 뽐내고 있었다. 또 이들이 내뿜는 각종 향기에 취해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였다.



범일동 자유꽃시장 한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리저브드 플라워(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꽃 종류와 수 못지않게 가게의 수도 많았다. 30곳이 넘는 꽃가게가 3층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평일인데도 꽃을 사러 온 손님들로 미어저 꽃가게 상인들은 모두 바빠 보였다. 꽃의 종류를 잘 모르는 손님에게 추천을 해주는 상인, 꽃을 많이 구매한 손님과 가격 흥정을 하는 상인 등의 모습이 보이며, 시장 안은 바빠 운영되고 있었다. 이곳을 찾은 김수연(36, 부산 연제구) 씨는 "곧 어머니 생신이라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프리지아를 구매하려고 왔다"며 "여기는 항상 품질 좋은 꽃이 준비되어 있어서 꽃을 살 일이 있으면 항상 여기를 온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싱싱한 생화뿐만 아니라 장식용 조화부터 선인장과 베고니아 같은 관엽 식물, 동서양란, 화환 등 그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식물이 준비되어 있다. 한 꽃가게 점주는 "최근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정화 식물인 스칸디나비아 이끼, 스투키 등이 인기가 높고, 젊은이들도 데이트하러 많이 찾기 때문에 프리저브드 플라워(생화를 특수 보존 처리하여 1~5년간 모습이 유지되는 가공화)도 정말 잘 나가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매상가라고 해서 꼭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양의 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들을 위한 작은 생화 꽃다발을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었고, 시들지 않는 작은 꽃다발을 원하는 이들은 '플라워 자판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 자판기에는 드라이 플라워와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1만 원이나 1만 5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예쁜 꽃을 가질 수 있다.



범일동 자유꽃시장 내 드라이 플라워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뽑을 수 있는 플라워 자판기  
(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다른 한 편에는 꽃을 포장할 수 있는 재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포장지, 끈, 바구니 등 꽃 포장과 관련된 모든 도구와 재료를 판매 중이었다. 도매시장이다 보니 포장을 해주지 않는 상점이 많은데, 이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옆의 꽃 가게에서 꽃을 산 후 어울리는 포장지와 장식 소품을 골라 구매해서 가게 내 준비된 장소에서 원하는 대로 직접 포장하면 된다.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등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이곳도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김영주(22, 부산 금정구) 씨는 “저번에 꽃 포장을 직접 해봤는데 재밌었고, 서툰 솜씨였지만 꽃을 받았던 친구가 더 감동했다”며 “이번에는 꽃 바구니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범일동 자유꽃시장 내 포장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사진: 취재기자 김환정)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만 주로 이용했던 도매상가 자유시장이 3층 꽃시장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번성을 누리고 있다. 자유시장 변영희 관계자는 “꽃시장이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서 1, 2층에 있는 다른 가게들도 덩달아 장사가 잘 된다”며 “날도 따뜻해지니 더 많은 분들이 자유시장으로 놀러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동향성당

### 1. 개관

<b>유형 구분</b>	생활문화	<b>소재지</b>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16번길 13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방식</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951년	<b>소유·관리자</b>	천주교 부산교구
<b>초기 형태</b>	종교 시설	<b>현재 용도</b>	종교 시설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1년 한국전쟁 중 기존 공소(천주교 공동체) 신자와 피란 신자들이 천막 공소를 만들</li> <li>- 1954년 전쟁이 끝나고 신자 증가로 본당이 설립</li> <li>- 1957년 현 본당을 신축하여 축성</li> <li>- 1984년 분당 구역 일부가 석포석당으로 분리</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향'은 부산항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성당이 위치한 곳은 소바위 마을인 우암동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아카사키(赤崎, 적기)로 불리며,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소의 70%가 이곳을 통해 반출되었던 장소</li> <li>-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의 막사가 자리 잡았고 밀면도 이곳에서 탄생</li> <li>- 전쟁 이후 교구민들의 빈민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빈민 사업과 사회 복지에 힘을 쓰던 역할을 하다가 현재는 작은 성당으로 본당 공동체 가족들의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음</li> <li>- 부산교구의 사목 지침에 따라 본당의 재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당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임</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이후 피란 신자의 증가로 본당이 설립되어 지역 빈민 사업과 사회 복지 사업에 큰 역할을 했으며, 우암동이라는 지역적 특징과 한국전쟁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유산</li> <li>- 주변이 재개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종교 시설</li> <li>- 지역 사회 복지에 기여한 것 뿐 아니라 향구를 품은 예수상의 모습이 화제가 되어 부산의 대표적 새로운 콘텐츠로 알려짐</li> </ul>		

\* 출처 : 부산역사문화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우암동 도시숲	-	-	-
	성격	공원	-	-	-
접근성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주차장이 적어 차량으로의 접근성은 떨어짐 -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은 양호 - 성당 진입로 관련 안내시설이 미흡하여 입구를 찾기가 어려움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예배당의 외관 자체는 1957년 건축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음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	-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전건물의 특징이 잘 반영된 근대 종교 건축물로 잘 보존되어 있음</li> <li>- 주변 재개발의 여파로 신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들고 있으며 주변이 재개발 구역으로 설정되어 환경 변화 예상</li> <li>- 2019년 4월 8일 부산시 문화유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문화재로 등록·전환될 가능성이 있음</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의 건물 외관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 가치</li> <li>-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에 큰 공헌을 한 의미 있는 장소</li> <li>- 최근 부산의 새로운 경관으로 알려진 부산의 명소</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 한 지역의 슬럼화 공동화로 인하여 신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li> <li>- 성당 벽면 벽화의 노후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해 보임</li> <li>- 내부 시설물의 경우 완전 개축하여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종교 시설로 운영 중</li> <li>- 최근 지역 주민에게 '야경'이 아름다운 명소로 재조명받고 있음</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운영에 여러 제약이 따름</li> <li>- 관련된 자료나 의의를 제공해주는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음</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 중인 종교 시설이라는 특성상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된 자료나 지식을 제공해주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동향성당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봉사의 정신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계승하는 방안</li> <li>-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관과 주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li> </ul>

#### 4. 관련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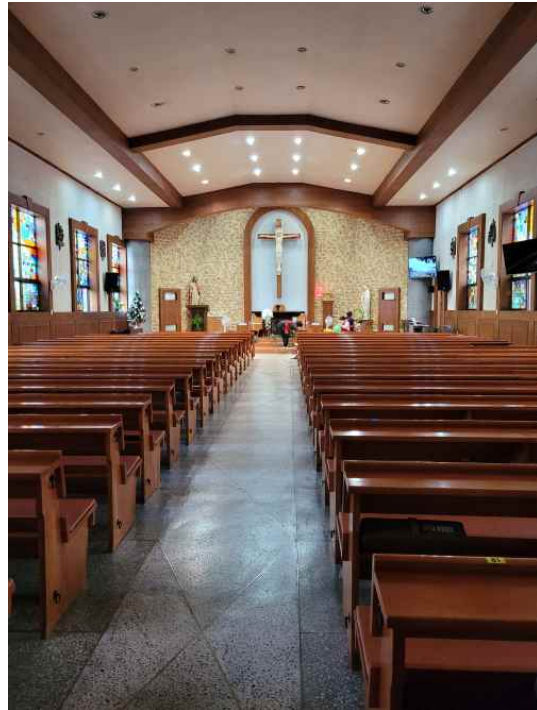
동항성당 전경 1



동항성당 전경 2



성당 진입로



성당 내부



동항성당 주변 벽화



우암동마실길 동항성당포토존(출처 : 남구청)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임시수도기념관 2014, “우암동 사람들의 공간과 삶”, 임시수도기념관.
- \* 이호창 2017, “얼을 찾아 나서다: 천주교 부산교구 성당 순례기”, 예인문화사.
- \* 2019.04.11., 부산일보, 『[밀물썰물] 동항성당』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1119001256958>
- \* 2020.06.09., 노컷뉴스, 『부산 남구 소막사~동항성당 잇는 '우암동 마실길' 조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358029>
- \* 2022.06.24., 이데일리, 『[여행] 부산의 '리우 예수상', 전쟁의 상흔까지 품어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32365000&mediaCodeNo=257&OutLnkChk=Y>

### 노컷뉴스, 『부산 남구 소막사~동항성당 잇는 '우암동 마실길' 조성』, 2020.06.09.

<https://www.nocutnews.co.kr/news/5358029>



부산 남구 우암동 도시숲. (사진=부산 남구 제공)

부산 남구는 10일 우암동 소막사와 동항성당 도시숲을 연결하는 '우암동 마실길' 준공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우암동 마실길은 '건기 좋은 부산 조성을 위한 2019년 도심 보행길 분야별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위치는 우암동 127-142번지 일원으로 산책로와 전통정자, 달조형물과 경관조명 등이 설치됐다.

남구 관계자는 "우암동 마실길은 등록문화재인 소막사와 야경이 아름다운 동항성당, 도시숲을 연결한 보행길로써, 도심 속 숨은 명소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6·25전쟁 상흔 간직' 부산 비석주택(피란민 임시 주거시설)-동향성당 (지역 빈민 구제), 국가문화재 추진』, 2020.03.16.**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00317.22016006444>

비석주택·동향성당·부산대박물관 등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동향성당은 전쟁 당시 1951년 천막 공소(본당보다 작아 본당 주임신부가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는 구역의 천주교공동체)로 출발해 지역 빈민 구제와 사회복지 사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1954년 11월 본당이 설립되는 등 현재 모습은 1970년에 갖췄다.

1958년 7월 5일 화물선을 타고 한국으로 건너온 당시 36세의 신부 고 하 안토니오 몬시뇰은 판자촌이 밀집한 성당 주임신부로 있으며 빈민 구제와 교육사업에 전념했다.

길거리를 배회하던 전쟁고아와 장애인을 사제관에서 키웠고 한독여자실업학교(현 부산문화여고)를 설립했다.

2005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하 신부를 가톨릭교회 명예 고위 성직자인 '몬시뇰'에 임명했다. 부산대박물관은 현재 박물관 별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1956년 문을 열었다.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옮긴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급 유물 1만8000여 점을 소장했다. 1994년 본관은 현재의 건물로 옮기고, 문화재를 보관했던 곳은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다.

건립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계획해 보존 상태도 좋다.

**국제신문, 『부산여행 탐구생활 <2> 숨은 종교 명소항구를 품은 예수거대한 병풍 부처... 비행기 안 타도 볼 수 있어요』 2018.09.19.(발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600&key=20180920.22016008511>

- # 브라질 리우의 거대 예수상 못지않은 남구 동향성당
- 두 팔 벌려 감싸안은 영도
- 이색적이고 멋스러운 경관



크기가 다르고 풍경도 다르지만 부산 남구 우암동 동향성당의 예수상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것처럼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영도를 아우르는 이색적인 바다 풍광을 바라본다. / 전민철 기자

부산에는 유명한 종교시설이 많다. 금정구 범어사와 부산진구 삼광사 같은 유명 사찰이 즐비하고 수영로교회 등 대형 교회, 남천성당을 비롯해 역사를 자랑하는 이름 있는 성당도 적지않다. 하지만 적어도 부산시민이 여행이나 나들이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파로 붐비고, 또 낮익어서 평범한 장소다. 부산 사람의 부산 여행 두 번째 이야기는 '예쁘게 숨어 있는 보물-부산의 종교 명소'다. '부산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는 감탄을 하고도 남을 만한 곳이다. 굳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찾은 발걸음에 후회가 없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면 더욱 좋은 여행 혹은 나들이 장소가 될 두 곳을 소개한다.

부산의 야경이 더는 새롭지 않다면, 낮선 곳을 찾고 싶다면 단연 이곳을 추천한다. 부산에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처럼 멋진 예수상과 미항을 한 데 담는 게 가능한 '핫 스팟'이 있다. 바로 부산 남구 우암동 천주교 동향성당이다.

부산 야경 촬영의 필수 코스이지만 지역민에게 이곳은 덜 알려진 신혼 명소다. 동향성당의 명물은 주 건물 위 예수상. 리우 예수상 규모에는 견줄 수 없지만 저 멀리 영도를 바라보면서 두 팔을 벌려 컨테이너가 빼곡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를 품은 형상은 이색적이고 멋스럽다. 야경이 유명하지만 낮 경관도 빼어나다. 성당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성당 뒤편 골목으로 올라가 예수상을 왼쪽, 부산항대교를 오른쪽에 둔 구도를 잡은 뒤 사진 촬영을 하면 된다.

물론 멋진 경관에만 사로잡힐 수는 없다. 우암동 원주민과 피란민의 고락을 함께한 동향성당에서 내려다보는 우암동의 정취도 빼놓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동네. 좁은 골목과 낮은 건물이 정겹고 포근하다. 그리고 보니 성당으로 가는 골목에도 정감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성당 내 정원은 아담하면서도 예쁘다. 빛과 냄새에 모두 초록이 물씬 묻어나는 잔디밭은 멋진 수목과 성모 마리아상으로 멋을 뽐낸다. 곳곳에 있는 흰 조각상도 하나하나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한다. 다만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민망할 정도로 성당 자체가 조용하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동향성당은 역사적 의미도 남다른 곳이다. 동향성당은 1957년 12월 25일, 성탄의 선물처럼 우암동에 건립됐다. 이듬해 부임한 독일인 하 안토니오 몬시뇰 신부는 빈민 구제 사업을 펼쳤다. '판자촌의 성자'로 불린 그는 평생을 한국에서 사제로 생활하다 최근 선종했다. 개인 재산을 털어 밀가루와 옷을 사들여 피란민에게 나눠주고 전쟁고아를 돌봤다. 고인은 1965년 후원받은 재봉틀 10대를 기반으로 시작한 기술학원도 설립했는데, 이 학원이 지금은 부산문화여고로 이름이 바뀐 한독여자실업학교의 모태다.

## 일신기독병원

### 1. 개관

유형 구분	생활문화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형성 시기	1952년	소유·관리자	일신재단
초기 형태	병원	현재 용도	병원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2년 좌천동에 일신 부인병원으로 개원</li> <li>- 1956년 3월 2일 동구 좌천동 471-1번지로 신축 이전</li> <li>- 1968년 10월 1일 병원을 증축[109병상]</li> <li>- 1982년 일신기독병원으로 변경</li> <li>- 1984년 7월 2일 치과를 신설하고 200병상 규모로 증설하여 종합병원으로 승격</li> <li>- 1994년 청십자병원을 인수하여 수정동에 일신청십자병원 개원</li> <li>- 2002년 개원 50주년을 기념하여 구관 건물 3층에 맥켄지 '기념관' 설립</li> <li>- 2008년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호주 선교사 이름을 딴 맥켄지 전문 진료 센터 개소</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신기독병원은 호주 장로교 한국선교회에 의하여 종교적 가치에 따라 그리스도의 봉사와 박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진료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설립</li> <li>- 60년의 긴 역사 동안 우리나라 생활 수준에 따라 산모가 적응할 수 있는 산전관리 체제와 육아법 교육에 기여</li> <li>-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열악한 1950년대부터 선진화된 의술과 함께 사랑과 관심으로 여성과 산모와 갓난 아기의 생명을 구해옴</li> <li>- 1970년대와 80년대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2회씩 직접 무의촌을 방문 진료함</li> <li>- 세계모유수유연맹[WABA]으로부터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아 1993년 4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선정됨</li> <li>- 병원 내부 '맥켄지 기념관'에서 당시 열악한 한국의 의료체계 개선에 큰 도움을 준 설립자인 '호주선교사'들과 관련된 내용 전시</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산모와 영아와 연관된 지역 의료체계 개선에 큰 공헌을 함</li> <li>-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장소</li> <li>- 부산시민의 의료 생활과 관련된 기억과 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유산으로 가치가 있음</li> <li>- 현재는 부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첨단 장비와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센터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li> </ul>

\* 출처 : 일신기독병원 홈페이지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좌천역	동구도서관	좌천동 가구거리	부산포 개항가도
	성격	교통시설	공공시설	테마거리	역사·문화거리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주차공간 마련되어 있음 - 1호선 좌천역과 버스정류장도 밀접하여 접근성이 좋음			

\* 출처 : 네이버 지도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구관 건물의 경우 과거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음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월-토	월-금 8:30~17:00 토 8:30~12:00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 전반적으로 구관 건물의 외관 보존상태는 우수하나 운영 중인 병원 건물 특성상 주변 경관에서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음
<b>필요성</b>	-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와 관련된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 - 빈민구제사업, 지역사회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큰 공헌을 했다는 상징성
<b>개선사항</b>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관이나 내부 시설물의 보존은 요구할 수 없어 개선사항은 없음

▷ 활용

<b>활용여부</b>	- 건물 내부에 '맥켄지' 기념관을 상설 운영 중 - 설립단체인 '호주 선교사회'와 '맥켄지'가와 관련된 안내판을 설치 중
<b>개선사항</b>	- 연관된 시설물의 위치가 산재되어 있고 안내판의 장소도 오류가 있음 - 연관 인물인 설립자의 아버지인 '맥켄지'목사의 묘비 위치가 안내판의 지도와 다름 - 건물 외벽을 활용하여 병원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 보강
<b>활용방안</b>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한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성 - 활용 방향은 내부보다는 외벽공간을 활용 - '호주 선교사'가 세웠다는 장소가 가진 이야기를 고려한 활용 방향의 설정 - 구관 건물 3층의 '맥켄지' 기념관과 더불어 관련 있는 '좌천동역사골목'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의 실행

#### 4. 관련 이미지



1956년 일신기독병원(가운데 흰 건물) 일대 전경  
(출처 : 한겨레)\*



1953년 부산 일신기독병원의 임시 병동  
(출처 : 한겨레)\*



일신기독병원 전경 1  
(출처 : 네이버 업체등록사진)



일신기독병원 전경 2



맥켄지목사 기념비 안내판



맥켄지목사 기념비

\*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RINT/760074.html>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대한병원협회 1984, “병원탐방-부산일신기독병원”, 대한병원협회지.
- \* 일신기독병원 1986, “일신기독병원 연보 . 1985-1990 = Il Sin Christian Hospital Annual Report”, 일신기독병원.
- \* 일신기독병원 1991, 일신기독병원 연보 . 1991 = Il Sin Christian Hospital Annual Report”, 일신기독병원.
- \* 일신기독병원 1992, “일신기독병원 연보 . 1992 = Il Sin Christian Hospital Annual Report”, 일신기독병원.
- \* 일신기독병원 1993,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3, 일신기독병원.
- \* 일신기독병원 1994,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4, 일신기독병원.
- \* 일신기독병원 1995,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5, 일신기독병원.
- \* 일신기독병원 1996,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6, 일신기독병원.
- \* 일신기독병원 1997,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7, 일신기독병원.
- \* 일신기독병원 1998, “일신기독병원 연보 . 1998 = Il Sin christian hospital annual report”, 일신기독병원.
- \* 2022.09.13., 부산일보, 『장기려·이태석… ‘부산을 빛낸 인물’ 발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1312453800513>
- \* 2019.01.27., 크리스천투데이, 『의료 선교의 산실, 부산 화명 일신기독병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9599>

### 국제신문, 『이야기 공작소-피란수도 부산...1023일간의 이야기 <4> 피란수도가 부산에 남긴 것』, 2022.04.12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413.22014003315>

피란수도 부산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설립·운영하던 1세대 원장들의 99%는 이북 출신이었다. 전쟁 와중에 이북에서 월남하였던 피란민이 사회복지의 주축을 이뤘다. 기독교인이 많았다.

한국전쟁 때 구호하기 위해 내한한 외원기관이 대부분 기독교적 색채를 띠면서 기독교적 성향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당시 고아원을 운영하던 스님이 원조를 얻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개종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었다.

사회사업가를 케이스워커(caseworker)라고 불렀는데 초기에는 뜻도 모르고 '상자 만드는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부산의 일신기독병원으로 이어진 호주 선교사 매켄지 집안을 비롯해 숭한 얘기가 남아 있다. 한국 의료보험제도 씨앗을 뿌린 장기려 박사의 청십자의료보험조합도 피란의 땅 부산이 품었던 찬란한 사회복지의 사례다.

### 부산일보, 『부산을 지킨 거대한 뿌리, 좌천동 역사 골목』, 2020.03.03.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30318324609093>

부산 동구 좌천동에 '좌천동 역사 골목'으로 부를 만한 골목이 형성되고 있다. 이곳은 '정공단로'로 불리는, 일신기독병원이 있는 골목길이다.



이 골목은 근년 박재혁 의사의 생가터 확인으로 중요한 '하나의 방점'을 추가했다. 동구청은 지난 1월 '박재혁 의사 생가터' 표지판을 세웠다. 박재혁 의사는 1920년 일제강점기 부산경찰서 서장실에 폭탄을 터뜨린 의거의 주인공이다. 그동안 박재혁 의사 생가터는 자성대공원 옆(동구 범일동 550)으로 잘못 알려져 2012년 동구청이 그 근처 조방로에 '박재혁 거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의 이의 제기와 이에 관한 연구와 고증으로 지난해 가구거리 공영주차장 자리(범일동 183)가 박 의사의 생가터로 재확인됐다. '박재혁 거리'를 조성하려면 이 골목이 더 적당한 것이다.

200m가 넘는 이 골목의 역사적 아우라는 대단하다. 임진왜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부산역사와 관련한 주요한 장소 8곳이 집적돼 늘어서 있다. 골목 한가운데에는 임진왜란 때 순국한 정발 장군을 모신 정공단(부산시 기념물 제10호)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남쪽 골목 초입에 일제강점기 방공호로 조성돼 한국전쟁 때에는 피난민이 살기도 했던 '좌천동굴'이 있다. 그다음 1900~1919년 부산에 큰 족적을 남긴 왕길지(앵겔) 선교사를 기리는, 부산진교회에서 세운 왕길지기념관이 있다. 이 기념관 뒤쪽 부산진교회는 130년 역사를 지닌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며, 교회 맞은편에는 1895년 설립된 부산진일신여학교(부산시 기념물 제55호)가 있다.

정공단 건너편에는 '독립유공자 정오연 생가터'가 2년 전 동구청에 의해 조성돼 있다. 정공단을 지나면 일신기독병원이 나오는데 병원 안에 맥켄지기념관이 있다. '조선 나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린 맥켄지는 1910~1939년 부산을 위해 봉사했던 호주 선교사였으며, 그의 두 딸이 아버지를 이어 한국전쟁기에 일신기독병원을 세웠는데 이들을 기념한 곳이 맥켄지기념관이다. 맥켄지 선교사와 관련된, 일신기독병원에 있는 '부산 나병원 기념비'는 지난달 6일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이런 골목길에 박재혁 의사 생가터마저 확인돼 이곳을 '좌천동 역사 골목'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다.

**크리스천투데이, 『의료 선교의 산실, 부산 화명 일신기독병원 (발췌)』, 2019.01.27.**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9599>

“본 병원은 그리스도의 명령과 본을 따라 그 정신으로 운영하며, 불우한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적 고통을 덜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봉사와 박애의 정신을 구현한다.”

부산 북구 화명일신기독병원의 20년사를 논하기 전에, 모태가 되는 일신기독병원의 이야기를 빠트릴 수 없습니다.

일신기독병원은 호주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되어 선교와 의료봉사에 힘썼던 맥켄지 선교사의 딸, 매혜란과 매혜영 두 자매에 의해 설립된 병원입니다.

지금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누구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1952년에는 피난민들과 전쟁고아 미망인들로 나라 곳곳이 온통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가난하여 질병이 생겨도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던 시절, 무료 진료 환자가 절반에 달할 만큼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던 병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문턱이 낮았던 병원, 서민에게는 더없이 친숙했던 병원이 바로 일신기독병원이었습니다.

1910년 호주 선교사로 파송된 매켄지 목사와 메리 켈리 여사는 부산 좌천동에서 네 딸과 한 아들을 낳았으며, 선교와 한센병 치료를 위해 봉사하다 1937년 귀국합니다.

이후 장녀 매혜란과 원장 차녀 매혜영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 1952년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당시 6·25 전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땅 백성들을 위해, 그해 9월 17일 일신부인병원을 설립합니다.

둘이 여성들과 아이들, 불우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한 결과, 엄청난 명성과 소문이 나서 씬 없는 산부인과 병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한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이 부지기수로 배출됐다고 합니다.

특히 매혜란·매혜영 두 자매의 피와 땀, 눈물의 헌신적 사랑과 감동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일신기독병원은 존재하지도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부산시민회관

###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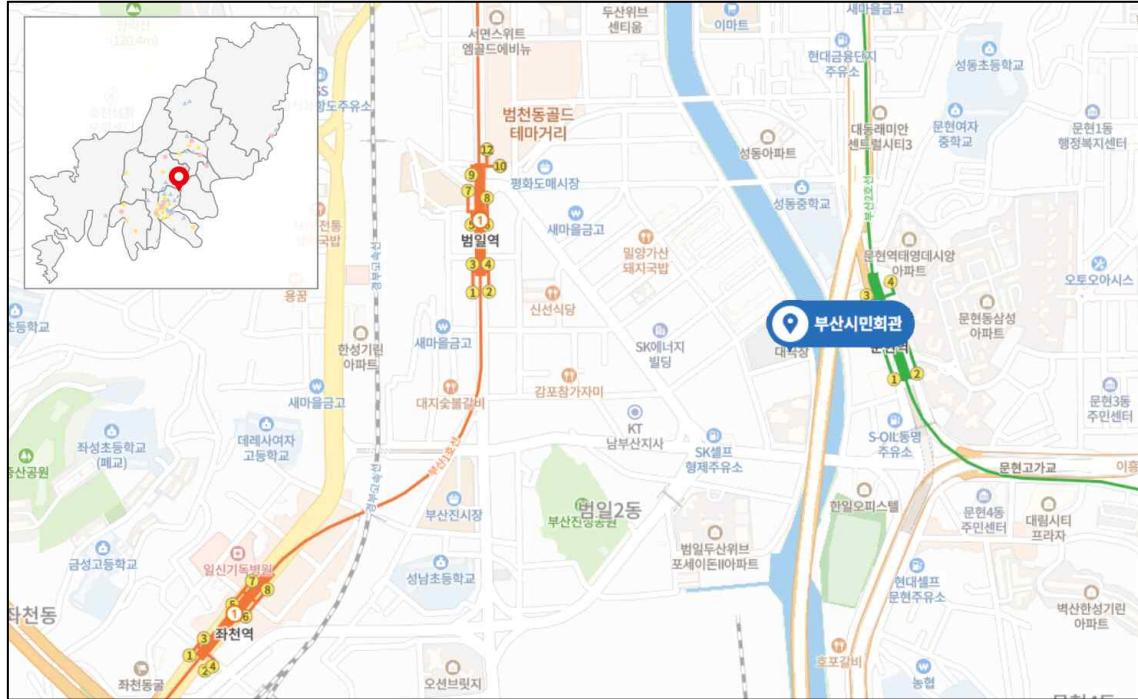
<b>유형 구분</b>	문화예술	<b>소재지</b>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3번길 16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방식</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973년	<b>소유·관리자</b>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b>초기 형태</b>	공연장	<b>현재 용도</b>	공연장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 착공</li> <li>- 1973년 준공 및 개관</li> <li>- 2004년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다가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li> <li>- 2017년 1월 1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설립(시민회관 통합관리)</li> <li>- 2020년 리모델링 후 재개관</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해양 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유일한 예술의 전당으로 출발함</li> <li>- 부산시민회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전문공연장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70년대 초 대규모 공연장으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각종 국경일 행사, 아시아영화제, 국제기능올림픽까지 개최해 다목적으로 이용됨</li> <li>- 예술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 기회 부여와 함께 공공 교육의 편의 도모를 위한 공간 제공 등 일반 시민들이 항상 이용 가능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건립됨(대공연장 좌석수 2000여석으로 현재 부산 최대좌석수 보유)</li> <li>-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야외 공연장, 한솔 아트샵, 카페테리아 등이 마련되어 있음</li> <li>- 2017년 1월 1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출범하였고, 재단법인에서 '부산시민회관'을 통합 운영</li> <li>- 2020년 재개관 당시 재개관 기념으로 시민참여형 사진공모전 '그 기억과 현전 展' 개최하여 시민들의 기억 공유</li> <li>-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사업본부에서는 2023년 개관 50주년을 맞아 등록문화재 등록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고려 중에 있음**</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민회관은 현존하는 전국 공공 문예회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짐</li> <li>- 부산시민회관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시설로 오늘날 부산이 문화 도시로 성장해 온 밑거름이 됨</li> <li>- 문화시설이 많지 않던 시절 부산의 주요 문화공간으로 부산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기여</li> <li>- 현재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자체 기획 공연·전시 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음</li> </ul>		

\* 출처 :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

\*\*부산일보 (2022.07.26.)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b>주변현황</b>	시설명	문현역	부산진성공원	조선통신사 역사관	-
	성격	대중교통	역사공원	전시관	-
<b>접근성</b>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자체 주차장 운영으로 개인차량 접근성이 좋음 -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높음			

### ▷ 보존현황

<b>보존(보수) 상황</b>	- 현재도 활발히 문화예술 공연이 열리는 장소의 특성상 정비가 잘 이루어져 쾌적한 관람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				
<b>보존상태</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b>보존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으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공연, 전시마다 다름	공연, 전시마다 다름	공연, 전시마다 다름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 2020년 시민회관 대극장의 정비를 마친 상태로, 현상 유지로도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다고 판단
<b>필요성</b>	- 부산 지역민들의 문화생활과 많은 기억을 공유한 장소 - 가장 오래된 전국 공공 문예회관이라는 상징성 - 부산 시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한 장소라는 점
<b>개선사항</b>	- 보존현황에 문제점이 없어 현시점에는 개선사항 없음 - 많은 시민들의 기억이 공존하는 장소인 만큼 외형은 유지하되, 내부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공연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원래의 기능을 계속해서 충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함

▷ 활용

<b>활용여부</b>	- 예술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 기회 부여와 함께 공공 교육의 편의 도모를 위한 공간 제공 등의 장소로서 활용 중
<b>개선사항</b>	- 용도에 맞게 활용 중 이에 따라 '현상 유지'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됨 - 문화시설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되 다양한 세대, 다양한 기억이 공유되는 장소인 만큼 관련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b>활용방안</b>	- 시민들의 다양한 기억이 공존하는 공간인 만큼 기성 세대들이 활동했던 프로그램을 재현하는 등 친구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 인근 동천 산책로까지 확장되는 다양한 야외공연 기획 등



### 4. 관련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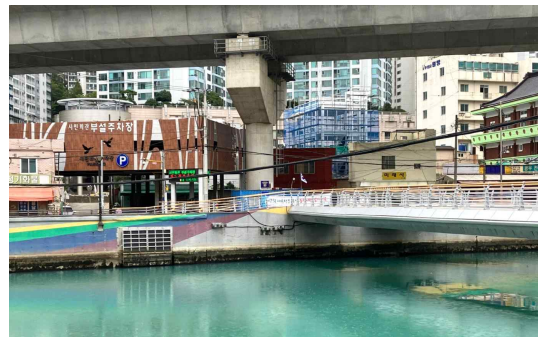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 전경



부산시민회관 후면 전경



부산시민회관 전면 조형물



부산시민회관 주변 동천인근 부설주차장동천

	A분목	B분목	C분목	D분목	E분목
100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120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14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16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18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20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220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공연장 배치도\*



내부 공연장 모습\*



공연 프로그램 1 (출처: 국제신문)



공연 프로그램 2

\* 출처 : 부산시민회관 공식 홈페이지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 <https://www.bscc.or.kr/citizen/main/>
- \* 이지선 2008, “부산지역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부산시민회관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015, “공공/의료부문 :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 -부산시민회관”, Web Korea Annual.
- \* 2022.07.12., 부산일보, 『지역 문화예술인에 무대를...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신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1117253735133>

### 연합뉴스, 『부산서 버스킹페스타 열린다..시민회관 공연기회 제공』, 2022.05.12.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074100051?input=1195m>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문화회관은 7월 2일 제1회 부산버스킹페스타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버스킹페스타는 지역청년 버스커를 대상으로 예선을 거친 후 결선에 진출한 팀에게는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선 대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참가자 모집은 16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www.bscc.or.kr](http://www.bscc.or.kr))으로 이뤄진다.

지원 요건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지역 제한은 없으나 부산·울산·경남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1차 예선은 버스킹의 성지 해운대, 광안리, 서면 등의 장소에서 한다.

실연 영상은 부산문화회관 공식 채널 배시시TV로 공개한다.

이를 본 대중의 평가로 10개 팀을 선정하며 최종 본선 진출팀은 부산시민회관 무대에 서게 된다.

부산버스킹페스타는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청년예술가들에게 무대를 내어주고 그들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이정필 부산문화회관 대표가 시민회관의 기획 방향을 대중공연 중심 공연장으로 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번째 사업이다.

제1회 버스킹페스타 예술감독은 락인코리아 김종균 대표가 맡았다.

김 감독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시민공원 재즈페스티벌 등 음악축제 감독을 역임했다.

### 연합뉴스, 『48년 역사 부산시민회관 추억 사진전 공모』, 2020.06.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048200051?input=1195m>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민회관과 함께한 추억 사진을 찾습니다."

부산시민회관은 개관 48주년을 맞아 '그 기억과 흔적 사진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시민 공모로 이뤄진다.  
1973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부산시민회관과 관련 있는 개인 소장 기록물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 촬영했거나 개인 소유 기념사진, 영상물 등이면 된다.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달 3일 대극장 로비에서 전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앨런 플레처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무료 관람 티켓 2장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1985년 부산시민회관 모습 [부산시민회관 제공]

## 부산문화회관

### 1. 개관

유형 구분	문화예술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06번길 34
특성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형성 시기	1988년	소유·관리자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초기 형태	공연장	현재 용도	공연장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3년 착공</li> <li>- 1988년 대극장, 대전시실로 개관</li> <li>- 1991년 소극장 및 회의장 개관</li> <li>- 1993년 부산문화회관 전관 개관</li> <li>- 2017년 1월 1일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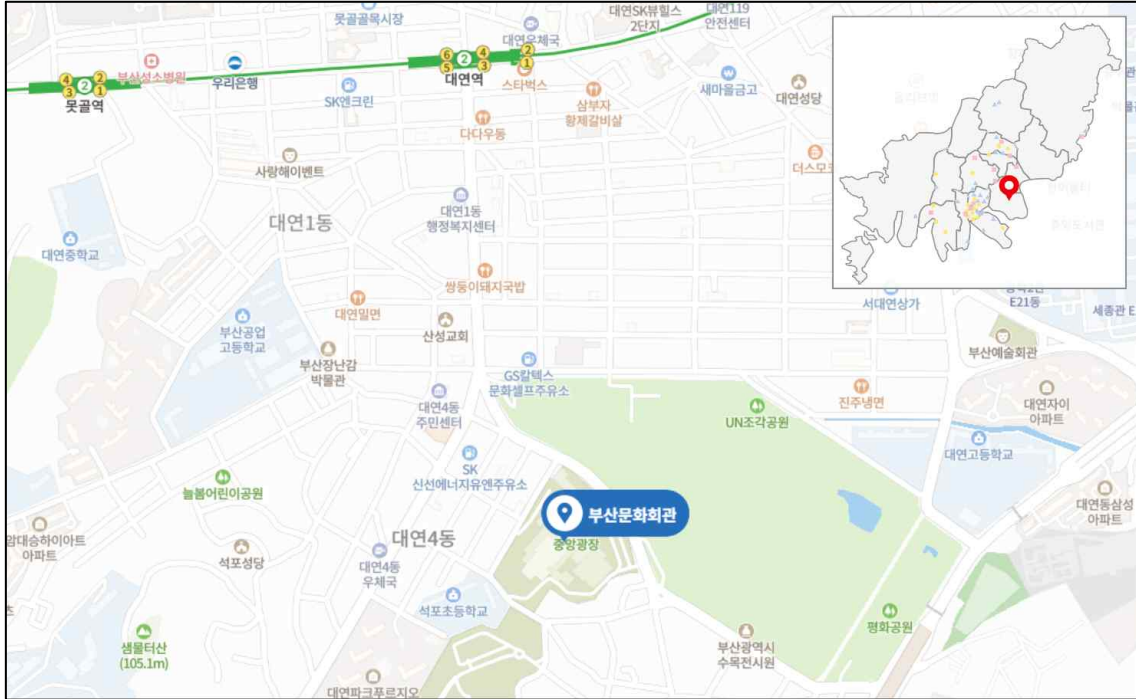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대규모 복합 공연장</li> <li>-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선사하기 위한 문화 휴식 공간으로서 시민과 소통하고 감동과 환희를 전하는 예술의 창작 공간으로 부산 시민의 문화 향유 갈등을 해소하고자 설립됨</li> <li>- 문화 예술 진흥 사업으로 문화 예술 발표 공간 제공,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전시 공간 제공,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작품 감상 공간을 제공하며, 그 외 공공 및 공익 행사의 편의 제공과 부산시립예술단 운영 등을 하고 있음</li> <li>- 재단출범은 부산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기관으로서 행보의 시작이었고, 우수 콘텐츠 제작과 지역 예술인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부산시립예술단 위탁운영으로 부산의 독보적 문화예술 기관으로 자리잡음</li> <li>- 2025년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있음</li> </ul>
-----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대형 공연과 부산문화회관 산하 '부산시립예술단'이 속해 있어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li> <li>-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이며 부산시민의 공공 기억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음</li> <li>- 현재 부산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부산의 대표 공연장으로 통합 운영 중</li> <li>- 정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예술인 무대임</li> </ul>
----	--

\* 출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참조, \*\* 부산일보 (2022.07.26.)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부산박물관	UN조각공원	국립일제강제 동원역사관	-
	성격	박물관	공원	박물관	-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자체 주차장 운영으로 개인차량 접근성이 좋음 -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높음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현재도 활발히 문화예술 공연이 열리는 장소의 특성상 정비가 잘 이루어져 쾌적한 관람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으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공연에 따라 다름	공연에 따라 다름	공연에 따라 다름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상 유지로도 쾌적한 관람이 가능하다고 판단됨</li> <li>- 2025년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그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지역민들의 문화생활과 많은 기억을 공유한 장소</li> <li>- 지금도 꾸준히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점</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선사항 없음</li> <li>- 향후 다른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부산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역할과 정체성 마련 필요</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 기회 부여와 함께 공공 교육의 편의 도모를 위한 공간 제공 등의 장소로서 활용 중</li> <li>- 다양한 대형공연 개최</li> <li>- 산하 '부산시립예술단'을 운영 중</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준히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 등, 현상 유지로도 충분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li> <li>- 하지만 향후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와 차별화되는 부산의 최고의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예술단과 함께 순수 예술 창작을 기반으로 한 전문 제작극장으로, 시민회관은 역사가 깊고 대중 친화적인 공간으로, 대중예술 중심으로 공연장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르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콘텐츠 운영 내실화</li> <li>- 부산박물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주변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시설의 가치를 알리도록 함</li> <li>-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지역 청년 예술인을 위한 사업 등 구상</li> </ul>

#### 4. 관련 이미지\*



부산문화회관 전경 1



부산문화회관 전경 2

1F		STAGE		
		A	B	C
1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2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3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4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5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6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7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8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9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0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2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3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4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5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6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7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80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층 좌석 배치도



내부 관람석 2



공연 1



공연 2

\* 출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s://www.bscc.or.kr/main/>
- \* 김상희 2001, “문예회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釜山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송필석 2003, “부산광역시 공공문화회관의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음악과 비평.
-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015, “공공/의료부문 :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 -부산시민회관”, Web Korea Annual.
- \* 부산문화회관 2018, “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 공연보 . 제5집 , 2010-2014”, 부산문화회관.
- \* 부산문화회관 2021, “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2022.S/S = BSCC season program 2022.S/S”, 부산문화회관.
- \* 2022.09.02., 파이낸셜뉴스, 『부산문화회관·부산지방세무사회,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맞손』  
<https://www.fnnews.com/news/202209021014417761>

### 부산일보, 『극장별 정체성 확립... 부산문화회관, 경영혁신 위한 조직 개편』, 2022.07.26.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516010309882>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문화회관 전경. 부산일보DB

(재)부산문화회관이 극장별 사업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민회관사업본부'를 신설한다. 또 조직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기존 11개팀을 9개팀으로 축소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측은 “조직 개편을 위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8월에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직원 면담과 노조 협의 등을 진행 중이다”고 26일 밝혔다.

조직 개편의 핵심 내용은 공간 기반 사업 운영이다. 기능과 시설이 혼재된 현재의 조직 구성을 바꿔 공연장 공간별로 본부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사업본부와 고객지원본부를 '문화회관사업본부'와



'시민회관사업본부'로 변경한다. 이번 개편으로 문화회관은 순수예술·제작극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민회관은 대중예술·시민친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극장별 사업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연장 운영에 본부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



내년 개관 50년을 앞두고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는 부산시민회관. 부산일보DB

1973년 전국 최초 공공 문예회관으로 문을 연 부산시민회관은 내년에 개관 50년을 맞는다. 시민회관의 역사와 브랜드를 지켜나가기 위해 등록문화재 등록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조직을 통합한다. 기존 인사협력팀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전략기획팀과 재정운영팀으로 분산, 통합한다. 기존 전략기획팀은 '경영혁신팀'으로, 재정운영팀은 '경영지원팀'으로 재편한다. 또 고객개발팀과 홍보팀을 통합해 '홍보마케팅팀'으로 재편하고, 대표 직속 기관인 경영기획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사업 영역도 강화한다. 사업 운영 주체를 일원화해 극장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공연기획팀과 교육전시팀을 재편해 문화회관 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예술팀'과 시민회관 사업을 전담하는 '시민예술팀'을 각 본부에 신설한다.

이정필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는 "이번 조직 개편은 부산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신규 공연장 개관에 대비한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앞으로 노사 화합과 중장기적 경영 혁신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해 부산 대표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뚜벅뚜벅 부산건축투어', 9월부터 4개 코스로 확대 운영』, 2022.08.30.**

<https://www.fnnews.com/news/202208300926445355>

부산시와 부산건축제조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뚜벅뚜벅 부산건축투어'의 투어 코스를 기존 3개 코스에서 4개 코스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뚜벅뚜벅 부산건축투어는 부산건축문화의 우수성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매년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까지 운영되는 시민참여형 건축투어다. 투어 코스는 대표적인 도시건축문화자산으로 구성된 센텀시티건축, 유엔·문화건축, 원도심건축 등 3개 코스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동래전통건축 코스가 있다. 모든 코스에는 부산건축문화해설사가 동행한다.

센텀시티건축 코스는 해운대구 소재 부산시립미술관, 벅스코, 신세계몰 에스(S)가든, 영화의전당을 둘러보며 미래도시 부산을 반영한 현대건축물을 탐방할 수 있다. 유엔·문화건축 코스는 남구 대연동 일원 부산문

화회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역사가 담긴 근·현대건축물을 둘러본다. 원도심건축 코스는 옛 한성은행, 부산기상관측소,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북병산배수지 등 중구 일대를 걸으며 부산의 정체성과 역사가 느껴지는 근대건축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동래전통건축 코스는 4호선 수안역 내 동래읍성임진왜란역사관을 시작으로 장관청, 동헌, 동래향교, 읍성을 돌아보며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조선시대 동래부의 관아건축을 탐방한다. 이 코스는 그동안 부산건축투어에 참가해온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래구 일대 남겨진 전통 건축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어는 코스별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참가신청은 부산건축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 유치환(시인)

### 1. 개요

유형 구분	문화예술	소재지	-
특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형 <input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는 청마(靑馬), 극작가 유치진(柳致眞)의 동생</li> <li>- 1922년 통영보통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풍산중학에 진학하고 박명국, 김거주, 최두춘, 유치진 등과 문학 동인회 '토성'을 조직함</li> <li>- 1926년 동래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 편입하여 졸업</li> <li>- 1937년 통영협성상업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같은 해 부산초량에서 동인지 『생리』의 발간을 주관함</li> <li>- 1939년 첫 번째 시집 『청마시초』 발간</li> <li>- 1940년 가족을 데리고 만주 연서우 현(煙首縣)으로 이주, 농장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광복 직전 귀국함</li> <li>- 1945년 10월 통영여자중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조선청년문학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함</li> <li>-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문충구국대[중군 작가단]의 일원으로 활동함</li> <li>- 1954년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중학교 교장에 취임하였고, 같은 해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1957년 한국시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냄</li> <li>- 1963년 부산경남여자고등학교, 1965년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취임</li> <li>- 1967년 2월 13일에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부산시 동구 수정동 봉생병원 앞 대로에서 시내버스에 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함</li> <li>- 과거 묘소가 위치한 사하구 '에덴공원'에는 그를 기리는 '청마시비'가 설치됨</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 직후 생명에 대한 열애를 노래하여 '생명파 시인'으로 불렸음</li> <li>- 그의 시세계를 '생명의 의지', '허무의 의지', '비정의 철학', '신채호적(申采浩的)인 선비기질의 시인'으로 평가함</li> <li>- 부산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오랫동안 부산에서 교사로 재직하는 등 생애를 지역과 함께 한 인물로서 의의를 지님</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 2. 현황조사

<b>안내(홍보) 현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집으로는 『울릉도』, 『청령일기(蜻蛉日記)』, 『청마시집』, 『제9시집』, 『유치환선집』,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미루나무와 남풍』,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등이 있다. 수상록으로는 『예루살렘의 닭』과 2권의 수필집, 자작시 해설집 『구름에 그린다』 등이 있음</li> <li>- 40여 년에 걸친 그의 시작은 한결같이 남성적 어조로 일관하여 생활과 자연, 애련과 의지 등을 노래함</li> <li>- 동양적인 허정(虛靜)·무위(無爲)의 세계를 추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허무를 강인한 원시적 의지로 초극하고 있음</li> </ul>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 3. 보존·활용 방향

###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을 마감하기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부산과 관련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음</li> <li>- 친일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만주의 활동을 두고 일부 친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함</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에서 활동한 '유치환 시민'은 대한민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시인이며 이를 기리기 위해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그 업적을 후대까지 널리 계승할 필요가 있음</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환 연관 인물 등을 통해 유치환 시인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 기록</li> </ul>

###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두산 공원, 수정 가로공원, 하단의 에덴공원에 '시비'가 존재하여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음</li> <li>- 부산 동구에 청마 유치환 시인의 예술과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복합문화공간인 '유치환의 우체통 전망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환 시인의 업적을 기리는 조형물이나 시설물 설치에만 치중한 활용</li> <li>- 적극적으로 '유치환'시인의 업적을 조명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운용</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지역인 거제의 '청마기념관', 교사생활을 역임한 '통영'과 같은 경남의 지자체와 협업하여 그의 문학적 자취를 되짚어 보는 투어 프로그램의 운영</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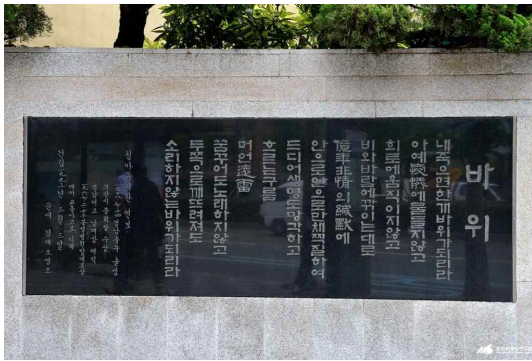
#### 4. 관련 이미지



유치환 시인\*



용두산 공원 내 유치환 시비\*



수정 가로공원에 있는 유치환 시비\*



에덴공원 유치환 시비  
(출처 : 사하구청공식블로그)



유치환 우체통 진상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구의 '유치환 우체통'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이병문 1996, “유치환의 시세계 연구: 유치환의 저항시를 중심으로”, 論文集.
- \* 박철석 1999, “柳致環: 유치환 시선집.산문집/유치환 평전.연구논집.자료집”, 문학세계사.
- \* 유수진 2003, “유치환의 삶과 시의 특질 연구”, 나랏말쌈.
- \* 최윤철 2003, “청마 유치환 시 연구: 순정과 영원의 노스텔지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 유치환·박철석·남송우 2008, “청마 유치환 전집 . 1-6”, 국학자료원.
  
- \* 2013.04.30., NEWSIS, 『동구 산복도로에 '유치환 우체통' 생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5119242?sid=102>
- \* 2013.05.20., 내일신문, 『청마 유치환 걸던 길, '시인의 길'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6/0002155882?sid=103>
- \* 2019.03.05., 김해뉴스, 『푸른바다 꿈꾸며 바위처럼 살다간 시인 유치환』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8>

#### 뉴스1.부산 동구, 유치환의 우체통에 '아트갤러리&LP이야기' 전시, 2021.05.27

<https://www.news1.kr/articles/?4319920>

부산시 동구는 산복도로 유치환의 우체통에 미술작품과 LP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갤러리 & LP이야기' 전시회를 27일부터 7월31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천은혜 공예작가의 '고요의 시간' 작품과 복고 감성 LP 음악감상실을 조성했다.

유치환의 우체통은 동구 좌천동에서 교통사고로 타계한 청마 유치환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조성됐다.

조성 당시 고(故) 김진봉 화백 초대전을 시작으로 미술관을 운영했으나, 카페 운영으로 갤러리가 중단된 후 5년 만에 다시 재단장해 문을 열게 됐다.

유치환의 우체통에서는 청마 시집과 E-BOOK 등 문학작품과 청마 선생과 관련된 동영상 2편을 감상할 수 있다. 또 '느린 우체통'을 통해 엽서쓰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이번 유치환 전시로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공유 공감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 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원, 『부산시, 청마 유치환 기념 '유치환의 우체통' 개소』, 2013.05.13.

<https://www.news1.kr/articles/1131802>

산복도로 문화.소통공간으로 활용...

청마 유치환 선생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유치환의 우체통'이 준공돼 스승의 날인 15일 문을 연다.

부산시는 15일 오후 2시30분 우체통 1층 야외공연장에서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망양로 580번길2(초량동)에 3월 설치된 우체통은 산복도로를 한 눈에 조망하는 안내센터 및 문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청마 유치환 선생은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으나 경남여고 교장,부산고등학교 교가 작사 등 산복도로 초량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부산시는 한국 시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그의 문학적 업적과 예술성을 기리기 위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으로 시비 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동구 산복도로에 우체통 건립을 추진했다.

연면적 18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우체통 건물 1층은 야외공연장인 커뮤니티 마당, 2층에는 시인의 방이 만들어져 ▲청마선생 관련 자료전시 ▲영상물 상영 ▲편지쓰기 ▲소규모 강연과 함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옥상에는 부산 앞바다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함께 추억과 그리움이 있는 빨간 우체통을 설치해 이곳에 편지를 넣으면 6개월 뒤 수취인에게 배달 해주는 작은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2층 시인의 방에서는 개막 특별전으로 청마의 시와 소박하면서도 깊고 순수한 김봉진 원로화백의 작품들이 어우러진 전시회가 열린다.

김봉진 화백은 1948년 유치환선생과 통영여고 미술교사로 교단에 첫발을 내딛은 인연이 있기에 그들의 만남은 더욱 특별하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동시대를 살았던 문학과 미술 두 거장이 전하고자 했던 의미와 자연을 소재로 한 순수한 작품세계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마 음악회, 청마 영화제, 미술교실, 어르신 자서전 쓰기,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공연.전시.교육을 통해 우체통은 앞으로 이곳 산복도로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영광도서

###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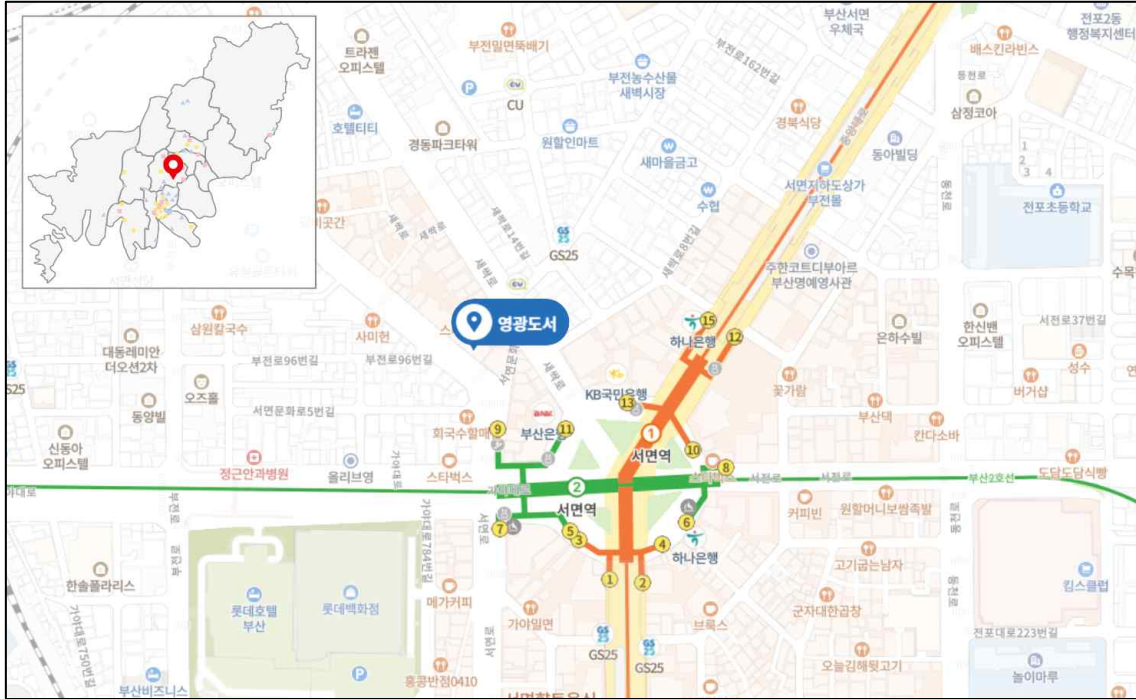
<b>유형 구분</b>	문화예술	<b>소재지</b>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0
<b>특성</b>	<input type="checkbox"/> 무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형	<b>선정기준</b>	전문가 추천
<b>형성 시기</b>	1968년	<b>소유·관리자</b>	영광도서(개인)
<b>초기 형태</b>	서점	<b>현재 용도</b>	서점
<b>연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8년 5월 1일 설립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영광서림'으로 시작</li> <li>- 1991년 부산지역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li> <li>- 1993년 문화 공간 영광도서 사랑방과 영광도서 갤러리를 개관</li> <li>- 1996년 12월 15일 본관 매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10[부전동]으로 확장 이전</li> <li>- 2000년 5월 영광도서 웹 사이트 개설</li> <li>- 2018년 12월 17층 규모의 새로운 건축물을 조성 현재는 1층부터 지하 4층까지를 서점의 용도로 사용</li> </ul>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 중인 지역 향토 서점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님</li> <li>-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50여 만 종의 서적을 비치하고, 지하 1층은 외국어 교재·수입 도서, 1층은 학습지·정기 간행물·어린이·여성 교양, 2층은 문학·종교·예술, 3층은 기술, 과학·컴퓨터, 4층은 인문·정부 간행물·수험서 등을 갖추어 두고 있음</li> <li>- 영광도서 건물 내 부대시설로 3층의 북 카페, 4층의 문화 사랑방과 갤러리 영광이 존재</li> <li>- 설립 초기 한문 학당 및 영광 서예 학당, 일본어 학당, 풍토 풍수지리 강좌 등을 무료로 개설</li> <li>- 1993년부터 매월 1회 '영광 독서 토론회'를 개최</li> <li>-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타 프랜차이즈 서점들은 문구점과 카페를 겸한 방식을 적극 도입한 것과는 달리 서적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함</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부산을 대표하는 서점으로서, 단순한 판매처의 기능을 넘어 부산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 등으로 기능하며, 부산시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의 유산으로도 의미를 지님</li> <li>- 지식·문화기업으로, 교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지역민에게 지식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li> </ul>		

\* 출처 : 영광도서 홈페이지 참조



## 2. 현장조사

### ▷ 위치



\* 출처 : 네이버 지도

### ▷ 주변 시설 및 접근성

주변현황	시설명	서면	전포 카페거리	놀이마루	-
	성격	쇼핑·위락	특화거리	복합문화센터	-
접근성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버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유동 인구가 많은 변화가에 입지하고 있어 개인차량은 물론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또한 뛰어남			

### ▷ 보존현황

보존(보수) 상황	- 과거의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음				
보존상태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보존유형	<input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활용현황

<b>활용 유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으로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 전용 후 수익사업으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유형</b>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b>이용 현황</b>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 이용인원
	연중무휴	10:00~21:00	-	-
<b>안내(홍보) 현황</b>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3. 보존·활용 방향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광도서의 위치와 건물 모두 이전되어 신속한 것임</li> <li>- 원래의 장소에는 다른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어 주변 경관에서 과거 영광도서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음</li> <li>- 과거 영광도서의 역사성이나 가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없음</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향토서점이라는 점</li> <li>- 서적 판매량 감소 및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전국적 대형서점의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향토서점들이 사라지거나 축소이전하고 있는 중에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기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음</li> <li>- 54년간 부산 시민들의 곁에서 공유했던 기억이 많은 장소이자 '약속 장소'의 대명사로 꼽힐 만큼 높은 인지도를 가짐</li> <li>- 교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지역민의 문화 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광도서만의 역사성이나 가치를 알려주는 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li> </ul>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광도서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문화홀에는 작가 초청행사, 문화강좌가 대다수로 이뤄지고 있음</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되는 문화 프로그램이 전시나 강연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li> <li>- 프로그램의 운영과 기획에서 영광도서라는 장소가 가지는 정체성과 역사적인 가치를 부각할 필요성</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거점 시설로서의 역할 강조</li> <li>- 부산의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li> <li>- 과거 영광도서의 경관을 조명하는 상설 전시회의 개최</li> </ul>

#### 4. 관련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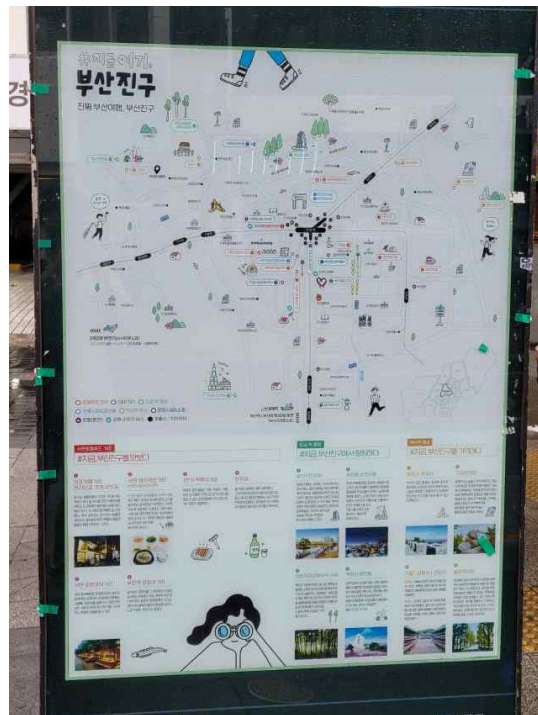
영광도서 전경



입구



영광도서 내부 모습



주변 안내시설물

## 5. 기타 자료

### ▷ 문헌 및 관련 기사

- \* 정혜옥 1990, “서점가순례 - 부산지역 책문화의 터줏대감 '영광도서'”, 출판저널.
- \* 김청연 2005, “서점가 산책 - 부산 영광도서”, 출판저널.
  
- \* 2016.02.18., 부산일보, 『창립 50주년 앞둔 영광도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0217000090>
- \* 2020.10.25., 범보신문, 『부산 영광도서, 신축건물 준공식 봉행』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32>
- \* 2022.05.15., 국제신문, 『영광도서, 청소년과 토론·비평 행사 개최 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900&key=20220516.22021004422>

### 부산제일경제, 『여권통문의 날 맞이... 양성평등정책토크쇼 '영광도서'서 열려』, 2022.09.01

<http://www.busanec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351>

2022 양성평등 주간이자 9월 1일 여권통문의 날을 맞아 MZ세대가 참여하는 양성평등정책토크쇼와 웹툰으로 만나는 부산여성인물전 전시가 부산진구 영광도서에 열렸다.

양성평등정책토크쇼는 기초발표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유리아 부산외대 만오교양대학 교수가 '흔들리는 젠더-가족이후의 가족'을 주제로 기초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지현 부산대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태성 모멘츠 대표 △강휘중 아티컬 대표 등 30대 패널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이어갔다.

20대 대선에서 화두가 되었던 여가부의 존폐문제에 대한 MZ세대들의 생각과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상했던 여성혐오와 범죄 등 여성들이 겪고있는 유리천장과 개별 능력의 문제를 비롯 성 정체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졌다.

또한 웹툰으로 만나는 역사속 부산여성인물전이 진행되기도 했다. 시대를 앞서간 걸출한 부산지역 여성 선각자들은 어떠한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평가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된 주간이다. 1996년 여성주간으로 운영돼 오다 2015년부터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1년 중 7월 첫째 주에 실시하던 기념행사도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인권선언문을 외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해 9월 1일을 기점으로 7일간 운영하고 있다.

# 굳세어라 금순아(가요)

## 1. 개요

유형 구분	문화예술	소재지	-
특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형 <input type="checkbox"/> 유형	선정방식	전문가 추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때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 부산으로 넘어온 피란민의 애환을 그린 대중가요.</li> <li>- 작사는 강사랑, 작곡은 박시춘이 하였고 노래는 현인(玄仁)이 부름</li> <li>- 1절은 흥남 부두에서 피란 오면서 금순과 이별하게 된 과정을 표현</li> <li>- 2절은 부산 국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지내는 화자가 영도 다리에서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표현</li> <li>- 3절은 헤어진 가족, 연인과의 상봉을 염원하는 내용</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3년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그린 대표적인 곡</li> <li>- 한국전쟁 기간 동안 대구의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 발매한 최고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li> <li>- 영도 다리가 흥남 철수 작전에서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가 될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였음을 알 수 있음</li> <li>-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영도 다리가 가사에 담겨 있어, 영도 대교가 부산광역시의 중요한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2. 현황조사

안내(홍보)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굳세어라 금순아를 부른 현인은 부산 영도 출생으로 특유의 창법으로 '비 내리는 고모령', '신라의 달밤' 등으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그를 기리는 현인 기념비, 현인 가요제 등이 있음</li> <li>- 비록 작곡가 박시춘이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진상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명단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굳세어라 금순아'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의 슬픈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요라는 점은 변함 없음</li> <li>- 1962년 본 곡의 가사의 내용을 바탕으로한 동명의 영화가 제작 상영</li> <li>- 2014년 영화 국제시장의 삽입곡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김</li> </ul> <p>&lt;가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절의 가사 :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 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니/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왔다</li> <li>- 2절의 가사 :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 시장 장사치기다/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 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li> <li>- 3절의 가사 : 철의 장막 모진 설움 받고서 살아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 있으랴/ 금순아 굳세어 다오 북진 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 보자 열싸안고 춤도 춰 보자</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3. 보존·활용 방향

####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곡가 박시춘의 친일 행적이 최근 재조명됨</li> <li>- 태평양 전쟁에 지원병으로 참전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내용의 가사를 가진 혈서지원을 비롯 아들의 혈서, 결사대의 안해, 목단강 편지, 등의 친일 가요를 작곡한 바 있음</li> <li>-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음악 부문에 포함되고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등록</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곡가 박시춘의 친일 행적이 조명받고 있긴 하나 피란민, 실항 등으로 대변되는 피란 수도 부산의 감성과 정서를 보여주는 음악임에는 변함 없음</li> <li>- 한국 전쟁사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홍남 부두 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한다는 상징성</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가 지역에서 공유하는 상징성, 감성은 보존하되 작곡가의 친일 관련 행적 또한 정확히 기록하여 후세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li> </ul>

####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의 감성을 대변하는 매개체로 다양한 창작물로 가공됨</li> <li>- 1962년 본 곡의 가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제작</li> <li>- 2014년 영화 국제시장의 삽입곡으로 활용</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의 감성과 정서를 보여주는 음악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해당 노래가 가진 배경인 작곡가의 친일 행적 또한 정확히 밝혀 올바른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함</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일 행적이 있는 작곡가가 만들어낸 민족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노래라는 배경을 가진 만큼 노래가 가진 감성과 더불어 정확한 배경 또한 같이 제시되어야 함</li> <li>- 해당 노래를 주제로 한 '영화', '뮤지컬' 등의 창작 공모전 개최</li> </ul>

#### 4. 관련 이미지



악극 [군세어라 금순아]의 한 장면.\*

\* 출처 : 월간중앙, "[권경률의 노래하는 한국사(3)] 유행가로 돌아보는 6·25 전쟁"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6098>, 2022.05.17

## 5. 기타 자료

### ▷ 관련 기사

- \* 박시춘·강사랑 1960, “군세어라 금순아 [악보]”, 아세아레코드社.
- \* 박명규 2001, “부산항관련 해양대중가요의 역사적 고취 - 영도대교를 중심으로 -”, WORKING PAPER.
- \* 국립민속박물관 2010, “군세어라 금순아! = Geumsoon: overcome adversity”, 국립민속박물관.
- \* 유승훈 2020, “부산의 탄생 : 대한민국의 최전선에서 거센 물살을 마중한 도시”, 생각의 힘.
-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부산의 노래 노래 속의 부산: 부산학 교양 총서”.
- \* 2003.08.20., 한겨레, 『피란민 애환 서린 영도다리에 ‘군세어라 금순아’ 노래비 우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0022876?sid=110>
- \* 2010.06.23., 연합뉴스, 『"군세어라 금순아" 노래 들으며 힘 얻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345870?sid=103>
- \* 2014.07.21., 오마이뉴스, 『<군세어라 금순아> 배경지엔 못 가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518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5186)
- \* 2021.06.10., 국제뉴스, 『부산 중구, '군세어라 금순아Ⅱ' 열어』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243>

### 월간중앙, 『권경률의 노래하는 한국사(3) 유행가로 돌아보는 6-25 전쟁』, 2022.05.17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6098>

흥남 철수 실패의 노래, '군세어라 금순아'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 부두, 피란민들이 그물망에 매달려 미국 선박에 기어올랐다. 삭풍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올라갔다. 북새통에 밟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가족과 생이별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극적인 장면은 국민가요를 탄생시켰다. '군세어라 금순아'(강사랑 작사, 박시춘 작곡)는 1953년 가수 현인이 독특한 창법으로 불러 실패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 / 목을 놓아 불러 보았다 찾아를 보았다 /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왔다.”

흥남 철수는 1950년 12월 연합군이 중국군에게 밀려 퇴로를 차단당하자 해상으로 탈출한 작전이다. 11월에 맥아더 사령부 직속의 미군 제10군단은 함경도 방면에서 국경으로 진군해 중국군을 궤멸시키기로 했다. 미군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 국군 제1군단이 작전에 투입됐다. 하지만 미군은 장진호 부근에서 적의 포위망에 갇히고 말았다. 중국군 제9병단 산하 7개 사단이 에워싸고 맹공을 가했다. 제10군단 지휘부는 부득불 후퇴 명령을 내렸고, 미군은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악전고투 끝에 흥남으로 빠져나왔다.

얼마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며 평양을 찍고 압록강에 이르는 연합군이었다. 어쩌서 전황이 역전됐을까? 동상에 시달리고 병기마저 얼어붙는 혹한의 날씨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적의 전투력을 알본 게 패인이었다. 6-25 당시의 중국군 하면 흔히 인해전술을 떠올리지만, 병력과 화력은 연합군이 우위였다는 게 훗날의 분석이다. 그들의 무서움은 다른 데 있었다.



중국군은 꿩파리와 피리, 함성으로 천지를 진동시켜 연합군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심리전을 구사했다. 인해 전술이 아니라 허장성세였다. 연합군은 혼비백산해 전투 의욕이 저하됐다. 유격전도 악몽이었다. 중국군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니 연합군은 쉬지도 못하고 피로가 쌓였다. 이 심리전과 유격전은 중국공산당이 장개석 군대를 몰아붙일 때 쓴 전법이었다. 연합군은 공포심과 피로감이 극에 달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철수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홍남에서 철수한 것은 10만여 명의 병력뿐만이 아니었다. 피란민 수십만 명이 밀려들었다. 공산당 치하에서 살 수 없어 탈출하려는 사람들, 미군이 원자탄을 투하한다는 소문에 몸을 피하려는 이들이 부두를 가득 메웠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구원의 그물망을 잡으려 했다. 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함선 132척이 동원됐다. 미국 상선 매러디스 빅토리호도 참여했다. 정원 2000명을 한참 초과해 1만4000여 명을 태운 배는 거제도 장승포항에 피란민들을 내려줬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덕수가 매달린 그 배다.

“막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놀러 가는 게 아이다. 오라바이 손 꼭 잡아라.”

# 이별의 부산정거장(가요)

## 1. 개요

<b>유형 구분</b>	문화예술	<b>소재지</b>	-
<b>특성</b>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형 <input type="checkbox"/> 유형	<b>선장방식</b>	전문가 추천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의 부산 생활의 애환과 부산을 떠나는 상념을 표현한 대중가요</li> <li>- 유호가 작사하고, 박시춘이 작곡하였으며, 남인수가 노래함</li> <li>- 1, 2절의 화자는 떠나는 피란민이며, 1절은 피란살이의 생활에 대한 회상을 담고 2절은 피란살이에서 맺은 인연에 대한 아쉬움을 담음</li> <li>- 3절은 남은 부산 사람이 화자가 되어 떠나는 피란민에 대한 미련을 노래함</li> </ul>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4년 한국전쟁 시기 부산 지역 피란살이의 심정을 담은 대표적인 곡</li> <li>- 피란살이가 힘들었지만 부산 사람과의 인연이 힘이 되었음을 표현함</li> <li>- 만남과 이별의 공간이었던 부산역을 소재로 한 곡 중 가장 인기를 얻었음</li> <li>- 부산 피란살이를 소재로 한 곡 중 가장 인기 있는 노래로 1950년대 최대의 판매고[5만여 장]를 기록함</li> </ul>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2. 현황조사

<b>안내(홍보) 현황</b>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패널 <input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모형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참고서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록 작곡가 박시춘이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진상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명단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당시 만남과 이별의 공간이었던 부산역을 소재로 한 곡 중 많은 인기를 얻음 (1950년대 국내 음반 최대 판매(5만여장) 곡)</li> <li>- 가수 남인수는 1940년에 발표한 「울며 헤진 부산항」은 정신대에 끌려가는 여성들, 징용과 지원병으로 고향을 떠나가는 청년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며 부를 만큼 비극적 노래를 부름</li> <li>- 하지만 일제 말기에 남인수는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지원병 제도를 지지하는 「그대와 나」[1942년]、「이천오백만 감격」, 「혈서 지원」[1943년] 등의 군국 가요를 부르고, 1944년 9월 미국과 영국 격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부민관에서 열린 「성난 아세아」에 출연하는 등 친일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평가</li> <li>- 「울며 헤진 부산항」,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남인수의 대표작으로, 격동의 근현대와 더불어 '부산'의 장소성(場所性)을 진솔하게 확인시켜 주는 노래</li> <li>- 1961년에는 이별의 부산정거장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정서를 반영하여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어 상영</li> </ul>

	<p>&lt;가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절의 가사 :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설움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li> <li>- 2절의 가사 : 서울 가는 십이 열차에 기대앉은 젊은 나그네/ 시름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기적이 운다/ 쓰라린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목이 메어 소리 높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li> <li>- 3절의 가사 :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 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 자 봄소식을 전해 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li> </ul>
--	---

\*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3. 보존 · 활용 방향

#### ▷ 보존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곡가 박시춘과 가수 남인수의 친일 행적이 최근 재조명됨</li> <li>- 일제 말기에 남인수는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지원병 제도를 지지하는 「그대와 나」 [1942년]·「이천오백만 감격」·「혈서 지원」[1943년] 등의 군국가요를 제창</li> <li>- 1944년 9월 미국과 영국 격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부민관에서 열린 「성난 아세아」에 출연하는 등 친일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li> </ul>
<b>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 피란민의 애환과 이를 이겨내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부산시민의 정서와 공유하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함</li> <li>- 한국전쟁의 만남과 이별의 장소인 부산역을 소재로 한 무형의 유산과 기억</li> <li>- 부산역을 소재로 하여 1950년대 국내 음반 최대 판매(5만 여장) 곡이라는 상징성</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시의 '부산정거장'이라는 장소성과 감성을 공유하고, 더불어 가수와 작곡가가 연관된 친일 관련 행적 또한 정확히 기록하여 후세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li> </ul>

#### ▷ 활용

<b>활용여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1년에는 이별의 부산정거장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정서를 반영하여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어 상영되는 등 시대의 정서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활용됨</li> </ul>
<b>개선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의 감성과 정서를 보여주는 음악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해당 노래가 가진 배경인 가수의 친일 행적 또한 정확히 밝혀 올바른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함</li> </ul>
<b>활용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노래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 창작 공모전 개최</li> <li>- 동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감성을 담은 '영화',뮤지컬의 제작</li> </ul>

#### 4. 관련 이미지



한국전쟁 당시 부산정거장 모습\*

\* 출처 :월간중앙, "[권경률의 노래하는 한국사(3)] 유행가로 돌아보는 6·25 전쟁"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6098>, 2022.06.17.

## 5. 기타 자료

### ▷ 관련 기사

- \* 박시춘·유호 1977, “이별의 부산정거장 [악보]”, 아세아레코드社.
- \* 유승훈 2020, “부산의 탄생 : 대한민국의 최전선에서 거센 물살을 마중한 도시”, 생각의 힘.
-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부산의 노래 노래 속의 부산 : 부산학 교양 총서”.
  
- \* 2020.06.20., 쿠키뉴스, 『6월이면 더 불러지는 '이별의 부산정거장'』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6210069>
- \* 2021.05.13., 부산일보, 『‘황성옛터’ ‘이별의 부산정거장’…대중가요에는 격동기 근현대사 녹아 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51110505399812>
- \* 2022.07.21., 중소기업신문, 『한국대중가요 최고 멜로디 곡 '이별의 부산정거장'』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366>
- \* 2022.06.06., 경향신문, 『전쟁과 부산역』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060300035>
- \* 2022.06.29., 경향신문, 『(20) ‘이별의 부산정거장’ 서 피어난 ‘유라시아 플랫폼’의 꿈』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5200300015>

### 월간중앙, 『권경률의 노래하는 한국사(3)] 유행가로 돌아보는 6-25 전쟁』, 2022.06.17.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6098>

희망 품고 집으로 가는 길, '이별의 부산정거장'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전쟁의 시계가 멈추고 서울로 환도가 이뤄졌다.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위태롭게 흔들리던 피난 생활도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 잘 가세요 잘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 한 많은 피난살이 설움도 많아 /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가 슬피 우네 / 이별의 부산정거장.”

1954년에 나온 '이별의 부산정거장'(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은 가수 남인수가 불러 크게 히트했다. 음반 10만 장이 불티나게 팔렸다. 이별의 애뜻한 노랫말과 달리 리듬은 뭔가 설레고 경쾌하다. 피난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 심장 뛰는 일이었다. 쿵작쿵작, 경쾌한 리듬은 바로 그 희망찬 심장박동이었다.

정거장에서 작별한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는 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피란 수도' 부산이었다. 판자집을 뒤로하고 기적이 운다. '희망열차' 타고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부산도 아쉬운 듯 화답한다. “고향에 가거든 잊지 말고 / 한두 자 봄소식을 전해주소서.”(2절)



# 부산 미래유산 활용방안 제언



1. 부산 미래유산 활용 현황 및 제언 배경
2. 부산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3. 부산 미래유산 활용 기본방향 및 전략
4. 부산 미래유산 효율적 추진 체계
5. 부산 미래유산 활용 추진 방법 및 과제










## V. 부산 미래유산 활용방안 제언

### 1. 부산 미래유산 활용 현황 및 제언 배경

- 부산 미래유산 제도는 2019년 시작되어 현재 4차 미래유산 발굴 시점에 있고, 3차에 걸쳐 미래유산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해 옴
- 기존의 미래유산 연구 용역에서 활용방안의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화 콘텐츠(2019년 1차), 홈페이지 디자인(2020년 2차), 명패 디자인과 공간화 사업 루트(2021년 3차)의 제안 과정을 통해 미래유산 활용의 틀을 마련
- 그러나, 예산과 행정상의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구현되거나 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대시민 홍보 및 부산 미래유산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

#### ■ 기 진행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용역 활용방안 제언 내용

2019년 1차	2020년 2차	2021년 3차
		
<b>대중화 콘텐츠</b>	<b>홈페이지 콘텐츠 구성 및 디자인</b>	<b>명패 디자인 및 공간화 사업 루트</b>

- 부산 미래유산 제도 시행 4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인 만큼 그간 선정된 미래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
- 이런 미래유산 활용과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2022년 7월 부산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있어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산 미래유산 조례를 개정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활용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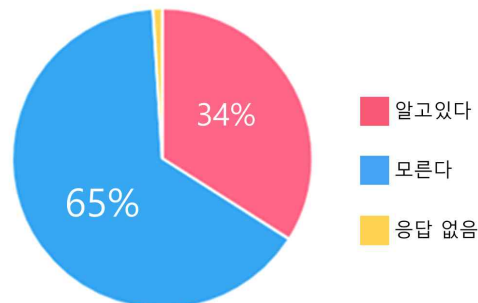
## 2. 부산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 2.1. 조사 개요

- 부산 미래유산의 활용방안 제언에 앞서 먼저 부산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현황과 향후 활용 방향과 전략 설정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설문 조사 실시
- 기간 : 2022년 7월 21일~ 27일(7일간)
- 대상 : 총 103명 / 부산 시민(79명), 타 지역민(24명)

### 2.2. 조사 결과

- 부산 미래유산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의 과반수가 모른다고 응답 (응답자가 65%가 모른다, 34%가 알고 있다고 응답)
- 타 도시 미래유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들어본 적이 있다 21%, 들어본 적이 없다가 78%, 무응답 1%로 미래유산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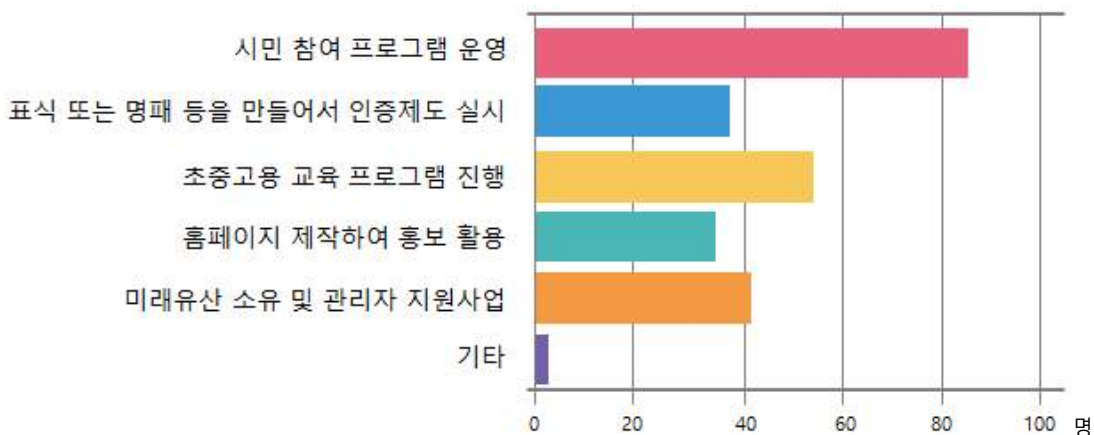
부산 미래유산 인지도

- 미래유산의 홍보물이나 관련 장소에 방문한 경험은 22.3%가 있다, 60.2%가 없다고 응답
  - 부산 미래유산을 방문한 경우는 부산시민공원, 산복도로, 돼지국밥, 기장미역, 감천마을 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
  - 미래유산과 관련한 홍보는 주로 TV ‘KBS 부산의 발견’, 부산시 블로그나 유튜브, SNS, 관련 세미나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 활용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0%가 필요하다고 응답



부산 미래유산의 활용과 홍보 필요성

- 활용과 홍보의 방향(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31.6%(85명), 초·중·고용 교육 프로그램 진행 20.8%(56명), 미래유산 소유 및 관리자 지원사업 16.7%(45명), 표식 또는 명패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인증제도 실시 15.6%(42명), 홈페이지 운영하여 홍보에 활용 13.8%(37명), 기타 1.5%(4명) 순으로 응답



부산 미래유산 활용과 홍보의 방향

- 부산 미래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디지털화, 아카이빙, 대중화, 교육, 홍보, SNS, 참여·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전통적 미디어의 활용(지역 신문 및 방송 매체 등)와 뉴미디어(SNS, 홈페이지 등)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노출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미래유산의 인식 확산과 대중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 또한 미래유산과 관련한 메타버스,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자료화하고 3D로 제작하여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 그 외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대상으로 시에서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활용하거나 미래유산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미래유산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
  -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기관이나 박물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인증제도로 알리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응답

### 2.3. 인식조사의 시사점

- 시민 인식조사 결과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낮으나 부산 미래유산 제도와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미래유산에 대한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마련된 것으로 파악
- 특히 미래유산의 대중화,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확산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산 미래유산 제도가 시민들의 공감대와 자발적 확산 의지를 바탕으로 추후 활용과 인식 확산에 있어 시민사회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부산 미래유산제도가 지난 4년간의 유산을 선정하고 연구하던 제도적 환경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을 꾀하며 전환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분석
- 부산 미래유산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잠재된 시민사회의 동력을 얼마나 살려서 활용하는가가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성패의 근간은 다음에서 논의할 미래유산 활용의 방향 설정에 달려 있음

### 3. 부산 미래유산 활용 기본방향 및 전략

#### 3.1. 부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방향 개선

- 미래유산은 행정적으로 제도나 조례를 마련하여 지정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지만, 시민 미래유산 인식조사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동의와 동력을 얻어 보전해나가도록 진행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선정된 미래유산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활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 과제이므로, 향후 미래유산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제안
- **첫째, 현재까지 지자체가 주도하여 진행해 온 미래유산 제도의 운영과 활용 주체의 변화 모색 필요**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그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와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역할이므로 제도 운영 초기 관 주도 제도 운영은 불가피한 점도 있으나, 부산 미래유산 제도가 향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제도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경우, 제도 운영과 선정 절차에 있어 매뉴얼이 확립되어 행정적으로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등 각종 규정이 마련되므로 제도의 초기 토대 마련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
  - 그러나 다양하게 발생하는 변수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정 매뉴얼적 대응으로 제도 운용의 폭이 좁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특성상 발신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제약이 있으므로 정보 전달이나 활용에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함
- 미래유산제도의 운영 방향을 시민들에게 가치 인식과 확산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현재의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민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요구됨
  - 민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미래유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관에서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사업들을 민간단체가 주체로 진행함으로써 신선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는 공모사업 진행이 가능
  -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 움직임이 자유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 진행이 용이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제도운영과 활용 가능

- 둘째, 현재까지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미래유산 관련 카드 뉴스 게재 또는 지역 방송의 영상 송출의 형태에서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홍보와 소통 방식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전환이 필요
  - 홈페이지 구축 등 미래유산 관련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홍보와 소통의 창구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 정보 발신에서 탈피하여 SNS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해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 방식을 전환 모색
- 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 유도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개방적이고 유기적인 환경이 마련 가능하며, 미래유산 제도의 참여와 인식 확산에 선순환을 이루는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단발적인 제도나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유산 제도 확립에 근간이 될 것
- 셋째, 선정된 부산 미래유산의 소유자가 미래유산을 관리하고 활용하여 그 가치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산 미래유산의 관리와 지원 방식의 전환 필요
  - 현재 미래유산의 운용 방식에서는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후, 아무런 지원이 없고 표식도 없는 등 소유주의 입장에서 선정된 이점이나 자부심을 느끼기는 어렵다는 의견
  - 따라서 부산시에서 제작한 미래유산 공식 명패를 부착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식 인증제도를 마련
  - 추후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지원에 대하여 선정된 미래유산이 소재하는 각 구군의 유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지원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 앞에서 제안한 3가지 활용 방향에 근거하여 미래유산 제도를 운영한다면 현재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시민들의 미래유산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을 넘어 미래유산의 보전과 가치 확산이라는 시민운동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을 것임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미래유산 활용 방향 설정

### 3.2 활용 방향의 비전 및 전략 설정

-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미래유산제도로 발전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부산 미래유산제도만의 비전과 목표, 운영 전략이 필요
- 상기 내용을 부산 미래유산의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목표와 전략을 설정
- 부산 미래유산제도의 비전 및 전략 설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발주된 부산 미래유산제도 연구 용역의 과업 내용을 비교 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의 방향과 실태를 파악
  - 제도 운영의 주체인 부산광역시는 매년 미래유산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미래유산을 선정하여, 1차 연구 용역부터 4차 연구 용역까지 미래유산 후보의 기초현황조사와 기 선정된 미래유산에 대한 심화연구 수행
  - 그 외, 보존·관리 방안, 제도 실행 방안, 활용 및 대중화 방안 제시(1차),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 및 디자인 제안(2차), 미래유산 기록 자료 인코딩 및 DB작업, 문화유산 지도 보완·제작(3차), 미래유산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4차)가 과업 내용에 포함

####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조사 연구 용역의 연차별 과업 내용

2019년 1차	2020년 2차	2021년 3차	2022년 4차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체계에 대한 조사			
부산 미래유산의 개념정립과 기본원칙 제시	제1차 부산 미래유산(20건) 심화 연구·기록화 및 자료집 발간	제2차 부산 미래유산(29건) 자료검증	제3차 부산 미래유산(11건) 자료집 발간
부산 미래유산의 기초현황조사(30건) 및 선정방안 제시	제2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 기초현황조사(35건)	제3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 기초현황조사(17건)	제4차 부산 미래유산 후보 기초현황조사(27건)
부산 미래유산의 보존·관리방안 제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 및 디자인 제안	미래유산 기록 자료 인코딩 및 DB작업	미래유산제도 관련 세미나 개최
기본조성을 통한 부산 미래유산제도 실행 방안 제시	문화유산 지도 제작	문화유산 지도 보완·제작	기 선정 부산 미래유산 추가 조사
-부산 문화유산의 활용 및 대중화 방안 제시			

- 과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발주된 과업의 내용으로 파악된 미래유산제도의 운영은 기초 현황조사와 자료집 발간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미래유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마련된 상황

- 그러나, 홈페이지 개설이나 문화유산 지도의 활용 등 대중화 부문에 있어서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한 반증으로 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활용과 홍보가 미흡하여 미래유산에 대한 인지도는 저조한 상태
- 기존 연구 결과와 앞서 실시한 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미래유산제도의 활용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 운영의 비전을 정립, 목표와 전략을 수립



- 부산 미래유산의 당면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바탕으로 연구팀에서 설정한 비전은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부산 미래유산”으로 함
- 이를 위해 미래유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설정한 비전
- 현재 미래유산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원동력으로 얻어야함에 따라, 목표는 미래유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미래유산이 가진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끌어내는 것으로 설정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민들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의견과 연구팀의 연구진행과정에서 추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전문화, 다원화, 디지털화, 고도화, 친숙화 전략을 설정
  - 전문화 전략이란 관에서 실행할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



- 고자 민간 전문가 또는 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미래유산 민간 공모사업 진행 시, 민간부문의 시장경쟁 논리와 축적된 노하우를 도입하여 사업의 품질 제고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다원화 전략 역시 현재까지 관에서 진행해왔던 제도를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으로 운영 주체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제도 운영의 재정기반 조성과 활용에 따른 제약을 완화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화 전략은 활용과 보전에 필수적인 전략으로 현재까지 구축한 미래유산 자료를 시민 누구나가 활용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DB화시키고 아카이브를 마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디지털 매체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그 중 SNS를 통한 미래유산 홍보나 활용은 디지털화 전략의 핵심 부분임
  - 고도화 전략은 선정된 미래유산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미래유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누구나가 쉽게 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환경 마련 가능
  - 친숙화 전략은 일반시민, 특히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유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유산 소유자에게 추후 관리 및 수리 진행 시 지원하고 인증서 및 명패를 제작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식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4. 부산 미래유산 효율적 추진 체계

### 4.1. 미래유산제도 운영 및 관리 주체의 전환

- 현재 부산시에서 미래유산제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고 있으나, 추후 미래유산의 활용과 인식 확산 및 공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에 운영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일부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실행과 시민 친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 주도의 제3의 운영 섹터를 마련하는 방안 모색 가능
- 미래유산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경우 2022년 3월 미래유산에 대한 더 이상의 멸실을 막고, 건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민주도의 ‘사단법인 미래유산시민연대’를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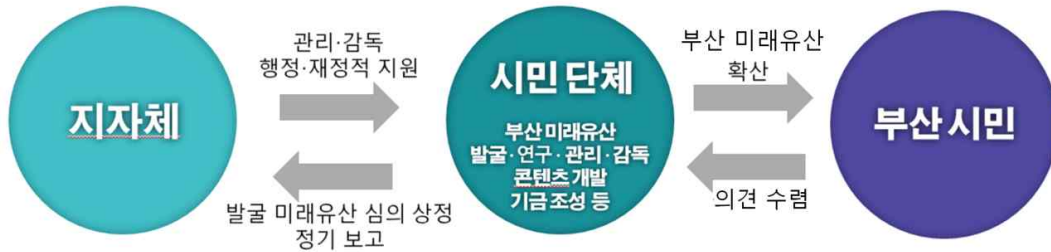
1. 미래유산에 대한 홍보 캠페인, 훼손 방지 운동
2. 문화유산의 신탁 및 위탁 관리 운영 사업
3. 미래유산 자원 조사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4. 미래유산 보존에 따른 대안 정책 연구 및 학술 사업
5. 미래유산 훼손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과 시민 현장 제정
6. 도시의 정원과 호수 복원 촉구, 골목길 등 자연마을 지키기 등 시민운동
7. 도심의 대형 공장 이전 운동 및 생태적 복원 운동
8. 미래유산 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 관광·교육 사업
9. 미래 문화유산 보존·관리, 교육·연구, 홍보·진흥, 인재 양성 사업
10.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단법인 미래유산시민연대 목적사업



광주 사단법인 미래유산시민연대 홈페이지

- 미래유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추진 원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중요하므로 민·관의 새로운 역할 규정이 필요
- 지자체는 민간단체를 관리·감독하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민간단체는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선정된 미래유산의 관리·활용뿐 아니라 대시민 홍보를 통한 기부금 조성 등으로 재정적 문제도 일부 해결 가능



부산 미래유산 운영 및 관리 방법(안)

- 민간단체가 제도 운영에 참여 시, 미래유산의 보전 및 홍보 활동에 있어 관이 주도하는 방식보다 제약이 없어지므로, 시민 친화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실행이 가능
- 미래유산 소유자 개인 또는 행정기관이 관리하기 어려운 미래유산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미래유산을 둘러싼 갈등 발생 시 중재 및 해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재정 운용이 있어 집행 절차와 기금 모금 및 조성에 행정기관보다 간소화된 진행 가능

#### 4.2. 부산 미래유산 발굴 및 선정 방법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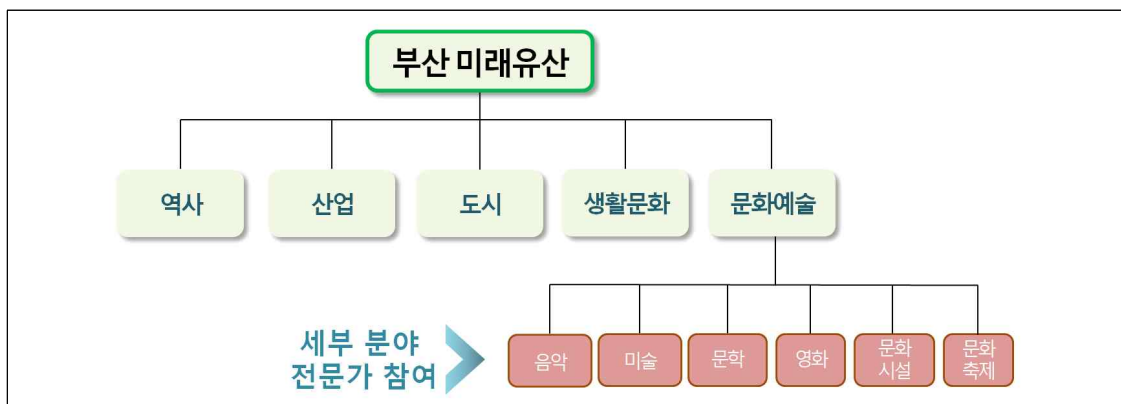
- 현재 부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야별로 미래유산을 선정해 온 방식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시민들의 기억의 공유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서, 공감대를 얻기 쉽고 활용하고 알리기에 용이한 장점
- 4차 미래유산 선정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의 공통된 기억이 담긴 부산의 유·무형의 유산들이 이미 상당수가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차를 거듭할수록 기억의 공유성을 기반으로 선정되는 유산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
- 또한 부산시민의 공동 기억이라는 기준 또한 부산시 내에서도 세대나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부산 미래유산의 선정 방법에 대한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
- 따라서 부산 전체로 하는 현재의 광범위한 선정 방식에서 세부적, 단계적 선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함

#### 4.2.1. 권역별, 지역별 부산 미래유산 발굴 및 기록화

- 첫 번째는 부산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부산의 해안권, 내륙권, 또는 구군 등 각 권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만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미래유산을 발굴하는 방식
- 이러한 선정 방향은 특수성을 바탕으로 심화 운영과 활용을 전개할 수 있고, 부산 지역 안에서도 각 권역 및 세대 간의 단절된 기억을 미래유산으로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써 기억의 연속성과 지역민의 연대 형성에 기여 가능
- 이는 그 권역별 지역의 특정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유산 중에 미래 세대에 전달 하고 싶은 유산을 선정하기에 용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4.2.2. 분야별 부산 미래유산 발굴 및 기록화

- 두 번째로는 역사, 생활문화, 도시, 산업, 문화예술로 이루어진 부산 미래유산의 각 분야 를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방식
  - 미래유산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과 분야는 다양한 데 비해 현재 부산 미래유산의 심 의와 선정에 참여하는 부산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위원은 현재 12명(역사 3명, 산업 0 명, 도시 1명, 생활문화 2명, 문화예술 3명, 기타 문화재 1명, 시의원 및 당연직 국장 2 명)으로 인원 수 뿐 아니라 세부 분야별 전문가 역시 부족한 실정
  - 이에 현재까지 부산 미래유산 선정 결과는 총 60건으로 역사 21건, 생활문화 19건, 도 시 10건, 산업 7건, 문화예술 3건으로 분야별 선정 비율이 차이를 보임
  - 따라서 각 분야 내, 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굴과정을 통해 현재의 부산 미래유산 발굴 연구팀이나 위원회가 접근하기 힘든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소위원회를 확대·구성하는데 용이



분야별 선정 방법 예시 (문화예술 분야)

## 5. 부산 미래유산 활용 추진 방법 및 과제

### 5.1. 단계별 추진 방법

- 부산 미래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 수립한 비전, 목표, 전략을 바탕으로 미래유산을 활용함에 있어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로드맵을 구성
- 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인식, 참여, 확산, 지속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총 5년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단계별 추진 활동을 제시



부산 미래유산 활용 단계별 추진 로드맵

- 활용 1단계에서는 미래유산의 인식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활용 기반과 네트워크를 구축
  - 민간단체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준비를 진행
  - 유관 기관의 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미래유산제도의 통합정보시스템이자 정보 발신의 창구인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 준비
  - 미래유산 공식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인증서 및 명패 제작, 수리 및 지원 사업 구분별 파악 및 연계 제도 마련

- 활용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참여와 확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도 운용 실시
  - 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미래유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올해의 부산 미래유산” 등 대시민 캠페인을 관에서도 전개하여 미래유산제도의 참여와 확산의 분위기 조성 및 민관 협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1단계에서 추진된 미래유산 공식 인증제도와 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추후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유산의 제도적 토대 마련
  - 미래유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와 미래유산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류전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인식 확산의 계기로 활용
  - SNS에서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를 소재로 한 이벤트 진행으로 홍보 전개
- 활용 4단계에서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미래유산의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확산을 위한 홍보 활용 확대를 향후 부산 미래유산의 지속성을 높이도록 함
  -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인지도 80% 달성, 활용 프로그램에 시민 참여 또는 미래유산과 관련된 경험은 50% 달성, SNS 키워드 검색량 매년 10% 증가 등을 목표로 꾸준한 홍보 진행

## 5.2. 세부 사업 추진 과제

- 부산 미래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하 선행해야 세부 사업의 주체로 앞서 제언한 바와 같이 부산시가 민간 운영 주체의 행정적 지원을 돕고 미래유산 제도의 운영과 관리 주체를 민간주도로 전환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미래유산 활용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5.2.1. 민간 공모사업 진행

- 민간 공모사업 진행은 행정기관의 실행 절차와 움직임의 제약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됨
- 공모사업의 장점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미래유산의 보전과 기록에 중점을 둔 방식과는 달리, 민간단체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한 프로그램 진행과 신속한 현장 피드백이 가능함
- 연차를 거듭하며 진행할수록 미래유산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민의 반응이 저조하거나 피드백이 좋지 않은 프로그램은 평가를 통해 수정하거나 폐지하여 공모사업의 질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 또한 민간부문의 기금과 신탁을 조성하여 시의 부족한 예산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보전과 원활한 활용을 도모
- 서울 미래유산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미래유산 활용 사업(조사기록화 사업 17건, 시민 홍보·교육 19건, 문화콘텐츠 개발 8건)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미래유산을 확산해 나가고 있음



서울 미래유산 공모사업 예시

### 5.2.2. 홈페이지 개설

- 부산 미래유산은 개별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정되고 있으므로, 대시민 홍보와 정보 발신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은 선결 과제임
- 단순한 정보 서비스를 넘어 관련된 종합 정보 제공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PC와 태블릿, 스마트폰의 기기에서 동일한 화면으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제작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관련 미래유산의 정보가 검색되는 기능을 제공
- 홈페이지 검색 시 진행하고 있는 미래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ex. 스토리텔링형 체험 코스 안내), 스마트폰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 시 관련 장소에서 360도 VR 기능이 구현되는 서비스를 제공

- 홈페이지에서는 선정된 미래유산의 구술, 사진, 기사 등을 아카이브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마련
-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전과 민간 참여 공모사업 진행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진행하고, 부산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미래유산 관련 관광 명소 정보도 미래유산 홈페이지에서 함께 제공

### 5.2.3. 인증제도 실시

- 지정된 미래유산의 공식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미래유산에 대해 인증서를 교부하고 공식 명패를 제작하여 부착을 지원
- 선정된 미래유산에 대한 공식적인 표식으로 소유자에게는 자긍심 고취, 일반시민에게는 인지도 향상의 기능을 발휘
- 자긍심 고취와 관심 독려를 위한 본래의 목적 및 기능과 함께 추후 부산 미래유산의 브랜드를 정립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장치로써 기능
- 명패를 부착한 미래유산의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부산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
- 일회성의 지원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실시

#### ■ 타 시도 미래유산 명패 예시



### 5.2.4. 소유 및 관리 지원 체계

- 미래유산의 소유주 또는 관련 시민이 자발적으로 보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
- 관에서도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시스템 모색



- 부산시의 예산 부족과 중복 지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 내부의 타 부서와 미래유산이 소재한 구군의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전통시장, 마을, 지역 특산물과 관련된 소상공인, 건축물 등 미래유산의 유형에 따른 지원 사업 진행으로 지원 카테고리화 매뉴얼을 마련하여 추진

■ 미래유산의 유형별 지원 사업 예시

구분	비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등
마을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
소상공인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옥외광고 홍보 지원사업, 소규모 시설 개선비 지원사업 등
건축물	집수리 지원사업 등

5.2.5. 교육청 연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초·중·고등 학생들에게 미래유산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청소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 현장체험학습 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워크북 제작 및 배포로 미래세대에게 관련 경험을 통한 교육 효과 발생 유도
- 미래유산을 소재로 한 영상 및 콘텐츠로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수상작은 미래유산 홈페이지와 김해공항 및 부산역 내 활용 가능한 미디어를 통해 송출
-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하는 효과 발생
- 미래유산 홍보대사 또는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여 위촉, 각종 홍보 활동 지원

■ 부산 미래유산 활용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전략	추진 과제		추진 방법
전문화 다원화 친숙화	참여 주체 확대	민간단체 및 기업 공모사업 진행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입과 경쟁 통해 활용 사업의 품질 제고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광코스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답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진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디지털화 고도화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홈페이지 개설 및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인증서 교부 및 명패 부착	미래유산 인증서와 명패 수여 후, 연차별 관리 및 수리 보존 지원
		소유 및 관리 지원 사업	미래유산의 유형에 따라 타부서 및 관련 구군 지원사업 연계 진행
친숙화	미래세대 공감대 형성	교육청 연계 교육 프로그램 진행	미래유산의 가치 인식 및 공유를 위한 청소년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참고문헌

### - 단행본/보고서

- 강대민 2019, “부산지역 3.1운동 연구 성과와 전망”, 향도부산.
- 강종희 2014, “아이없게도 국수: 인생의 중심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준 이”, 비아북.
- 고연경 2016, “푸드트래블: 부산 미식을 여행하다”, 컬처크라퍼.
- 구모룡 2009, “마리타임 부산: 부산의 향, 포구의 사람과 문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구지선. 2014, “이색마을 여행: 마을에서 찾아낸 우리들의 추억”, 낭만판다.
- 국립민속박물관 2010, “굳세어라 금순아! = Geumsoon: overcome adversity”, 국립민속박물관.
- 김윤미 2012,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제와 부산의 요새”, 군사지.
- 김정하 2012, “개항도시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찰 -부산과 나가사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도시문화교섭학.
- 김청연 2005, “서점가 산책 - 부산 영광도시”, 출판저널.
- 김태현 2004, “부산 기업사, 2004”,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대한병원협회 1984, “병원탐방-부산일신기독병원”, 대한병원협회지.
- 대한주류공업협회 1997, “대선주조(주)”, 주류산업.
- 동길산·조강제 2015, “포구를 걷다: 나를 지우고, 나를 세우는 힐링 여행 산문집”, 예린원.
- 박경옥 2018, “회동수원지 길”, 부산발전포럼.
- 박명규 2001, “부산항관련 해양대중가요의 역사적 고취 - 영도대교를 중심으로 -”, WORKING PAPER.
- 박상필 2013,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부산진역사(驛舍)”, BDI 포커스.
- 박시춘·강사랑 1960, “굳세어라 금순아 [악보]”, 아세아레코드社.
- 박시춘·유호 1977, “이별의 부산정거장 [악보]”, 아세아레코드社.
- 박재환 2007, “부산의 장터 찾아가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박재환·김희재·김정오·황경숙·김용규·김명숙 2007, “부산의 장터 찾아가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박정배 2016, “푸드 인 더 시티”, 깊은 나무.
- 박중호 2011, “부산을 맛보다”, 산지니.
- 박철석 1999, “柳致環: 유치환 시선집.산문집/유치환 평전.연구논집.자료집”, 문학세계사.
- 반극동 2017, “부산은 따뜻하다: 경부선 중착역”, 행복에너지.
- 배기환 2011, “부산역과 상해거리”, 지역사회.
-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이야기 따라가는 부산나들이”,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 2019-11-06, 일부개정 22-04-27)
- 부산광역시, 2005,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
- 부산광역시, 2018,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데이터베이스-건축역사문화자산』
- 부산광역시, 2018,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데이터베이스-문화예술자산』
- 부산광역시, 2018,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데이터베이스-자연자산』
- 부산광역시, 2018,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데이터베이스-해양호국역사 문화자산』
- 부산광역시, 2018,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2019, 『부산광역시 근대건축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집』
- 부산광역시·북천박물관, 2005, 『문화유적 분포지도-기장군』
-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2006, 『문화유적 분포지도-부산광역시』1.2

- 부산광역시·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2021 부산미래유산 조사·연구보고서』
-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2020 부산미래유산 조사·연구보고서』
- 부산문화회관 2018, “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 공연보 . 제5집 , 2010-2014”, 부산문화회관.
- 부산문화회관 2021, “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2022.S/S = BSCC season program 2022.S/S”, 부산문화회관.
- 부산발전연구원 2007, “2007 부산학총서, 부산의 재래시장”, 부산학연구센터.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부산의 노래 노래 속의 부산 : 부산학 교양 총서”.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4, “부산의 노래 노래 속의 부산 : 부산학 교양 총서”.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6, 『부산의 생활문화유산』
- 송필석 2003, “부산광역시 공공문화회관의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음악과 비평.
- 오동하 2009, “오륙도, 부산대표 생태관광지로”, BDI포커스.
- 오미일 2019,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3·11 독립만세 시위와 여성운동”, 향도부산.
- 유수진 2003, “유치환의 삶과 시의 특질 연구”, 나랏말쌈.
- 유승훈 2020, “부산의 탄생 : 대한민국의 최전선에서 거센 물살을 마중한 도시”, 생각의 힘.
- 유승훈 2020, “부산의 탄생 : 대한민국의 최전선에서 거센 물살을 마중한 도시”, 생각의 힘.
- 유진아 2019, “부산의 장소성과 향토음식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한국지역문화학회.
- 유치환·박철석·남송우 2008, “청마 유치환 전집 . 1-6”, 국학자료원.
- 이강순 2011, “2011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BDI포커스.
- 이강순 2012, “2012년 부산의 10대 히트상품”, BDI포커스.
- 이경덕·박재영 2009, “대한민국 전통시장 100 : 네이버 국내시장백과 선정 대한민국 대표 시장”, 가디언.
- 이석환 2020, “역세권 도시재생의 첫출발, 부산역 일원”, 국토.
- 이지영 2022, “한말 일제의 대륙 진출과 부산 및 진해만의 요새화”, 향도부산.
- 이지영·서치상 2010,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군막사 및 포대진지의 구축과정과 건축특성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 이창현·강혜진 2018, “2018년 부산 10대 히트상품”, BDI포커스.
- 이호창 2017, “얼을 찾아 나서다 : 천주교 부산교구 성당 순례기”, 예인문화사.
- 일신기독병원 1986, “일신기독병원 연보 . 1985-1990 = Il Sin Christian Hospital Annual Report”, 일신기독병원.
- 일신기독병원 1991, “일신기독병원 연보 . 1991 = Il Sin Christian Hospital Annual Report”, 일신기독병원.
- 일신기독병원 1992, “일신기독병원 연보 . 1992 = Il Sin Christian Hospital Annual Report”, 일신기독병원.
- 일신기독병원 1993,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3, 일신기독병원.
- 일신기독병원 1994,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4, 일신기독병원.
- 일신기독병원 1995,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5, 일신기독병원.
- 일신기독병원 1996,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6, 일신기독병원.
- 일신기독병원 1997,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7, 일신기독병원.
- 일신기독병원 1998, “일신기독병원 연보. 1998 = Il Sin christian hospital annual report”, 일신기독병원.
- 임시수도기념관 2014, “우암동 사람들의 공간과 삶”, 임시수도기념관.
- 정해석 1994, “[우리맛 기행/新 茲山魚譜 47] 훌륭한 맛의 구이 - 먹장어”, 샘터사.
- 정혜옥 1990, “서점가순례 - 부산지역 책문화의 터줏대감 '영광도서’”, 출판저널.
- 최옥 2009, “사계절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곳 물의 도시 ‘부산’”, Electric Power.
- 탁지일 2011, “부산지역 개신교 유적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 한국식품과학회 1981, “業界 및 研究所 탐방”, 식품과학과 산업.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015, “공공/의료부문 :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부산시민회관”, Web Korea Annual.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015, “공공/의료부문 :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부산시민회관”, Web Korea Annual.

한국주류산업협회 2013, “회원사 탐방기 -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선주조(주)”, 주류산업.  
허성희 2019, “(부산의) 해산물 맛집과 해양생물 이야기 : 해산물 요리의 성지, 부산 여행의 필독서”, 좋은땅.  
홍동식 2009, “재래시장, 추억 사이소 : 전통시장 이야기”, 부산관광컨벤션뷰로.  
홍동식 2009, “재래시장, 추억 사이소 : 전통시장 이야기”, 부산관광컨벤션뷰로.  
홍순권 2019, “부산지역 3.1운동 전개 양상과 특징”, 향도부산.

## - 논문

강대민 1997, “부산역사의 산책”, 한국학연구소.  
강연실, 「고흥지역 수산물 경매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2.  
김대영·강중호 2015, “우리나라-노르웨이 고등어산업의 유통 경쟁력 비교 연구”, 수산 해양교육연구.  
김동철 2011, “근대 부산의 교통 발달과 기록 - 기차와 전차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김상희 2001, “문예회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釜山문화회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민·이다은·지소영 2022, “새롭게 빛나는 장림포구의 물결”, 한국관광학회.  
김소연 2008, “부산학 담론으로 본 부산성(釜山性)의 건축”, 대한건축학회.  
김태근 2022, “도시재생사업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원도심 2개 지역(사하구 장림포구, 부산진)”, 신라대학교 산업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진 2019, “부산지역 여성독립운동사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희영 2011, “부산지역 철도역 소장 기록의 잔존양태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배윤지·김명수 2007, “부산지역 안창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송수경 2017, “유희공간의 문화예술공간 활용사례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쉬지아량·윤지영 2020, “산업유산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부산 F1963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안재철 2017, “근대 기계문명으로서 전차의 인식 변화와 도시 산책도구로서의 문화성- 문헌 및 미디어 분석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이동현·김경수·박동현·이갑정 2013, “(2013) 부산 꽃마을 개발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이병문 1996, “유치환의 시세계 연구 : 유치환의 저항시를 중심으로”, 論文集.  
이지선 2008, “부산지역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부산시민회관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영 2021,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부산·진해만요새의 구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찬민 2019, “복합문화공간의 브랜드 자산이 만족도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F1963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임남기·이태문 2017, “민간참여에 의한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 부산광역시 안창마을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전성현 2012, “일제시기 지역철도 연구 = 근대 식민도시 부산의 전철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역학관계”, 부산경남사학회.  
조성백 2019, “공공예술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방안 연구 : 부산지역 꽃마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윤철 2003, “청마 유치환 시 연구 : 순정과 영원의 노스텔지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영 2013, “유희 산업유산의 문화공간 재활용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철도 유산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기사

- 2003.08.20., 한겨레, 『피란민 애환 서린 영도다리에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비 우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0022876?sid=110>
- 2008.08.01., 노컷뉴스, 『부산 전통식품 "구포국수", 옛 명성 되찾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79745?c1=225&c2=229>
- 2008.09.23., 연합뉴스, 『부산 기덕도 외양포 주민 “여긴 아직 일제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278704?sid=102>
- 2010.03.30., 부산일보, 『[해양] 장상목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00315000126>
- 2010.06.23., 연합뉴스,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 들으며 힘 얻었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345870?sid=103>
- 2010.08.17., NEWSIS, 『부산에 전차모형 버스승강장 등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3391068?sid=102>
- 2011.07.20., 부산일보, 『[밀물 썰물] 부산 꿈장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10719000212>
- 2011.07.22., 부산일보, 『[김열규 교수의 '내 부산, 내 옛 동지'] ⑩ 탈선한 전차, 상가에 돌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10707000213>
- 2012.02.21., 국제신문, 『부산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7> 길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222.22006202110>
- 2012.05.25., 노컷뉴스, 『"아픔을 기억한다" 일제시대 고스란히 간직한 ‘가덕도 외양포’』  
<https://www.nocutnews.co.kr/news/4260034?c1=262&c2=265>
- 2012.06.07., NEWSIS, 『부산시, 산복도로 ‘꽃마을 문화예술 전시관’ 개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542492?sid=102>
- 2013.04.30., NEWSIS, 『동구 산복도로에 '유치환 우체통' 생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5119242?sid=102>
- 2013.05.20., 내일신문, 『청마 유치환 걷던 길, '시인의 길'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6/0002155882?sid=103>
- 2013.07.14., 연합뉴스, 『부산역 '영성한 공간활용'...이용객 불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370430?sid=102>
- 2014.07.21., 오마이뉴스, 『<굳세어라 금순아> 배경지엔 못 가는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518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5186)
- 2014.11.16., 국제신문, 『서구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산시 손잡고 '다시 활짝'』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1117.22010204306>
- 2015.02.24., 국제신문, 『부산 서구 꽃마을 도시공원으로 재탄생』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225.22008191936>
- 2015.03.17., 부산일보, 『'한 마을 두 구청' 안창마을 도시 재생 공모로 뚫혔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0316000039>
- 2015.04.24., 아주경제, 『국내 최대 부산역 광장·원도심의 화려한 재탄생』  
<https://www.ajunews.com/view/20150424113833286>
- 2015.07.24., 국제신문, 『부산 서구 꽃마을 구덕전통문화체험관...내달 착공해 내년 4월 개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0725.33001225621>
- 2015.11.25., 부산일보, 『오륙도 상륙기 "여기는 등대섬, 그레 부산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1126000042>

- 2016.01.21., 매일경제, 『짚불로 구운 쫄깃 곰장어…화끈한 부산 사나이의 맛』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01/60202/>
- 2016.02.18., 부산일보, 『창립 50주년 앞둔 영광도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0217000090>
- 2016.06.30., 부산일보, 『외양포(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제 기지, 역사체험공간으로 거듭난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0701000117>
- 2016.08.01., KNN, 『가덕도 외양포 일제 기지, 관광지 방안 검토』  
<http://www.knn.co.kr/101568>
- 2016.10.19., 부산일보, 『[속속들이 부산투어] 가덕도 근대문화유적 탐방』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61019000227>
- 2017.06.22., 부산일보, 『안창마을 푸른 눈 어머니 "기념관 감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621000357>
- 2017.08.15., 국제뉴스, 『부산 동구, 안창마을입구 '옹벽 벽화' 조성』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140>
- 2018.04.25., 국제신문, 『공동어시장 현대화 후에도 '손가락(수지상향식) 경매' 유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425.22018002944>
- 2018.05.03., 세계일보, 『옛 모습 간직한 가덕도 역사탐방에 안성맞춤』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502005083?OutUrl=naver>
- 2018.09.13., 경남도민신문, 『부산 'F1963 복합문화공간' 공간문화대상 최우수』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79#0BNb>
- 2018.10.04., 경남도민신문, 『부산 가덕도 이색 트리아트 포토존 설치』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319#0BNb>
- 2018.10.14.,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에 동굴 관광체험장·역사체험 투어길 만든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2104500051?input=1195m>
- 2019.01.14., 시사뉴스, 『[이화순의 아트&컬처]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를 잇는 'F1963'』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6658>
- 2019.01.19., 부산일보, 『[밀물썰물] 폐역사의 변신』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919063470158>
- 2019.01.27., 크리스천투데이, 『의료 선교의 산실, 부산 화명 일신기독병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9599>
- 2019.01.28., 부산일보, 『[3·1운동 100년, 미래로 100년] 4. 용감했던 소녀들의 외침』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2819245925444>
- 2019.01.31., 국제뉴스, 『부산보훈청, 2월 우리고장 현충시설 '부산진일신여학교3·1운동 시위지' 선정』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032>
- 2019.03.05., 김해뉴스, 『푸른바다 꿈꾸며 바위처럼 살다간 시인 유치환』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8>
- 2019.03.11., KNN,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 열려』  
<http://www.knn.co.kr/182900>
- 2019.03.31., 부산일보, 『안창마을 생활여건 개선에 국비 투입』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33119360251671>
- 2019.04.11., 부산일보, 『[밀물썰물] 동향성당』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1119001256958>
- 2019.04.23., 국제신문, 『"구포국수 살리자" 복구·의회가 나섰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424.22009010573>

- 2019.05.16., 국민일보, 『부산진일신여학교가 앞장선 태극기 물결, 경남 곳곳으로 번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8349&code=23111668&cp=vn>
- 2019.10.16., CIVICnews, 『부산 도심에 숨은 시골, 안창 호랭이 마을』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24>
- 2020.03.18., 부산제일경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외양포에 야생화단지 조성』  
<http://www.busanec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383>
- 2020.06.09., 노컷뉴스, 『부산 남구 소막사~동향성당 잇는 '우암동 마실길' 조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358029>
- 2020.06.20., 쿠키뉴스, 『6월이면 더 불러지는 '이별의 부산정거장'』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6210069>
- 2020.07.15., KBS, 『'부네치아' 장림포구에 야간 경관 조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97719&ref=A>
- 2020.07.15., 국제신문, 『'부네치아' 장림포구 테마거리 만든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716.33006005352>
- 2020.09.01., 매일경제, 『[LUXMEN Travel] 부산 장림포구, 영남 알프스 등 국내서 즐기는 이국적 여행지』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9/900670/>
- 2020.10.25., 범보신문, 『부산 영광도서, 신축건물 준공식 봉행』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32>
- 2020.12.28., 한국일보, 『형형색색... '부네치아' 장림포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418080005515?did=NA>
- 2021.01.14., 헤럴드경제, 『和 잔세스칸스 담은 '부네치아' 부산 장림포구의 정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4000341>
- 2021.01.22., KBS, 『가덕도 신공항 개발로 '일제 침략 흔적' 사라지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2835&ref=A>
- 2021.01.27., 부산일보, 『'4년 연속' 부산 금정구 회동수원지, '생태테마관광 육성공무사업' 선정』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2717092351571>
- 2021.02.22., 국제신문, 『16년간 방치된 부산진역사, 책이 있고 만남이 있는 시민의 마당으로 外』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222.99002190848>
- 2021.03.08., 부산일보, 『고난을 삶으로 승화시킨, 부산 마을 17곳 이야기』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0816363377432>
- 2021.03.09., 국제신문, 『가덕도 SOC 공사 올스톱... 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10309.33008002365>
- 2021.03.10., 코나스넷, 『부산 일신여학교 3·1만세운동 랜선 행사 11일 개최』  
<https://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56614>
- 2021.04.05., CNbNews, 『부산대, '안창마을 역사-영상 아카이브 구축 사업' 협약』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86052>
- 2021.04.19., 부산일보, 『회동수원지 둘레길 '한 바퀴'... 시험 스트레스 '씩'』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1917332258203>
- 2021.04.23., 농민신문, 『부산에 왔다면? 바다 위 1.62km 송도 케이블카... 연탄불로 구운 온천장 곰장어』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37051/view>
- 2021.05.13., 부산일보, 『'황성옛터' '이별의 부산정거장'...대중가요에는 격동기 근현대사 녹아 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51110505399812>
- 2021.06.10., 국제뉴스, 『부산 중구, '굳세어라 금순아Ⅱ' 열어』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243>

- 2021.10.07., 중앙일보, 『광안대교 와이어 공장, 지금 부산 핫플됐다…F1963의 매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963>
- 2021.10.16., 파이낸셜뉴스, 『[조용철의 놀면 뭐먹니?] 자갈치 곰장어구이 한쌈이면 피로가 ‘씩’』  
<https://www.fnnews.com/news/202110121010061454>
- 2021.10.21., 매일신문, 『[맛 향토음식의 산업화] 부산 곰장어 양념구이』  
<http://news.imaeil.com/page/view/2012111707102000910>
- 2021.10.27., 부산일보, 『일제강점기 부산의 군사요새화를 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2708473088656>
- 2021.10.28., 부산MBC, 『가을, 어디로 갈까? - 회동수원지 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278704?sid=102>
- 2021.11.17., 뉴스핌, 『부산중기청·부산시, 부산평화시장 관광바우처 시장 선정』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7001068>
- 2021.11.21., 부산일보, 『관광객 늘어나는 ‘부네치아’ 장림포구, 코로나 속 희망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12118594693675>
- 2021.11.26., 국제뉴스, 『회동수원지로 떠나는 특별한 소풍여행... ‘출발! 회동수원지 탐험대’ 성료』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060>
- 2021.11.30., New1뉴스, 『해수부, 12월 이달의 등대·무인도서에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오륙도' 선정』  
<https://www.news1.kr/articles/?4508176>
- 2021.12.09., 부산일보, 『[걷는 여자] 예쁜 이름과 달리 무시무시한 경사가...부산 꽃마을 오르기』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0816563637618>
- 2021.12.29., 연합뉴스, 『안창마을 역사·영상 아카이브 구축 사업, ‘안창마을 축제’ 개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2916411325693>
- 2022.01.07., 부산일보, 『서구 꽃마을 프로방스 핑크빛으로 화려하세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10716352507081>
- 2022.02.27., 국제신문, 『일제에 맞서 만세시위 호주인 3인, 독립유공자 됐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227.99099006528>
- 2022.03.10., 서울경제, 『"함께 미래로"...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선주조』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D4973B1>
- 2022.03.11., 노컷뉴스, 『부산 동구, 3월 만세운동 기념 행사 ‘뮤지컬 3월’ 개최』  
<https://www.nocutnews.co.kr/news/5721886>
- 2022.03.15., 국제신문, 『[박상현의 끼니] 구포국수와 자투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0316.22021003928>
- 2022.03.23., 헤럴드경제, 『대선주조, 부산영상위 지역상생형 콘텐츠 제작 사업 참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23000884>
- 2022.03.25., 영남일보, 『[주말&여행] 부산 사하구 장림포구... 곳곳이 포토존...알록달록 이국적 정취 '부산의 베네치아』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324010003454>
- 2022.03.28., 부산일보, 『부산 서구, 꽃마을 양묘장 준공식 개최 및 나무심기 활동... 제77회 식목일 기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2817381624491>
- 2022.04.22., 부산일보, 『부산 동구, '구.부산진역사' 문화가 있는 시민의 마당으로 탈바꿈』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42217543807439>
- 2022.05.10., 국제신문, 『부산 동네마다 아동 복합문화공간 추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511.22012002849>



- 2022.05.11., 국제신문, 『돌 떨어지는 가덕도 동굴... 낙석방지망 설치로 끝?』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511.99099003236>
- 2022.05.15., 국제신문, 『영광도서, 청소년과 토론·비평 행사 개최 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900&key=20220516.22021004422>
- 2022.06.06., 경향신문, 『전쟁과 부산역』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6060300035>
- 2022.06.14., CHIEF EXECUTIVE, 『[이승윤의 ‘공간은 경험이다’] 부산 여행의 新구심점, F1963』  
<https://www.chiefexe.com/news/ArticleView.asp?listId=MzIwOHx8bGltaxRfZmFsc2Ug>
- 2022.06.14., 헤럴드경제, 『[부산 여행③] 야경 핫템, 요트와 크루즈, F196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14000080>
- 2022.06.24., 이데일리, 『[여행] 부산의 '리우 예수상', 전쟁의 상흔까지 품어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32365000&mediaCodeNo=257&OutLnkChk=Y>
- 2022.06.29., 경향신문, 『(20) ‘이별의 부산정거장’ 서 피어난 ‘유라시아 플랫폼’의 꿈』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5200300015>
- 2022.07.12., 부산일보, 『지역 문화예술인에 무대를...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신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1117253735133>
- 2022.07.15., NEWSIS, 『부산역 대형 미디어월에서 디지털 콘텐츠 작품 전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4102&cID=10811&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4102&cID=10811&pID=10800)
- 2022.07.21., 에너지경제, 『부산시, 부산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명소로 활용』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721010003562>
- 2022.07.21., 중소기업신문, 『한국대중가요 최고 멜로디 곡 ‘이별의 부산정거장’』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366>
- 2022.07.22., 부산일보, 『내달 1일부터 일주일 간 ‘F1963 서머 뮤직 페스티벌’ 개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72216044486231>
- 2022.07.24., 울산매일UTV, 『대선주조, 적극적 메시지로 지역 문화계 활력 제공』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1815242823569>
- 2022.07.28., 공감신문, 『[김동현의 부산이야기8] 가덕도는 적과 마주한 최전방』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26032>
- 2022.08.11., 일요신문, 『대선주조 “해운대백사장·용두산공원 ‘EXPO 보물찾기’ 성지 부상”』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4353](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4353)
- 2022.08.18., 부산일보, 『대선주조, 지역 대학생들과 손잡고 선한 영향력 행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1815242823569>
- 2022.08.26., 부산제일경제, 『9월 문화 즐기기... “부산 동구 문화플랫폼서 어때요”』  
<http://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912>
- 2022.08.31., 국제뉴스, 『부산 북구, ‘구포국수 체험관’ 23일 개관』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337>
- 2022.08.31., 국제뉴스, 『부산 북구, 구포국수 체험으로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도와』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0449>
- 2022.09.02., 파이낸셜뉴스, 『부산문화회관·부산지방세무사회,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맞손』  
<https://www.fnnews.com/news/202209021014417761>
- 2022.09.12., 부산일보, 『“아시아 넘어 유럽으로”... 엑스포 염원 안고 유라시아 달린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1218442497302>
- 2022.09.13., 부산일보, 『장기려·이태석... ‘부산을 빛낸 인물’ 발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1312453800513>

2022.09.17., 공감신문, 『[김동현의 부산이야기22]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오륙도』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32413>

2022.09.20., 부산일보, 『해운대 집중에서 ‘슬세권’으로... 일상까지 스며든 미술 [新문화지리지 2022 부산 재발견] 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1919312449910>

2022.09.20., 서울경제TV, 『[7번 국토 이야기] 더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마지막 피란지 ‘부산’』

<https://www.sentv.co.kr/news/view/631081>

## - 홈페이지

F1963 홈페이지 <http://www.f1963.com/ko/>

구포국수 공식 홈페이지 <http://www.gupoonoodle.co.kr/>

국가철도공단 <https://www.kr.or.kr/main.do>

국내시장백과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51381&categoryId=51381>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디지털 아카이브 <https://www.iha.go.kr/service/index.nihc>

네이버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neplusone21&logNo=100053244663>

대선주조 홈페이지 <http://c1.co.kr/main/index.php#none>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main/main.do#home>

미래유산시민연대 홈페이지 <https://www.mire.kr/>

부산관광공사 <https://bto.or.kr>

부산광역시 해양정보 <https://www.busan.go.kr/ocean/obusan>

부산디지털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s://www.bscc.or.kr/main/>

부산시민회관 홈페이지 <https://www.bscc.or.kr/citizen/main/>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

부산자유시장 홈페이지 <http://busanjayu.com/>

부산진시장 홈페이지 <http://www.busanjinmarket.co.kr/>

부산평화시장 홈페이지 <http://www.bsph.kr/>

사하구청 홈페이지 <https://www.saha.go.kr/portal/contents.do?mId=0604050000>

영광도서 홈페이지 <https://www.ykbook.com/>

일신기독병원 홈페이지 <http://www.ilsin.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해양수산개발원(KMI) <https://www.kmi.re.kr/web/main/main.do?rbsIdx=1#none>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mof>

## 제4차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2022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용역

발행일 : 2022년 09월 30일

발행처 : 부산광역시  
051-120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www.busan.go.kr](http://www.busan.go.kr)

연구기관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051-200-6502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www.donga.ac.kr](http://www.donga.ac.kr)

발행번호 : 52-6260000-000612-01

